



this is what tunikut wrote for
you guys!

tunikut

소개글

목차

1	Cut Chemist [The Audience's Listening] (2006, Warner Bros.)	6
2	Antonio Carlos Jobim [Wave] (1967, A&M)	8
3	Helium [The Magic City] (1997, Matador)	9
4	Raekwon [Only Built 4 Cuban Linx... Pt. II] (2009, Ice H2O)	11
5	Armand Van Helden [Ghettoblaster] (2007, Southern Fried/Ultra)	15
6	Wynton Marsalis [From The Plantation To The Penitentiary] (2007)	18
7	The Future Sound Of London [Lifeforms] (1994, Astralwerks/Virgin)	21
8	Hieroglyphics [3rd Eye Vision] (1998, Hiero Imperium)	23
9	Diamond And The Psychotic Neurotics [Stunts, Blunts, & Hip Hop] (1992)	25
10	Flipper's Guitar [Doctor Head's World Tower] (1991, Universal)	28
11	Darren Price [Under The Flightpath] (1997, NovaMute)	30
12	Frankie Knuckles [Beyond The Mix] (1991, Virgin)	32
13	Guru' s Jazzmatazz [Jazzmatazz Volume 1] (1993, Chrysalis)	34
14	John Coltrane [A Love Supreme] (1965, Impulse!)	36
15	Showbiz & A.G. [Runaway Slave] (1992, London)	38
16	Eminem [Relapse: Refill] (2009, Aftermath)	41
17	Wale [Attention Deficit] (2009, Allido/Interscope)	44
18	J Dilla [Donuts] (2006, Stones Throw)	48
19	Iida Katsuaki/Ryu Hankil [Selected Poems With Clockworks] (2009)	51
20	Slum Village의 환타스틱한 앨범들	54
21	Shanks & Bigfoot [Swings & Roundabouts] (2000, Zomba)	58
22	Chet Baker [Chet Baker Sings] (1956, Pacific Jazz)	60
23	DJ Krush [Strictly Turntablized] (1994, Mo'Wax)	62
24	The Roots [How I Got Over] (2010, Def Jam)	65
25	Liz Phair [Funstyle] (2010, lizphair.com)	67

26	Eminem [Recovery] (2010, Aftermath)	71
27	Nas & Damian Marley [Distant Relatives] (2010, Sony/Island Def Jam)	74
28	B.o.B [B.o.B Presents: The Adventures Of Bobby Ray] (2010, Atlantic)	77
29	Liz Phair의 Exile In Guyville 두번째 이야기	80
30	Liz Phair의 Exile In Guyville 첫번째 이야기	83
31	DJ Spinna [Here To There] (2002, BBE)	86
32	Mary Timony Band [The Shapes We Make] (2007, Kill Rock Stars)	89
33	Barry White [Stone Gon'] (1973, PolyGram/Mercury)	91
34	B.o.B [No Genre] (2010, BoBAtl.com)	94
35	Oscar Peterson [Perfect Peterson: The Best Of The Pablo And Telarc ..]	97
36	Drake [Thank Me Later] (2010, Cash Money)	101
37	Derrick May [Innovator] (1998, Transmat/Fragile)	104
38	Celph Titled & Buckwild [Nineteen Ninety Now] (2010, No Sleep)	107
39	The Charlatans [Between 10th And 11th] (1992, Beggars Banquet)	111
40	Buckwild [Diggin' In The Crates – Rare Studio Masters: 1993–1997]	114
41	Public Enemy [It Takes A Nation Of Millions To Hold Us Back] (1988)	118
42	Raekwon [Shaolin Vs. Wu-Tang] (2011, Ice H2O/EMI)	121
43	Madonna [Erotica] (1992, Sire)	124
44	Macgregor [Beat Camp Tactics] (2002, Macgregor)	126
45	Ghostface Killah [Apollo Kids] (2010, Def Jam)	128
46	J Dilla [Ruff Draft] (2007, Stones Throw)	131
47	Cyclops 4000/Sir Menelik [The Einstein Rosen Bridge] (2005, Sun Large)	135
48	DJ Spooky That Subliminal Kid [Riddim Warfare] (1998, Outpost)	138
49	Dessa [A Badly Broken Code] (2010, Doomtree)	141
50	UCB [The Blend] (2010, ucbmusic.com)	146

01. Motivational Speaker
02. (My 1st) Big Break
03. The Lift
04. The Garden
05. Spat
06. What's The Attitude featuring Hymnal
07. Metrorail Thru Space
08. Storm featuring Edan & Mr. Lif
09. 2266 Cambridge featuring Thes One
10. Spoon
11. A Peak in Time
12. The Audience Is Listening Theme Song



먼저 컷 케미스트라는 인물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힙합팬이라면 자신의 웨이버릿 비트메이커 목록에 빠지지 않을 인물들 중 당연히 한 자리를 차지하는 인물일 겁니다. 컷 케미스트가 누구입니까? 바로 LA 출신 언더그라운드 힙합 그룹 Jurassic 5의 전 멤버이자 DJ Numark과 함께 팀의 메인 프로듀서로 있으면서 올드스쿨의 흥겨움에 기반을 둔 재기발랄한 사운드를 주조해낸 인물입니다. 또한 DJ Shadow와 함께 Double Dee & Steinski의 그 유명한 lesson 시리즈에 대해 깊은 리스펙을 하는 바이닐 정키이자 디제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DJ Shadow와 함께 투어를 돌면서 고전 힙크/소울 레코드들을 열심히 돌리는 레코드 디거이기도 하구요. 또 Ozomatli라는 라틴/힙크 밴드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얼마전엔 국내에도 두 차례 내한 공연을 한 전적도 있으면서 (전 보진 못했지만) 공연 중 관객들에게 인터뷰를 시도하고 그 인터뷰들을 샘플링해 즉석에서 플레이해보이는 오쥬 지릴만한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얼마전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유희열씨가 윤종신씨를 가리켜 "음악왕"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쯤 되면 컷 케미스트를 두고 "힙합왕"이라는 표현을 써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은 없겠죠?

자, 그런 그가 자신의 친정과 시집인 Jurassic 5와 Ozomatli를 모두 떠나 본격적인 솔로 활동을 시작하며 당당하게 발표한 솔로 데뷔 앨범이 바로 본작입니다. 일단 앨범을 들어보기 전에 대예측 예상을 좀 해보자구요. 그래야 재밌자나요? 트랙 리스트들을 보니 휘쳐링이 간간히 있는 걸 보아하니 일단은 인스트루멘탈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마 컷 케미스트가 랩을 할리는 없잖습니까.) 오호라, 인스트루멘탈.. 일단 기분 좋지 않습니까? (줄라 프로듀서 앨범인데 전곡 다 휘쳐링으로 가득차 있는 걸 보면 왠지 주객이 전도된 듯한 느낌을 같은 건 저뿐만인가요?) 자 다음.. 그렇다면 사운드는 어떨까요? 그의 여태까지의 커리어를 놓고 볼 때 왠지 흥겨운 올드스쿨적인 감성에 소울과 라틴과 힙크가 뒤섞인, 뭔가 굉장히 황기하면서 흑인 냄새 물씬 나는 브레이크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대충 이런 정도의 배경을 깔고 이제 씨디를 돌려봅시다. ㅎㅎㅎ 첫 곡 인트로부터 당신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갑니다. 일단 약동하는 업비트와 클래식록에서 따온 듯한, 혹은 오

리엔탈한 샘플링들의등장이 잠시나마 청자를 당혹스럽게 할 겁니다. 이어지는 스윙 리듬과 빅비트의 향연.. 푸하.. 어떤 곡에선 마치 Fatboy Slim과 Chemical Brothers가 연상되기도 하고 Transglobal Underground 같은 인디안스런 트라이벌 브레이크비트나 RJD2의 브레이크비트에서 느껴지는 록큰롤적 느낌까지 드네요? Edan, Hymnal 등의 엠씨진들이 간간히 양념처럼 들려주는 랩도 매우 맛깔스럽습니다. 정리하자면.. "힙합왕"이었던 컷 케미스트가 들려주는 그만의 노하우가 담긴 스윙? 혹은 컷 케미스트 스타일의 빅비트 앨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이 분. 전 이런 게 좋습니다. 남들 다 이거일 거라라고 예상했던 걸 보기 좋게 뒤통수치는 시도들 말이죠.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한 것 아니겠습니까?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51529369>

01. Wave
02. The Red Blouse
03. Look To The Sky
04. Batidinha
05. Triste
06. Mojave
07. Dialogo
08. Lamento
09. Antigua
10. Captain Bacardi



중앙 정서의 기분에서 당신은 지금 야외에 나와있다. 당신은 이제 막 친구들과 물놀이를 끝내고 시원하게 샤워하고 들녘에 나온 상태다. 시각은 저녁 9시.. 봄바람이 산들산들 머리를 넘겨주고 콧등이 시원해진다. 남색 하늘엔 하나둘씩 별이 반짝인다. 이 때 당신의 귀에서 mr. jobim 자신의 목소리와 함께 "lamento"가 울려퍼진다. 마음이 서서히 편안해지면서 마치 자장가와 같이 서서히 꿈나라로 당신을 안내할 것이다. 꿈 속의 당신은 초록색 석양이 지는 바닷가에 서있다. 바다는 썰물이 빠져나간 상태. 초록색 하늘과 함께 넓다란 갯벌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저 멀리.. 외로운 기린 한마리가 갯벌 위를 뛰어다닌다. 지금 당신의 bgm은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 어레인지하는 아름다운 선율의 "wave"다. 이 곳에서 당신이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적어도 a girl from ipanema는 아닐 것이다. 이 공간에서의 당신은 누굴 만날 필요가 없다. 그저 저 멀리 홀로 뛰어다니는 기린에게 다가가 그 등 위로 올라탈 수만 있다면 그만이다.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그 사람은 기린 위에 올라탄 당신의 뒤에서 자연스럽게 당신의 허리를 감싸 앉을 것이니까.

라운지 뮤직부터 시부야 케이까지 당신이 fashionable한 것에 passionable하다면 그 모든 것에 영향을 준 antonio carlos jobim의 67년작 "wave"를 놓치면 안될 것이다. 그래,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다. 단, 반드시 저녁에 듣자.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상태에서 이걸 듣는다면 너무나도 편안한 기분에 당신을 괜시리 depressive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48929822>

01. Vibrations
02. Leon's Space Song
03. Ocean Of Wine
04. Aging Astronauts
05. Medieval People
06. Lady Of The Fire
07. Lullaby Of The Moths
08. Revolution Of Hearts, Pt 1 & 2
09. Ancient Cryme
10. Cosmic Rays
11. Devil's Tear
12. Clementine
13. Blue Rain Soda
14. Walk Away



사실 모던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책임한 단어다. 뭐에 대해 모던하다는 건가? 말그대로 따지자면 소위 클래식록에 대한 것인가? 아아, 물론 나도 안다. 90년대 중후반 몰아닥친 얼터너티브 물결.. 자, 그럼 정리하자. 내 생각으로 흔히 모던록으로 분류되는 음악들은 크게 두 가지 물결을 타고 나타났다. 하나는 본조비로 대표되던 메인스트림록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록이고 또 하나는 그 이전부터 있어오던 '팝'의 영향을 받은, 더 큐어나 스미스로 대표되던 영국씬의 음악들 이렇게 두 가지 음악을 가리켜 우리는 '모던록'이라는 표현을 즐겨왔다. 그렇게 놓고 보면 '모던록'이라는 표현은 잘못됐다. 왜냐, 말로만 따지면 마치 '클래식록'에 대한 반대 개념처럼 들리기 때문인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여러 '모던록' 밴드들의 음악은 대부분 '클래식록'에 대한 지대한 영향 하에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들 대부분은 the who, jefferson airplane, doors, jimi hendrix, velvet underground, beach boys, beatles, rolling stones를 사랑했고 그들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내 말이 틀린가? (마치 힙합씬에서 진보적인 프로듀서로 불리우는 madlib의 음악이 대부분 매우 매우 고전적인 소울과 재즈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자.) 자 여기 그렇게 '클래식록'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활동하던 한 팀이 있다. 바로 헬리엄 (helium)이다.

헬리엄은 지금은 해체되고 팀의 지존이었던 '완소' 마리 티모니양만 솔로 커리어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 같은 matador 소속 밴드들이 노이즈와 로우 파이 정신에 입각한 기타팝을 들려줬다면 헬리엄의 음악은 그 보다 더 몽롱하고 더더욱 프로그레시브하다. 기타와 건반을 아우르는 '완소' mary timony의 음악적 영감을 바탕으로 70년대 끈적끈적한 사이키델릭록과 신디사이저의 drone 사운드, 트럼펫이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의 차용으로 더더욱 풍성하고 드라마틱하며 프로그레시브한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 여기에 저음 모노

톤의 읊조리는 듯한 '완소' mary timony의 보컬은 흡사 전성기 시절의 patti smith를 연상케 한다. 그렇다고 무슨 슈게이징이나 spiritualized식의 'strange space floating rock'은 아니고 적당히 pop flava를 버무려 아주 이쁘게 만들어놨다는 거다. 이들의 음악은 뭐랄까.. 그냥 딱 '중양'이다. 특별히 밝고 귀엽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딕 분위기 물씬나게 음울하지도 않은.. 그냥 딱 중간 정도의 음악! 본작은 이들의 두번째 정규작이자 마지막 앨범으로 앞서 언급했던 사운드로 앨범 전체를 치장하고 있다. 전곡이 버릴 게 없지만 특히 듣는 순간 귀에 짝 달라붙는 "leon's space song"이나 연주곡 "medieval people" 등은 힙합이나 댄스 음악을 좋아하는 당신도 반드시 들어봐야 할 필청 트랙이다.

p.s. 2001년 스티븐 말크머스와 함께 내한하여 공연도 한 '완소' 마리 티모니양을 못봤다는 게 평생 한이 될 듯.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48295194>

“Ayyo, Storytelling Rap Magellan Is Right Back, Straight Up For Real Son, Word Up!”

01. Return of the North Star (Feat. Papu Wu)
02. House of Flying Daggers (Feat. Inspectah Deck, Ghostface Killah, Method Man)
03. Sonny' s Missing
04. Pyrex Vision
05. Cold Outside (Feat. Ghostface Killah)
06. Black Mozart (Feat. RZA, Inspectah Deck)
07. Gihad
08. New Wu (Feat. Ghostface Killah, Method Man)
09. Penitentiary (Feat. Ghostface Killah)
10. Baggin Crack
11. Surgical Gloves
12. Broken Safety (Feat. Jadakiss, Styles P)
13. Canal Street
14. Ason Jones
15. Have Mercy (Feat. Beanie Sigel, Blue Raspberry)
16. 10 Bricks (Feat. Cappadonna, Ghostface Killah)
17. Fat lady Sings
18. Catalina (Feat. Lyfe Jennings)
19. We Will Rob You (Feat. Slick Rick, Masta Killa, GZA)
20. About Me
21. Mean Streets (Feat. Inspectah Deck, Ghostface Killah)
22. Kiss The Ring (Feat. Inspectah Deck, Masta Killa)



오늘은 우탱 애길 좀 하렵니다. 우탱클랜. 하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어떠한 것들이 떠오르나요? 획! 휘릭! 쳇! 거리는 칼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RZA가 찍어내는 둔탁한 비트에 다 잡아죽이겠다는 호전적인 가사들. 그래요, 그렇죠. 잠시 동안 우리, 눈을 감고 90년대 중반의 추억을 떠올려 봅시다. '.....' 자, 이제 눈을 뜨고 현실로 돌아와 보죠. 그리고 트렌디한 힙합 음악들을 들어봅시다. 클럽튠, 오토튠, 더리사우스, 웅장한 사운드와 쪼개지는 비트와 옛가락 쑥쑥 뽑아내듯 좌양좌양거리는 전자음, 여자, 섹스, 돈... 어떠세요? 물론 요새 음악도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의미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만, 쳇!쳇!쳇! 거리는 칼소리에 RZA의 둔탁 비트에 Meth와 Rae와 Ghos와 INS의 다 죽여버리겠다 덤벼라 가사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그 날이 올까요? 예

예.. 저를 포함한 모든 우탱팬들이 손모아 기다렸던 순간일 겁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그 날이 왔습니다. Raekwon의 새 앨범 "Only Built 4 Cuban Linx... Pt. II"에서 우리는 드디어 완벽한 기량의 그 시절의 우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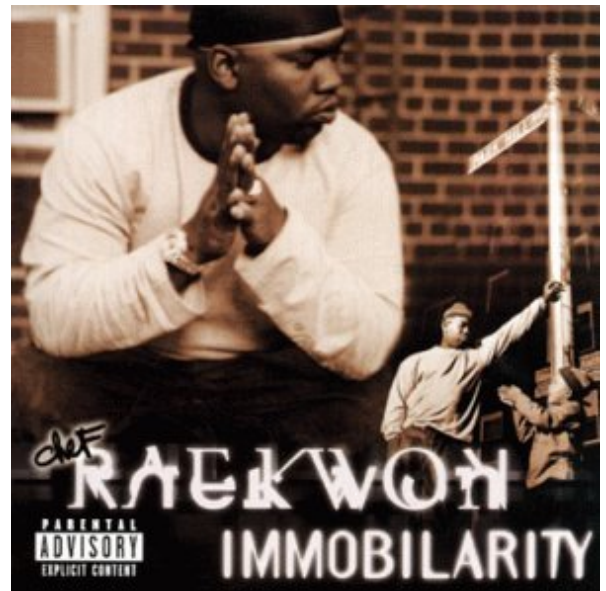
그 동안의 이야기들

우탱 클랜의 데뷔 앨범 "Enter The Wu-Tang (36 Chambers)"는 그 아무도 토를 달 수 없는 완벽한 명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쏟아져 나온 우탱 솔로 앨범들, Tical-Re Truman To The 36 Chambers: The Dirty Version-Liquid Swords-Only Built 4 Cuban Linx...-Ironman까지.. 역시나 우탱의 데뷔작 못지 않은 걸작들이었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많은 팬들로부터 "36 Chambers"와 거의 동급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작품이 바로 Rae의 "Only Built 4 Cuban Linx..."였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래퀸의 저 앨범은 워낙 크리미널한 요소를 극단화시켜 상당히 toxic한 분위기를 냈기 때문에 다른 솔로작들에 비해 그다지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같은 경우엔 오리지널 우탱의 냄새가 물씬 풍겼던 "Liquid Swords"나 "Ironman"이 더욱 좋았어요.) 자 암튼, 래퀸의 데뷔작은 과연 어떤 앨범이었길래 그렇게 난리도 아닌 찬사를 얻었을까요. 바로 테마-이미지-사운드-프로듀싱-랩-리릭-게스트 등 모든 면이 합위일체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하나 토를 달기 어려울 정도의 완성도였죠. 일단 앨범 전체적으로 RZA 전형의 우탱 비트 안에서 Rae의 laidback한 라이밍과 Ghost의 hyperactive한 라이밍이 균형감 있는 대조를 이루며 온갖 '크리미놀로지'에 관련된 에피소드들을 굉장히 toxic하게 뽐내뒀었습니다. (너무 강력해서 처음 들으면 토나올 수도 있어요) 특히 다른 우탱 멤버들에 비해 lyricis적인 면모를 보이는 Rae의 구체적인 범죄 현장을 묘사하는 스토리텔링 가사들-"Spot Rusherz" 같은 곡들-은 정말 많은 청자들에게 그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기대를 품은채 두번째 솔로작인 "Immobilarity"가 나왔죠. 근데 이를 어썩쓰까요... 많은 우탱팬들은 이 앨범 이후로 래퀸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온리빌트포큐반링스"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일단 Ghos의 참여가 없었고 RZA의 비트가 없었다는 게 컸습니다. 이 앨범은 래퀸이 좀더 자신만의 솔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작품이었죠. American Cream Team이라는, 자신을 주축으로 한 모임을 만들었고 전반적으로 그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작업이었으며 내용 역시 크리미널한 측면이 아닌, 자전적이거나 가족애, 사랑, 심지어는 교훈적(!)인 내용들까지 담고 있었으니까요. 사실 래퀸이라는 뮤지션의 커리어적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결과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앨범도 제가 듣기엔 꽤 좋았어요. 파워감성트랙이었던 "Jury"부터 "Raw"나 "Heart To Heart" 같은 진짜 개작살 그루브 비트들도 있었으니까요. 단지! '우탱'이 아니었고 '고스트'가 아니었고 '르자'가 아니었고 '크리미놀로지'가 아니었고

빌어먹을 '온리빌트포큐반링스'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팬들의 관심이 끊겨져갔고 이후 세번째 솔로작 "The Lex Diamond Story"에 이르러서는 완전 뜸보잡 취급 당하는 굴욕을 겪게 됩니다. 아니! 대체! 왜! 이는 래퀸 자신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은 나에게



크리미놀로지를 그토록 바라는 걸까' 그리고 그 오랜 고민의 결과, 결국 많은 우탱 팬들에게 다시금 그놈의 빌어먹을 "온리빌트포큐 반링스 파트 투!"을 들고 나오게 됩니다.

"Tell a friend, it's that symbol again, that W, coming through!"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찬찬히 풀어나갑시다.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일단, 이 앨범은 래권의 데뷔작 이후로 두번째로 다시금 RZA와 작업을 했고 Ghos가 대다수의 트랙에서 함께 합니다. 또한 앨범의 기획부터 총지휘를 RZA와 Busta Rhymes가 도맡았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진만 해도 J Dilla, Pete Rock, Dr. Dre, RZA, Marley Marl, Alchemist, Mathematics, Erick Sermon, Necro 등 화려하기 그지 없으며, U-God을 제외한 모든 오리지널 우탱 멤버 (Cappadonna 포함)들이 휘저렁한 미친 앨범입니다. 그리고 이 앨범은 빌보트 200 앨범 차트 4위로 데뷔했고 힙합/알앤비 차트 2위에 올랐습니다. (왜 2위인지는 아실 겁니다. 바로 블루 프린트3 때문이죠.)

래권의 솔로 스튜디오 네번째 작품으로서 본작이 지니는 의미는 '우탱클랜'의 측면과 '래퀸'의 측면에서 크게 따져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탱의 측면에서 보자면.. 서두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2010년을 바라다보는 현시점에서 90년대 중반의 향수를 자아내게 만드는 바로 '그' 사운드 그대로 우리에게 선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저 '옛날것의 재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으로 revisited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RZA는 정말 천재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첫 싱글이자 포문을 여는 "House of Flying Daggers"나 "Black Mozart", 그리고 "New Wu"와 같은 트랙들일텐데요, 곡들은 RZA의 오리지널 우탱 둔탁 비트와 더불어 Rae, INS, Meth, Ghost 등이 번갈아 가며 한 트랙에서 특유의 호전적, 전투적 가사들을 내뿜기 때문에 옛날 생각 많이 나시게 할 겁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걸 다시 들을 수 있다는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RZA는 단순히 blunt한 비트들로 끝나기 보다는 최근 그의 프로듀싱 곡들에서 많이 들려줬던 오컬트적이고 다소 레이드백한 느낌을 적절히 가미했는데, "Fat Lady Sings"와 같은 곡이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앨범의 백미 중 하나인 "Black Mozart"는 RZA의 이 두 요소(둔탁 비트 with 레이드백)를 묘하게 섞어놓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래퀸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솔직히 많은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래퀸은 앨범 발매 전 인터뷰에서 "돈이 필요했던 건 아니다. 그저 데뷔작 이후 다시한번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 이번 앨범에서 내가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프로듀싱이다"라고 했as피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팬들에게 다시금 데뷔작과 같은 모습을 들려주려는 뮤지션의 고민이 여실히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확한 듯 하면서도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설렝설렝 이어가는 플로우와 라이밍이 특징인 그의 랩이야 이미 우탱 멤버들 중에서도 최고의 기량 - Ghos의 앵앵거리는 느낌이나 Meth의 자로 켜 듯한 정확한 다음절 라이밍에 비해 - 을 보여주(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고 가사면에서도 데뷔작의 '범죄 스토리텔링'이 더더욱 구체화되고 잔인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과 살인의 과정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해낸 "Sonny's Missing", 마약 제조 과정을 묘사한 "Pyrex Vision", 불경스러운 강간의 과정을 묘사한 "Gihad", 그밖에 "Fat Lady Sings"나 "Surgical Gloves" 등에서의 스토리텔링은 왜 그를 두고 우탱 최고의 lyricist라는 평을 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한편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Ason Jones"에서 들려주는 ODB에 대한 정말 아낌없는 찬사와 사랑은 눈물 겨울 정도입니다. (ODB 아이큐가 120이었던대요) 특히 이 곡에서 후반부에 인용된 ODB가 제법 진지하게 하는 말들을 듣고 있으면 그에 대한 인식이 꽤 달라짐을 느끼게 됩니다. "난 항상 진실성을 유지하려고 했다. 내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렇다면 래퀸이 가장 주안점을 뒀다는 프로듀싱 얘길 좀 해봅시다. RZA의 프로듀싱에 대해선 위에 언급을 했고 많은 이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J Dilla, Pete Rock, Marley Marl, 그리고 Dr. Dre였을 겁니다. 'The late' J Dilla는 앨범의 오프닝 킬러 싱글인 "House of Flying Daggers"와 "Ason Jones", 그리고 "10 Bricks"를 프로듀스했는데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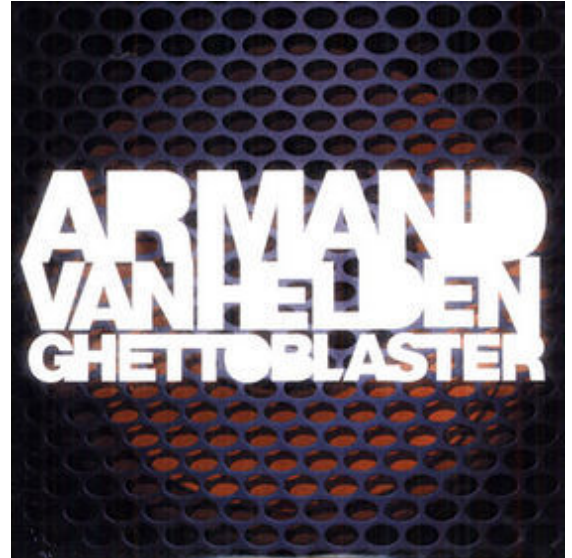
초기의 깔쌈한 베이스라인 사운드보다는 "Donuts" 앨범 시기의 다소 '더리'하고 소울풀한 느낌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한편 Pete Rock은 살벌한 가사의 "Sonny's Missing"에 어울리는 삼엄한 분위기를 내주는데 스네어 소리가 평소의 그의 스타일보다는 좀 약한 듯 하고 그만의 장기인 재지한 느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 그닥 그의 네임 밸류 만큼의 곡은 못된 듯 하고, Marley Marl 역시 짧은 스킷성 트랙인 "Pyrex Vision"에서 기타음을 이용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금방 지나가버려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한편 Dr. Dre는 "Catalina"와 "About Me"에서 특유의 피아노 루핑을 이용한 트렌디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글썄요.. 제가 기대를 많이 한건지 취향에 안맞는 건지 그다지 재미있게 들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Alchemis는 특유의 사이키델릭한(심지어는 록적인) 느낌을 살려 "Surgical Gloves"의 스토리텔링에 일조하고 있구요, 불경스러움의 대명사 Necro는 아니나 다름없게 역설적으로 교회성가음을 차용해서 "Gihad"의 불경스런 가사들을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괄목할 만한 점은 오히려 래퀸이 설립한 Icewater Productions나 BT, Scram Jones 등의 비교적 덜 유명한 프로듀서들의 곡들이 더욱 우탱 초기 스타일 분위기를 많이 내주면서 귀에 잘 박힌다는 점입니다. 특히 Scram Jones가 프로듀싱한 엔딩곡 "Kiss The Ring"은 Elton John의 "Goodbye Yellow Brick Road"의 메인 멜로디를 시종일관 루핑시키며 뭔가 '새롭게 도약하는 우탱의 희망어린 모습'을 보여주는 듯한 멋진 트랙입니다. 하지만 RZA가 전체를 도맡았던 데뷔작에 비해 워낙 다양한 프로듀서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곡들이라고 하더라도 앨범의 테마나 컨셉의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통일감이 좀 떨어진다는 점이 아무래도 데뷔작의 한계를 넘어서기엔 좀 부족하다는 느낌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끝맺으며

글이 좀 예상과 달리 길어진 듯 하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우탱에 대한 향수를 많이 느끼는 편이라 이 앨범이 너무 반가워서 그랬습니다. 암튼, 어느 해외 사이트의 리뷰어가 이 앨범의 리뷰 끝에 한 말이 멋진 것 같아서 저도 그 말을 인용하며 끝을 맺겠습니다. '이제 래퀸은 모든 마음의 짐을 덜었다. 이제 잠시 쉬고 우리도 앞으로는 더 이상 그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그가 추구하는 아티스트적 결과물들을 지켜보자. 수고 많으셨고 멋졌어요, Rae!'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71823174>

01. Go Crazy! featuring Majida
02. Touch Your Toes featuring Fat Joe & BL
03. I Want Your Soul
04. NYC Beat
05. Playing House featuring Kudu
06. This Ain't Hollywood featuring Will 'Tha Wiz' Lemay
07. Still In Love featuring Karmen
08. Playmate featuring Roxy Cottontail & Lacole 'Tigga' Campbell
09. Je T'aime featuring Nicole Roux
10. To Be A Freak featuring George Llane
11. All Nite featuring La Roka
12. A Track Called Jack



음 먼저..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전통적으로 가장 좋아한다는 3대 뮤지션들 (1. Liz Phair, 2. DJ Krush, 3. Armand van Helden) 중 한명인 알만드 반 헬덴 (Armand van Helden)에 대한 이야기와 앨범 한 장을 들고 나와봤습니다. 요새는 댄스 뮤직/하우스씬에서 'Dutch invasion'과 트랜스의 환각 작용에 가려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고 있지는 못하십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하우스 음악에 있어 하나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을 만한 인물임에는 틀림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요!

알만드 반 헬덴의 인생 역정

알만드 반 헬덴은 미국 보스턴 출신 칠공년생으로 네덜란드-인도계의 아버지와 프랑스-레바논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미공군 출신이어서 주로 미국보다는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 등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넓은 세계의 견문을 쌓으셨죠. 13살 때 드럼 머신을 하나 장만해서 15살 때부터 주로 힙합 위주로 디제잉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1988년 그러니까 18살 되던 해 고향인 보스턴으로 귀국하여 보스턴 대학교에 진학,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 평론을 하다가 끓어오르는 DJ의 피를 막을 수 없어 이 직업을 때려치우고 보스턴의 대표 클럽인 The Loft를 근거지로 DJ와 프로듀서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1992년에 Nervous Records에서 그의 데뷔 싱글인 Deep Creed 이름으로 "Stay On My Mind"를 발표하고 같은 해 말에 저 유명한 Strictly Rhythm에서의 최초 싱글인 Sultans of Swing 이름으로 "Move It To The Left"를 발매합니다. 그러다가 1994년에 그의 본명을 걸고 Strictly Rhythm에서 발표한 싱글인 "Witch Doktor"가 전 세계적으로 댄스 매니아들에게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

을 슬슬 알리기 시작하게 돼요. 그의 이름이 알려지자 그는 이때부터 주로 리믹스 활동에 전념하는데 당시 Jimmy Somerville, Deee-Lite, Deep Forest, New Order, Faithless 등의 곡들을 리믹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6년에 Tori Amos의 "Professional Widow"를 정말이지 맛깔나는 베이스라인 뽕키 그루브로 리믹스하여 UK 차트 1위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리스너인 저한테까지 그 이름을 너털리 알리게 되는 대형 사고를 치십니다. 거의 이 곡 하나로 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애틀 댄스 뮤직으로 성공하려면 아무리 미국 출신이라도 유럽썬에서 먹혀야 합니다. (미국은 힙합/알앤비죠) 이후로 Janet Jackson, Rolling Stones, Britney Spears, Puff Daddy, Daft Punk, CJ Bolland, Sneaker Pimps 등 90년대 중후반을 장악하던 수많은 슈퍼스타들로부터 "내 곡들도 리믹스해주세요"라는 러브콜을 받으면서 '가장 잘나가는 리믹서' 위치에 오릅니다. (그의 리믹스 곡들은 때론 그의 오리지널 곡들보다도 유명해서 리믹스 곡들만 모아 발표된 컴필레이션 앨범만도 2장입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드디어 초절정-뽕슬그루브-하우스 넘버 "U Don't Know Me"가 발표되면서 전세계 하우스팬들을 감동의 도가니탕으로 몰고 가며 빌보드 댄스 뮤직 차트 2위, UK 댄스 차트 1위, 호주와 캐나다 팝 차트 탑 20위 안에 링크되며, 같은 미국썬의 Masters At Work, Erick Morillo, Roger Sanchez, Todd Terry, Deep Dish 등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최고의 하우스 디제이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댄스 뮤직썬에서 상대적으로 유럽권에 비해 약세였던 '미국썬'을 부흥시키며 하우스 본고장으로서의 자존심을 획득하게 됩니다. 댄스 뮤직썬의 "美流"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애틀 이후에도 여러장의 스튜디오 앨범들을 통해 뽕키하고 재기발랄한 하우스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다녀간 적이 있으시죠.) 여타 하우스 디제이들과 달리 특히 힙합에 대한 애정과 조예가 깊으며 ("Sampleslaya: Enter The Meatmarket"이라는 힙합 앨범도 낸 바 있으시죠), Tekitha, Mr. Len, Common, Fat Joe 등과 같은 힙합 뮤지션들을 자신의 앨범에 꾸준히 취척령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70년대 록큰롤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여 2005년에는 "Nympho"라는 광기어린 사이키델릭 록/댄스 하이브리드 앨범을 발표하여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솔로 앨범으로서는 일곱번째 작품이자 가장 최근작인 "Ghetto Blaster"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GhettoBlaster" - 흑인 음악으로의 회귀

"On this album I was going for a retro throwback 1985-89 soul up-tempo urban type sound. Chicago meets Miami meets New York City kind of thing. Or to put it differently, house meets freestyle meets hip-house meets club meets new wave."

앞서 언급한 논란성 짙었던 사이코 광기 앨범 "Nympho" 이후 2년 만의 신작이자 정규 앨범으로는 통산 7집입니다. 위는 이 앨범을 두고 알만드 본인이 인터뷰에서 언급한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마도 저를 비롯한 모든 반 헬덴 팬들은 이 앨범을 놓고 굉장한 만족감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allmusic 리뷰어도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닌데) 오버해서 이 앨범에다가 별 4개 반을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나 댄스 뮤직 포털 사이트들을 돌아다녀봐도 이 앨범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ㅋㅋㅋ 저 역시 이걸 듣고 난리도 아니게 좋아서 방방 뛰었지만 아마도 이런 호들갑스런 반응들을 보고 알만드 본인은 'ㅎ 단순한 병신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군요. 좀 뼈뺏하게 생각하면 제가 알만드라도 저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에요. 지난 앨범 "Nympho"를 두고 한 네티즌이 '알만드 휴가갔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확실히 지난 앨범은 '알만드 반 헬덴'이라는 이름에서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사운드를 들려줬고 (전 이 앨범을 한번 듣고 약 3년간 씨디장에 꽂아두고 한번도 빼지 않았습디다. 심지어는 '다시 떠올리거조차 싫은 역겨운 앨범'이라고까지 생각했을 정도니까요. 물론 최근 다시 꺼내 듣고 제 개인 블로그에 재평가를 해놓긴 했습니다.) 수많은 그의 팬들을 등돌리게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자아.. 그렇다면 최근작인 이 앨범은 어떨까요? 아마도 (당시의 저를 포함해) 등돌린 그의 팬들에 대해 '다시 끌어모으기 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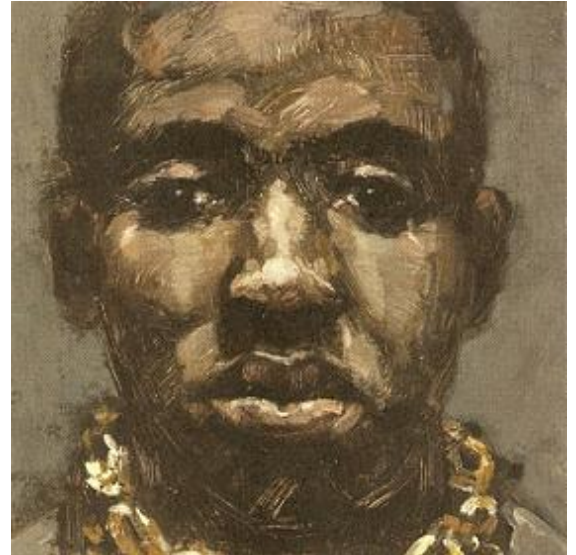
젝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에 대해 기대하는 걸 200% 충족시켜준 앨범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앨범에 뭐 그다지 색다른 시도를 했거나 색다른 변화를 줬거나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거나 대단히 뛰어난 예술적 기지를 발휘한 건 없습니다. 그 자신도 인터뷰에서 말하듯 자신은 artist가 아니고 그저 '뒷골목에서 토라이처럼 사는 음악 프로듀서'일 뿐이라는 말에 동의하는데 이 앨범에서 그는 정말 정말 '소프트하고 맛있고 말랑말랑한 뒷골목 군것질 거리'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프닝 곡 〈Go Crazy!〉에서는 마치 "니가 나한테 바랬던 인트로가 이런 거지?"라고 말하는 것 같고 (Nympho 앨범의 인트로를 들어 보신 분들은 제 말씀에 공감하실 겁니다) 〈Touch Your Toes〉에서는 "Full Moon이 그리웠어? 너 힙합 좋아하지? 너 Fat Joe 좋아하지? 자 여겼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Siedah Garrett의 〈Do You Want It Right Now〉를 정말 기막히게 맛깔나게 샘플링한 〈I Want Your Soul〉에서는 "U Don't Know Me 그리웠지.. 어유 내 새끼.. 어때? 나 이빠?"라고 말하는 것 같고 도저히 몸을 가만히 둘수 없는 초강력킬러힙킥업템포바운스 〈NYC Beat〉에 와서는 굳히기 작전에 들어가면서 "자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알만드 본인도 인터뷰에서 얘기하듯이 Tiesto나 Sasha, Armin van Buuren으로 대표되는 최근 일색인 유럽씬의 차가운 트랜스만 올려퍼지는 클럽 사운드에 이제 지겨웠다면 다시금 80년대 레트로 소울-힙크 사운드를 담고 있는 이 앨범을 찾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71613736>

1. From The Plantation To The Penitentiary
2. Find Me
3. Doin' (Y)our Thing
4. Love And Broken Hearts
5. Supercapitalism
6. These Are Those Soulful Days
7. Where Y'all At?



"윈튼 마살리스는 훌륭한 트럼페터이자, 매우 멋진 친구입니다. 단지 정신이 나갔을 뿐이죠."

- 마일즈 데이비스 (Miles Davis)

푸하.. 마일즈 데이비스께서 저런 발언을 한 것도 사실 무리는 아닌 듯 합니다. 자존심 강한 마일즈가 자신보다 윈튼에게 더더욱 프로모션을 빼방하게 하는 콜럼비아 레코드의 꼴을 두고 볼 수 없었겠지요.. 암튼 윈튼 마살리스는 재즈의 역사를 1965년까지만 한정시키는 그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지지자도 많은 반면 그만큼 안티도 많은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의 출생 배경을 보면 말입니다. 재즈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뉴올리언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음악 선생님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역시나 훌륭한 뮤지션 형제들인 브랜포드 마살리스나 델피오 마살리스와의 피드백을 통해 성장했으니.. 아, 부모로부터 음악 이론과 역사 빼방하게 주워들겠다, 집 밖에만 나가면 온통 길거리가 다 재즈니.. 음악 이론 배우고, 6살부터 동네에서 트럼펫 불고, 뉴올리언즈가 고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 '아 정말 난 재즈의 정수가 뭔지 알겠어 아..' 뭐 이런 자부심 가득한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 확고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그의 사상을 놓고 너무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분도 계셔야죠.

그럼 그의 음악은 어떨까요? 뭐 솔직히 말해 저도 그의 음반을 사서 많이 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뭐라고 자신있게 규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의 초기 명반 중 하나로 불리는 "Black Codes (From The Underground)"만 들어봐도 현란한 트럼펫 솔로에 불규칙한 리듬감과 변칙적인 속도감이 주는 느낌이 뭐랄까요.. 스윙에 반기를 든 뉴욕 클럽

안에서 치열하게 연주된 비밥의 원류에 가깝다고 하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걸 포스트비밥이라고 하나요?) 여하튼 그의 솔로 트럼펫 연주는 당대 최고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크니컬한 측면을 떠나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살펴보면 음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다는 게 제가 이 분을 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윈튼 마살리스는 어떻게 보면 등장부터 '애늬은이' 같았는데 이후에도 보면 '연주도 잘하면서 생각도 많은' - '체육도 잘하면서 공부도 잘하는' 엄청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에게 풀리처상의 영예를 안겨준 94년작 "Blood On The Fields"나 2004년작 "Unforgettable Blackness"에서 보여준 지속적인 사회 문제와 인종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들고 나온 2007년작 "From The Plantation To The Penitentiary"에서 그 화두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농장에서 교도소까지 "From The Plantation To The Penitentiary"

잠깐 위로 올라가서 앨범 표지를 봅시다. 포스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 윈튼 마살리스의 자화상은 아닙니다 - Art Blakey And The Jazz Messengers의 "Moanin'"이나 Mos Def의 "Black On Both Sides"와 더불어 흑인만의 강력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자켓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회심의 역작'이라는 평을 받은 이 앨범은 저한테도 제대로 꽃혀버렸는데요, 원래 보통 재즈 앨범들에 대한 AMG의 평가들은 예전 음반들에 높은 별수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AMG의 평가를 믿는 편은 아니예요) 최근작인 이 앨범에 'AMG Picks'까지 붙이는 경우는 참으로 이례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켓이 주는 이미지도 그렇지만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는 강한 정치-인종 의식은 앨범 전체를 애워싸는 주된 테마입니다. 누가 들어도 곧장 이것이 '채찍 소리'를 나타낸다는 것임을 바로 알 수 있는 Ali Jackson, Jr.의 드럼 소리를 시작으로 동명 타이틀곡이 문을 열고 있으며 앨범 전체에 보컬로 참여한 Jennifer Sanon이 '찢겨져나간 사람들을 본다'라는 마치 그 옛날 Billie Holiday의 "Strange Fruit"를 연상시키는 가사들을 읊조립니다. 라이브에서야 기교적인 즉흥 연주로 빛을 발하는 윈튼 마살리스는 약간 뒤로 물러나 보컬을 서포트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에 맞추어 현란하지 않은 솔로 연주를 들려주고 있어 이 앨범이 '연주 앨범'이 아닌 '테마 앨범'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앨범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리듬'이에요. 그렇다고 오리지널 스윙 재즈나 하드밥과 같은 리듬 감 혹은 스윙감이 돈다는 뜻은 아니구요, 앨범은 시종일관 침울한 정서에 시시각각 변하는 리듬감을 만들면서 Dan Nimmer의 피아노가 오묘한 그루브감을 선사합니다. 심지어 fast swing 넘버인 "Supercapitalism"에서는 드럼앤베이스의 그것마저 느끼게 해주네요. 또한 이 앨범을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공감하는, 앨범의 마지막 트랙 "Where Y'all At?"이 주는 의외성이랄까요? 꽤 화가난 목소리에 윈튼 마살리스 본인이 직접 랩까지는 아니더라도 라임이 섞인 poetry slamming을 하면서 현재 미국 사회의 모순에 대해 직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심지어 현재의 힙합씬에 대한 비판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심지어 랩 게임도 비판의 메시지를 담았었지. 그렇지만 이제 전부 죽이는 짓거리나 기형적인 것들만 얘기하고 있네!" <- 멋지지 않아야? 그러면서도 "Where Y'all At"을 제창하는 후렴구에서는 흥겨운 그루브감도 느낄 수 있답니다.

자, 지루하시죠? 정리할게요. 밑에 제가 제시한 12개의 criteria 가운데 4가지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이 앨범을 구매하셔도 돈이 아깝지 않으실 겁니다.

1. 힙합을 좋아한다.
2. 재즈도 좋아한다.
3. 동부 힙합을 좋아한다.
4. 퓨전, 스무드, 콘템포러리 재즈보다는 스윙-밥 계열의 재즈를 더 좋아한다.

5. 오리지널한 것에 관심이 많다.
6. 인종 문제에 관심이 있다.
7. 아프로-어메리칸 컬처에 관심이 있다.
8. 영화 '블러드 다이아몬드'를 인상깊게 봤다.
9. Nas의 'Hip Hop Is Dead'와 'Untitled' 앨범의 메시지에 공감한다.
10. 재즈 악기들 중 특히 트럼펫과 피아노 소리가 좋다.
11. 힙합, 쿵크와는 또 다른 재즈만의 리듬감을 사랑한다.
12. 윈튼 마살리스를 좋아한다.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70506660>

Disc 1

Cascade
Ill Flower
Flak
Bird Wings
Dead Skin Cells
Lifeforms
Eggshell
Among Myselfes



Disc 2

Domain
Spineless Jelly
Interstat
Vertical Pig
Cerebral
Life Form Ends
Vit
Omnipresence
Room 208
Elaborate Burn
Little Brother

확실히 제 생각에 우리가 흔히 "일렉트로니카"라고 부르는 음악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보자면 "플로어용"과 "감상용"이지 싶습니다. 전자가 그야 말로 '댄스 뮤직'이라면, 후자에 속하는 음악들은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 굉장히 힘든 스타일들이 많은데 그 영역에는 흔히 말하는 다운템포/칠아웃이나 앰비언트를 지나 재즈나 뉴에이지 영역까지 매우 방대해지기 때문이죠. 브라이언 더건스(Brian Dougans)와 개리 코베인(Gary Cobain)으로 이루어진 영국 듀오 FSOL은 바로 이런 감상용 일렉트로닉 뮤직의 정점에 자리잡은 팀입니다. 유럽의 플로어를 뜨겁게 달구는 트랜스-하우스씬에서 뮤지션들이 열심히 12인치 싱글들을 찍어내고 디제이들이 파티에서 열심히 돌리는 원시적인 방법을 택하는 반면, 테크노-IDM-앰비언트씬의 뮤지션들은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음악을 소개하는데 최근 이들 FSOL의 행보를 보면 라디오를 이용한 원격 라이브 믹스라던지 mp3 다운로드와 같은 디지털라이즈드된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어 확실히 '노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절감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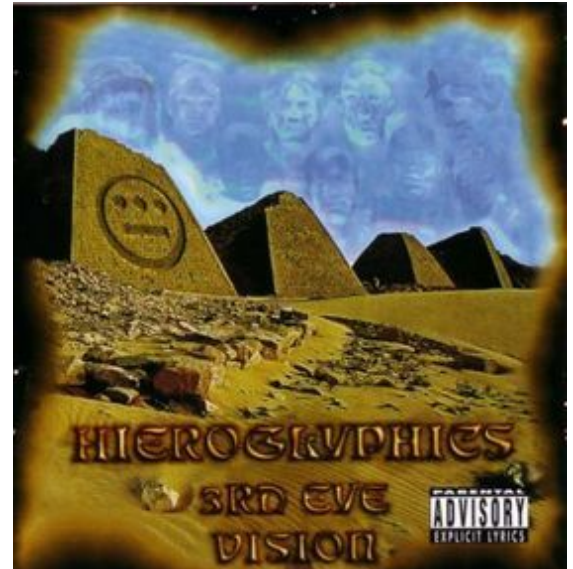
'좀 더 오파꾸적이지요.'

본 앨범은 "Accelerator", "ISDN"에 이은 이들의 세번째 정규작이자 더블 앨범이자 '가장 FSOL다운 앨범'으로 평가 받는 작품인데 별 생각 없이 '일렉트로닉 앨범이겠지'하는 생각으로 씨디 플레이어를 돌리면 몇분 내에 잠이 들어버리거나 꺼버릴 수 있는 위험한 작품입니다. 누군가는 이 앨범을 하루에 한 곡씩 들어야 비로소 다 들을 수 있는 앨범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했으니 말 다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러닝타임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왜냐면 앨범을 듣다 보면 특별한 트랙 구분없이 그냥 쭉욱 전체가 이어진 하나의 곡처럼 진행되는데, '일렉트로니카'라기 보단 뭐랄까요.. 그냥 하나의 '자연 음악'이라고 부르는 게 낫다고 할까요? 앨범 타이틀처럼 "생명"과 "자연" 등을 기본 테마로 잡고 매우 섬세한 느낌을 주는 사운드 이펙트를 들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음악여행 라라라에서 김창완씨가 소규모 아카시아밴드에게 "바람 소리, 시냇물 소리.. 이런 게 사실은 다 음악이거든요"라고 말한 그 기본 정신을 그대로 살린 앨범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새가 날개를 푸덕거리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등의 효과음과 함께 얇은 바닷물속 바위에 달라 붙은 미세한 말미잘이 촉수를 벌리는 그 순간을 묘사한 듯한 건반 멜로디 등은 이 앨범이 얼마나 확실한 테마와 작가주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종일관 이런 식이면 아마도 이 앨범의 대다수의 소비층일 댄스 뮤직팬들이 확실히 등을 돌리겠지만 "Cascade", "Flak", "Dead Skin Cells", "Lifeforms", "Vertical Pig", "Vit" 등과 같은 트랙에서 적당한 정도의 비트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이 앨범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볼게요. 일단 자장가용으로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 포스팅이 앨범을 즐기자는 거지 자자는 뜻은 아니므로 다음, 이어폰을 꽂고 길거리에서 듣는다? 안됩니다! 귀에 안들어올 게 뻔하니까요. 차라리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어여쁜 아가씨가 더 먼저 눈에 들어올 겁니다. 다음,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며 차창밖을 보면서 듣는다? 뻘~익. 역시 안됩니다. Pat Metheny의 음악은 그게 적당할 지 몰라도 이 앨범을 그렇게 듣다보면 두세번째 트랙에서 옆사람이 창문에 얼굴을 대고 침을 흘리고 있는 당신을 깨울 게 뻔하기 때문이죠. 거참, 그럼 어떻게 들을까요... 정답은? 운전하면서 들으십시오. 그것도 숲이나 개울이 흐르는 자연 경관이 펼쳐진 시골 도로면 딱입니다. 운전하면서 산과 들과 시냇물과 새와 바람과 개와 소와 말을 보면서 드라이브 하며 이 앨범을 들읍시다. 그 순간에야 비로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앨범을 '명반' 대열에 올리며 FSOL의 최고작으로 평가하는지 그 진수를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물론 이 앨범을 듣기 위해 운전 면허를 취득할 필요까지야 없겠지만 말입니다. 흐.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69028583>

01. Intro
02. You Never Knew
03. All Things
04. Casual
05. The Who
06. Dune Methane
07. Phesto D
08. At The Helm
09. The Last One
10. Tajai
11. Oakland Blackouts
12. Mics Of The Roundtable
13. See Delight
14. Pep Love
15. Off The Record
16. A-Plus
17. After Dark
18. Opio
19. No Nuts
20. Del
21. One Life One Love
22. Miles To The Sun



하이어글리픽스라는 이름은 다소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Del Tha Funkee Homosapien이라는 이름은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이나 Automator, Damon Alban의 행동거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팬들이라면 아마도 익숙한 이름일 겁니다. Del은 잘 아시다시피 Ice Cube의 동생이죠. 아이스 큐브와 마찬가지로 90년대 초반부터 본토씬에서 앨범을 발매하며 활동을 했는데요, 갱스터적이었던 형과는 달리 언더정신 충만한 가사와 재치한 사운드를 추구했었습니다. 그 밖에는 Automator, Kid Koala와 함께 Deltron 3030이라는 프로젝트를, 블러의 데이먼 알반이 주도한 Gorillaz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었군요. 그러면서도 메인스트림씬에는 그닥 이름을 알리지 않았던 걸 보면 그 역시 꽤나 독고다이적이지 않나 싶어요. 본토 언더씬에서 차지하는 그의 굵직한 네임 밸류에 비해 국내에서는 (언더) 힙합 꽤나 듣는다는 리스너들 사이에서도 Del Tha Funkee Homosapien이라는 이름은 그닥 큰 형님 대접은 잘 못받고 있는 것 같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참고로 최근 Del은 Def Jux에서 솔로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호오)

그런 그가 거의 리더격으로 캘리포니아 오كل랜드 동네 친구들 모아서 결성한 그룹(이라기 보다는 크루)이 바로 Hieroglyphics 하이어로글리픽스입니다. 우탱 클랜 잘 아실 겁니다. 본토 힙합씬에 존재하는 크루 중에 제일 유명하고 인기도 많죠. 초창기 앨범들에서 RZA가 만들어내는 로우한 비트에 멤버들의 하드코어한 랩이 절정을 이루면서 각자의 솔로 앨범 발매와 함께 지금의 유명세를 타게 됐죠. 근데 제 생각엔 (요샌 우팜 소속 프로듀서들도 많이 있지만) 우탱의 약점 중에 하나는 RZA를 제외하고 그다지 프로듀싱엔 별로 관심들이 없어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왜 뜬금없이 우탱 얘기를 했냐면요, 바로 이들 하이어로글리픽스의 데뷔 앨범인 본작을 들으면서 몇번이고 입이 벌어졌다 닫혔기 때문 입니다. "아니, 애네들처럼 멤버들 죄다 랩하고 프로듀싱도 각각 개성 있게 맛깔나게 만드는 collective 있음 나와보라 그래" (<- 뭐 이런 말이 막 혼자서 튀어나왔다니깐요. 엠씨/프로듀서 Del을 주축으로 메인 프로듀서인 Domino와 Jay-Biz (현재는 탈퇴), 프로듀서이자 엠씨들인 Opio, A-Plus, Casual, Phesto-D, 그리고 전문 엠씨들인 Pep Love와 Tajai의 9인조로 구성된 이들은 위에서 처럼 9명 중 7명이 모두 프로듀싱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만 합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 세상에 각자 개성들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Del이 언더그라운드 힙합의 일종의 공식과 같은 묵직한 베이스 리듬과 재지한 샘플들을 이용한 비트를 들려준다면 메인 프로듀서인 Domino는 비슷하지만 보다 약간 횡기한 스타일로, Casual은 록적이고 몽환적인 편이라면 Jay-Biz는 소울풀하거나 올드스쿨적인 느낌이 강하더군요. 랩톤 역시 누가 들어도 바로 "우와 목소리 좋고 랩 진짜 동글동글하게 잘하네" 느낌이 확 오는 Del부터 - 본 앨범에 수록된 "At The Helm" 한번 들어보세요. 동네 세살배기가 들어도 "우와 랩 잘하네" 이럴 겁니다 - 마치 국내씬의 냇업샐의 목소리가 연상되는 Pep Love, 하이톤의 Opio, A-Plus, 굵직한 톤의 Tajai, Casual 등 구색 다양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게다가 단조롭게 한 사람씩 돌아가며 한 벌스씩 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한 구절씩 번갈아가며 대화체로 정신없이 랩이 맞물려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재기발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랩계의 켄틴 타란티노라고나 할까요? 또한 간간히 Jay-Biz가 스크래칭도 곁들여주는데요, 이 정도면 "엔터 더 우탱"만 최고가 아니라 이들의 데뷔 앨범도 꽤나 들어줄직 하다고 하겠습니다. MC 몽이 있었던 피플 크루가 모든 힙합의 4요소를 표현하노라고 강조했는데 이 정도라면 참만 안줬지 힙합의 진짜 배기들은 피플 크루가 아니라 바로 하이어로글리픽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들은 데뷔작인 본작에 이어 2003년에 두번째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했구요 이후엔 멤버마다 믹스테이프 등의 활동과 그룹으로서는 컴필레이션 앨범 등을 꾸준히 발표하며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할게요. 본토 크루들을 놓고 당신이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 둔탁하고 로우한 비트에 하드코어적인 살벌한 랩들을 듣고 싶다면? 대답은 우탱 초창기 앨범들이겠죠. 전형적인 뉴욕 브레이크에 바이닐 샘플이 어우러진 트레이디셔널 한 걸 원한다면? D.I.T.C. 크루를 선택하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재기발랄하고 인터랙티브 하며 횡키하고 재지한 언더그라운드 크루를 찾는다면? 정답은 Hieroglyphics입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67783369>

01. Intro
02. Best Kept Secret
03. Sally Got A One Track Mind
04. Step To Me
05. Shut The Fuck Up
06. Fuck What You Heard
07. I'm Outta Here
08. A Day In The Life
09. Last Car On The 2 Train
10. Red Light, Green Light
11. I Went For Mine
12. Comments From Big L And Showbiz
13. Check One, Two
14. What You Seek
15. Lunchroom Chatter
16. Confused
17. Pass Dat Shit
18. Freestyle (Yo, That's That Shit)
19. K.I.S.S. (Keep It Simple Stupid)
20. Stunts, Blunts, & Hip Hop
21. Wuffman Stressed Out
22. Feel The Vibe
23. A View From The Underground



우리에게 친숙한 본토 힙합 뮤지션들은 많습니다. 아아 물론 지금 당장 에미넴이나 제이지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그나마 알려진 최고 오래된 본토 힙합 뮤지션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당연히 LL Cool J 와 Run-DMC겠죠? 이들은 80년대 중반부터 활동하던 대표적인 올드스쿨 힙합 뮤지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들 다음으로 국내에 소개된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바로 Snoop (Doggy) Dogg의 데뷔 앨범부터 시작된 G-funk 계열의 음악일 겁니다. 우리에게 "컴백홈" 덕분에 "갱스터랩"이라는 말로 더 유행을 했죠. 물론 그 다음부터 다들 잘 아시는 골든 에라일테니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이름이야 그야말로 "you name it"이죠.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엘엘 쿨 제이와 런 디엠씨가 80년대 중반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스눕의 데뷔 앨범으로 대표되는 쥐윙크

와 갱스터랩의 붐과 함께 골든 에라의 시작을 알리게 된 해는 1993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 사이, 그러니까 올드스쿨과 뉴스쿨 힙합의 과도기에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벌이던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지금이야 국내에도 힙합팬 층이 두텁기 때문에 익숙한 이름들이지만 아쉽게도 당시 국내에선 이 과도기에 활동하던 뮤지션들의 이름은 꽤 낯설었을 겁니다. 바로 A Tribe Called Quest, De La Soul, The Pharcyde, Gang Starr, Pete Rock & CL Smooth, Main Source, 그리고 오늘 얘기하고자 할 D.I.T.C. crew가 그들입니다.

이 시기에 활동하던 팀들은 Zulu Nation, Native Tongue 등의 모토에서도 알 수 있듯이 '힙합의 원류'에 대한 애정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대단한 이유는 디제이, 바이닐 컬처, 샘플링 등과 같은 힙합 음악의 기본적 요소들을 가지고 올드스쿨 힙합을 어떻게 modern한 힙합 음악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표본을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D.I.T.C. (Diggin' In The Crates) crew는 뉴욕 브롱스에 기반을 둔 힙합 크루입니다. Lord Finesse (MC, producer), Diamond D (MC, producer), Show (producer), Buckwild (producer), A.G. (MC), O.C. (MC), Fat Joe (MC), 그리고 고인이 된 Big L (MC)로 구성되어있는데요, 이들을 주목할 만한 점 중에 하나는 언더그라운드부터 메인스트림 영역까지 다양한 취척링 활동과 프로듀싱을 통해 그 기반을 확고하게 다졌다는 점입니다. 톡 까놓고 말해서 본토나 우리나라나, 언더나 메인스트림이나, 리스너나 뮤지션이나 힙합 좀 듣는다는 사람들 치고 이들을 respect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못본 것 같아요. 사운드적으로는 주로 재즈 샘플에 기반을 둔 둔탁한 비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초기 ATCQ나 The Roots 처럼 '대놓고 재즈'는 아니고, 하드코어 (여기서는 '정수'의 의미로 쓰입니다) 힙합이지만 프리모보다는 순하고 피트락보다는 강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암튼 이들 역시 90년대 초반부터 골든 에라 시대에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다소 주춤해진 모습입니다. 최근 Diamond의 솔로 앨범이나 D.I.T.C.의 새 앨범이 발표가 되었지만 왠지 예전만은 못한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들은 힙합을 듣는 우리네 리스너들에게 혹은 여러 후배 뮤지션들에게 '큰형님'이자 '귀감'이 되는 분들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앨범은 Lord Finesse, Showbiz와 함께 크루의 초기 설립 멤버 중 하나인 Diamond A.K.A. Diamond D의 데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이 제가 알기로 Lord Finesse의 "Funk Technician" 다음으로 크루로서는 두번째 솔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소스지 선정 힙합 명반 100은 물론이고 여러 매체에서도 본토 힙합 클래식 앨범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앨범입니다. 이 앨범의 가치는 뭐랄까.. 올드스쿨과 뉴스쿨의 훌륭한 가교 역할을 하는 작품인 동시에 D.I.T.C. crew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은 작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운드적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한가지 간단한 비유 하나만 들어봅시다. 우리가 종이에 그냥 까만 볼펜 만으로 줄을 찍 으면 굉장히 딱딱한 느낌이지요? 그런데 그 까만 선 주위로 분홍색이나 하늘색으로 테두리를 치는 식으로 덧선을 입히면 어떤가요? 훨씬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을 주지 않을까요? 이 앨범에서 메인 프로듀서 Diamond D가 짚어내는 비트들이 그렇습니다. 딱딱할 수 있는 드럼 스네어 비트에 부드러운 느낌의 베이스음을 덧입힘으로써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밝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음악이 상당히 회화적이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드코어 힙합'이라고 하더라도 이 앨범이 주는 느낌이 그다지 삭막하지 않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본다면 뷔페 같은 데 가면 왜 바나나나 머쉬멜로우를 초콜렛 옷을 입혀 먹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느낌.. "I Went For Mine"이라는 곡을 들어보면 이런 베이스가 만들어내는 리듬감이 장난이 아닌 걸 알 수 있죠. DJ Krush의 "A Whim"이라는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앨범에 수록된 "Sally Got A One Track Mind"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몽환적인 느낌의 베이스음이 머리를 어지럽게 하거든요. 딱 디제이 크러쉬의 저 곡과 느낌이 같습니다. 원조저 뭐. 또한 부드러운 소울 멜로디가 결합된 "Confused"나 Showbiz가 프로듀싱에 동참해서 약간은 애프트랙한 느낌을 주는 샘플링이 인상적인 "Step To Me"나 "Feel The Vibe"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트랙이고, 개인적으로는 앨범 타이틀과 동명인 "Stunts, Blunts, & Hip Hop"을 가장 좋아합니다. 업템포의 미칠 듯한 베이스 그루브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암튼 간에.. 올드스쿨과 뉴스쿨의 과도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원류에 대한 애착으로 만들어진 '큰 형님의 힙합 사운드'를 담고 있는 본작은 반드시 들어봐야 할 필청 음반
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더리 사우스만 듣지 마시구요. 헤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66664504>

01. Dolphin Song
02. Groove Tube
03. Aquamarine
04. Going Zero
05. (Spending Bubble Hour In Your) Sleep Machine
06. Winnie-The-Pooh Mugcup Collection
07. The Quizmaster
08. Blue Shinin' Quick Star
09. The World Tower



여러분, 혹시 스매싱 펌킨스 좋아하십니까? 빌리 코건의 허스키하면서도 뭔가 중성적인 비음.. 카~ 매력적이죠. 그럼 혹시 스웨이드도 좋아하세요? 브렛 앤더슨의 성정체성 모호한 코맹맹이 보컬.. 아 당장 스웨이드 씨디를 꺼내서 들고 싶네요. 음.. 그렇다면 오아시스도 좋아하세요? 덩수룩한 장발에 선글라스를 끼고 연신 탬버린을 흔들면서 거들먹거리면서 노래하는 리암 갤러거의 모습이 카리스마틱하시다구요? 맞아요 맞아요. 혹시 살라탄나 스톤 로지스도 좋아하시겠조 그럼? 팀 버제스의 느끼스런 몸짓에 댄스블한 키보드 멜로디.. 물론 뭐 이언 브라운도 마찬가지죠. 자아.. 여러분. 지금 제가 열거한 밴드나 아티스트들 이전에 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중독적이고 아름다운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밴드가 있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것도 이웃나라 일본에요. 오늘 말씀드리는 플리퍼스 기타가 바로 그들입니다.

플리퍼스 기타.. 뭐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밴드죠. 지금은 Cornelius로 너무나도 유명한 케이고 오야마다의 전신 밴드.. 그렇게 제일 잘 알려져 있고, 좀 더 나아가면 피치카도 화이브와 더불어 양대 '시부야케이의 원조'로 홍보되어지는 밴드예요. 밴드 구성은 1집 때는 다른 멤버들이 있었지만 금방 다 나가고 리드 보컬과 기타를 맡은 케이고 오야마다와 리드 기타와 백보컬을 담당한 오자와 겐지의 2인조로 구성된 밴드였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포스팅을 통해 꼭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플리퍼스 기타가 '시부야케이의 원조'라고 해서 요사이 흔히 언급되던 시퀀싱 만발하는 '시부야케이'를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애깁니다. 이들의 음악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생각엔 끝세요.. 그냥 비틀즈와 비치 보이즈의 스타일이 혼합돼 난무하며 여기에 맨체스터 사운드를 입힌 형태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물론 오늘 들고 나온 3집 앨범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여러 인터뷰 등에서도 이들이 항상 밝혔듯

이 이들은 그저 비틀즈와 비치 보이즈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스타일 뿐만 아니라 초창기 뮤직비디오 등을 봐도 그렇죠. 그것도 그냥 일본 자국 내 밴드가 아닌, 전세계적인 '팝' 스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들의 음악이나 라이브 등을 가만히 보면 정말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오자와 겐지가 열심히 기타를 치고 백킹 보컬을 하면 그 옆에서 거만한 표정으로 덩수룩한 머리를 하고 섀글라스를 낀채 탬버린을 들고 비음 섞인 톤으로 노래를 부르며 건들거리는 사람이 바로 케이고 오야마다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 뒤에선 댄서블하고 멜로디컬한 키보드 라인이 '맨체스터 사운드'임을 증명하고 있었구요. 근데 문제는 바로 '시기'입니다. 이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진짜배기 맨체스터 사운드 밴드는 그저 해피 먼데이즈 뿐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오늘날 우리가 대표적인 맨체스터 사운드 밴드로 꼽는 스톤 로지즈의 경우 이들의 데뷔 앨범과 같은 해 발표됐고 (그러니 오자와 겐지와 케이고 오야마다가 당시 영국씬의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스톤 로지즈와 더불어 동시대 같은 문화를 누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심지어 샬라탄스 UK 같은 경우는 플리퍼스 기타보다 늦게 데뷔했으니까요. 뭐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스매싱 펌킨스나 스웨이드, 오아시스는 플리퍼스 기타의 후배격인 셈이니 좀 과장해서 표현하자면 리암 갤러거가 우렁찬 목소리로 우렁찬 스테이지 매너가 실은 케이고 오야마다가 이미 몇년 전부터 써먹었다는 셈이 된다고 보면 좀 재미있지 않나요? 아니 그냥 재미있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도 좀 들죠? 여하튼 이언 브라운과 케이고 오야마다는 선후배할 것 없이 친구 먹어도 된다는 뜻이라고요.

오늘 들고 나온 앨범은 이들의 3집이자 유작인 "Doctor Head's World Tower"입니다. 이들은 사실 데뷔작이 유명하죠. 위에 제가 길게 썰을 푼 내용들이 사실은 데뷔 앨범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여러 플리퍼스 기타의 팬들도 인정하듯이 마지막 정규작인 이 앨범은 소위 '변화와 실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 비틀즈 + 비치 보이즈 + 맨체스터의 형태에서 진화했다고 할까요? 자 앨범을 돌려봅시다. 푸하.. 인트로에서는 여전히 비치 보이즈에 대한 오마주군요. 명곡 "God Only Knows"의 인트로를 완전 그대로 샘플링해서 가져왔어요. 음, 근데 이윽고 나오는 첫곡부터 밝고 명랑한 기존의 사운드보다는 뭔가 약간 포크스러우면서 좀 차분하고 우울하기도 하네요? "Groove Tube"는 시작부가 무슨 '다크 도깨비 스윙 댄스 서커스' 분위기로 몰면서 댄서블하게 전개되더니 "Aquamarine"의 이 농도 짙은 노이즈감과 드림팝은 대체 뭐랍니까. 게다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인) "Winnie The Pooh Mugcup Collection"은 완전 제대로 달려주는 신나는 70년대 스타일 록큰롤입니다. 아아. 게다가 앨범 군데군데 울려퍼지는 브레이크비트와 샘플링까지.. 이거 뭐 플리퍼스 기타가 이미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에 거쳐서 이것저것 다해먹어버렸네요. 이러니 모던록 열혈 키드들이 플리퍼스 기타를 deeply respect 못할 수 없겠조?

p.s. 무인도에 어떤 앨범 가져갈래라고 묻는 게 제일 웃기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마일스 데이비스의 카인드 오브 블루다, 누구는 나스의 일매릭이다.. 뭐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무인도에 달랑 한 장만 갖고 가면 어떻게 그것만 주구장창 들어요? 차라리 아무 것도 안들고 말지.. 플리퍼스 기타의 이 앨범을 들으면서 '야 이거 너무 좋아서 무인도에 하나만 가져가라면 이걸 들고 갈까'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좀 웃기더군요.

p.s. 2 "야, 저 순하고 암전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오자와 겐지가 얼마나 성격이 드럽고 시니컬한지 알아?" 꿈속에서 누가 이런 소릴 해서 화들짝 놀라서 잠에서 깬 일화도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59099007>

01. Airspace
02. Lose No Time
03. Things Change
04. Blueprints
05. Counterpoint
06. Intermission
07. Long Haul 747
08. Phizz
09. Over And Out



음악을 듣다보면 점차적으로 느끼게 되는 점이 음악은 역시 예술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감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사운드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면 노랫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 이상 되면 그 음악이 주는 '감성' 혹은 '메세지'까지 느낄 수 있는 영역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학창 시절 지금은 폐간된 영국 잡지인 muzik지를 애독했던 저는 댄스 음악을 하위 장르별로 '구분' 짓는 걸 매우 사랑했는데 아마도 OCD스런 제 성격 탓도 크다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음악 장르는 몰라도 유독 댄스 음악에 있어선 매우 엄격하게 분류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편인데 누가 보면 대체 뭐하는 짓이냐 음악이지 음악이냐 뭐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도 있을 듯 싶어요.

암튼 간에 썰을 좀 풀어볼게요. 댄스음악의 가장 핵심 요소는? 물론 비트입니다. 여기서 bpm 따위를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우리 제너럴해집시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아놓고 구분해보라고 했을 때 일단 귀에 딱 들어오는 리듬감만 놓고 crude하게 구분해본다면 누구나 힙합/브레이크비트 (쿵쿵짝) - 포온더플로어 (똑치똑치) - 레게/덱 (음떡음떡) 이렇게 3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들어가봅시다. 힙합/브레이크비트는 이미 그 비트 자체가 하나의 장르죠. (여기에 대해선 추후에 또 이야기할 때가 있을 듯) 레게/덱도 그냥 그 비트가 그 장르입니다. 문제는 가운데 '똑치똑치'로 대표되는, 클럽 플로어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지는 이 비트는 그 자체가 장르가 아닙니다. 여기엔 대표적인 댄스뮤직 삼총사가 있지요. 다들 잘 아시는 테크노-하우스-트랜스가 그들입니다. (프로그레시브 하우스나 하드 하우스, 덱 하우스는 이 삼총사의 변종일 뿐이라는 건 잘 아실 거구요..) 자, 그럼 이 댄스뮤직 삼총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가봅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은 '비트'만으로는 이들 셋을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빙고! 그래요 역시 사운드죠. 근데 이 사운드적인 측면은 그냥 들어봐야 알지 어떻게 지면상으로 그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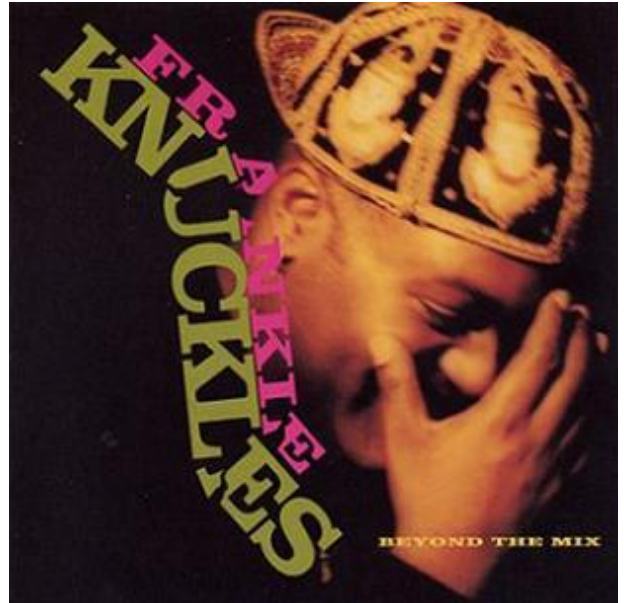
들을 구분 지어 describe하기는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그래요,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감성'이라는 측면으로 돌아가볼게요. 이 세 장르들은 각각의 감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성이란 그 음악 장르가 태동하기 시작한 배경과 문화, 그 음악을 향유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그 장르가 '추구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 할게요. 하우스는 메인스트림 디스코 음악의 영향을 받아 언더그라운드 클럽에 모인 다양한 인종, 동성애자들이 어우러져 태동된 문화입니다. 즉 그러다보니 끈적끈적하고 소울풀한 느낌에 '모두가 하나되자'는 바빌론적 이상을 추구하는 음악이라는 거죠. '하우스'라는 단일 공간에서 '하나된다' 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트랜스. 단어 의미 자체로 봐도 뭔가 환각적이고 LSD적이고 hallucinogenic하지 않나요? 바로 그겁니다. 사람들끼리 뒤섞여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땀 범벅돼 dehydration을 유발하는 몽환적인 음악. 그게 트랜스죠. 그러니 듣다보면 자꾸 빨려들게 되고 중독성이 강해지죠. 요새 유럽 클럽씬에서 가장 유행하는 음악이 바로 이 트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90년대 후반에는 하우스가 대세였죠. 썸.) 자 이제 마지막 선수. 테크노. 테크노는 어딜 가나 하우스나 트랜스에 밀려 클러버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는 음악은 못됩니다. 그보다 좀 더 매니아적이고 정적이라는 뜻인데.. 테크노는 말 그대로 technologic합니다. 뭔가 지적이고, 자연 친화적이고 현상에 대해 관찰하고 탐미적이고.. 뭐 그런 감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꺼 같아요. 마치 애들 정신없이 노는데 니들은 놀아라 난 공부할래 뭐 이런 느낌? 결국 앰비언트나 IDM 등의 장르들도 역시 이 테크노에서 같이 파생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가 시카고에서 태동했고 트랜스는 유럽(독일)에서 등장했으며 테크노가 디트로이트에서 탄생했다는 지리적 배경만 봐도 뭔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아아 물론 크라프트베르크까지 올라가서 독일 아니냐고 하면 전 이렇게 대답할래요. 크라프트베르크는 모던 댄스뮤직 전반의 시작점이지 '테크노'라는 specific한 하위 장르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긴 좀 꺾쩍찌근하다는 것. 심지어 크라프트베르크는 힙합의 탄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서 또 '테크노'라는 단어의 협의와 광의에 대한 논의까지 나올 듯 싶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Art Of Noise나 Cabaret Voltaire까지 나와야되는데 썸.) 암튼!

이제 잡소리 집어치우고 앨범 애길 좀 합시다. 본작은 Darren Price라는 뮤지션의 데뷔작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아티스트 앨범'입니다. 이 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언더월드의 라이브 디제이'로 유명한데 참 정말 언더월드와 이 분 사이의 우정은 어찌나 돈독한지 제가 이 앨범을 구입할 당시였던 97년에도 그런 수식어가 붙어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수식어를 달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언더월드의 번외 멤버라고 봐도 무방하지 싶습니다. 이 앨범.. 이 앨범은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씨디들 중에서도 특히나 뭐랄까.. 유니크함, 내지는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는 앨범이에요. 이 앨범.. 만일 정말 제대로된, 군더더기와 기름기 짝 뺀 완전 순수 "퓨어 테크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주저없이 집어 드시기 바랍니다. 첫곡 "Airspace"의 오프닝을 듣는 순간부터 호울스와 목캔디를 동시에 빨고 있는 목구멍이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깨끗하다못해 '청아'한 건반음과 적당히 미니멀하며 앨범 구석구석 시기 적절하게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제대로 달려주는 비트들이 굉장한 만족감을 드릴 겁니다. 원론적인 것 말고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데이빗 린치 감독의 영화 "로스트 하이웨이"의 엔딩에서 차를 몰고 달리는 빌 풀만의 모습과 함께 울리는 비트들이 마음에 들었다면, 아니 좀 더 대중적인 영화라면 영화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울리는 전반적인 스코어가 마음에 들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테크노'의 팬이나 다름 없고 그 이야기인 즉슨 미스터 대런 프라이스의 본작 역시 여러분의 웨이버릿 음반 목록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뜻이란 얘기입니다.

p.s. 지난 5월 30일 대런 프라이스의 두번째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전 애 보느라 못갔어요. 흑.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52469449>

01. Godfather
02. Rain Falls
03. The Whistle Song
04. It's Hard Sometime
05. Sacrifice
06. Party At My House
07. Right Thing
08. Workout
09. Sold On Love
10. Soon I Will Be Done



제가 좀 촌스러운 사람이라 그런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댄스뮤직도 '옛것'이 더 좋더군요. 근데 좀 신기한 건 다른 장르들은 모두 '옛것'에 대한 재평가와 고찰 및 재생이 진행되었거나 이루어졌는데 반해 유독 댄스뮤직에선만큼은 그다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흑인음악에선 이미 올드스쿨과 60년대 소울, 70년대 힙크에 대한 리스펙트가 굳건하게 자리잡았죠. 뭐 재즈도 그렇고 록도 마찬가지구요. 근데 댄스뮤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아, 예 물론 장르의 성격상 댄스플로어를 달구기 위해선 보다 자극적이고 현란한 게 필요하겠죠. 레트로 성향을 보이는 댄스뮤직도 있지 않나구요? 아 물론 맞아요. 근데 그런 음악들은 대부분 그 적을 60-70년대 솔링 (내지는 디스코)에 기반을 두고 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관점이 아니구요, '댄스뮤직의 올드스쿨'에 대한 고찰과 재평가는 왜 없냐 뭐 그런 애깁니다.

힙합에는 올드스쿨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새 즐겨듣는 댄스뮤직 ('일렉트로니카'라는 용어로도 쓰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참 유럽의 테크노/하우스씬이 인기를 얻을 무렵 이를 부러워한 미국에서 만든 용어죠.)에도 올드스쿨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멀리 갈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예만 봐도 나미씨와 김완선씨가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 근데 여기서 잠깐 먼저 짚고 갈 건 댄스뮤직 중에서도 우리가 플로어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르인 하우스를 위주로 언급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작금의 댄스뮤직의 가장 기본이 하우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futurism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나 Kraftwerk나 Art of Noise 같은 유토피안 전자음악까지 아우를 생각은 없습니다. 각설하고, 잘 아시다시피 하우스는 미국 시카고에서 생겨난 음악이죠. 70년대 후반 디스코의 영향을 받아 좀더 흔들기 좋은 음악으로 만들기 위한 초기 언더그라운드 디제이들의 노력에 의해 생겨난 장르입니다. 명칭은 The Warehouse라는 시카고의 한 클럽 이름을 본떴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초창기 시카고 하우스의 자양분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가장 인기있는 댄스뮤직으로 메인스트림까지 장악하게 되죠. 기억하시죠? C+C Music Factory의 에브리바디 댄스 나우~나 Shep Pettibone과 Junior Vasquez의 비트를 엮은 수많은 마돈나의 변태적인 히트곡

들.. 바로 그 시기! "댄스뮤직의 올드스쿨" 바로 이 시기를 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Ten City, Black Box, Double Trouble, S'Express, Soul II Soul, Reel 2 Real, Nomad 등 수많은 팀들.. 마치 힙합의 올드스쿨이 one mc one dj 포맷이었다면 이들은 주로 one producer one diva 포맷이었던... (현재 댄스뮤직의 메인스트림은 대부분을 힙합/알앤비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만..) 암튼 바로 그 중심에 오늘 얘기하는 소위 "갓파더 오브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Frankie Knuckles가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Frankie Knuckles는 "godfather of house"라고 불리우는 분입니다. 2005년도에는 댄스뮤직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구요, 아직까지도 현역 DJ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실은 고향은 힙합의 본거장인 뉴욕 브롱스라고 하네요. 불* 친구인 Larry Levan, 그리고 Ron Hardy와 더불어 시카고 하우스 "1세대"를 이룬 큰 형님급 뮤지션입니다. (Larry Levan은 Paradise Garage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Warehouse에 있던 Frankie Knuckles를 하우스의 대부로 부르고 Larry Levan은 Garage의 대부로 부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사실 말장난이죠) 90년대 초반에 두 장의 솔로 앨범을 발매하시고 긴 시간 동안 앨범 작업 보다는 리믹스 작업이나 믹스 씨디 등을 발매했죠. 그러다가 2004년도에 세번째 솔로 앨범인 "A New Reality"를 발매하셔서 제 요도괄약근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시기도 했는데요, 오늘 들고 나온 앨범은 바로 이 너무나도 대단한 큰 형님 Frankie Knuckles의 데뷔 앨범인 "Beyond The Mix"입니다.

원래 실은 은근한 게 제맛인 법입니다. 너무 강렬하게 확 하는 것보다 은근하게 다가오는 게 더더욱 임팩트가 큰 법이지요. 눈을 감고 상상을 해봅시다. 당신은 지금 어두운 방 안에 한 여성과 같이 있습니다. 실내 온도는 약간 덥군요. 자 바로 이 분위기! 뭔가 속으로 '아.. 날 녹여줘..' 라고 말하고 싶은 바로 이 분위기에서 제일 적절한 음악이 뭘까요? 강렬한 댄스플로어용 포온더플로어 비트? 혹은 파티브레이크? 혹자는 힙합이 적합하다고도 하는데.. 음, 뭐 마빈 게이의 끈적한 노래나 찰리 파커의 은은한 알토 발라드 연주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적절한 비트가 있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 그런지는 상상에 맡기구요. 바로 그 세지 않은 비트, 약하지만 은은한 그루브를 선사하는 분위기가 바로 본작에 실린 음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스타일이 초기 시카고 하우스에서부터 아까 제가 언급한 "댄스뮤직 올드스쿨"의 주된 방법론이었죠. ("Gonna Make You Sweat"이 뭐가 은근하냐구요? 스네어 소리 들어보세요. 요새 유행하는 댄스뮤직과는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요새 말하는 '비트감'이나 '그루브감'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디트로이트 테크노의 미니멀한 비트에 더 닮아 있으면서 간간히 "창~창~" 양념처럼 튀겨주는 신디사이저의 청아한 멜로디와 디바의 소울풀한 보컬에 비중을 두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은근한 느낌이 주는 뭐랄까요.. 어떤 '아련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느낌들이 지금 와서 들으면 참 가슴 저미게 좋습니다. 본 앨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만 특히나 "Rain Falls"나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너의 곁에 있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It's Hard Sometime"과 같은 곡들에서 제가 언급한 그런 끈적하면서도 소울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Paul Shapiro의 은은한 플루트 연주와 함께 반복되는 루프가 인상적인 "The Whistle Song"은 본 앨범의 백미라 할 만한 것인데요, 소위 말하는 '딥 하우스' 스타일로 후에 Larry Heard나 Kevin Yost 같은 분들의 음악에 영향을 끼쳤으리라 짐작되는 곡입니다.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본 앨범의 메인 프로듀서는 물론 Frankie Knuckles 자신이지만 대부분의 곡들에서 키보드나 드럼 프로그래밍에 David Morales, Satoshi Tomiie, Eric Kupper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건데 후에 이들은 Def Mix Productions로 불리우게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국내 힙합 프로듀서 중 한명인 Salon 01 소속의 JA가 약간 이런 90년대 초반의 은근하면서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비트들을 들려주기도 했는데요, 그 밖에는 이 당시의 비트들을 활용하는 예를 좀처럼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이 당시의 댄스뮤직이야말로 다시금 revival하기에 매우 적당한 사운드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전 발매된 Sade의 새 앨범이 빌보드 힙합/알앤비 차트에서 1위 하는 거 보고 아직도 대다수의 청자들은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을 잊지 않았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으니까요.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6191196>

또 조금 숙연한 마음으로 글을 쓰네요. 지난 4월 19일 힙합 듀오 Gang Starr의 멤버였던 Guru가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음.. 물론 최근 여러 뮤지션들의 사망 소식이 많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마이클 잭슨과 더불어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제 리스닝 인생에 있어 구루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분이였거든요. 제가 현재 제일 많이 듣고 있는 음악은 힙합과 재즈입니다. 근데 제가 구루의 재즈마타즈 앨범을 듣기 전까지는 이 두 장르가 서로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힙합과 재즈가 어떻게 서로 융합되고 서로 인터랙션하며 어떻게 그 음악적 자양분을 공유할 수 있는지 깨우치게 만들어준, 그래서 현재까지도 열심히 힙합과 재즈 씨디들을 사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바로 저에게는 구루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재즈 힙합'이라는 스타일을 창시한 분이 바로 구루거든요. 물론 진짜 원류를 따져보자면 Miles Davis의 "Doo Bop" 앨범이나 Quincy Jones의 작업물들이 먼저일 수는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힙합팬'들에게 재즈와 힙합의 융합을 보여주면서 '재즈 힙합'이라는 스타일이 있다는 걸 각인시켜준 인물로서 구루를 꼽는 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DJ Premier와 함께 90년대 골든 에라의 가장 위대한 힙합 팀 중 하나였던 Gang Starr의 한축으로도 분명 그는 위대했지만, Jazzmatazz라는 힙합-재즈-소울 프로젝트를 이끌어간 그의 독자적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업적은 빛날 겁니다. 오늘은 그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바로 '재즈 힙합'의 효시가 되는 걸작 "Jazzmatazz Volume 1"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01. Introduction
02. Loungin' (featuring Donald Byrd)
03. When You're Near (featuring N'Dea Davenport & Simon Law)
04. Transit Ride (featuring Branford Marsalis & Zachary Breaux)
05. No Time To Play (featuring Ronny Jordan & D.C. Lee)
06. Down The Backstreets (featuring Lonnie Liston Smith)
07. Respectful Dedications
08. Take A Look (At Yourself) (featuring Roy Ayers)
09. Trust Me (featuring N'Dea Davenport)
10. Slicker Than Most (featuring Gary Barnacle)
11. Le Bien, Le Mal (featuring MC Solaar)
12. Sights In The City (featuring Courtney Pine, Carleen Anderson,
& Simon Law)



이후에도 총 4편까지의 재즈마타즈 시리즈가 나왔지만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클래식으로 평가받는 작품은 바로 이 첫번째가 아닐까 싶은데요, "an experimental fusion of hip-hop and jazz"라는 부제 하나만으로도 본 앨범이 가지는 성격과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후에 나온 재즈마타즈 시리즈에는 재즈 보다는 보다 인지도 높은 알앤비-소울-힙합 아티스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반면에 가장 오리지널인 본 앨범은 그야말로 순수 재즈 뮤지션들의 라이브 연주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겠어요. 앨범은 전체적으로 구루가 직접 프로듀스한 베이스음 쿵쿵거리는 힙키한 업템포 브레이크비트에 재즈 연주자들의 라이브 연주가 곁들여진 형태구요, 이 가운데 구루의 랩과 게스트 보컬 등이 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혹자는 구루의 랩 스타일에 대해 '졸리다' 내지는 '단조롭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듣는 관점에 따라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걸 부인하진 않겠지만, 특히나 본 앨범에서의 재즈+힙합 퓨전 프로젝트에서 내뿜는 그의 베이스톤의 모노토너스한 랩들은 그 자체가 마치 악기처럼 들리며 전체적인 사운드를 거스르지 않고 매우 멋진 싱크로니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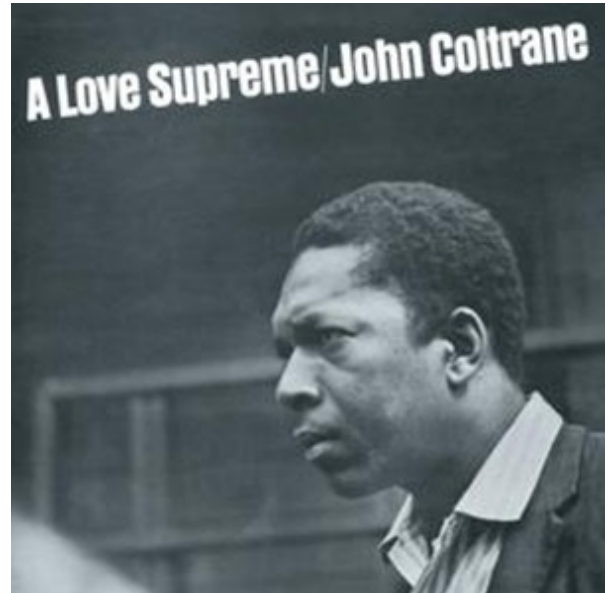
고즈넉한 색소폰 소리와 함께 앨범의 취지를 나긋나긋하게 설명해주는 인트로를 지나면 뮤트기를 켜 트럼펫음과 켜지지 않은 음을 교차 녹음한 도널드 버드의 현란한 트럼펫 솔로를 바탕으로 다소 긴장감 도는 이스트 코스트 스타일의 비트가 진행되는 "Loungin"이 나옵니다. 이어 Branford Marsalis의 시원시원한 소프라노 색소폰 연주와 함께 뉴욕의 대중교통을 묘사한 "Transit Ride"도 주목할 만한 트랙이며 딱 듣는 순간 어느 청자의 귀든 잡아끌 수 있는 Ronny Jordan의 힙키한 기타 연주와 D.C. Lee의 예쁜 보컬이 가미된 "놀 시간 없어"는 싱글로도 히트를 친 곡입니다. 이어지는 "Down The Backstreets"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요, 다른 곡들과는 다소 이질적으로 어둡고 슬로우 템포의 브레이크비트에 소울 재즈 피아니스트 로니 리스톤 스미스의 적절한 콤팩트한 막판에 전개되는 솔로 연주가 묘한 카타르시스를 주는 곡입니다. 또한 이를 이어받아 전설의 비브라폰 연주자 로이 에이 어스의 바이브 연주가 구루의 비트와 맞물려 그루브감을 선사하면서 이에 곁들여진 구루의 "너 자신을 돌아봐라"고 하는 라이밍도 매우 멋지며 프랑스 엠씨인 MC Solaar (구루 사후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Solar와 헷갈리지 맙시다!)와 함께 주고 받는 랩과 미치도록 힙키한 비트가 인상적인 "Le Bien, Le Mal"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트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곡인 "Sight In The City"는 가사면에서 비교적 밝고 건전한(?) 다른 수록곡들에 비해 두드러진 곡인데요, 세 명의 인물들의 짝맞은 에피소드를 통해 뉴욕 밤거리에서 이유없이 울고 이유없이 죽는 어두운 면을 묘사하고 있네요.

흠.. 제가 제일 처음 돈주고 산 힙합 씨디는 Bone Thugs-N-Harmony의 "Creepin On Ah Come Up EP"였습니다. 근데 그 앨범을 듣고는 (원래 본딴이 좀 전형적인 힙합은 아니잖아요) 무언가 '제대로 간지나는' 힙합 앨범을 듣고 싶어서 당시 명동의 미도파 백화점 지하 파워스테이션에 가서 무작정 누군지도 모르고 자켓만 보고 왠지 제대로 된 힙합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구입한 앨범이 바로 Gang Starr의 "Hard To Earn"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힙합이 뭔지 프리모의 비트와 구루의 랩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죠. 그리고 구루의 랩에 경도된 제가 그 다음으로 구입한 앨범이 바로 오늘 소개한 "Jazzmatazz Volume 1"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지금까지도 힙합과 재즈를 듣고 있게 됐죠. 정말 슬픔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디 평온한 곳으로 가셔서 먼저 간 Michael Jackson, 2Pac, Biggie, J Dilla, Big L, Big Pun, Jam Master Jay, Aaliyah, Left Eye, ODB, Proof, Nujabes 모두 만나 회포라도 푸시기 바랍니다.

REST IN PEACE, GURU (1966-2010)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5995602>

- 01. Part 1: "Acknowledgement"
- 02. Part 2: "Resolution"
- 03. Part 3: "Pursuance"/04. Part 4: "Psalm"



오래 묵힌 먼지 쌓인 씨디장에서 재즈 씨디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John Coltrane의 "A Love Supreme".. 개인적으로는 돈 주고 산 최초의 재즈 씨디예요. 그 전까지 힙합이나 팝이나 뭐 그런 위주로만 듣다가 Common이 추천한 앨범이라길래 사서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전, 어떻게 보면 최초로 들은 재즈 앨범인데도, 거리감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치 힙합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짙은 흑인 냄새와 심지어는 '그루브함'까지 느낄 수 있었다죠. 근데 알고 봤더니 본 앨범.. 아방가르드 후리 재즈의 대표 앨범 중 하나이자 존 콜트레인의 앨범들 중에서도 꽤나 free한 앨범이라고들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앨범은.. John Coltrane이 하드밥 위주의 Atlantic 시절을 떠나 본격적인 'classic quartet'을 결성하고 아방가르드 계열로 접어드는 Impulse 시절의 작품들 중에서도 중후반기에, 그의 예술적 역량이 가장 극에 올랐을 때 나온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랜 마약 중독과 방황에서 벗어나, 아들을 얻게 해주신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만든 작품으로 알려진 이 앨범은 앨범의 문을 여는 "Acknowledgement"에서부터 그 성격을 극명하게 합니다. 이 곡은 본 앨범의 타이틀과 같은 "A Love Supreme"이라는 부제로 흔히 불리기도 하는데, 웬지 하늘이 개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장엄한 심벌즈 소리와 함께 그 사이로 창세기의 햇빛이 쏘여주는 것 같은 콜트레인의 테너 소리가 remote한 느낌으로 들려옵니다. 이윽고 바쁘게, 동물들이 왔다갔다하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는 등등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같이 지미 개리슨의 베이스와 엘빈 존스의 드럼이 어울려 그루브함(단순한 '리듬감'이 아닙니다. '그루브함'입니다.)을 조성하고 맥코이 타이너의 피아노는 무심한 듯 불규칙하게 퐁퐁퐁퐁 두들기는 가운데 콜트레인의 솔로가 시작됩니다. 콜트레인의 테너 색소폰 소리는 딱 들으면 바로 그의 연주라는 걸 알아맞출 수 있을 정도로 개성적인데요, 고음부에서 소리를 쥐어짜는 듯한 (혹자는 닭우는 소리라고도 하는) 찢어지는 소리와 반대로 저음부에서는 완전히 소리가 으깨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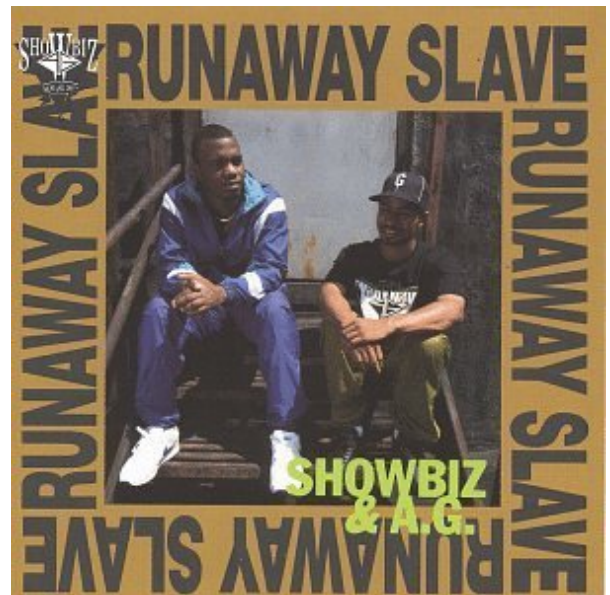
듯한 사운드가 불규칙한 리듬에 어울려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유발합니다. 이 곡의 엔딩에서는 그가 직접 중후한 '흑인'의 목소리로 "a love supreme"이라는 반복적인 여음구를 poetry slamming식으로 읊조리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키죠. 첫 곡이 장엄하고 엄숙한 분위기였다면 다음 곡 "Resolution"부터는 이제 좀더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첫 곡의 분위기를 잇는 듯 지미 개리슨의 나즈막한 베이스가 조용히 울리다가 한 순간 폭발하듯이 모든 악기가 충돌하며 동시에 소리를 내는데 혼란스럽고 어지러우면서 굉장히 grave한 콜트레인의 색소폰 멜로디가 슬슬 앨범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다음곡 "Pursuance"으로 이어집니다. 앨범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 곡에서는 엘빈 존스의 1분 이상 이어지는 드럼 솔로에 이어 콜트레인의 메인 테마가 울리는데 이 곡의 가장 큰 수훈은 누가 뭐래도 피아니스트인 맥코이 타이너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베이스-드럼의 타이트한 리듬에 맞춰 전개되는 그의 피아노 솔로는 때론 투당투당 불규칙하게, 때론 물결 요동치듯 화려하게 진행되는데 그 건반을 하나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숨이 막힐 것 같은 절정의 순간에, '아.. 제발 그만.. 이제 그만..' 하는 순간에 "꽤애엑~" 거리면서 콜트레인의 솔로가 다시 이어지고 이 부분에서 청자들은 대부분 오르가즘과 함께 쓰러져 버리죠. 그리고 앨범은 이제 서서히 문을 닫을 준비를 합니다. "Psalm"에서는 이제 힘든 여정을 마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다시금 신에 대한 사랑(a love supreme)과 감사를 담아 기도하듯이, 앨범의 시작 때 들리던 심벌즈 소리가 나즈막하게 깔리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고요히, 그러나 여전히 진지하고 무거운 그의 솔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앨범은 문을 닫습니다.

이따금씩 앨범에 대한 감상을 적다보면 제가 특히 좋아하고 '정말 걸작이다' 내지는 '불후의 명반이다'라고 생각하는 앨범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 뮤지션의 영혼을 담은, 영혼을 쏟아부은 앨범'들을 전 의심의 여지없는 '명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사운드나, 가사나, 테크닉이나.. 여러가지 잣대들이 있겠지만 '음악'이라는 게 그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의 '감성'을 반영한다고 보면 역시 바로 이 '감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누굴 만나도 절대 명반이라고 말하는 - Blog M에도 전부 포스팅한 것들이죠 ^^; - J Dilla의 "Donuts"나, Verbal Jint의 "누명"이나.. 등등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소개한, John Coltrane의 "A Love Supreme" 역시 그가 살아 생전 그의 모든 영혼을 불사른 앨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Kind Of Blue"보다 이 앨범을 더욱 걸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헤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5537866>

1박 2일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 그걸 맛을 본 강호동씨의 표정을 떠올려봅시다. 눈썹이八字로 되면서 음식물을 머금은 채로 입을 살짝 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와..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듯한 그 감탄의 표정.. ㅋㅋ 제가 오늘 소개하는 이 앨범을 들으면서 제 표정이 그랬답니다. 자 또 썰을 풀어봅시다!

01. Still Diggin' (featuring Diamond D)
02. Fat Pockets
03. Bounce Ta This (featuring Dres)
04. More Than One Way Out Of The Ghetto
05. Silence Of The Lambs (Remix)
06. 40 Acres And My Props
07. Runaway Slave
08. Hard To Kill
09. Hold Ya Head
10. He Say, She Say
11. Represent (featuring Big L, Deshawn, & Lord Finesse)
12. Silence Of The Lambs
13. Party Groove (Bass Mix)
14. Soul Clap (Short Version)
15. Catchin' Wreck
16. Party Groove (Instrumental)



오늘 들고 나온 이 앨범은 뉴욕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의 전설 D.I.T.C. 크루의 초기 대표작 중 하나인데요, (D.I.T.C. 크루에 대한 언급은 지난번 Diamond D 앨범 리뷰 때 했었죠) 지난번에 소개했던 Diamond D의 데뷔 앨범 "Stunts, Blunts, & Hip Hop"과 더불어 D.I.T.C. 초기 양대 클래식으로 평가받는 앨범입니다. Show (혹은 Showbiz)와 메인 엠씨인 A.G.의 듀오작으로 전곡을 Showbiz가 프로듀싱했고 (8과 14는 Diamond D와 공동 프로듀싱) A.G.가 랩을 하는 형식인데요, 특이한 점은 프로듀서인 Show의 랩 또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쁘지 않습니다.) 암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앨범 역시 시대적 배경은 올드스쿨이 뉴스쿨로 개화해가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당시의 flava가 듬뿍 담긴 '미치도록 아름다운 앨범'이라고 표현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사운드면에서 Show가 만들어내는 비트들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Diamond D의 그것과는 또다른 개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Diamond D의 비트가 베이스음을 덧입혀 부드럽게 그루브감을 선사한다면 이 앨범에서 Show가 주조하는 비트들은 상당 부분 '드럼 자체의 소리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how의 랩가사에서도 "SP-1200을 사고 싶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진짜 SP-1200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매우 살짝살짝,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의 재즈 샘플들만 적시적소에 곁들이면서 대부분을 그야말로 풀 리듬 가득한 '파워 드럼'으로 채웠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 미니멀하게 살짝살짝 들어가는 horn 샘플들이 더욱 강

력한 그루브감을 만들어낸달까요? 수록곡 중 "Hard To Kill"을 들으면서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성적' 흥분감을 느낄 정도였는데요, 샘플도 거의 없고 비트도 킥과 스네어 달랑 두 개에다 그 사이에 들릴 듯 말듯 살짝 쪼갠 비트 조각을 하나 끼워넣었는데 - 그렇다고 Dilla 스타일의 오프비트가 아니라 정박을 유지하면서 - 그게 이끌어내는 그루브감은 진짜 아랫도리를 적실 정도로 꽤나 dope합니다. (사실 D.I.T.C. 사운드가 뉴욕 힙합의 전형이라고는 하지만, 같은 하드코어 스타일이라도 QB 스타일이나 우탱이 대낮에 막 몽둥이로 쳐죽이는 스타일이라면 D.I.T.C.의 경우엔 어두운 밤길 뒤에서 타박타박 다가가 목을 잡아 고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Buckwild가 프로듀스한 O.C. 데뷔 앨범 수록곡 "Time's Up"의 그 흐느적 간지 지대로인 비트가 마음에 들었다면 아마 본작에 수록된 "Runaway Slave"를 들어보시면 이미 그 분위기를 Show가 먼저 내고 있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암튼 간에 열악한 환경과 열악한 장비로 지금 들어도 무척 세련되고 도프한 '미친 비트'를 만들어낸 Show의 능력에 진짜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A.G.의 랩과 가사들은 어떨까요? Big L, O.C.와 더불어 크루의 메인 엠씨 답게 그의 랩 역시 적당한 하이톤의 개성을 유지하면서 유려한 라이밍을 선보입니다. 당시의 랩이란 게 지금과는 달라서 복잡다층구조의 라이밍이나 기발한 펀치라인 가사들은 거의 없지만서도, 시대적 정황을 고려해보면 꽤나 스킬풀한 랩을 선보이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Nas의 "Illmatic"이 힙합계의 "Kind Of Blue"라는 평을 받는 이유가 기발한 다음절 라이밍의 확립과 자전적 회고, 스토리텔링 등을 담은 lyricism이라는 점인데요, 시대적으로 2년이 앞선 본 앨범에서의 A.G.의 랩에서도 이미 다음절 라이밍이 등장하고 있으며 자전적인 회고("More Than One Way Out of the Ghetto")나 스토리텔링("He Say, She Say")이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그의 랩 역시 당시로서는 꽤 creative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길 하나면 심지어 wikipedia에서도 Illmatic 이전의 가사들은 모두 '단순 일차원적 라임 배열'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나 주저하지 않을, 앨범의 베스트 트랙은 단연 posse cut인 "Represent"일 겁니다. 이 곡에서 만큼은 Show 역시 다소 어그레시브한 기타 샘플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곡의 가치는 단연코 Big L의 공식적인 데뷔 verse라는 점일 겁니다. Big L이 누굽니까. 지금은 고인이 된, D.I.T.C. 내 최고의 리리시스트이자 D.I.T.C. 내에서 대중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엠씨입니다. 그의 공식적 첫 목소리가 담긴 이 트랙을 들으며 밤거리를 걸어보세요. 길 옆으로 라이트를 켜 차들이 지나가고, 길가 하수구에선 허연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집앞 밤거리가 곧바로 뉴욕 브롱스의 밤거리처럼 느껴질 겁니다. 한편 히트 싱글인 "Party Groove"는 또 어떨게요, 80년대 디스코 열풍이 불던 그 특유의 댄서블한 빈티지 샘플을 이용한 댄스 뮤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Soul Clap"에선 올드스쿨 초기의 블록파티를 재현하는 듯한 분위기가 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잠시 생각해보니.. 사실 좀 그렇습니다. 록음악과 비교를 잠시 해보자면.. 너바나부터 시작된 그런지-얼터너티브 열풍은 금새 모던록-컬리지록-브릿팝의 열풍으로 이어졌고 이 음악들을 즐기던 음악팬들은 80년대 헤비메탈과 클래식 음악들을 일정 부분 무시했었던 분위기였죠. 구닥다리라고.. Suede를 듣지 왜 Quiet Riot을 듣냐고.. 근데 지금의 힙합씬이 그렇습니다. 언젠가부터 인가 '힙합'하면 미디 작곡이 주가 된 전자음과 댄서블한 클럽튠, 그리고 돈과 여자, 혹은 부담없고 편한 가사들, 얇고 여러면서 약간의 보컬이 가미된 - 혹은 오토튠이 가미된 - 랩들.. 그래요. 시대의 조류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들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제가 소싯적부터 좋아해오던, '힙합'이라는 건 샘플링에 기반한 묵직한 브레이크비트와 간간히 곁들여지는 스크래칭, 그리고 간지나는 도프한 랩들.. 그거였거든요. Nas형이 왜 힙합이 죽었다고 말을 했고 Jay-Z가 왜 오토튠의 죽음을 주장하는지 사실 좀 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죠. 재미있는 건, 다시 록음악과 비교를 해보자면 언더그라운드-인디록씬의 음악적 자양분은 예나 지금이나 '옛것'에 기반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60-70년대 비틀즈-비치보이스부터 지미 헥드릭스, 더 후, 벨벳 언더그라운드나 섹스 피스톨즈에 대한 어떤 고집이나 리스펙트가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그럼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은 어떨까요? 예, 맞아요. 아직도 본토의 많은 언더그라운드 힙합팬들은 80년대 후반 올드스쿨과 바이닐 컬쳐, 그리고 90년대 초반 뉴욕 힙합이나 쥐윙크를 그리워합니다. 이런 사운드를 아직도 내고 있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앨범들이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합니다. 일례로 90년대 초반 잠깐 등장했다 잊혀졌던 Freestyle Professors의 신보는 '옛것' 그대로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undergroundhiphop.com의 여러 평점들에서 만장일치의 별 5개를 얻어냈습니다. 한편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을 장악하던 Marley Marl이나 KRS-One, 그리고 오늘 얘기한 D.I.T.C. 크루와 같은 힙합 장인들이 주류에 진입하지 못하고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씁쓸하기도 하네요. 아무튼! 다시 부활하고 있는 Wu-tang과 달리 실질적으로 D.I.T.C. 크루는 현재 좀처럼 그 단합된 모습을 찾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제 생각엔 Fat Joe가 제일 심한 듯),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러 언더그라운드 걸작 앨범들에는 아직도 produced by Show, Diamond D, Lord Finesse, or Buckwild의 이름들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여전히! 예전에도 그랬고 꼭 그래왔듯이, D.I.T.C.의 이름은 본토 언더그라운드 힙합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로망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still diggin' 하니까요.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4658352>

Disc 1

01. Dr. West (Skit)
02. 3 a.m.
03. My Mom
04. Insane
05. Bagpipes From Baghdad
06. Hello
07. Tonya (Skit)
08. Same Song & Dance
09. We Made You
10. Medicine Ball
11. Paul (Skit)
12. Stay Wide Awake
13. Old Time' s Sake (featuring Dr. Dre)
14. Must Be The Ganja
15. Mr. Mathers (Skit)
16. D□j□ vu
17. Beautiful
18. Crack A Bottle (featuring Dr. Dre & 50 Cent)
19. Steve Berman (Skit)
20. underground



Disc 2

01. Forever (featuring Drake, Kanye West, & Lil Wayne)
02. Hell Breaks Loose (featuring Dr. Dre)
03. Buffalo Bill
04. Elevator
05. Taking My Ball
06. Music Box
07. Drop The Bomb On 'Em

CURTAINS UP

에미넴에게 the one and only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데는 별 이견이 없을 듯 합니다. 나스에게 제이지가 있고, 칸예에게 루페가 있고, 커먼에게 루츠가 있고, 모스데프에게 탈립이 있고.. 뭐 등등 비슷한 계열의 아티스트들을 묶어볼 수 있겠지만 에미넴은 그냥 에미넴이죠. 해괴한 가사와 엽기, 방방 뛰는 재기발랄함으로 등장했지만 처음부터 그의 음악은 여타 엠씨들의 음악과는 그 감수성면에 있어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여기엔 그가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치졸해보이지만 사실인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었어요. 많은 흑인 엠씨들이 길거리와 게토에서의 삶, 총과 마피아, 그리고 자기 과시, 돈과 섹스 등의 가사들을 읊조릴 때 그가 내뿜었던 가사들은 오히려 무슨 90년대 초반 그런지 밴드들이나 데뷔 시절 그린데이의 펑크 음악들에서 내뿜어지던 자기 혐오에 찌든 가사들이 많았었죠. 물론 그는 록커가 아닌 랩퍼가 맞고 여러 다른 흑인 엠씨들과 더불어 힙합씬에 몸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 그를 가만히 보고 있자면 90년대 초 얼터너티브록에서 느껴지던 감성이 느껴집니다. Nas라기보다 Beck에 가깝다고 할까요. 잡설이 길었네요. 오늘은 그의 가장 최근작인 Relapse: Refill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RELAPSE

다섯번째 스튜디오 앨범이었던 Encore 이후 5년 만에 발매된 신작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친한 친구였던 Proo의 죽음과 그에 따른 정신적 충격, 그리고 다시금 시작된 약물 과용.. 이 앨범은 그 과정을 겪어낸 에미넴이 '약물'을 기본 테마로 해서 만든 앨범입니다. 자켓에서부터 앨범 전체를 꿰뚫는 키워드는 바로 'drug'이며 수록곡들 대부분에서 각종 약들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컨셉 앨범'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아요. "3 a.m."에서는 약에 취해 연쇄 살인을 저지르는 킬러의 이야기를, "My Mom"에서는 자신이 왜 발리움 중독이 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얘기하며 다시금 엄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Must Be The Ganja"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의 기분을, "Deja Vu"에선 약물에 취해가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가사면에 있어서는 "The Slim Shady LP"에서의 slim shady라는 엽기 캐릭터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게 본 앨범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시절로의 재탕'이라기 보다는 같은 테마를 놓고 보다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다잡아죽이고싸질르고 하는 데 무슨 성숙이냐!" 그러시겠지만 제 말은, Slim Shady LP에서의 셰이디는 그야말로 독기를 가득 품고 완전히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정도로 써내려간 듯한 가사라면 본 앨범에서의 셰이디가 들려주는 가사들은 그 전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더욱 잔인해졌으면서도 에미넴 자신이 그 캐릭터를 주체적으로 연기한다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더욱 잔인하고 엽기적이지만 그야말로 잘 만들어진 하나의 '캐릭터'를 컨트롤한다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한편 그러한 성숙함은 자조적인 가사들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데요, "Deja Vu"와 "Beautiful"에서 그가 진심을 담아 내뿜는 자조적인 가사들은 그 어떤 이전작들에서와 비교도 안될 정도로 신실하며 어떤 연민의 정까지 느껴집니다.

몇몇분들은 이 앨범을 듣고 실망했다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에미넴'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The Slim Shady LP-The Marshall Mathers LP-The Eminem Show로 이어지던 세 장의 걸작 앨범들에서 기인한다는 게 가장 크다는 거죠. 워낙에 강렬했으니까요. 근데 에미넴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뮤지션으로서 어느 한 스타일에만 머무를 순 없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랩톤에서나 사운드면에서나 가사면에서 변화를 시도했던 앨범이 Encore였고, 괜찮은 퀄리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팬들 에겐 '졸작'이라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지, 이번 Relapse를 몇번이고 곱씹어 들어본 결과 Relapse는 그 이전작들보다는 Encore에 더욱 가깝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점에 있어 이번 앨범에 실망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하구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먼저 사운드면에서 Jeff Bass나 에미넴 자신의 프로듀싱은 싹 사라졌고 한 곡을 제외한 전곡이 Dr. Dre 프로듀싱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볼 때 Dr. Dre의 프로듀싱은 '그루비한 것'과 '그루비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가 The Chronic에서의 취향크에 기반한 그만의 농익은 그루브감에서 이어온 긴장감 감도는 업템포 비트 - 대표적인 예가 Mary J. Blige의 "Family Affair" - 라면 후자는 보다 bpm을 떨어뜨리고 웅장한 현악 혹은 피아노 샘플을 곁들인 형태인데 주로 최근엔 이 후자쪽의 사운드를 많이 들려주고 있죠. 바로 이 '그루비하지 않은' 닥터 드레식 비트들이 주를 이룬 작품들이 바로 전작 Encore와 본작 Relapse라는 거예요. 그러다보니 '그루비한' 드레 비트

를 좋아하는 리스너들에게는 좀 재미없게 들리는 거죠. 근데 개인적으로 너무 방방 뛰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스타일의 드레 비트들도 - 특히 에미넴의 가사와 어우러진다면 - 듣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Raekwon의 OB4CL2에선 그 비트들이 x망했죠.ㅋ) 하지만 Encore에서의 "Never Enough"가 그랬듯, 이번에도 "Old Time's Sake"라는 드레식 그루브 넘치는 비트도 물론 있습니다. 그밖에도.. 전 작의 "Ass Like That"에서 시도한 동양적 사운드가 본 앨범의 "Bagpipes From Baghdad"나 Refill 수록곡인 "Taking My Ball"에서 나타나고 있는 걸 봐도 Encore에 보다 낫은, 새로운 걸 시도하는 앨범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달라진 에미넴의 랩톤에 대해 얘기가 많은데요, 물론 저도 "3 a.m."이나 "We Made You"를 처음 딱 들곤 "뭐 이렇게 목소리가 찌파같이 됐냐" 이렇게 생각한 게 사실입니다만.. 뭐 그가 추구한, 그만의 변화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아예 목소리가 그 쪽으로 가버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저 하나의 포인트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구요, 이 두 곡이 앨범의 싱글들로 나와서 에미넴 랩톤이 아예 하이톤으로 가버린 게 아니냐는 성급한 일반화를 할지 모르겠지만 앨범을 다 들어보면 그래도 예전의 톤들이 더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앨범 맨 뒤에 수록된 "Underground"를 한번 들어보세요, 리즈 시절인 "The Marshall Mathers LP" 저리가라할 정도의 미친 라임과 플로우, 그리고 공격적인 에미넴 특유의 랩톤이 살아 있습니다. 체크하시구요, 여기까지입니다.

Eh.. Anything else? (public announcement 톤으로)

REFILL

자, Relapse를 발매한 에미넴이 후속작 Relapse 2를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발매한 리팩키지이자, Relapse를 이미 구입한 사람들을 물먹인 앨범입니다. 혹자가 그랬듯, 두번째 씨디인 Refill에 수록된 일곱 곡들은 만일 Relapse에 수록됐다면 전부 베스트 트랙으로 꼽힐 정도로 매우 멋집니다. 팬서비스도 이런 팬서비스가 없다고나 할까요? 원래 Drake 곡이었으며 사운드트랙으로 이렇다 할 만한 앨범에 수록되지 못했지만 2009년 하반기 최고의 대박곡이었던 "Forever"를 낼름 실어버린 에미넴의 센스도 대단하지만 비단 "Forever"를 차지하고서도 충분히 이쁜 곡들이 포진돼 있습니다. 예의 tense한 드레의 비트에 살짝 엿박을 가미한 랩이 일품인 "Hell Breaks Loose"는 단연 베스트 트랙인데요, 특히 이 곡에선 - 이 전에 좀처럼 들을 수 없던 - Dr. Dre의 촌철살인 속사포 엿박랩이 압권입니다. 또 "Music Box"는 어떻게, 에미넴 곡들은 때로 청자들을 엿먹이는 가사들이 참 많은데, 특히 사운드와 가사가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그런 거죠. 그가 자주 표현하는 "지지배들이 자기가 무슨 가사의 곡에 춤추는 지도 모르고 춤추게 만드는" 여성 폭행을 담은 가사에 댄서블한 비트들을 얹은 곡들이 좋은 예인데요, 이 곡 "Music Box" 역시 잔잔한 오르골 소리에 자장가가 연상되는 사운드에 반해 가사는 '다락방에서 소녀들을 데려다가 토막살인을 하는' - 제 생각에 역대 에미넴 곡들 중 최고의 엽기성을 보이는 - 가사가 등장합니다. 아무튼 곡 자체는 매우 좋습니다. 또 마지막 곡 "Drop The Bomb On 'Em"에서는 아까 언급했던, Mary J. Blige의 "Family Affair"를 딱 떠올리게 하는 닥터 드레 전매특허 그루브 비트가 귀를 즐겁게 해주네요.

CURTAINS DOWN

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적으로 에미넴의 음악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남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바로 가사의 소재면에서 말이죠. Encore에서 잠시 시사성 강한 가사들을 들려줬지만, 이 앨범에선 다시금 그만의 자조적이며 엽기성 강한 가사들을 담고 있다는 게 약간은 좀 아쉽습니다. 이제 어느덧 불혹을 바라보고 있는 에미넴.. 앞으로는 좀더 확장된 리릭컬 스펙트럼을 보여주면 어떨까요. "오랫동안 들을 수 있는 곡들을 만들겠다"는 그의 포부가 담긴 차기작 Relapse 2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팬으로서 기대해봅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3903385>

01. Triumph
02. Mama Told Me
03. Mirrors featuring Bun B
04. Pretty Girls featuring Gucci Mane & Weensey from Backyard Band
05. World Tour featuring Jazmine Sullivan
06. Let It Loose featuring Pharrell
07. 90210
08. Shades featuring Chrisette Michele
09. Chillin featuring Lady GaGa
10. TV In The Radio featuring K'Naan
11. Contemplate
12. Diary featuring Marsha Ambrosius
13. Beautiful Bliss featuring Melanie Fiona & J. Cole
14. Prescription



PROLOG

2009년 본토 메인스트림 힙합씬에서는 세 명의 수퍼루키가 등장했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예 바로 다들 잘 아시는 Drake, Kid Cudi, 그리고 Wale(왈레)가 바로 그들입니다. 드레이크가 다소 곱상하고 부티나며 아이돌스런 이미지를 지녔고 키드 커디가 왠지 심오하고 시니컬하며 얼터너티브스런 이미지를 가졌다면 왈레는 왠지 푸근한 '옆집동생 랩잘하는 광식' 이미지를 지녔다고나 할까요? 또한 곧잘 비교되는 이 셋은 모두 믹스테이프를 통해 인기를 얻었고 그 믹스테이프들을 들은 각각의 멘토들에 의해 데뷔했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Drake는 Lil Wayne, Kid Cudi는 Kanye West라는 현 힙합씬을 주도하는 양대산맥들인 반면에 Wale의 경우는 Mark Ronson이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래서 팬들 사이에선 Wale의 경우는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음악만 잘하면 되지. 그렇다면 Mark Ronson이 누구니까. 사실 이 분은 본토 힙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영국 댄스뮤직씬의 브레이크비트 디제이겸 프로듀서입니다. 빌보드가 아닌 bbc radio 1 차트에서 주로 활약하는 분이시죠. 암튼 간에.. 자 그럼 슬슬 우리 랩잘하는 광식이 애길 시작해봅시다.

HERE' S A LITTLE STORY THAT MUST BE TOLD

왈레는 워싱턴 DC 출신의 랩퍼입니다. 가만 있자.. DC 출신의 랩퍼가 누가 있었을까요.. 사실 DC는 뉴욕이나 LA나 시카고나 아틀란타에 비해 힙합이 강세인 도시는 아닙니다. 음... 선구자격인 DJ Kool이 있었구요, 비교적 최근엔 언더그라운드씬의 강자

Unspoken Heard의 Asheru와 Blue Black이 DC 출신들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렇다할만한 스타급 엠씨는 없었죠. 그건 아마도 District of Columbia가 힙크의 하위 장르 중 하나인 Go-Go music의 본고장인 까닭이 컸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DC의 길 거리에선 여러 흑인들이 후리스타일랩을 하는게 아니라 스틱을 들고 드럼통을 두들기며 고고를 외쳤으니까요. 자, 이런 지역적 배경 아래, 드디어! Wale라는 스타 엠씨가 2009년에 혜성처럼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고장의 특색인 고고 뮤직의 자양분을 듬뿍 받은 음악을 들고 말이죠.

왈레는 2009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기 전 로컬 언더그라운드씬에서 5장의 믹스테이프를 발매했고 모두 매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2005년에 발표한 첫번째 믹스테이프 [Paint A Picture]에 수록된 "Dig Dug (Shake It)"과 2006년에 발매한 두번째 믹스테이프 [Hate Is The New Love]에 수록된 "Breakdown"은 전면적으로 '투구두타가다 투구두타가다' 고고 비트를 차용한 히트 싱글들이었죠. 또 "Rhyme of the Century"에서는 올드스쿨의 치열한 느낌을, "Uptown Roamer"에서는 트렌디한 전자음을 들려주었고 2007년에 발표한 세번째 믹스테이프부터는 아예 프로듀서들을 기용해서 스트릿 앨범 형태의 대박 작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의 멘토인 Mark Ronson과 전속 프로듀서라고 할 만한 동향 출신의 Best Kept Secret, 그리고 재치한 스타일의 Judah가 주조해낸 세번째 믹스테이프 [100 Miles & Running]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주옥같은 명반인데요, 그의 재치있는 라임과 펀치라인들이 고품격 비트 위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며 수록곡 중 댄스 뮤직 그룹 Justice의 "D.A.N.C.E."를 리믹스한 "W.A.L.E.D.A.N.C.E."는 로컬씬에서 빅 히트를 치게 됩니다. 이에 탄력을 받아 대부분의 곡을 Best Kept Secret이 프로듀스한 네번째 믹스테이프 [The Mixtape About Nothing]에서는 그가 즐겨봤다는 TV 시트콤인 Seinfeld의 장면들을 샘플로 따 일종의 컨셉 음반처럼 만든 것이었으며 가장 최근인 2009년에 발표한 다섯번째 믹스테이프인 [Back To The Feature]는 언더그라운드씬의 거장 프로듀서 중 하나인 9th Wonder와의 합작프로젝트로 Skyyzoo, Royce Da 5'9, Black Thought, Talib Kweli, Memphis Bleek, Beanie Sigel, Bun B, K'Naan, Peedi Peedi, Joe Budden, Freeway 등 화려하기 그지 없는 게스트들을 끌어모은 정말이지 버릴 곡 하나없는 완벽한 스트릿 앨범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간 들었던 어떤 앨범들보다도 가장 재미있게 들은 앨범이었어요) 그 와중에 그의 이름은 힙합 전문지 The Source지의 'Unsigned Hype'에 소개되고, (그가 가장 존경한다는 Black Thought의 그룹인) The Roots의 싱글 "Rising Up"에 취처럼 하게 되며, (약간 엄하게도) 그의 믹스테이프들을 인상깊게 들은 '영국 브레이크비트 프로듀서' Mark Ronson의 레이블인 Allido Records에 계약하면서 본격적으로 씬에 데뷔하기 위한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높은 기대를 한몸에 앉은 채.. 2009년 10월 그의 데뷔 앨범 [Attention Deficit]이 발매됩니다.

ATTENTION DEFICIT (2009)

사실 이 앨범에 대한 얘길 하려고 주저리 주저리 참 말도 많았네요. 음.. 이 앨범.. 참 가만히 듣다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은 앨범임에는 분명합니다만.. 그리고 만약에 말입니다. 그가 발표했던 믹스테이프들을 듣지 않고 이 앨범만 그냥 듣는다면.. 꽤 좋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앨범을 두고 본토팬들 사이에선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 이유는 그가 믹스테이프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꽤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올드스쿨과 고고뮤직, 날고 기는 촌철살인 플로우, 9th Wonder를 위시한 언더그라운드 프로듀서들의 dope한 비트들로 범벅되었던 그의 믹스테이프를 사랑했던 언더그라운드팬들은 본작을 두고 '상업적이다'라는 평가를 내리곤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저 역시 그의 다섯장의 믹스테이프들을 다 들어봤습니다만) 본작이 그다지 '상업적'으로 '변질' 내지는 '변절'한 건 절대 아니라고 보구요, 그보단 믹스테이프들에 비해서 그의 촌철살인 라이밍은 다소 물러진 느낌이고 미친 플로우가 좀 격감했다는 점, 그리고 묵직하고 dope한 비트들보다는 트렌디하고 가벼운 비트들로 꾸몄다는 점 때문에 좀 '심심해졌다'는 느낌이 드는건 사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그도 메이저 데뷔를 준비해야했고 언더그라운드팬들의 귀도 생각했어야 했기에, 본작은 이 두 부분의 양립을 위한 그의 꽤 치열한 고민이 묻어난 작품이라고 생각돼요. 다시 말해, 데뷔작이 구리다는 게 아니라 믹스테이프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는 게 맞을 듯.. 그럼 좀 더 하나씩 하나씩 살펴봅시다.

일단 위에도 말했듯이 확실히 비트를 가지고 노는, 물만난 고기같은 그의 플로우나 라이밍은 좀 덜해졌습니만, 그의 다양한 리리컬 스펙트럼과 재치 넘치는 펀치라인은 역시 본작에서도 여전합니다. 그는 '총, 마약, 범죄, 폭력, 돈, 여자'라는 지극히 typical한 힙합의 주제에 대해서만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보단, 이전의 믹스테이프들에서도 그랬듯이 보다 자전적이고, 현실적이며 내부에서 발생하는 뜻밖의 자신만의 고민과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Mama Told Me"에서 현실 적응의 어려움을, "TV In The Radio"에서는 현 음악씬에 대한 회의감을 토로하고 있으며 믹스테이프 수록곡들이었던 "Cause I'm African", "The Kramer"에 이어 역시 본작 수록곡인 "Shades"에서 피부색에 대한 진지한 담론을 털어놓습니다. 또한 "Pretty Girls"에서 어여쁜 여자들을 찬양하고나서는 "Let It Loose"에서 성에 대해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을, 그 다음곡 "90210"에서 성에 대해 소극적이고 의존적일 수 밖에 없는 여자 연예인에 대한 스토리를 담담하게 풀어나갑니다. 또 Rihanna의 코러스 울림이 묘한 여운을 주는 "Contemplate"에서의 지독히 자전적이고 염세적인 가사는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이 가구요, "Diary"에서의 "Cars, nothing i drive can drive you out of this state of mind", "Money, nothing i buy can buy more time for your ears to tell your heart to listen to it"이라는, 우리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2중3중의 중의적 표현들은 그가 랍퍼인지 시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또 펀치라인들은 어떻구요, "넌 슬럼독이고 난 밀리어 네어다"같은 1차원적 펀치라인부터, 아예 곡 자체를 펀치라인으로 도배하다시피 한 "Beautiful Bliss"에서는 "파운데이션에 하트가 어찌구해서 The Anvil Night Hard가 어찌구하니까 브렛 하트와 브렛 파브가 만나서 샤프 슈터가 피겨 포를 이겨서 어찌구.." 푸하.. WWE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골때리는 펀치라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마지막곡 "Prescription"에서는 "Black Thought에게 내가 내 roots를 아는지 물어봐. 너가 만약 내 love를 ques한다면 tip을 알기 전에 Q에서 Q-Tip과 놀거야"라는 식의 언어유희를 즐기고 있습니다. 하하 참 재밌네요.

그럼 사운드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아마도 이 앨범에 실망한 많은 이들은 바로 사운드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예, 9th Wonder와 함께 했던 [Back To The Feature].. 죽인 거 압니다. 본작에서 9th Wonder는 잊어버리세요. 그보단 보다 트렌디한 전 자음들이 주를 이룬답니다. 싱글로 내놓은 "World Tour"와 "Chillin"은 모두 '대세'라고 할 수 있는 Cool & Dre가 프로듀싱을 맡아 팝스러운 비트들을 들려주고 있으며 듣기에도 나쁘진 않지만 웬지 그에 대한 기대치에 비해 '초대박 싱글'이라고 하기엔 다소 역부족인 느낌입니다. 또 "DC Gorillaz"와 "The Crazy"에서의 그 황기한 비트들을 선사하던 Best Kept Secret은 어딜 갔는지 여기서 다소 축축 늘어지는 비트들만 선사할 뿐이네요. 또 "Pretty Girls"에서는 그의 장기인 고고 비트를 수용했으나 역시 "Dig Dug"이나 "Breakdown"에서의 그 '찰집'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나마 록밴드 TV On The Radio의 기타리스트 Dave Sitek이 프로듀싱한 "Triumph"와 "TV In The Radio"에서의 록-댄스 하이브리드 비트들이 귀에 들어오는 편이구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 The Neptunes가 프로듀싱한 "Let It Loose"에서의 그 특유의 '우주 유명하는 고장난 기계'같은 사운드는 매우 빛을 발하며, 그의 영원한 멘토이자 브레이크비트로 먹고 사는 Mark Ronson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Mirrors"에서의 Bun B와 Wale의 주고 받는 타이트한 라이밍에 맞물려 돌아가는 빠워 비트는 단연코 앨범의 백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의 전 믹스테이프에 걸쳐서 'Mark Ronson이 프로듀싱한 곡들은 무조건 좋다'라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 공식은 본작에서도 여전히 유효했음을 증명해보인 셈입니다.)

EPILOG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 장애'라는 소아 정신과 질환이 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는 약이 바로 methylphenidate라는 약인데요 그 약의 상품명은 Ritalin입니다. Wale는 본작의 마지막 곡 "Prescription"에서 attention deficit한 녀석들에게 Ritalin을 처방해서 내 음악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하는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참 간지네요. 자, 그래요. 우리 모두 Ritalin을 복용합시다. 그래서 결핍된 주의력을 Wale에게 쏟아부읍시다. 이번 데뷔작은 그의 고민의 결과물이었고 너무 고민하다보니 조금 약간 어중간한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믹스테이프들을 모두 들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의 능력이 절대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걸요. 혹시 압니까. 차기작에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9th Wonder와 다시 작업할지요. 그의 행보에 모두 attention! 합시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3559159>

So much to say... DILLA... So much to say...

01. Donuts (Outro) (0:12)
02. Workinonit (2:57)
03. Waves (1:38)
04. Light My Fire (0:35)
05. The New (0:49)
06. Stop (1:39)
07. People (1:24)
08. The Difference (1:52)
09. Mash (1:31)
10. Time: The Donut of the Heart (1:38)
11. Glazed (1:21)
12. Airworks (1:44)
13. Lightworks (1:55)
14. Stepson of the Clapper (1:01)
15. The Twister (Huh, What) (1:16)
16. One Eleven (1:11)
17. Two Can Win (1:47)
18. Don't Cry (1:59)
19. Anti-American Graffiti (1:53)
20. Geek Down (1:19)
21. Thunder (0:54)
22. Gobstopper (1:05)
23. One for Ghost (1:18)
24. Dilla Says Go (1:16)
25. Walkinonit (1:15)
26. The Factory (1:23)
27. U-Love (1:00)
28. Hi. (1:16)
29. Bye. (1:27)
30. Last Donut of the Night (1:39)
31. Donuts (Intro) (1:11)



2월 10일이면 벌써 힙합 프로듀서 J Dilla의 4주기군요. 오늘은 왠지 글 자체가 좀 숙연해지는 느낌입니다. 서른둘이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힙합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영향력 있었던 프로듀서였던 그의 죽음은 얼마 되지 않은 힙합 역사상 가장 큰 손실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엠씨이자 생전 딜라와는 가장 가까웠던 친구 중 하나였던 Common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Charlie Parker, John Coltrane, Miles Davis, Marvin Gaye, 그리고 Stevie Wonder와 같은 라인에 올려야 한다"고 말이죠. 현 힙합씬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프로듀서들인 Pharrell Williams 와 Kanye Wes는 망설임없이 그를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프로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씩 하나씩 짚어봅시다. 첫째로, 보통 흔히 그를 가리켜 'drum god'이라는 칭호를 붙입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레코드를 모으기 시작했고 DJ로도 활동했으며 스스로도 재즈 드럼을 연주한 적이 있는 그는 한마디로 '어떤 소스를 갖다 줘도 자신이 의도한 대로 드럼을 찍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일화가 있는데요, 한번은 The Roots의 드러머이자 프로듀서 Questlove와 게임을 하게 됐는데 서로 상대방에게 아무 레코드나 던져 주고 그걸로 5분만에 비트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Questlove는 일부러 드럼도 없고 루프도 없는 곡을 골라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줬더니 즉석에서 후딱 비트 하나를 완성시켰는데 그렇게 탄생한 비트가 바로 Common의 "Like Water For Chocolate"에 수록된 "Dooinit"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를 두고 '비트 메이킹의 메시아'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둘째로는 그렇게 다양한 소스와 샘플들을 가지고 주조해낸 그의 비트들은 언더그라운드와 메인스트림을 아우르며 90년대 중반 여러 히트 앨범과 싱글들을 생산해냈다는 거죠. De La Soul, The Pharcyde, 그리고 ATCQ로 대표되는 native tongue 사단의 걸작들과 그 자신이 멤버로 속해있던 Slum Village의 환타스틱했던 앨범들 (지난 번 제가 올린 포스팅 참조), 그리고 Common의 "Like Water For Chocolate" 등에서 우리 produced by Jay Dee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당시 록씬으로 비유를 하자면 Butch Vig이나 Steve Albini와 같은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또 무엇보다 그를 전설로 남게 한 건 다른 아님 별다른 루머도 없이 깨끗한 사생활과 묵묵히 작업만 하던 그의 곧은 성품도 큰 역할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혹자는 그를 두고 '천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 그의 최근작인 "Jay Stay Paid"의 앨범 표지에는 그의 양 어깨에 천사 날개가 붙어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바로 그가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뮤지션 중 하나로 남을 수 있었던 마지막 이유로는, 오늘 소개하는 그의 유작인 "Donuts"라는 작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Donuts”

이 앨범은 그가 살아 생전 가장 마지막으로 작업한 앨범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가 죽기 전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완성한 프로젝트인데요, 그의 생일인 2006년 2월 7일에 발매되었고 3일 후 그는 불치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명실공히 '유작'이라는 칭호가 가장 잘 맞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 이 앨범을 구입해서 처음 들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운전하면서 이 앨범을 듣다가도 그렇고 매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오버하지 말라구요? 아니요, 절대 오버 아닙니다.) 저 말고도 이 앨범을 들으면서 우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해요. 이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정리가 잘 안되네요.) 자, 일단 수록곡들을 봅시다. 표면적으로는 1분 남짓의 짹짹한 힙합 비트 31곡이 수록된 형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힙합 프로듀서가 만든 인스트루멘탈 앨범'? 음.. 예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말이에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이 앨범과 같은 기획과 컨셉으로 만들어진 힙합 앨범은 여지껏 없었으며 앞으로도 매우 드물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자는 그저 1분 정도의 짹짹한 비트들이 담긴 비트 소품집 내지는 컴필레이션 같은 개념으로 이 앨범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여타 다른 Dilla의 솔로작들보다 저평가하는 경우도 봤습니다만..) 하지만 이 앨범은 Babu의 "Beat Tapes" 시리즈와 DJ Soulscape의 "창작과 비트" 같은 비트 소품집이 아닙니다. 또한 이 앨범은 Pete Rock의 "PeteStrumentals"나 RJD2의 앨범들과 같은 전형적인 인스트루멘탈 힙합 앨범도 아닙니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레코드들을 연결시킨 디제이 믹스 앨범은 더더욱 아니구요. 이 앨범은, 여러 소울, 재즈, 록 레코드들에서 추출해낸 샘플들을 가지고 저마다 각각의 특정 테마와 서사와 메시지를 지닌 1분 가량의 자그마한 비트 조각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완성한 하나의 큰 '작품 덩어리'입니다. 미술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조그마한

종이에 각각의 그림들을 그려놓고 이를 모자이크식으로 연결해서 멀리서 봤을 때야 비로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여기에 수록된 각각의 비트들은 그저 '랩을 위한 반주'로서의 비트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앨범을 듣고 있다면 마치 45분이라는 러닝 타임 동안 흘러가듯이 Dilla가 비트로 '연주'하고 샘플로 '노래'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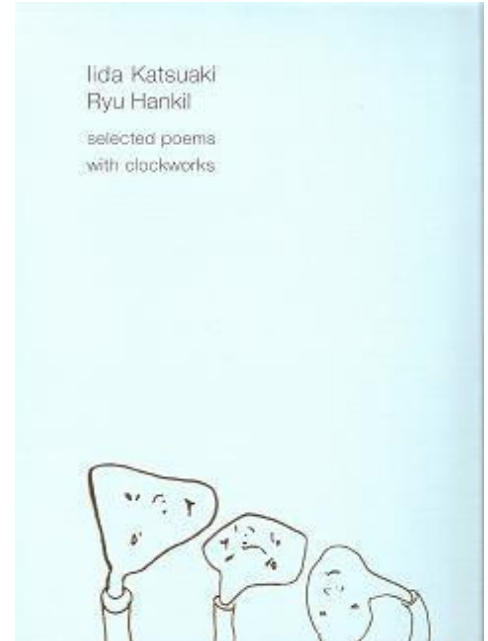
제 추측이지만 아마도 이 작업은 그가 어려서부터 레코드들을 모으면서, 그리고 음악을 시작하면서부터 꿈꿔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을 예견한 그가, 절박한 심정으로, 죽기 전 자신이 꿈꾸던 작품을 작업하기 시작해 죽기 직전에 마침내 완성한 작품입니다. 그야말로 그의 모든 영혼이 담긴, 아니 죽기 직전 그의 모든 영혼을 불태운 작품이 아닐까요? LA의 작업실에 틀어박혀 앉아 작업을 시작하고 그의 어머니가 매일 디트로이트와 LA를 오가면서 그에게 식사와 약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서는 병실에 모든 장비와 레코드들을 갖다 놓고 계속해서 작업합니다. 그의 옆에서 그의 어머니는 계속 그를 간호합니다. 그가 인공신장실에서 투석을 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작업물들을 듣다가 이를 발견한 Dilla는 어머니에게 화를 냅니다. 그의 죽음이 가까워지자 어머니는 결국 그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이를 지켜본 그는 "Don't Cry"를 만듭니다. "I can't stay to see you cry"라는 노래가 반복돼 울립니다. 그리고, 죽기 얼마전 그는 짧게 "Hi"라고 인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Bye"라는 작별 인사를 합니다. 결국 "Last Donut of the Night"의 해가 지는 듯한 애잔한 멜로디와 함께 모든 레퍼토리는 끝납니다. 그리고 끝이 곧 시작이라는 듯이 Intro와 함께 앨범은 문을 닫습니다. 생애 마지막 병실에서 작업하는 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에게 화를 내는 그,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 이 모든 장면들을 그려보며 이 앨범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눈가가 축축히 젖어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The late J Dilla..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에 가면 그를 만날 수 있을까요...? 끝으로 역시 그의 big fan 중에 하나인 Verbal Jint의 "삼박자 2010"의 가사를 인용해봅니다.

"강을 건너면.. Dilla의 다음 작품을 들을 수 있을까..."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2169852>

01. 죽기 전에 적어도
02. 차가워져 가는 세계의 노래
03. 물 속의 우주
04. Flagging(가제)
05. Lost
06. 한밤의 끝에서
07. 포근한 장소
08. 계기는
09. 먼 옛날을 느끼다
10. 하늘 높이
11. 포엣
12. 비
13. 말라버린 흙
14. 따스한 어둠
15. 연회의 끝
16. 무제
17. 새로운 메시지를 기다리는 나날
18. 소설 시모키타자와 오전 4시
19. 회전
20. 고요한 빛



Prolog

때때로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다보면 무척 수치스럽거나 무척 당황스럽거나 심지어 나 자신을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에 그랬었지.. 라고 흘려보내기엔 내 실수가 너무 치명적이어서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걸 인식할 수도 있죠. 아니, 어쩌면 내가 저지른 그 실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누군가가 있다면 나에게 아직 까지도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일본 공포 영화 "링"의 마지막 장면에서 티비 화면 속의 귀신으로만 생각했지 그제 직접 내 앞으로 기어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과거에 내가 저지른 실수였지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칠 거라 어떻게 예측했겠습니까. 미카엘 하네케 감독의 "Cache" 라는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지금 나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또 그 사람들에게 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나와 아주 가깝게 지낸, 아니 심지어 나의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거나 등을 돌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난 과연 과거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던 과거의

나와 같은 나일까요? 속에 잠재된 무의식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겠습니까? 삶과 죽음의 경계가 종잇장 한장처럼 얇디얇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달으시겠습니까? 손자에게 씹짓돈을 엿어주시고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떠나시는 주름진 할머니의 마음보다 아름다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Electro-Acoustic Improvisation (EAI)

Electro-acoustic improvisation, 우리말로로는 흔히 '전자즉흥음악' 이라고 불리는 음악이 있습니다. 전자음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원류를 따라가본다면 free jazz에서 탄생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미국 등에 씬이 발달돼있고 이웃나라 일본에도 저명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지만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90년대 중후반부터 노이즈 사운드에 대한 관심으로 활동하시던 홍철기, 최준용님 (아스트로노이즈, 퓨어 디지털사일런스 등), 진상태님, 박승준님, 그리고 언니네 이발관과 데이트리퍼로 활동하시던 류한길님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은 이들 중 류한길님의 음악에 대해 잠깐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전자즉흥음악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일까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이 음악을 접해보지도 얼마 안되구요. 하지만 제가 듣기에 이 음악은 글썄요..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음악'과는 조금 성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고 창조해내는 음악이라기 보다는 주변 사물들이 내는 '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생겨난 장르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 음악을 듣는 순간 "이게 무슨 음악이냐, 그냥 소음이지"라고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 하면서 무심코 듣는 소리들, 이를테면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개소리, 시계 소리, 자판 두들기는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이런 것들에서 '아름답다'라는 걸 발견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지점에 관심을 갖는다면 이 음악을 듣다가도 뭔가 그 안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지고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닐 거라고 예상합니다. 금방 적응할 수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 존 케이지의 "4분 33초"를 들으면서도 아름답다고 느끼신다면 이건 그것보단 더 쉽습니다. 자꾸 헛소리만 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요, 좀 현실적으로 표현해보자면 이 음악은.. 글썄요 제 생각엔 말입니다, free jazz와 로우파이, 그리고 노이즈가 혼합된 형태의 음악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깐 일정부분은 프리 재즈에, 일정 부분은 Merzbow 등으로 등으로 대표되는 다크 앰비언트-아방가르드 노이즈에, 일정 부분은 My Bloody Valentine으로 대표되는 슈게이징 인디록에, 일정부분은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적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아방가르드 음악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Ryu Hankil

류한길님의 음악은 제가 옛날부터 관심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쪽 들어왔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펑크(punk)'입니다. 웬 헛소리냐구요? 아, 물론 음악을 스타일로만 분류하지 말고 그 안에 내재된 이미지로 따져본다면 말입니다. "그는 멜로디와 노이즈를 동시에 사랑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멜로디보다는 노이즈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고 이윽고 데이트리퍼라는 원맨 일렉트로닉 프로젝트에서 '노이즈 덩'이라는 스타일로 청중들을 뭉쳤습니다. 당시 Alec Empire, Primal Scream, Teenage Fanclub, Ken Ishii 등의 음악에서 영감을 얻으셨고 그 안에 내재된 펑크 정신을 바탕으로 공연시 수많은 노이즈 효과음을 통해 청중들의 귀를 괴롭다못해 즐겁게 하셨었죠. 그런 공연장에서의 모습이 너무 좋았어서 오히려 데이트리퍼의 데뷔 앨범은 좀 심심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년 뒤 발매된 데이트리퍼의 두번째 앨범은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음악을 예고하는 전조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트리퍼라는 일렉트로닉-팝적인 비트감이 존재하지만 그 질감들은 마치 사물의 충돌에서 느껴지는 불협화음과 같은 소음들이었죠. 또한 전자음악 특유의 짙은 사운드감 보다는 뭔가 텅빈 공간감에서 느껴지는 미니멀한 소품 박자들.. 그런 느낌이 바로 데이트리퍼 2집이었습니다. (최근 오버

클래스의 LOBOTOMY가 이런 데이트리퍼 2집에서와 유사한 사운드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전 류한길님께서 음악을 접으신 줄 알았습니다. 전공이신 미술 활동에 전념하시고 교편을 잡으신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키보드 대신 laptop을 가지고 공연을 하시더니 이윽고 시계태엽이라는 획기적인 소품을 이용해 연주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모임이 바로 Relay라는 정기 즉흥연주회였고 앞서 언급한 몇몇 국내 전자즉흥음악인들이 이 음악 모임에 속해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내전자즉흥음악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썸이 실상 국내에선 그다지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는 못하나 이웃나라 일본에서부터 유럽썸의 아티스트들과는 많은 교류를 통해 발전을 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외잡지 등등에도 이들의 음악에 대해 기사를 다루고 있기도 하구요. 또 최선배님, 강태환님, 박재천님, 미연님 등등 국내 프리 뮤직썸의 뮤지션들과의 협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얘기 하다보니깐 딱데로 쏘군요. 제 글도 아방가르드인가봅니다. (아니, 사실 오늘 쓰는 글은 컨셉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글의 첫 단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류한길님의 음악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듣다보면 스타일은 조금씩 바뀌어갔으나 한가지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질러주는' 거지요. 조용히, 서서히 시작했다가 점차 고조되다가 흥분기에 확실히 질러버리고 다시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 그 뭔가 안에 내재된 분노와 불만 등을 아주 조심스럽게 표출하는 느낌이랄까요.. 표출하긴 하지만 왠지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표출하는 느낌.. 그 이미지 때문에 전 항상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펑크(punk)'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합니다. 왠지 제 글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나요? 뭔가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느낌..

Selected Poems with Clockworks

본작은 그런 배경과 맥락에서 발표된, 정식으로 그의 이름이 전면에서 새겨진 그의 '앨범'입니다. (이 앨범 발표 전에 물론 책자 부록 씨디나 5 Modules 컴필레이션 앨범 등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솔로 데뷔작은 아니고 일본의 시인 lida Katsuaki와의 협연 듀오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 앨범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계태엽을 이용한 류한길님의 연주 위에 이이다 카츠아키씨가 직접 낭랑한 목소리의 일본어로 시를 낭독하는 구성입니다. 듣기 전부터 꽤 멋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구입해서 들어보니 느낌이 아주 색다른입니다. 저기 위글의 서두에 제가 적어놓은 '이상한 글몽치'와 일맥상통하는 주제의 시들이 '일본어' -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일본어가 주는 특유의 비장함 등이 하나의 음악처럼 들린답니다 - 로 울리며 그 뒤에서 무심히 시계태엽을 이용해 즉흥연주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잘그랄잘그랄거리는 소리로 시작해서 정적이 흘렀다가 찌이이익~~ 고막을 자극하는 소리에다가 툭.툭.툭.툭. 의미없는 박자까지.. 그리고 그 위로 낭랑하게 울리는 "나니모나이데쓰요."

Epilog

오늘은 그저 이런 음악이 있다는 걸 소개해 보고 싶었습니다. 기분도 꿀꿀하기도 했구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음반을 구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음반 구입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세요) 굉장히 색다르고 신선한 경험이 되실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그의 이름으로 세 장의 앨범이 나왔는데요, 하나는 그의 솔로작, 그리고 Jason Khan과의 듀오작, 마지막으로 Bryan Eubanks와의 듀오작이 그것들입니다. 재미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0378393>

“I Say Fan-Ta-Serro, You Say, Huh, What, You Know”

지난 6월 31일, 디트로이트를 대표하던 힙합 유닛 슬럼 빌리지의 오리지널 멤버 중 한명이었던 Baatin 마저 J Dilla에 이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슬럼 빌리지 오리지널 멤버 셋 중 둘을 잃게 된 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집중했던, 또한 우리에게 가장 'fantastic'한 음악들을 들려주던 시기를 대표하는 두 장의 앨범을 들고 나와 봤습니다.

Fantastic Vol. 1 (2005, Donut Boy Recordings)

01. Fantastic
02. Keep It On (This Beat)
03. I Don't Know
04. How We Bullshit
05. Fat Cat Song
06. The Look Of Love
07. Estimate
08. Hoc N Pucky
09. Beej N Dem
10. Pregnant (T3)
11. Forth & Back (Rock Music)
12. Fantastic 2
13. Fantastic 3
14. Keep It On (Remix)
15. 5 Ela (Remix)
16. Give This Nigga
17. Players
18. Look Of Love (Remix)
19. Pregnant (Baatin)
20. Things U Do (Remix)
21. Fat Cat (Remix)
22. Fantastic 4



이 앨범은 슬럼 빌리지의 오리지널 멤버들인 디트로이트 코넌트 가든의 동네 친구들 Jay Dee (J Dilla), T3, 그리고 Baatin이 만든 데뷔 앨범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96년도에 녹음됐으나 정식 발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언더그라운드씬에서만 부틀레깅되다가 2005년도에 정식 발매됐죠.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J Dilla가 지금과 같은 명성을 얻을 시기는 아니었고 음악적 동료인 The Roots의 Questlove 등에 의해 칭찬만 무지하게 들던 시기였습니다. 제 생각에 이 앨범.. 제이 딜라의 초창기 사운드를 느끼기에 이 앨범만한 앨범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저 단순히 그의 초창기 사운드를 느낄 수 있기 보다는 지금의 그의 명성을 있게 만들어준 그만의 농염한 개성 넘치는 비트들이 사실은 본작에서부터 이미 장난 아니게 활개를 친다는 거죠. 나중에 제이 딜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얘기할 날이 있겠지만 특유의 콧방망이 한대 얻어 맞은 직후 느낌을 주는 귀먹먹거리는 베이스라인에 오프비트 드럼(즉, 쿵.쿵.딱. 쿵.쿵.딱.이 아닌 쿵ㄹ딱. 쿵ㄹ딱.거리는..)이 만들어내는 야릇한 몽롱함이 이 앨범을 전체적으로 애워싸고 있다는 말입니다. 짹짹하게 2분 남짓 흘러가는 곡들과 스킷, 그리고 (누가 슬럼 빌리지 랩이 딸린데!!!) 몽롱한 그루브에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Jay Dee와 T3, 그리고 Baatin의 읊조리는 듯한 부정확한 발음의 랩, 이 모두를 전두지휘하는 제이디의 몽환적인 비트들이 한데 새우볶음밥처럼 버무려진 이 앨범은 보다 세련되고 정제된 느낌의 Vol. 2보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마음이 많이 갑니다. 앨범의 시작부터 앞서 언급한 제이디 특유의 비트가 등장하는 "Keep It On"도 멋지지만 이 앨범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The Look Of Love"일텐데요, 재즈 기타리스트 Barney Kessel의 동명곡에 쓰인 반복되는 기타 스트링이 주는 애잔한 느낌과 함께 "사랑이 뭔지 아니?"라고 계속 묻는 후렴구의 가사는 단연코 베스트 트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리믹스 버전들도 있지만 역시 본작에 실린 원곡이 주는 매력을 넘지는 못하지요. 전체적으로 Vol. 2처럼 뭔가 딱 정리되고 그런 것 없이 물흐르듯이 흘러가는 느낌이라 혹자는 별로 만족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 때문에 더더욱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리만치 빨려들어가는 멋진 앨범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Jay Dee의 비트 속에 폭 들어앉아 때를 불리고 싶다면 이 앨범 만한 게 없겠습니다.

Fantastic, Vol. 2 (2000, Barak/Good Vibe Recordings)

01. Intro
02. Conant Gardens
03. I Don't Know
04. Jealousy
05. Climax (Girl Sh**)
06. Hold Tight featuring Q-Tip
07. Tell Me featuring D'Angelo
08. What It's All About featuring Busta Rhymes
09. Forth And Back featuring Kurupt
10. Untitled / Fantastic
11. Get Dis Money
12. Raise It Up
13. Once Upon A Time featuring Pete Rock
14. Players
15. Eyes Up
16. 2U4U
17. CB4
18. Go Ladies



19. Thelonius featuring Common

20. So Much To Say

자, 환타스틱 볼륨 투입입니다. 뭐 많은 이들에 의해 전설적인 명반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라 따로 여기서 뭐라뭐라 부산스럽게 얘기하는게 오히려 더 좀 그렇습니다. Vol. 1 발표 후 본격적으로 프로듀싱 - De La Soul, The Pharcyde, Common, Busta Rhymes, ATCQ, Erykah Badu, The Roots, Talib Kweli 등의 히트곡들과 명반들을 주조해낸 - 에 발을 담근 제이디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던 90년대 후반, 그의 프로듀서로서의 네임 밸류 + 퀘스트러브의 Vol. 1에 대한 극찬 + 수많은 메인스트림/언더그라운드 힙합 정키들의 기대를 한 몸에 얹고 발매된 그들의 두번째 앨범이자 오피셜 메이저 데뷔 앨범이 바로 본작입니다. 근데 그렇게 큰 기대를 품은채 발매됐음에도 그 기대 이'상'의 결과물을 들려줬기 때문에 당시 이 앨범에 대한 칭찬 세례는 난리도 아니었고 이후 제이디의 죽음으로 한번 더 주목을 받으면서 현재는 명실상부 힙합 클래식 반열에 올라와 있는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앨범은 그렇습니다. 보통 이 앨범이 '사장된 Fantastic Vol. 1을 다시금 재구성한 앨범'이라고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트랙리스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세 곡 정도만 겹칠 뿐 전혀 다른 앨범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Vol. 1과의 연장선으로 본다면 일단 "I Say fan-ta-serro, you say, huh, what, you know"의 반복 여흥구가 본작에서도 오프닝과 스킷에 쓰인다는 점이고 미완성 형태로 있었던, 제임스 브라운의 목소리 샘플을 맛깔나게 배치시킨 "I Don't Know"가 완벽하고 깔끔하게 편곡된 완성곡으로 나왔다는 점이 우선 반가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Forth And Back"과 "Players"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Vol. 2가 Vol. 1과 가장 큰 다른 점은 Vol. 1이 몽롱하고 몽환적인 분위기 때문에 다소 마니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본작은 그야말로 제이디가 제대로 맘먹고 찍어낸 대중성 강한 비트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는 점이며 Q-Tip, D'Angelo, Busta Rhymes, Kurupt, Pete Rock 등의 스타급 게스트들의 참여로 더더욱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일 겁니다. Vol. 1이 고즈넉한 리페어강이 흐르는 더블린 거리같은 느낌이라면 Vol. 2는 팬파이프 소리 그득한 축제분위기의 에딘버러 시가지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실례를 들어볼까요? "Jealousy"의 파워 클럽에 이어 제이디 특유의 오프비트가 아주 그냥 극단에 이르러 '쫘득'의 극치를 보여주는 "Hold Tight", 누가 아니랄까봐 디안젤로가 깔아놓은 퇴폐적인 신디사이저에 일부러 랩도 몽환적으로 깔아버리는 "Tell Me", "예예예예!!"를 외치는 버스타 특유의 치열한 목소리와 함께 도저히 양측 액와신경의 활동 전위를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What It's All About" (이 곡을 들으면 제이디가 클럽튤이나 방방 뛰는 사운드에도 소질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비장한 분위기의 앨범내 개인적 베스트 트랙 "Get Dis Money" 등등.. 언더그라운드 마니아가 들어도, 메인스트림 힙합팬이 들어도, 아니, 그냥 아무나 들어도 누구나 좋아할 만한 이쁘고 사랑스런 곡들이 수도 없이 짝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앨범은 보너스 트랙이 뭐냐에 따라 다른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제가 구입한 Barak 미국반에는 "So Much To Say"가 있는데 오.. 이 곡 좋습니다. 프로듀싱이 약간 뭐랄까요.. 좀 더 기계적이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약간 넵튠스 느낌이 나는 뭐 그런.. 암튼 좋아요.

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넘은 갔습니다.. 쉬유우우웅~후릿히릿히릭 (테잎 거꾸로 감기는 소리) 아니요, 슬퍼하지 않으렵니다. 이제 Jay Dee와 Baatin을 다시 볼 수 없더라도 우린 언제나 그들이 남겨놓은 음악을 통해 그들과 언제나 소통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음악의 힘이겠죠.

Post script:

현재는 오리지널 멤버인 T3와, J Dilla 탈퇴 후 3집부터 참여하기 시작한 역시 동향 출신의 Elzhi, 그리고 J Dilla의 동생인 Illa J의 3인조로 재정비된 상태이며 내년에 새 앨범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경과 시련과 아픔을 품은 이 트리오의 행로에 지속적인 지지와 사랑을 보여주시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76668603>

01. Sing-A-Long
02. Spinning Wheel
03. Five Miles Wide
04. Sweet Like Chocolate
05. King Of Winter
06. Like You
07. Flower Without You
08. Our Way
09. Step To My Beat
10. Trust In Me



UK Garage라는 스타일이 있죠. 원래 Garage라는 음악 장르는 미국 출신의 하우스 디제이 Larry Levan이 근무하던 Paradise Garage라는 클럽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한데.. 원래는 하우스 음악보다 약간 더 '소울'적인 느낌이 강했던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이 'Garage'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댄스 뮤직팬들에게 가까워진 건 90년대 후반~00년대 초반 영국에서 'UK Garage/2 Step' 붐이 일면서였죠. 물론 이 스타일이 지금 현재는 거의 죽다시피 했지만 당시만 해도 영국 댄스 뮤직씬은 온통 이 스타일로 넘쳐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Artful Dodger를 위시한 Robbie Craig, 그리고 Craig David와 Shola Ama의 성공, BBC Radio 1을 장악했던 The Dreem Teem의 믹스셋들, MJ Cole의 "Sincere", Lonyo Comme Ci Comme Ca의 "Summer of Love", Bigtime Charlie의 "Mr. Devil"등의 히트 싱글들은 그 특유의 사시미 화치는 축축찰찰 추기죽찰찰거리는 비트들과 함께 설 새없이 UK의 플로어를 달구었습니다. 당시 이 음악은 꽤나 매력적이었죠. 전형적인 하우스의 포온더플로어 비트에서 킥과 하이햇을 더 추가시켜서 '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더 보강시키다보니 더더욱 흔들기 좋은 스타일이 됐고 거기에 반드시 소울풀한 디바들의 보컬을 삽입시켜 '흑인 음악'적인 느낌을 더 강하게 냈습니다. 흑자들은 UK Garage를 'British R&B'라고 묘사하기도 했는데 그닥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하는 Steven Meade와 Danny Langsman으로 구성된 이 '샹스 앤 빅풋'이라는 팀 역시 당시 이 UK Garage 붐 속에서 빅히트를 친 영국 출신의 듀오입니다. 원래는 둘이서 난리친다는 뜻의 Doolall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혹시나 예전에 channel V나 MTV partyzone을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이들의 "Sweet Like Chocolate"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도 계실 거 같은데요, 사실 저도 channel V 보다가 이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저 곡 하나로 뚝

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앨범 발매 전 이미 바로 이 "Sweet Like Chocolate"이라는 싱글로 완전 초대박 히트를 치고 각종 댄스 차트를 석권하며 1999년 MOBO Awards에서 Armand van Helden, Fatboy Slim, Phats & Small을 제치고 수상하는 영예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데뷔 앨범 "Swings & Roundabouts"를 발매합니다.

"아, 좋다. 꼭 핑클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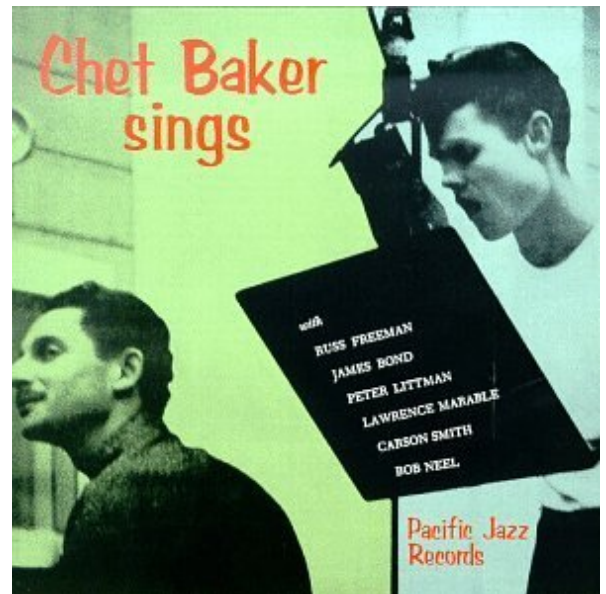
제가 예전에 한 직장 동료에게 무작정 이 앨범을 들려주고 즉각적으로 들은 반응입니다. 그 분은 그냥 가요만 듣는 분이었는데 이 앨범을 이어폰으로 꽂고 듣기 시작하시더니 좀처럼 이어폰을 벗지 않고 고개를 까딱거리며 계속 들으시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앨범은 매우 매우 팝적이며 매우 매우 흡인력이 강합니다.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앨범의 오프닝곡 "Sing-A-Long"을 들려주면 대부분 "좋다"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여타 UK Garage 팀들의 음악과 비교해봐도 다른 팀들의 음악이 보다 '플로어용'이면서 '언더그라운드적'이었다고 한다면 이들이 들려줬던 음악은 '에어플레이용'이면서 '메인스트림적'이었죠. 킥-스네어 사이에 화려한 하이햇을 양념친 전형적인 Uk Garage 비트는 맞습니다만 스네어 소리를 약간 더 샤프하게 내서 살짝 경박스러운 느낌을 좀더 뺐고 전반적으로 쫘득거리는 느낌을 살리고 있어 (진짜 "핑클" 노래들처럼) '댄스팝'적인 느낌이 많이 나구요, 이들의 음악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현악 샘플'들을 여러 군데 배치해놔서 음악이 마치 '애니메이션 스코어'같은 살짝 아동 취향적인 느낌도 납니다. 그리고 앨범 전체에서 보컬을 담당한 Terri Walker 역시 기교를 배제하고 부담없는 스타일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으며 히트 싱글 "Sweet Like Chocolate"의 보컬을 담당한 Sharon Woolf는 심지어 살짝 옛된 목소리를 들려주죠. 앨범은 전체적으로 "Sweet Like Chocolate"의 분위기를 충실히 이어받은 "Sing-A-Long"이나 "Flower Without You", "Step To My Beat" 등 달콤하면서 부담없고 듣기 편한 댄스 뮤직들이구요, 중간 중간 없으면 섭할 "King Of Winter"나 "Like You" 같은 슬로우 템포의 알앤비 넘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들이 너무 쉽고 '달콤'하다보니 어쩌면 전형적인 댄스-일렉트로닉 뮤직을 즐겨듣는 '매니아'들에게는 좀 이질적일 수도 있겠고 오히려 그냥 가요나 팝을 듣는 일반 청중들에게 더욱 어필할 만한 요소를 지닌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Sweet Like Chocolate" 뮤직비디오를 보고 음악이 너무 좋아서 어렵게 어렵게 구한 앨범인데요, 너무 좋아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들의 음악은 여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 더 이상의 싱글이나 앨범 발표는 없었죠. 현재는 인터넷을 뒤져봐도 이들에 대한 소식이 없는 걸 보니 아마도 해체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만.. 당시 대부분의 UK Garage 팀들이 그랬듯이, 이들 역시 '반짝 히트'만을 이루고 사라진 게 너무 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식의 달콤한 댄스팝을 계속 듣고 싶었거든요.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6109747>

전 재즈를 들을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클래식처럼 재즈도 이미 지나가버린 옛날의 장르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죠. 오늘날 많은 이들은 클래식을 연주하지만 절대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를 능가하는 음악가가 나타나지 않듯이 역시 재즈도 오늘날 살아숨쉬고 있는 장르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절대 찰리 파커와 버드 파웰을 능가하는 연주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과연 오늘날의 재즈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정말로, 인정하긴 싫지만 마일즈 데이비스 사후로 더이상의 진화는 없는 것일까요. (시작부터 께변을 늘어놓아 죄송합니다.)

01. That Old Feeling
02. It's Always You
03. Like Someone In Love
04. My Ideal
05.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06. My Buddy
07. But Not For Me
08. Time After Time
09.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10. My Funny Valentine
11. There Will Never Be Another You
12. The Thrill Is Gone
13. I Fall In Love Too Easily
14. Look For The Silver Lining



혹시 쳇 베이커가 노래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쳇 베이커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웨스트코스트 쿨재즈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던, 흑인들이 장악하던 재즈씬에서 백인들의 자존심으로 불리우던 인물이었죠. 그를 두고 '트럼펫도 연주하는 보컬리스트'라고 불러야할지, '노래도 부르는 트럼펫터'라고 불러야할지 고민이 됐다고 하는데요.. "쳇 베이커의 우수에 찬 감수성 깊은 목소리", "재즈 보컬의 걸작"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매체에서 그와 그의 앨범을 칭송하고 있지만 정작 제대로 그의 보컬곡을 들어본다면 사실은 그의 목소리와 음악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대 전형적이지 않고 '이질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글썄요.. 제가 워낙 밥재즈 위주로 음악을 들어오다 보니 이 앨범이 '이질적'으로 들리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컬은 충분히 여타 재즈 보컬리스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기교도 거의 없고 재즈 보컬이라면 흔히 듣는 비브라토도 거의 없이, 어찌 들으면 그냥 쿨쿨대회에 나온 웬 말끔한 청년이 뒷집지고 담담하게 부르는 듯 그의 목소리는 쉽고 매끄러우며 불안합니다. 또 그의 연주는 어떻게요. 그의 목소리와 사이 좋게 그의 트럼펫 역시 굉장히 부드럽고 고요하고 위태위태하게 연주됩니다. 요는, 이 쳇 베이커라고 하

는 뮤지션의 음악은 절대 '기교'라는 것과는 매우 매우 거리가 멀었다는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쳇 베이커라는 인물은 재즈 역사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반면에, 그를 낮게 평가하는 시선도 많은 게 사실이죠. 대부분의 그 이유는 아마도 그의 '음악성'이나 '실력'이나 '테크닉'에 기반한 게 아닐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진 쳇 베이커는 화려한 트럼펫 솔로를 들려줬거나 여러 명곡들을 작곡했던 뮤지션이라고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구요. (물론 쳇 베이커는 비밥을 연주하기도 했고 몇몇 곡들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어쩌면 재즈 역사에서 그가 상대적으로 underrated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앨범은 너무나 유명한 앨범입니다. 쳇 베이커의 앨범 중 하나를 꼽으라면 주로 이걸 꼽죠. 전 이 앨범을 들을 때마다 놀라고 또 놀라는데 그 이유는 이 앨범에 담겨 있는 그 형용할 수 없는 '감수성' 때문입니다. 마일즈 데이비스가 "Kind Of Blue"를 통해 코드 위주가 아닌 '모드' 주법을 제시하며 음악에 담긴 '감성'에 보다 주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앨범은 그런 차원이 아닌, 어쩌면 '연주'가 중요시 되던 1950년대 재즈씬에서 완벽하게 이를 무시한 '감성' 앨범이었다는 측면에서 일종의 '반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도 이 앨범 발매 후 전통적인 재즈팬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앨범에는 화려한 연주가 없습니다. 화려한 노래도 없습니다. 어찌 들으면 그냥 편안한 이지리스닝 음악 같다는 느낌도 들 정도죠. 하지만 이 가운데 은근하게 베어나오는 소리들은, 그 어떤 재즈 앨범에서도 쉽게 느낄 수 없었던 깊게 깔린 허무와 슬픔의 정서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정서라는 것이, 듣는이의 심금을 울린다거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맑은 하늘과 맑은 시냇물과 시원한 바람을 마주한 편안한 상태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슬픔이라는 거죠. 영화 "박하사탕"의 끝장면을 떠올려보시면 비슷한 느낌일 것 같네요. 실제로 앨범을 들어보면 그다지 어둡다거나 우울하지는 않죠. 곡들은 사랑거리고 따뜻하며 우아합니다. 쳇 베이커의 목소리는 부담없이 친근하고 편안하며 그의 트럼펫 소리도 매우 감미롭습니다. 트럼펫을 뽐뽐~거리는 시끄러운 악기로만 아신다면 그의 연주를 꼭 들어보시길 권유합니다. 앨범의 대표곡 이면서 역사상 최고의 버전으로 꼽히는 "My Funny Valentine"은 의외로 앨범 내에서 유일하게 쳇 베이커가 정색하고 진지하게 부르는 곡으로 앨범 내에서도 '튀는' 곡이지만 대다수의 곡들은 익숙한 스탠더드의 편안한 버전들입니다. 루이 암스트롱이 부르는 "That Old Feeling"과 "But Not For Me"가 흑인 땀냄새 물씬 풍기는 열사우나같은 느낌이라면 쳇 베이커가 부르는 같은 곡들은 상쾌한 허브 스파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한번도 사랑을 해본 적 없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의 테마로 사용하면 좋을 법할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같은 곡들은 박찬욱 감독의 "박쥐"에서 송강호씨가 김옥빈씨를 만나기 전에 밤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울려 퍼졌다면 영화가 좀더 멋들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점이 좀 불분명해졌는데.. 요는 '감수성'이라는 겁니다. '연주'라는 것이 중심이 되던 재즈의 무림 세계에서, 자신의 비참한 삶과 감정을 그 자체 그대로 음악에 투영시켜버린 쳇 베이커. 가창력이나 실력에 대해 비평가들의 공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한 쳇 베이커. 어쩌면 그 자신조차 재즈 뮤지션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느끼지 못했을 쳇 베이커. 하지만 오늘날까지 어떤 재즈 뮤지션도 들려줄 수 없었던 '감성의 재즈'를 들려준 그를 이 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5007770>

01. Intro
02. Luration
03. Fucked-Up Pendulum
04. Kemuri
05. The Loop
06. Silent Ungah (Too Much Pain)
07. Interlude
08. Dig This Vibe
09. Yeah
10. To The Infinity
11. The Nightmare of Ungah (Sandro In Effect)



DJ Krush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툭 까놓고 말해보자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힙합 좋아한다는 분들 붙잡아 놓고 DJ Krush를 아냐고 물어보면 아마 '이름은 들어봤지만 음악은 모른다'가 가장 많을 것 같고 아예 '모른다'가 그 다음을 차지할 듯 싶습니다. 그 만큼 국내 힙합팬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죠. 혹자는 이럴 겁니다. "일본 인스트루멘탈 힙합? Nujabes(R.I.P.)나 Mitsu The Beats가 대세 아냐? 아님 Deckstream이나.." 그럼 전 아마 그 친구한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야, 니네 때는 Nujabes(R.I.P.)일지 몰라도, 우리 땐 Krush였어.."라고 말이죠.

또 잡설이 길었네요. 근데 이렇게 된 계기는 그의 이력과도 관련이 좀 있긴 합니다. 엄연히 '힙합 아티스트'지만 일렉트로닉 계열의 아티스트들과도 잦은 교류를 하고 자신의 비트에 곧잘 여성 보컬리스트들을 기용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매체들에서는 그를 '트립합 아티스트'로 쉽게 분류하거든요. (위키페디아만 봐도 그의 음악 성향을 '트립합'이라고 적어놨죠. 이미 '트립합'이란 장르는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다보니 그가 "Meiso", "MiLight" 같은 앨범들을 발표하며 가장 전성기를 누리던 90년대 중반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그의 음악에 대해 관심을 가진 층은 힙합팬들이 아닌 모던록이나 댄스 뮤직 매니아들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런 현상은 한때 그의 단짝이었던 DJ Shadow도 마찬가지입니다. DJ Shadow가 미국 서부 Bay Area를 기점으로 Quannum Project의 일원으로 힙합씬에 몸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국의 Mo'Wax 레이블의 사장 James Lavelle과의 콜라보(ya'll know dat, UNKLE)를 통해 일렉트로닉/브레이크비트 계열의 음악도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DJ Krush 역시 재패니스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Kemuri Production의 일원으로 몸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국의 Mo'Wax나 Ninja Tune 같은 브레이크비트/드럼앤베이스 계열의 레이블과 콜

라보를 이루었다는 걸 보면 말입니다. 근데 국내 힙합팬들에게 있어 Quannum Project나 Kemuri Production에 대한 인식도보다는 국내 모던록/댄스 뮤직팬들에게 있어 UNKLE이나 Mo'Wax, Ninja Tune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다보니 제가 위에 언급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논문 쓰는 것 같네요)

DJ Krush에 대해 간략하게 얘기해보자면.. 그의 이력 중에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야쿠자 출신이었다는 거죠. 일찌감치 학업을 그만두고 야쿠자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어느날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잘린 손가락의 주인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의 것임을 알고 나서 손을 씻게 됐다고 해요. 그러던 중 여자 친구와 함께 영화 "Wild Style"을 보고 난 뒤 힙합에 깊이 매료돼 힙합 디제이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정말 전화위복이죠. 97년 내한 공연 당시 그를 직접 면전에서 보고 악수하고 싸인을 받기도 했는데 야쿠자 출신이라 굉장히 놀랐었는데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친절하시더군요. 싸인을 해달라고 하니깐 고맙다며 먼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흐. 그의 음악 스타일에 대해 잠시 얘기해보자면.. '인스트루멘탈 힙합'을 기본 포맷으로 여러장의 앨범들을 발표했는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토씨의 J Dilla 못지 않은 '드럼 비트의 마에스트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일본인 특유의 세심함이 느껴지는 그의 비트들은 일정 수준의 bpm을 유지하며 대체적으로 '정박'을 고집하면서 강력한 스네어의 질감을 강조하기 때문에 비트가 상당히 파워풀하면서 묵직합니다. 또한 딱 들으면 '크러쉬 음악'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그의 샘플 운용인데요, 본토 프로듀서들이 대부분 소울-재즈 샘플에 기반을 둔다면 크러쉬는 보다 '동양적'인 샘플들-이들테면 피리 소리 등-을 많이 쓰는데 이 샘플들이 그만의 어둡고 둔탁한 비트와 맞물려 '크러쉬표' 사운드를 창출해냅니다. 또한 그의 스크래칭도 상당히 개성적인 것이, 주로 랩 아카펠라를 이용해 시원시원하게 짹짹 갈기는 본토 디제이들의 스크래칭과는 달리 그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쉬익 쉬익~ 찌익 찌익" 거리면서 스트래칭을 합니다. (실제 그의 공연을 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기했음)

자, 그럼 이제 오늘 들고 나온 앨범 "Strictly Turntablized"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본 앨범은 그의 공식적인 두번째 솔로 앨범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그의 앨범들 중 가장 좋아하는 앨범이기도 합니다. (그의 디스코그래피 중 제일 구하기 어려운 앨범이기도 하구요. ㅋ) 제가 이 앨범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요, 첫번째 솔로작이었던 전 앨범 "Krush"가 완전한 '재즈'를 기반으로 한 재즈 힙합/애시드 재즈 스타일의 음반이었고 다음 앨범들인 "Meiso"와 "MiLight"가 엠씨들을 기용해 만든 본격적인 '힙합' 앨범들이었다면 그 사이에 놓인 본 앨범 "Strictly Turntablized"는 앨범 타이틀에서도 느껴지듯이 '턴테이블만을 사용해 만든 pure한 비트 앨범'이라는 겁니다. 이 앨범에는 랩도 없고 노래도 없습니다. 그저 시종일관 타이트한 '힙합 인스트루멘탈'로만 채워져 있는데 그 비트들의 질감이 그의 어느 다른 앨범들에서 보다는도 강력한 '파워 드럼'의 그것이라는 거예요. 가까운 예를 들어보자면.. 혹시 J Dilla의 "The Shining" 앨범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시면 그 앨범에 수록된 "E=MC2"이라는 곡이 시작될 때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파워 드럼' 있잖습니까. 바로 그 느낌의 비트들이 본 앨범을 채우고 있는 대부분의 비트들이라는 겁니다. 엄격한 '정박'의 끝부분에 기묘한 효과음과 함께 살짝 엇박으로 장난을 친 듯한 "Fucked-Up Pendulum", '정박'의 극단을 보여주는 듯한 파워 비트로 마치 거인이 스텝을 밟는 듯한(giant steps?) "Kemuri", 비브라폰의 영롱한 샘플을 사용한 "Dig This Vibe"와 참을 수 없는 그루브감을 선사하는 "Yeah" 등 크러쉬의 대표곡들이 수록된 앨범이라는 점에서도 본 앨범의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암튼 모든 걸 떠나서 '크러쉬의 비트'를 마음껏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앨범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주변에서 크러쉬의 앨범을 추천해달라고 하면 이 앨범을 추천합니다. (참 못됐죠 제일 구하기 어려운 앨범을) 바꿔 말하면 그 만큼 노력과 비용을 기울여서 구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한 앨범이라는 점도 되겠죠. ㅎ

2006년에 발표한 "Stepping Stones"라는 베스트 앨범 이후로, 정규작으로는 2004년의 "Jaku" 이후로 아직까지 앨범 소식이 없는 데요, 그러다보니 점점 더욱 팬들에게 잊혀져가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크러쉬가 이제 너무 일렉트로닉쪽으로 간 거 아니냐는 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러다 '한물 갔다'는 소리까지 들게 되는 건 아닌지 그의 오랜 팬으로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의 홈페이지를 보니 새 앨범에 대한 언급을 하시던데.. 부디 죽여주는 언더그라운드 힙합 앨범 하나 가지고 나오시길! Madlib, El-P, D.I.T.C. 뭐 이런 분들과 콜라보해서 죽이는 거 하나 어떻게.. 안될까요 크러쉬 형님?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4058569>

01. A Peace Of Light
(featuring Amber Coffman, Angel Deradoorian & Haley Dekle)
02. Walk Alone (featuring Truck North, P.O.R.N. & Dice Raw)
03. Dear God 2.0 (featuring Monsters Of Folk)
04. Radio Daze (featuring Blu, P.O.R.N. & Dice Raw)
05. Now Or Never (featuring Phonte & Dice Raw)
06. How I Got Over (featuring Dice Raw)
07. DillaTude: The Flight Of Titus
08. The Day (featuring Blu, Phonte & Patty Crash)
09. Right On (featuring Joanna Newsom & STS)
10. Doin' It Again
11. The Fire (featuring John Legend)
12. Tunnel Vision
13. Web 20/20 (featuring Peedi Peedi & Truck North)
14. Hustla (featuring STS)



사실 전 요즘의 힙합씬에 루츠같은 밴드가 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이들이 들려주는 음악은.. 항상 새로웠거든요. 그렇다고 트렌드를 좇는다거나 트렌드를 이끈다거나 뭐 그런 식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완전 전통적인 스타일만 고집하는, 누군가에 의해 '구닥다리'라는 비난을 들을 법한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었구요. 그냥 이분들은 이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악을 계속 해왔을 뿐이지만 그게 우리 같은 청자들한테는 언제나 후레쉬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메인스트림 힙합투보다도 감미롭고 팝적인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고, 때론 어떤 언더그라운드 힙합보다도 과상하고 실험적이기도 했죠. 흔히들 루츠의 베스트 앨범이 뭐냐고 물으면 레코드점 가서 루츠 앨범들을 짹 일렬로 놓고 눈감고 아무거나 고르면 그게 베스트 앨범이라고들 합니다. 그만큼 매너리즘과는 거리가 먼, 내놓는 앨범마다 '죽인다'는 반응을 이끌어내왔기 때문이죠. 대충 한번 스윅 훑어볼까요? Organix (1993), 재기발랄한 올드스쿨 스타일에 재즈가 범벅됐었지만 신디사이저음을 사용한 몽환적인 느낌도 잃지 않았습니다. (혹자는 "Game Theory"부터 루츠가 일렉트로닉해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데뷔작부터 이들은 신디사이저음을 많이 강조했었죠.) Do You Want More?!?!?! (1995), 이들에게 '재즈 힙합'이라는 칭호를 붙게 만든 재지한 사운드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만 만들어봐서 뭐라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Illadelph Halflife (1996), 당시 힙합씬에서 유행하던 mafioso 컨셉을 살짝 끌어들여 귀에 짹짹 붙는 깔쌈한 시퀀싱 사운드에 하드코어한 분위기를 냈었죠. Things Fall Apart (1999), 어쿠스틱한 사운드에 기반을 둔 형기함과 재지함이 뒤섞여 힙합을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죠. Phrenology (2002), 4/4 비트의 전형적인 하드록을 끌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전위성과 난해함까지 보여줬던 역작이었습니다. The Tipping Point (2004), 만들어 봤습니다. Game Theory (2006), 슬슬 어두워집니다. 모던록/일렉트로닉까지 곁들여 상당히 암울하고

하드한 앨범이었죠. Rising Down (2008), 어두운 루츠의 끝을 보여줬죠. 퀘스트럽의 스네어 소리는 귀청을 찢으려는 듯 신경질적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아홉번째 스튜디오 앨범 "How I Got Over"가 발매됐습니다.

루츠는 이번 앨범 발매전 보도매체를 통해 "Barack Obama 새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축하하며 새로운 느낌의 밝은 앨범이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앨범 자체는 물론 이전 두 앨범 "Game Theory"- "Rising Down"에 비해 어둡고 암울한 장막을 많이 걷어낸 느낌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완전 밝고 경쾌하다고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사들은 여전히 현실에 대한 비판과 개인적인 번뇌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약간은 뭐랄까요, 이전 두 앨범에서 현실에 대해 신경질적으로 쏟아 부었다면 이젠 그야말로 'sick and tired'한 느낌.. 그리고 거기에서 배어나오는 '슬픔'이 주된 정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서는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렸다.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이며 미래에 대한 낙관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그럼 이런 정서를 담은 새 앨범 "How I Got Over"의 사운드를 루츠의 음악감독 ?uestlove은 이번엔 어떤 식으로 방향 설정을 했을까요.

먼저 그가 두들기는 스네어 소리를 좀 들어봅시다. 확실히 '몽퉁'해졌습니다. 2000년대의 루츠 사운드에서 신경질적이고 날카롭게 두들겨지던 그 소리들이 다소 차분하고 부드럽게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몽퉁해진 스네어를 가지고 그는 강박적이다 싶을 정도로 '정박'으로 승부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808드럼머신-스냅댄스 등으로 표현되는 느릿느릿한 최근 힙합씬의 비트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전통적인 '정박'을 그것도 몽퉁한 스네어로 고집스럽게 두들기다보니 앨범은 전반적으로 힙합 특유의 불런트한 그 루브감이 살아있습니다. "Radio Daze"같은 곡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느낌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바로 '소울(SOUL)'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They've got jazz, funk, rock&roll, and electronics. But now, they gotta have SOUL!" 뭐 이딴 식으로 거창하게 표현해볼 수도 있겠죠. 어쿠스틱한 느낌을 강조하고 있지만, 빈티지스런 건조함이라기보다는 적당히 윤기가 흐르는 따뜻한 소울 뮤직이라고 할까요? 특히 그 느낌은 앨범의 후반부에서 더욱 강하게 발휘되는데 "The Day"에서는 Patty Crash의, "Right On"에서는 Joanna Newsom의 디바 소울 보컬이 마음을 촉촉하게 해주고 있으며 이어지는 "Doin' It Again"과 "The Fire"에서는 John Legend의 파워풀한 보컬이 곁들여져 이들의 콜라보작 "Wake Up"의 전조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앨범의 두번째 싱글이었던 "Dear God 2.0" 역시 신을 향한 슬프고 애잔한 정서가 소울 풀한 멜로디로 잘 표현된 곡이라고 할 수 있으며 "How I Got Over"에서는 아예 Black Thought 스스로가 소울풀한 보컬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앨범은 전체적으로 'Soul'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수록곡 중 맨 뒤 두 곡은 살짝 의외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Web 20/20"의 경우 전위적인 느낌의 오프비트에 루츠 앨범에 없으면 섭한 Peedi Peedi의 휘쳐링이 빛나는 곡으로 '루츠 앨범에 Peedi Peedi가 휘쳐링한 곡은 전부 좋다'는 공식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고 있으며 "Hustla"의 경우 아기가 칭얼대는 소리를 그대로 샘플링해서 루프로 돌려버린 ?uestlove의 실험성에 탄복하면서 Nas의 "Street's Disciples"라는 곡에서 Salaam Remi가 들려준 그 아방가르드한 효과음에서 받은 bizzare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 이런 weird하고 bizzare한 효과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벌써 이들의 다음작이 예고됐는데요, 바로 잘 아시다시피 John Legend와의 콜라보작인 "Wake Up"이라는 앨범으로 아마도 조만간 또 발매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본 앨범 "How I Got Over"에서 만들어진 '소울풀한 루츠'로의 방향전환과 John Legend와의 콜라보를 더욱 심화시킨 앨범이 될 거라는 느낌인데요, 정말 언제나 새로우면서도 그들 나름의 고고함과 진중함은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그룹 루츠의 행보에 우리같은 청자들은 그저 행복의 신음소리만을 낼 뿐입니다. "아!" "아!"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3900730>

여기 리즈 페어의 매니지먼트와, 레코드 레이블과, 수많은 밤의 잠을 잃게 만든 열 한 곡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전개해나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앨범 제목은 funstyle이나 그녀의 오랜지기 팬으로서 이 앨범을 듣고 있는 제 심정은 전혀 fun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좀 살짝 북받쳐 오르면서 서글픈 마음까지 들기도 하네요. 사실 리즈 페어는 국내에서는 그닥 유명한 뮤지션은 아니죠. 팬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드물기도 하구요. 자, girly-sound라는 인디 데모테잎부터 본 앨범 funstyle을 발매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들은 지난번에 두번에 걸쳐서 얘기했으니 본 블로그를 참조하시구요, 오늘은 정말 정말 오랜만인 5년만의 신작 "Funstyle"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01. Smoke
02. Bollywood
03. You Should Know Me
04. Miss September
05. My My
06. Oh Bangladesh
07. Bang! Bang!
08. Beat Is Up
09. And He Slayed Her
10. Satisfied
11. U Hate It



먼저 그녀가 메이저 레이블인 Capito과와의 계약이 끝나고 다시금 Dave Mathews가 설립한 인디 레이블 ATO와 재계약 후 Exile In Guyville 앨범을 리이슈했다는 건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많은 그녀의 팬들은 인디로 돌아온 그녀의 새 앨범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바로 새로 계약한 이 ATO라는 레이블과도 약간의 트러블이 생긴 겁니다. 그 이유인 즉슨, 그녀가 새 앨범을 위해 만든 곡들이 레이블 측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 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신작 발매는 취소되었고 또 다시 그녀는 ATO와도 결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Capito과는 달리 ATO와는 그다지 사이가 틀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이번 앨범에 여러 곡에서 Dave Mathews가 기타를 쳐준 걸 봐도 말이죠.) 결국 매니지먼트를 잃은 그녀는 그렇게 세상 빛을 못볼 뻔했던 열한 곡들을 자체적으로 제작해 그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5.99달러에 배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첫 싱글(?) "Bollywood"를 스트리밍으로 들려주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 곡을 듣고 경악을 했다고 하죠. 또한 앨범에 대한 리뷰들은 모두 하나같이 거의 이 앨범을 두고 '역겹다', 'shitty하다', 'terrible하다'는 식의 평을 했습니다. (피치포크지에선 10점 만점에 2.6점인가 주었다죠) 그리고 이러한 평들을 보며 우

리나라나 미국이나 critic 쌤들 센스 오브 휴머 없긴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전 이 앨범 첫 트랙부터 완전 흥분해서 탄성을 질렀거든요. 제가 왜 더 그랬냐면 이 앨범을 듣기 며칠 전 제 개인 블로그에 "만약에 내가 음악을 만들게 된다면 느릿느릿한 변태적인 비트에 기묘하게 뒤틀린 샘플음을 끼워넣고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고음의 나레이션이 얹어진 음악을 할 것 같다"라고 포스팅을 했었는데 이 앨범의 첫 트랙 "Smoke"가 정확히 그 분위기에 들어맞았기 때문 이죠. 예, 맞아요. 이 앨범은 매우 매우 실험적입니다. 일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데뷔 후 20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그녀가 들려준 음악 스타일을 완전히 '전복'시켜버리는 접근을 했다고 할까요? '인디-어쿠스틱-로우파이-록큰롤-컨트리-루츠록-메인스트림 팝' 등의 키워드로 설명되던 그녀가 '힙크-소울-일렉트로닉-힙합-제3세계' 스타일을 시도했으니 말이죠. 록만 좋아라 듣는 코케이 션 크리틱들이 이 앨범을 두고 밥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이해는 가요. 하지만, 쟁 뭐 지극히 personal한 이유도 있습니다. 저야 원래 힙합-소울-재즈-일렉트로닉을 메인으로 듣다보니 그녀의 이런 시도가 너무 너무 반가울 수밖에 없겠죠. 잡소리 그만하고 하나 하나씩 보면요..

우선 오프닝곡 "Smoke"에선 느릿느릿한 칠 아웃 비트에 어우러진 묵직한 베이스음이 곁들여지며 그녀의 나레이션과 함께 전위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다가 뜬금없이 소울풀한 코러스가 등장하고 이어지는 "Bollywood"에선 인도 풍의 댄서블한 브레이크비트에 랩(!)을 합니다. 그리고 "My My"에 가서는 70년대식 소울 그루브와 함께 브라스도 등장하고 "Bang! Bang!"으로 가면 아예 매시브 어택 스타일의 몽환적인 트립합 분위기를 내버립니다. 다음 곡 "Beat Is Up"은 또 어떻게요, 씬바 리듬이 더해진 업템포 하우스 비트까지 나오더니 마지막 곡 "U Hate It"은 다시금 비트와 스킷과 나레이션이 버무려진 아방가르드한 스타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니 다들 황당할 수 밖에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모든 곡들을 그녀가 직접 기타와 키보드를 가지고 연주했다는 거죠. (몇몇 곡들에 선 Dave Mathews가 기타를 쳐주긴 했지만 기타는 기타죠.) 그녀도 인터뷰에서 자기가 키보드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뿌듯해하더라구요.

전 이런 시도들을 그렇게 생각해요. 한마디로 "엿을 먹이는" 거죠. 그 동안 하고 싶었던 걸 참고 참다가 완전히 해방된 상태에서 "이게 내가 요새 하고 싶었던 음악이다. 좋아하던지 싫어하던지 말든지" 뭐 딱 이 느낌 아닐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런 태도, 이게 진정 우리가 사랑한 Liz Phair 스타일의 attitude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죠, 그녀가 이 앨범을 발매하기 전까지 텔레비전쇼 Swingtown의 스코어 작곡가로 활동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죠. 바로 그 Swingtown이라는 쇼가 70년대 funk/soul era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고 opening theme은 youtube 같은 데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디스코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관심이 흑인 음악쪽으로 돌려진 탓도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전 리즈 페어의 오랜지기 광팬입니다. 저의 최고의 웨이버러티 아티스트죠. 그리고 전 힙합과 흑인 음악을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일렉트로닉도 가끔 들구요. 근데 그런 그녀가 이런 음악을 합니다. 그러니 제 기분이 어떨까요? 이건 마치 말도 못걸고 몰래 쳐다만 보며 짝사랑하던 여자로부터 발렌타인데 이날 먼저 초콜렛을 받은 기분일까요? 가끔씩 '리즈 페어가 만약에 흑인 음악이나 비트 있는 음악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상상을 했었는데 마치 제 소원을 들어준 기분이라고 할까요?

한편 그러나 그녀의 이전 음악들을 좋아하던 팬들을 완전히 배신하지는 않습니다. "You Should Know Me"와 "Miss September"는 그 동안 그녀가 꼭 들려줬었던 (개인적으로는 별로 안좋아하는) 어쿠스틱한 컨츄리 스타일의 곡들이고 "Satisfied"는 "Polyester Bride", "Why Can't I", "Everything To Me"를 충실히 계승하는 전형적인 메인스트림 록발라드 넘버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이번 앨범 최고의 곡이라고 자부할 만한 곡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nd He Slayed Her"라는 곡이에요. 정말 정말 전형적인 리즈 페어 스타일의! 그녀가 아니면 들려줄 수 없는 Girly-sound/Exile In Guyville era로 완전히 회귀한 듯한 인디-로우파이-기타 팝이라는 거죠. 리즈 페어 초기작들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느낌이 짝웁니다.

자, 이렇듯 곡들은 앨범 제목에 걸맞게 그녀의 유머 감각 - 원래 굉장히 유머 감각이 특출난 사람입니다 - 이 발휘된 fun한 style을 들려줍니다. 하지만 가사들은 어떨까요? 예, 절대 fun하지 않습니다. 제가 글의 첫머리에 씩씩하고 서글퍼진다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Smoke"에서는 아이도 키워야 되는데 거의 빈털털이가 되다시피한 자신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으며 "Bollywood"에선 Swingtown 스코어 작곡가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환멸을, "U Hate It"에선 이 앨범에 대해 "I really hate it!"하는 critic들을 묘사하며 거의 정신 착란을 일으키는 자아를 표현합니다. 또 "And He Slayed Her"에선 그녀를 구렁텅이로 내몰았던 Capitol의 사장 Andy Slater (재미있는 언어유희조)에 대한 지독한 혐오를 드러내고 있고 "My My"에서는 "good girl이 될 수도 있었지만 이런 attitude를 가진 게 나야"라며 원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왔음을 선언하며 "Satisfied"에서는 "모든 걸 이루었지만 이게 만족스러웠니?"라며 과거를 반추합니다. 이렇듯 그 동안 그녀가 겪었던 일들과 심경을 담은 앨범이다보니 가사는 상당히 무겁고 진중한 편이죠.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Oh Bangladesh"에선 한동안 들을 수 없었던, 그러나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sex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가 다시금 등장한다는 겁니다.

휴.. 또 글이 길어졌네요. 아무튼 그녀의 삶을 보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생즉공 공즉생의 불교 용어가 자주 떠오르기도 해요.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성공과 돈도 한 때.. 다시금 시카고의 조그마한 방에서 Girly-Sound 테잎을 녹음하던 시기로 돌아온 거죠. 음.. 글썄요. 그녀의 '음악'을 사랑하던 팬의 입장에서서는 무척이나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조금은, 마음 한구석이 시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그녀의 팬으로 있다보니 인간적인 정까지 들어버렸나봐요.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3222713>

Recovery를 디벼주마! 옛날에 판지일보에는 이런 식의 문체가 많았죠. 저도 한번 디벼봅니다. 전 mo'fuckin shitty critic은 아니지만 이 앨범을 들으면서 과연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이 앨범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걸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가능한 최대한 짧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만 또 길어질 지도 모르겠네요.

01. Cold Wind Blows
02. Talkin' 2 Myself (featuring Kobe)
03. On Fire
04. Won't Back Down (featuring Pink)
05. W.T.P.
06. Going Through Changes
07. Not Afraid
08. Seduction
09. No Love (featuring Lil Wayne)
10. Space Bound
11. Cinderella Man
12. 25 To Life
13. So Bad
14. Almost Famous
15. Love The Way You Life (featuring Rihanna)
16. You're Never Over
17. Untitled (Hidden Track)



사람들은 흔히 "이 친구는 외유내강형이군." 내지는 "어, 저 선생은 외강내유형일세." 뭐 이런 식의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럼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저를 "외유내유형"이라고 소개합니다. 겉모습도 허약해보이고 마음도 여린.. 뭐 그런 인간형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에반게리온의 주인공 "신지쿠"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바로 이 에미넴, 혹은 Marshall Mathers라는 사람도 상당한 "외유내유형"의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에미넴이 '무한도전'이나 '1박2일'에 고정 멤버였다면 꽤나 힘들어했을 거라고 예상될 정도로 그는 지난 16년간 자신의 캐릭터를 찾느라 무척이나 고생한 듯 보이니 말입니다. 나는 누굴까? slim shady일까, marshall mathers일까, eminem일까. 그 어느 하나에 fix되지 못하고 방황을 해왔다는 거죠. 하지만 2010년에 발매된 그의 7번째 정규작 "Recovery"에선 타이틀처럼 이제 그 자신을 찾은 모양입니다. (근데 역설적인 것은 그 자신은 자신의 캐릭터를 찾지 못하고 방황해왔다고 하지만 힙합씬에서 그처럼 개성 강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에미넴의 앨범들이 우리를 흥미롭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가사'입니다. 여타 엠씨들과는 전혀 다른 감수성을 가

지고 실제 그가 현재 놓인 상황에 근거해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과장된 가사들을 들려준다는 거죠. 만일 에미넴의 음악들을 가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듣는다면 그건 에미넴의 음악을 30%도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입니다. 근데 말이죠, 본 앨범 Recovery 이전까지의 그의 앨범들은 가사도 가사지만 F.B.T., Dr. Dre, 그리고 Eminem 자신이 주축이 된 바운스 넘치는 프로덕션들이 활개를 쳐줬기 때문에 그러저럭 가사를 몰라도 어깨 들썩이며 즐겁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나온 이 앨범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자.. 여기서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봅시다.

일단 요점부터 말하자면 이 앨범은 (Infinite은 빼고) The Slim Shady LP부터 Relapse: Refill까지의 모든 앨범들과는 완전한 차별성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의 에미넴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의 음반이라는 거죠. 여기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립니다. 저도 솔직히 처음에 한두번 돌려들으면서 "뭐 이따위야! 바운스도 없고 신나지도 않고 에미넴은 계속 똑같은 톤이랑 플로우로 소리만 냅다 지르고.." <- 이렇게 느꼈으니까요. 예, 맞아요. 여태까지의 에미넴 앨범들 중에서 제일 재미없는 거. 사실입니다. 인정해요. 예능 프로로 치자면 웃음끼 짝 빠고 완전 다큐로 돌아선 느낌이랄까요? 에미넴 자신은 이 앨범 곳곳에서 전 앨범 Relapse를 까고 있지만, '힙합이라는 음악 장르적 측면에서의 완성도'로 보자면 Recovery보다 Relapse가 훨씬 더 탄탄했습니다. Relapse를 들으면서는 제법 목과 허리를 까딱거릴 수 있었지만 Recovery는 그닥 모션을 유발하지는 않거든요. "On Fire"와 "Cinderella Man"의 그 '이상함'은 뭐고 "Going Through Changes"의 그 진부한 샘플 하며 맥이 딱딱 끊기는 진행은 또 뭐랍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 앨범이 졸작일까요?

이 앨범은 사실 사운드적인 측면보다 '가사'가 더욱 중요한 앨범입니다. 에미넴 자신이 정말로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써낸 가사들이 타이트하게 앨범을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에미넴은 앨범 여러 곳에서 - Cold Wind Blows, Talkin' 2 Myself, Going Through Changes, Not Afraid, 25 To Life - 지난 날을 후회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새롭고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런 태도들을 두고 몇몇 비평가들은 소위 "물렁해졌다"는 식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만, 과연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만일 에미넴이 언더그라운드씬에 있으면서 소위 그 '미친' 가사들을 써내려갔었는데 메인스트림으로 오면서 '착한' 가사를 쓰는 걸로 변했다면 그를 두고 "sell out이다, 물렁해졌다, 한물갔다" 뭐 이런 비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앨범은 그런 상황이 아닌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이 앨범은 '에미넴식의 소울 음악'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그의 '소울'은 Space Bound와 Love The Way You Lie, 그리고 Going Through Changes에서 그의 전부인이었던 Kim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You're Never Over에서는 Proo에 대한 애절한 추모를 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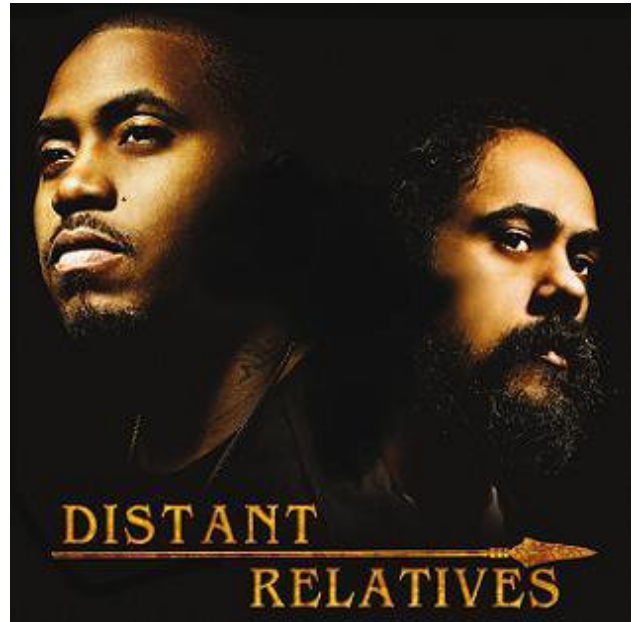
그리고 이런 '소울풀한' 에미넴의 가사들은 이전까지와 달리 이례적으로 영입한 다양한 외부 프로듀서들에 의해 매우 효과적으로 assist되고 있습니다. DJ Khalil이 주도한 하드록적인 비트들은 에미넴의 답답한 심경과 분노를 표현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Just Blaze와 Jim Jonsin, 그리고 Boi 1-Da가 주도한 트렌디한 사운드는, 그루브감을 유도한다기보단 드라마틱하고 서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장치로 사용됩니다. (Jim Jonsin이 의외로 어쿠스틱한 정서가 있다는 사실은 B.o.B의 믹스테잎들에서 이미 느꼈었죠. Space Bound, 정말 사람 녹이는 곡 아닙니까? 여담으로 한마디 더 하면 전 Just Blaze는 자신의 개성은 없이 트렌드만 좇는, 혹은 Kanye West 따라하는, 뭐 그런 정도로 굉장히 낮게 봤는데 이 앨범에서의 그는 정말 그 아니었으면 이런 퀄리티의 앨범이 나왔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게 만드네요. 그 서정성이란 정말..) 이 앨범의 백미 중 하나인 에미넴식의 러브송 Love The Way You Lie는 Rihanna가 상당히 백인적인 필을 구사하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느낌? 아니나 다를까, B.o.B의 Airplanes를 프로듀싱한 Alex Da Kid의 작품이네요. (더블 흥런 쳤네요.) 전 처음에 Rihanna가 Hayley Williams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이 앨범의 가장 큰 백미는 No Love입니다. Just Blaze의 점차 고조되는 듯한 프로듀싱에 Lil Wayne과 Eminem이 배틀식으로 한 벌씩 나눠가졌는데 그 묘한 긴장감과 카타르시스는 정말.. 최고라는 말밖에. 전 Lil Wayne 음악도 잘 모르고 별로 안좋아했는데 이 곡 듣고 완전 멋져졌다니깐요. "It's 위지다! Mutherfucker야!" 저 스웨거 넘치는 한 마디.. 에미넴 역시 릴 웨인을 디스하는 곡을 만들었다가 후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예 스튜디오로 릴 웨인을 직접 불러놓고 배틀식으로 진행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뱉는 듯한 느낌이 참 뭐랄까요.. 심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성숙된 방어기제를 보여준다고나? (그 외 Sublimation인가 뭔가 있잖아요.) (근데 웬지 느낌이 에미넴이 고개 꼭 숙이고 위지 배에다 대고 막 현란하게 까대고 위지가 배에다 힘주고 허허 그러면서 좀 받아주는 듯한 느낌 ㅎㅎ) 그 밖에 이전 앨범들의 풍취가 살짝살짝 감도는 트랙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역시나 Dr. Dre 특유의 바운스가 잘 드러난 비트에 여자 후리는 가사를 담은 So Bad나 W.T.P., 그리고 Havoc이 프로듀스한 히든 트랙 등이 그런 곡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 쓰려고 했는데 또.. 압튼 열린 끝맺시다. 15분 뒤에 eBay 경매할 게 있어서..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앨범은 물론 이전의 에미넴의 앨범들에서처럼 '힙합적인 그루브'를 내는 앨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드리면 툭 터질듯 그의 '소울 진액'이 듬뿍 담기다못해 넘쳐흐르는 가사들이 주축이 되고 거기에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서정적인 '연주'가 들어있는 앨범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힙합 앨범'이라는 느낌 보단 '록 앨범' 내지는 '그냥 에미넴음악 앨범' 뭐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힙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거리감이 있지만 새로운 방향을 보인 '에미넴음악'이라는 측면에선 정말 박수를 쳐주고픈 수작입니다. 그리고 또 에미넴 자신으로서도 이런 스타일의 앨범은 필연이었어요. 언제까지나 똑같은 스타일로만 갈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분명 그의 많은 고민이 들어간 앨범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스타일로 이미지의 과감한 변신에 성공한 그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구요, 이 앨범은 다음 앨범에 대한 새로운 교두보를 마련한 터닝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2470284>

01. As We Enter
02. Tribes At War (featuring K' Naan)
03. Strong Will Continue
04. Leaders (featuring Stephen Marley)
05. Friends
06. Count Your Blessings
07. Dispear
08. Land Of Promise (featuring Dennis Brown)
09. Is His Own Words (featuring Stephen Marley)
10. Nah Mean
11. Patience
12. My Generation (featuring Lil Wayne)
13. Africa Must Wake Up (featuring K' Naan)



최대한 간결하게 쓸 거예요. 이 앨범을 듣고는 너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서 그걸 지면에 다 옮기자면 거의 한편의 수필이 될 것 같아서 읽는 사람도 힘들고 쓰는 사람도 벅찰 것 같아서 말이지요. 그렇지만 리뷰가 너무 허접해도 안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지키면서 간결하게 쓰려니 참 힘드네요. 눈송 시험 다시 보는 느낌?

Still don't know who Nas really is?

요 몇년간 나스의 행보와 결과물들을 보면 이제 드디어 완전하게 자신만의 개성과 아이덴티티를 정립한 느낌입니다. 우리는 나스가 "Illmatic"이라는 클래식 앨범으로 데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I Am"과 "Nastradamus"를 거치면서 적잖은 혹평을 들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Stillmatic"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고 이어지는 앨범들을 통해 현재의 그가 됐다는 것도 잘 알죠. 요는 나스라는 인물 자체가 제이지나 칸예 웨스트처럼 비즈니스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완전 언더그라운드의 퓨어한 에너지 그 자체에서 만들어진 앨범이 "Illmatic"이었지만 너무 내성적이고 수줍기만 했던 그에게 좀더 메인스트림으로 진출하라고 Trackmasters를 붙여 제작한 앨범이 "It Was Written"이었고 이후 Puff Daddy, Timbaland 등과 작업하면서 '상업'적인 캐릭터로의 진일보를 (그게 나스 자의였든 타의였든간에) 추진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대부분의 그의 팬들로부터 selling out으로 평가받게 됐다는 거죠. 솔직히 Ginuwine과 함께 불링블링 사운드에 여자들 엉덩이 사랑살랑 흔들던 "You Owe Me"나

L.E.S.의 미칠 듯이 쫓겨다니는 황당한 비트에 중독성 강한 훅이 있었던 "Nastradamus"는 대단히 훌륭한 곡이었지만 나스의 이미지와는 너무 괴리감이 컸죠. 그게 문제였어요. (제발 Nastradamus를 가려면 철저하게 들어보고 까세요. 절대 대중 만든 앨범 아니거든요.) 결국 그랬던 그가 "Stillmatic"과 함께 다시금 자아를 성찰하고 현실을 비판하는 일매릭 시절의 가사들과 진중한 사운드로 돌아오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점차 진보하고 더욱 심화되죠. "Street's Disciple"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보다 깊은 회고와 고찰, 그리고 현실에 대한 비판이 뒤섞이면서 결국 그 고민은 퇴색해가는 힙합씬을 걱정했던 "Hip Hop Is Dead"와 '아프로-아메리칸'이라는 인종에 대해 강박적으로 파고들었던 "Untitled"까지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2010년 그는 "Distant Relatives"라는 초대박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에 이른 거죠. 이제 진짜 편하게, 자기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음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절대 제발 플리즈 Jay-Z와 Nas를 더 이상 비교하지 말아주세요.)

Distant Relatives

Nas가 Damian Marley를 만나 서로 합작을 이룬 이 앨범 Distant Relatives의 컨셉은 매우 심플한 한가지 명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이집트의 나일강을 기원으로 해서, 유럽 문명이 그리스에서 시작됐지만 바로 그 그리스 문명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는 가설을 모티브로 해서 "흑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찾고 각성을 촉구하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세상 모두 형제다"라는 두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죠. 즉 "Tribes At War", "Leaders", "In His Own Words", "Nah Mean", "Patience"에서 현실의 각성을 촉구하고 "Strong Will Continue", "Count Your Blessings", "My Generation"에서 희망을 북돋워주며, "Land Of Promise"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자부심을 찾고 나면 "Africa Must Wake Up"에서 이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은 미국 본토의 청자들에게 Damian Marley 보다는 Nas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생각되며 가사 잘쓰기로 유명한 그지만 이 앨범의 몇몇 곡들에서는 그냥 아예 '작가'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을 정도로 무척이나 심오하고 문학적이고 철학적입니다.

한편! 이 앨범 전체를 휘감고 있는 사운드는 Damian Marley의 몫입니다. 아버지 Bob Marley를 필두로 "무슨무슨 말리"라는 이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바로 그 위대한 음악적 토양에서 자란 Damian Marley는 기대했던 대로 이 앨범에서 무서울 정도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Nah Mean", "My Generations"의 힙합과, "Leaders", "Friends", "Land Of Promise"의 레게가 공존하고 있으며 "As We Enter"의 업템포 아프로-힙크와 "Patience", "Africa Must Wake Up"의 소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Strong Will Continue"의 일렉트릭 록과 "Count Your Blessings", "In His Own Words"의 어쿠스틱 팝이 공존하고 있으며 "Nah Mean"에서는 아프로-큐반 재즈를, "Africa Must Wake Up"의 말미에서는 블루스 기타 솔로를 삽입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앨범 한장에 '모든 종류의 흑인 음악'이 다 들어있다는 건데 그게 뒤죽박죽 비빔밥처럼 정신없이 믹스돼 있는 게 아니라 강약 완급 조절을 분명히 하면서 앨범 전체의 컨셉에 맞게, 청자의 귀를 힘들지 않게 맞춰주면서 농축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점이 이 앨범을 높게 평가하는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완전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려놓고 봐도 완벽하다는 의미겠죠. 바로 이 앨범이 그런 "완전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할말 많고 할말 잘하는 Nas라는 lyricist가, 음악적 역량 많고 음악 잘하는 Damian Marley라는 musician과 만나 완전체를 이룹니다. 힙합과 레게가 만나 완전체를 이루고, 힙크와 소울이 만나 완전체를 이루고, 재즈와 블루스가 만나 완전체를 이룹니다. 그리고 지금 열거한 이 모든 요소가 한 장소에서 약속이나 한듯 정확하게 맞물려 "찰카닥" 소리를 내며 완벽한 모양의 '완전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앨범 "Distant Relatives"입니다.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1260219>

01. Don' t Let Me Fall
02. Nothin' On You (featuring Bruno Mars)
03. Pass My Shades (featuring Lupe Fiasco)
04. Airplanes (featuring Hayley Williams of Paramore)
05. Bet I (featuring T.I. & Playboy Tre)
06. Ghost In The Machine
07. The Kids (featuring Janelle Monae)
08. Magic (featuring Rivers Cuomo)
09. Fame
10. Lovelier Than You
11. 5th Dimension (featuring Ricco Barrino)
12. Airplanes Pt. 2 (featuring Eminem & Hayley Williams of Paramore)



요새는 좀 뜸해졌습니만 예전에 곧잘 꾸던 꿈이 있습니다. 누구는 무슨 피터팬 콤플렉스 아니냐고 그러는데 자다가 가위에 눌리면서 제가 자던 침대 위로 공중부양하면서 몸을 허우적 거리며 방을 나와 거실 창문까지 마치 수영하듯이 떠가다가 창문을 통과해서 밤하늘로 높이 날아 올라갑니다. 순식간에 빌딩과 거리의 불빛들이 저 멀리 아래로 보이면서 저는 그렇게 밤도시의 하늘을 날지요. 그러다가 동력이 좀 떨어지면 순식간에 몸이 아래로 곤두박질치면서 꿈에서 깹니다. (대개 이 꿈을 꾸면 꿈 속이지만 '이게 꿈이다'라는 걸 알고 즐긴다죠.) 항상 그렇게 몸이 곤두박질 칠 때마다 꿈 속에서 외치던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Don't let me fall...."

기분 좋은 상쾌한 저녁 시간, 풀밭에 누워있습니다. 아, 뭐 쭈쭈가무시나 유행성 출혈열은 없다고 침시다. 낭만 깨지 마세요. 다리 한쪽을 꼬고, 군청색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옆으로는 개울물이 흐르고, 개구리 소리랑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네요. 입에는 풀가지 하나를 물었습니다. 반딧불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도깨비불 같은 묘한 불빛도 떠다니네요. 그리고 그 때! 내 이마 위로 뭔가 하얀 게 확~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뭘까요. 얼른 자리에서 흠을 털고 일어나 저 멀리 재빠르게 지나가는 하얀 물체를 바라봅니다. 혹시 요정일까.. 아마 먼 옛날, 아니 어쩌면 전생에, 내가 너무 너무 사랑하던 존재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에 비하면 세상에 아무리 예쁘다는 여자들도 아무 것도 아니었어요. 그녀보다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었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밤하늘은 이제 제법 어두워졌습니다. 저 멀리 밤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네요. 저 비행기가 별뚱별이라고 가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저 별뚱별에 소망을 빌어봅니다. 소망을...

때때로 매우 인상적인 앨범을 들어보면 리뷰가 리뷰가 아니게 글이 막 섞이면서 비빔밥이 돼버리네요. 전 이게 좋습니다. "전형적인 리뷰는 가라!" '뮤지션이 앨범을 내는 자세'에 대해 얘기좀 해볼까요? 확실히 '앨범'은 '앨범'입니다. 앨범은 앨범 다워야 앨범입니다. 그냥 막 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미넴, 에미넴 아시죠? 에미넴도 번외 작업물이나 휘쳐링이나 등등에서 보면 여느 '랩퍼'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면모들을 보여주죠. 에미넴에게 스웨거라는 표현은 매우 안어울리지만 그래도 자신의 '앨범'이 아닌 다른 곳에선 뭐 스웨거 조금 뭐 그냥 그닥 특별치 않아요. 하지만 에미넴 '자신'의 '아티스트 앨범'으로 돌아오면 얘기는 달라지죠. 완전 최악의 구렁텅이까지 내던지는 그의 신실한 가사들과 작가주의적 콘텐츠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2010년의 젊은 아티스트 B.o.B 역시 그래요. 그는 데뷔 앨범을 발표하기 전에 대략 6장 정도의 믹스테이프들을 발표했었는데, 이 믹스테이프들에 담긴 음악들은 대부분 매우 '힙합적'이었습니다. 상당수를 조지아 출신인 그답게 전형적인 사우스 스타일로 채우면서 중간 중간 모드 스타일의 록을 곁들인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우스 힙합'과 '모던록'이라는 그의 근간을 이루는 양축은 서로 양립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데뷔작인 이 앨범에선 마침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던 저 두 스타일을 완벽하게 화학반응을 시켜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 뮤직'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물리반응'이 아닌 '화학반응'이라는 거예요. 1이 사우스 힙합이고 3이 모던록이라면 1-3-1-3식의 구성이 아니라 2-2-2-2가 됐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동안 몇몇 예에서 '모던록'과 '힙합'의 매우 적절한 콜라보송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델리스파이스와 주석이 그랬고 외국에서는 Texas와 Method Man이 그랬습니다. 두 곡들 모두 모던록팬과 힙합팬들을 동시에 만족시킨 훌륭한 곡들이었죠. 그렇지만 별로 안어울릴 것 같았지만 묘하게 잘어울리는 이 두 장르의 결합을 본격적으로 앨범을 통해 들려준 이는 여태껏 없었습니다. 그런데 B.o.B는 그의 데뷔 앨범에서 이 두 장르의 결합을 정말 완벽하게 이뤄냈어요. 자신이 좋아하고 믹스테이프들을 통해 줄곧 들려주던 두 개의 양립하지 않던 장르를 진중하게 결합시켰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첫 곡 "Don't let me fall"에서부터 우리가 스매싱 펌킨스의 두 번째 앨범에서 열광했던 fuzzy한 기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역시 우리가 스매싱 펌킨스의 "Today"라는 곡에서 좋아했던 인트로의 영롱한 기타 멜로디 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Bruno Mars의 노래와 함께 2010년 봄을 강타한 팝송 "Nothin' on you"가 흘러나오고, 딱 듣는 순간 이거 'white teenager들(Andy, Frank, Kelly 이 녀석들) 환장하겠구만'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헤일리 윌리엄스의 귀에 짹짹 달라붙는 이모(Emo) 보컬이 좌중을 압도하는 "Airplanes"가 나오더니 (목소리가 너무 매력있어서 잘 모르던 밴드인 Paramore에도 관심을 가지게 만든다는..) "Magic"에 가서는 진짜 뻘뻘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이게 B.o.B 앨범에 Weezer가 휘쳐링한 건지 Weezer 앨범에 B.o.B가 휘쳐링한 건지 구분이 안가게 "썬이잇에인 쏘우오우워~"의 주인공 리버스 퀴모를 불러다가 그냥 완전 위저 음악을 들려줘버리네요. 이 앨범에서 유일하게 '그랜드 허슬'이라는 레이블에 걸맞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곡은 전형적인 사우스식 그루브 "Bet I" 한 곡 밖에는 없군요. 그밖에 B.o.B 자신이 직접 통기타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하이톤에선 마치 Andre 3000을, 나즈막한 톤에선 Pharrell이 연상되기도 하는 그의 보컬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안드레 3000 하니까 떠오르는 게 만일 안드레 3000이 솔로 앨범을 낸다면 딱 이런 스타일의 앨범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만일 안드레가 이 앨범을 들으면 '이 새끼 내가 할거 지가 선수쳐버렸네' 뭐 그렇게 생각할지도..) 여하튼 이 앨범은 그루비한 흑인음악도, 도프한 힙합도, 트렌디한 클럽 사운드도 아닌, '밝고 상쾌한 팝앨범'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표현일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T.I.에게도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랜드 허슬이라는 레이블의 명성과는 별로 안어울리는, 비교적 동떨어진 음악을 가지고 나왔지만 아티스트 자신의 자율성을 그만큼 존중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캐나다에서 원래 들려주던 스타일에 비해 레이블에 들어가면서 목소리톤이나 음악 스타일도 확 바뀐 Drizzy-Weezy의 관계보다 웬지 더 쿨해보이기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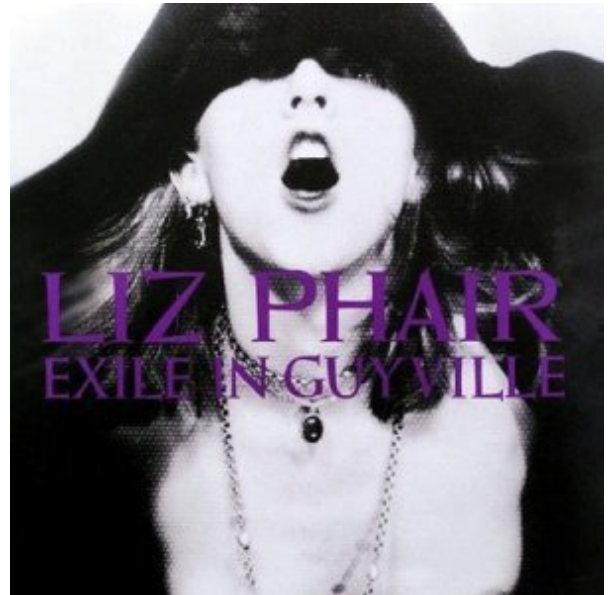
확실히 지금은 '힙합의 얼터너티브' 내지는 '힙합의 세대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로 아직까지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못봤지만 어쩌면 칸예 웨스트와 루페 피아스코는 힙합계의 너바나와 펄잼, 혹은 힙합계의 오아시스와 불러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돌 날라오네요.) 그들이 만들어놓은 소울-록에 기반한 따뜻한 사운드, 그리고 자각적이고 지적이며 현실적인 가사와

'컬리지'스러운 스타일들.. 분명 이건 기존의 '힙합'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류입니다. 그리고 최근들어 등장하는 키드 커디, 왈레, 드레이크, 제이 콜, 그리고 오늘 소개한 바비 레이 역시 이러한 조류를 훌륭히 발전시켜나가는 역군들이겠구요. 15년 전만 하더라도 '왜 갑자기 랩 하다가 노래 부르고 지랄이야' 이런 반응이었을 음악들이 요새는 거의 공식화되고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이른바 '모던록'이 아니고 '모던랩'이랄까요? 흐.

이제 슬슬 글을 마칠 때가 됐네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쓰다보면 글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별로 영양가도 없으면서. 이 앨범에 실린 가사에 대해 언급을 안했다구요? 이 글의 맨 위에 두 단락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예요. 바로 이 앨범에서 음악가 B.o.B가 말하고자 하는 가사들은 제가 맨 위 두 단락에 써놓은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이 앨범은 B.o.B 혹은 바비 레이라는 이제 막 데뷔 앨범을 발표한 젊고 패기 넘치는 뮤지션의 '꿈'과 '포부'가 담긴 앨범입니다. 앨범을 듣다 보면 '후레쉬하다' 내지는 '당차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런 그의 목소리와 음악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고 입가에 미소가 드리워지는 정말 정말 '좋은 앨범'입니다. 저한테 이런 앨범이 별 다섯개 거든요.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9991012>

01. '61"
02. Help Me Mary
03. Glory
04. Dance of the Seven Veils
05. Never Said
06. Soap Star Joe
07. Explain It to Me
08. Canary
09. Mesmerizing
10. Fuck And Run
11. Girls! Girls! Girls!
12. Divorce Song
13. Shatter
14. Flower
15. Johnny Sunshine
16. Gunshy
17. Straford-on-Guy
18. Strange Loop



자 그럼 이런 가사들을 그녀는 어떤 식으로 청자에게 들려주는지 볼까요. 그녀를 인디수퍼스타로 만든 건 단순히 이런 가사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 특유의 보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죠. 그녀는 철저히 퇴폐적인 모노톤의 저음으로 담담하게 노래합니다. 저런 자극적인 가사들을 이토록 지독히 냉담하고 담담한 보컬로 부르다보니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가장 효과적인 의미 전달이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수록곡들의 대부분은 데모 테잎이었던 "Girly Sound"에 수록됐었던 것들이데요, 전곡을 그녀가 쓰고 모든 곡에서 보컬과 기타, 그리고 때로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앨범 전체적인 사운드는 90년대 중반 Matador라고 하는 레이블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레이블 소속이었던 Pavement나 Helium의 지글거리는 노이즈나 Yo La Tengo의 슈게이징보다는 가장 '전형적인 인디 로우-파이'라고 할까요? 때로는 어쿠스틱한 가운데 신디사이저나 드론 사운드를 입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입히거나, 스트레이트한 록 스타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렉트릭 기타 소리는 그다지 헤비하지 않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디스토션 안걸고 치는 찰랑찰랑거리는 일렉기타 소리) 만일 전형적인 로우 파이식의 저렴하면서 몽환적인 사운드를 느끼고 싶다면 "Dance of the Seven Veils", "Soap Star Joe", "Canary", "Shatter", "Gunshy" 등과 같은 곡을 들으면 되고 스트레이트한 록을 느끼고 싶다면 "'61'", "Help Me Mary", "Never Said", Johnny Sunshine", 그리고 "Fuck And Run"을 들으면 됩니다. 하지만 모노톤의 사운드만 있다면 얼마나 지루하게요, "Divorce Song"이나 "Mesmerizing" 같은 곡은 상당히 멜로디컬한 기타

팝적인 느낌도 주고 있으며 심지어 "Stratford-on-Guy"는 댄서블하기까지 합니다. 본 앨범에 실린 모든 곡을 다 좋아하지만 특히나 통쾌한 가사에 스트레이트한 리듬을 타고 전개되는 "Fuck And Run"이나 블루지한 단조 느낌에 멜로디를 입혀 업템포로 찍어버린 "Mesmerizing" 등은 무척이나 아끼는 곡들이며 앨범 내 최고의 트랙으로 생각하는 "Stratford-on-Guy"는 미들템포의 드럼 비트가 강조돼 듣는 순간 몸을 흔들고 싶게 만드는 '그루브'를 품고 있으면서 약간은 전위적인, 어떻게 보면 마치 poetry slamming을 하는 듯한 심하게 읊조리는 그녀의 저음 보컬과 후렴 부분에 터져나오는 강렬한 기타음이 맞물려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예전 뽀빠 시절에는 자기 뽀빠 연결음을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녹음해 넣을 수 있었는데 전 이 곡을 녹음했었더랬죠. 그걸 들은 어떤 열혈모던록키드가 "이거 Primus야?"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곡이 약간 묘하게 아방한 느낌을 줍니다.) 자, 정리하자면 Liz Phair의 데뷔작 "Exile In Guyville"은 가장 그녀의 음악적 감수성이 fresh했던 시기에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던 그녀만의 '생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앨범에 실린 그녀의 연주와 목소리와 가사들을 가만히 듣고 있다보면 어떤 '초상(statue)' 같다는 느낌도 들게 되더군요.

After Exile In Guyville

주지하다시피 데뷔작의 대성공 이후 그녀는 인디씬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4년 많은 이들의 기대를 안고 두번째 앨범인 "Whip-Smart"를 발매하면서 롤링 스톤지의 커버를 장식하게 되고 각종 TV 쇼에 출연하기도 하는 등 대중들에게도 널리 알려지게 되죠. 앨범의 싱글이었던 "Supernova"는 빌보드 모던록 차트 6위에 오르고 뮤직비디오는 MTV에서 수차례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 역시 Girly Sound 수록곡들 일부와 함께 그녀가 직접 작업한 곡들로 이루어져있지만 전작이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전작보다는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2집 이후 4년 만에 세번째 앨범 "Whitechocolatespaceegg"가 발매됩니다. 하지만 일단 메이저 회사인 Capitol과 계약을 하면서 그녀의 그 멋진 음악은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전 두 작품을 프로듀스했던 명장 Brad Wood는 여전히 이 앨범에서도 참여를 했지만 R.E.M.의 음악을 주로 만들던 Scott Litt이 프로듀스한다는 얘기를 듣고 다소 불안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예전의 로우 파이 사운드는 깔끔한 메인스트림 팝/록으로 변합니다. 후에 리즈 페어는 인터뷰에서 이 당시를 회상하며 "Matador 레이블이 나를 Capitol로 팔았다"라고 했죠. 이 세번째 앨범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린 앨범이라 그녀의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찾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나쁘지 않게 들었습니다만 문제는 그 다음 앨범인 "Liz Phair"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앨범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앨범을 만들어서 Capitol 사장에게 가져갔더니 "맘에 안든다, 좀더 팔리는 음악을 해라"라고 압박이 들어왔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브리트니 스피어스, 힐러리 더프 등의 상업적인 음악을 만들던 프로덕션팀인 The Matrix와 같이 추가적으로 더 작업할 조건으로 레이블 예산을 더 책정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탄생한 곡들이 매우 전형적인 AOR 계열의 평범한 팝/록 "Extraordinary"와 "How Can't I"였고 이 싱글들이 발매되면서 수많은 리즈 페어 팬들과 인디록 매체들은 그녀를 "sell out"이라고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녀가 왜 자꾸 이런 음악을 만들까 하고 의문을 가졌더랬죠) 그리고 2년 뒤에 나온 "Somebody's Miracle"은 더더욱 가관이어서 정말 아무 라디오나 틀어도 나올 법한 평범하기 이를데 없는 "Everything To Me"와 같은 싱글부터 앨범의 대부분을 미국의 코케이션들이나 좋아할 만한 컨트리-루츠록으로 채워버리면서 오랜 팬을 자처한 저까지도 큰 실망을 하기에 이릅니다.

And Now

자,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Liz Phair는 그녀를 이토록 구렁텅이에 빠뜨린 Capitol이라는 지긋지긋한 레이블과 계약을 끝내고 Dave Mathews가 설립한 인디 레이블 ATO Records와 계약합니다. 자, 그러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예, 바로 절판된 "Exile In Guyville"의 리이슈였습니다. 게다가 Girly Sound 테잎에 수록된 미발표곡 세 곡을 보너스로 넣고 당시 초창기 시카고 음악씬을 회고하는 내용의 DVD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 리이슈는 그녀 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그녀의 오랜지기 팬들에게 주는 의미

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Capito에 소속돼 있던 동안 꺼내지 못했던 그 동안의 '억울함'을 몇몇 인터뷰에서 토로하며 다시금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겠다고 단언했습니다. (근데 새 앨범 소식은 들리지 않고 현재는 TV 드라마와 쇼 작곡가로 활동 중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언젠가는 ATO Records를 통해 2004년 이후 정말 정말 오랫동안의 신보가 발매될 것이고 그녀 스스로 원래 자신의 스타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정말 미치도록 가슴 설레게 기다려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다 한 것 같네요! ^^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9413971>

01. 6'1"
02. Help Me Mary
03. Glory
04. Dance of the Seven Veils
05. Never Said
06. Soap Star Joe
07. Explain It to Me
08. Canary
09. Mesmerizing
10. Fuck And Run
11. Girls! Girls! Girls!
12. Divorce Song
13. Shatter
14. Flower
15. Johnny Sunshine
16. Gunshy
17. Straford-on-Guy
18. Strange Loop



먼저 잠깐 고백할 게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음악은 힙합과 재즈가 맞습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절대 변하지 않는, '부동의 웨이버릿 아티스트 넘버 원'은 바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리즈 페어(Liz Phair)입니다. 그리고 누가 묻더라도 자신있게, 소위 말하는 '무인도에 가져갈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의 웨이버릿 앨범 넘버 원' 역시 오늘 얘기하는 "Exile In Guyville"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과연 내가 이 앨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하는 조바심이 들기도 하고 좀 진중해지기도 하네요. 앨범 리뷰는 여러번 써봤지만 이 앨범에 대해서는 처음 글을 쓰거든요. 흐.

Before Exile In Guyville

리즈 페어의 커리어는 "Girly Sound"라고 하는 3장의 데모 테잎에서 출발합니다. 대학 졸업 후 시카고에 거주하면서 동향 출신 밴드인 Urge Overkill이나 Material Issue 등과 어울리면서 곡을 쓰기 시작했고 홈메이드 로우-파이 방식으로 녹음한 이 3장의 "Girly Sound" 데모 테잎을 발매합니다. (요즘의 힙합씬으로 따지자면 믹스테잎이라고나 할까요 ㅎㅎ) 이 테잎들을 듣고 감동 먹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인디 레이블인 Matador와 계약하게 되고 93년에 그녀의 데뷔작인 "Exile In Guyville"을 발매하게 되죠. Rolling Stones의 1972년작 "Exile On Main Street"에 한곡 한곡씩 대응하여 만들었다고 하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정확한 싱크로율을

보이지 않습니다만) 본 앨범은 발매와 동시에 인디록씬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게 됩니다. Spin, Rolling Stone 등의 잡지에서 '90년대 최고의 앨범 100 혹은 500'에 높은 순위로 자리잡고 있으며 allmusic을 비롯한 각종 온라인 매체에서 거의 만장일치격으로 '만점'을 받았죠. 바로 이 데뷔 앨범 한장으로 그녀는 인디록씬의 슈퍼스타가 됩니다. 그럼 이 앨범은 어떤 앨범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Exile In Guyville

90년대 중반의 모던록씬의 키워드는 '냉소'와 '회의' 내지는 '자기혐오'였습니다. ㅋㅋ 힙합씬의 키워드가 '소울'과 '스웨거'라는 점을 생각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감수성이죠. 그래서 힙합 듣는 사람들끼리는 곧잘 어울리기 쉬었는데 유독 모던락 듣는 사람들은 서로 못 어울리고 모여도 디게 씨니컬하고 그랬었죠. 바로 이 "전혀 소울풀하지 않은" 감성이 물씬 녹아들어있는 또 하나의 작품이 바로 본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앨범은 사운드도 사운드지만 lyrical한 측면을 모르고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는데요, 그 만큼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Liz Phair"라고 한번 발음함으로써 느껴지는 이미지를 쌓은 원동력이 바로 본 앨범에 실린 그녀의 지극히 explicit한 가사들입니다. 일단 곡 제목들을 쭉 보세요. 제일 먼저 눈에 확 띄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예 맞아요, 바로 "Fuck And Run".. 바로 그 느낌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 '섹슈얼리즘'이라는 건데요.. 근데 말이지, 여기서 그녀의 애티튜드가 얼마나 쿨하면서도 현명하게 느껴지냐면, 그 섹슈얼리즘을 대놓고 드러낸다고 보다는 걸으로는 평범한 일상이나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청자로 하여금 굉장히 야한 상상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Help Me Mary"에서는 걸로는 집이 강도들에게 털렸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지하실에서 날 더럽게 가지고 놀았어"라고 하더니 그 다음엔 "난 그들의 친구가 되기로 했어. 입다물고 그들의 물을 따르기로 했어" 처럼 묘한 뉘앙스를 보인다는 겁니다. 또 "Never Said"에서도 "난 아무 말도 안했어, 그들이 뭐라고 소문을 냈는지 몰라도 난 떠벌이지 않았어"라면서 은근한 상황들을 상상하게끔 한다는 거죠. 한편 아예 제대로 노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Flower" 같은 곡에서는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랑이 사이가 축축해져"부터 시작해서 "난 너를 dog처럼 fuck하고 싶어, 너 뿐만 아니라 니 폴마니들까지 다 fuck하고 싶어"라던가 "Your lips a perfect "suck me" size"라고도 하고 "I want to be your blowjob queen"(너무 노골적이어서 번역 안함)이라면서 "I'll fuck you till your dick is blue"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화끈한 제목의 "Fuck And Run"에서도 역시 "난 내 삶의 전부를 fuck and run할거야. 내가 17살 때도 그랬었고 심지어는 12살 때도 그랬지"라고 하네요.

또 이런 그녀의 대답함은 단순히 섹슈얼한 측면을 지나 '남성'에 대한 조롱으로 이어지는데요, 그것 역시 걸로 '페미니즘'을 드러낸다고 보다는 그녀만의 유머 감각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게 조롱하는지 그 가사에 빠져들면 같은 남자가 들어도 '통쾌함'이 느껴질 정도죠) 다시 말해 그녀는 '페미니스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페미니즘'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이, 즉 당연히 하다는 뜻이 얘기한다는 거죠. "Dance of the Seven Veils"에서는 "직장을 관둔 내 사랑 Johnny를 나는 더욱 심하게 대했어. 그를 플라스틱에 굴리기도 하고 toss하기도 하고 pump하기도 했어"라고 하면서 "내 사랑 Johnny와 결혼을 할거야. 아마 주례사에서 그는 "until death" 부분을 스킵할지 몰라. 왜냐면 그는 이미 죽은 몸이니까"라면서 통쾌하게 조롱합니다. 또한 "6'1"에서는 "5피트보다는 6피트로 서있을 거야. 난 내 삶을 사랑했어. 그리고 니가 싫었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가하면 "Explain It to Me"에서는 온통 알 수 없는 문장들을 얘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나한테 설명해봐"라면서 오히려 듣는 사람을 엿먹이기도 한다는 거죠. 또 앨범의 백미인 "Stratford-on-Guy"에서는 (힙합식으로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스토리텔링'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데요, 걸로는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다가 착륙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지만 "갑자기 소음이 들렸고, 그게 한 시간이 지난 건지 하루가 지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고 청자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저 Phair 자신은 "난 Galaxy 500 비디오를 보고 있었고, 창문 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집들 불빛이 이상하게 변했고.." 등등 풍경 묘사만 담담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그녀의 가사들은 상당히 논란을 일으킬만한 내용들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게 어느 한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친다고 보다는 적절하게 냉소적인 절제를 하고 있으면서 그 중심에는 은근한 유머 감각을 현명하게 끼워넣는다는 거죠. (앨범 부틀릿을 봐도 그녀만의 유머 감각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마치 '확!' 이럴 것 같은데 아니

고,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안하고, 확 뭐라 그러고 싶은데 말이 안나오고, 뭐라고 반박하고 싶은데 딱히 견덕지가 없는' 뭐 그런 느낌
말입니다. 그 오묘한 심상을 이토록 대답하면서도 별 문제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내뱉는 감각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
니다.

두번째 이야기에서 계속...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87938801>

'차트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퇴물'이라는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은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럼 차트 1위 못하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도 거장 아니자나요? 퇴물이지.. 아니, 표정들이 왜 그래요? 할인마트 시식 코너에서 먹고 싶어서 먹었으면서 괜히 진지한 표정으로 "괜찮네.." 그러면서 맛 음미해보는 사람들처럼 (최효종 톤으로)

오늘 이야기 하는 DJ Spinna도 역시 그럼 그런 기준이라면 '퇴물'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출중한 감각과 실력에 비해서 10년 동안 철저하게 '언더그라운드'만을 고집해왔기 때문이죠. Jigmastas와 Polyrhythm Addicts라는 걸출한 언더그라운드팀을 거쳐 여타 엠씨들의 프로듀싱과 솔로 활동으로, 또 그외 여러 다른 프로젝트로 그는 언제나 바쁩니다. 최근에는 "Underground Forever"라는 의미심장한 타이틀의 믹스 앨범을 발매하기도 했었죠. 자, 오늘 들고 나온 앨범은 다들 잘 아시는 BBE 레이블의 비트 제너레이션 시리즈의 일환으로 발매된 "Here To There"입니다.

01. Alfonso's Thang (featuring Ticklah & Alfonso Greer)
02. Drive (featuring Shadowman from OldWorldDisorder)
03. Hold (featuring Apani B. Fly & Jean Grae)
04. Tune You Out (featuring Rise)
05. Galactic Soul
06. Idols (featuring Vinia Mojica)
07. All Up In It (featuring Eric Krasno & Neal Evans from Soulive)
08. You Got To Live (featuring Jigmastas & Akil)
09. Surely (featuring Ovasoul7)
10. Rock (Unplugged) (featuring Tortured Soul)
11. Fly Or Burn (featuring The Bedouin)
12. Glad You're Mine (featuring Angela Johnson)
13. Love Is Solid (featuring Abdul Shyllon)
14. Music In Me (Interlude)
15. Music In Me (Come Alive) (featuring Shaun Escoffery)
16. The Originator



BBE는 원래 영국의 하우스 레이블이었죠. Masters At Work라는 하우스씬의 거장이 소속된 레이블이 바로 BBE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 레이블이 갑자기 힙합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비트 제너레이션' 시리즈를 런칭했고 이 시리즈들을 통해 'instrumental hip hop'이 여러 리스너들에게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으며 '비트메이커/프로듀서'들 하나하나의 음악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instrumental hip hop은 90년대 중후반에 이미 DJ Shadow/DJ Krush/DJ

Spooky로 대표되던, 유럽 댄스뮤직씬의 브레이크비트/드럼앤베이스의 자양분을 받아 엠씨들을 위한 프로듀서로서의 역할보다는 스스로의 '솔로곡'들을 만들던 뮤지션들에 의해 몇몇 리스너들 사이에서는 회자가 됐었지만, 본격적으로 본토나 우리나라나 일반 힙합팬들에게 '인스트루멘탈 힙합'을 널리 알리게 만든 계기로서 '비트 제너레이션 시리즈'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Soul Survivor"만 만들던 Pete Rock이 "PeteStrumentals" 같은 걸 발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비트 제너레이션 시리즈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예예.. "PeteStrumentals". 또? 아, 예 "Welcome 2 Detroit". 또요? 아 "Lost Change". "The Magnificent". 예예 알겠습니다. 맞아요. 주로 위에 열거한 앨범들이 가장 인기를 끈 작품들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DJ Spinna의 "Here To There"는 그닥 회자되는 걸 못봤어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위에 열거한 시리즈 모두를 들어봤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은 바로 이 "Here To There"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전 "PeteStrumentals"가 제일 별로임..)

지금 활동하고 있는 DJ Spinna의 음악 스타일을 한마디로 얘기하긴 아주 어렵죠. 마치 Madlib 처럼요. 힙합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70년대 소울/힙/디스코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때론 일렉트로닉-하우스 스타일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말이에요, 그런 그의 다양한 스펙트럼들을 최초로 시도한 앨범이 바로 이 "Here To There"가 아닐까 싶어요. 이 앨범은 그의 솔로작으로서 "Compositions 1", "Heavy Beats Volume 1"에 이은 세번째 작품인데요, 그 이전의 앨범이나 활동들이 말씀드렸던 시피 Jigmastas와 Polyrhythm Addicts 같은 힙합팀의 프로듀서와 'Rawkus boom'에 동참했던 힙합 비트메이커로서였다면 이 앨범에 와서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만의 개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앨범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 참 '공을 많이 들인' 앨범 같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스스로는 MPC-3000과 SP-1200을 가지고 비트를 만들고 있지만 여러 게스트 세션들을 초빙해서 베이스, 올겐, 클라비넷, 기타, 드럼 등 리얼 연주를 풍부하게 들려주며 여기에 '디제이'로서의 그답게 스크래칭 세션까지 가미해서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참 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구성을 가지고 그가 어떤 음악을 들려주는지 하나하나씩 봅시다.

우선 그가 들려주는 비트 역시도 간단한 힙합브레이크는 아닙니다. 1-2-3-4 구조에서 악센트를 다르게 줌으로써 색다른 그루브감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오프닝곡인 "Alfonso's Thang" 같은 경우엔 2-3-4에 균일하게 악센트를 줘서 Alfonso Greer의 shout out과 어울려 느릿느릿 스텝을 밟는 듯한 리듬감을 준다면 이어지는 힙합 트랙 "Drive"나 "Hold"에서는 2와 4에 강세를 줘서 전형적인 힙합 그루브를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Surely"나 "Glad You're Mine"과 같은 멜로우한 알앤비 스타일의 곡들에서는 1과 3에 악센트를 줘서 (고 James Brown에게서 최초로 이 비트를 발명했다고 하는데..) 업템포 알앤비 특유의 댄서블한 바운스를 느끼게 하네요. 한편 "Galactic Soul"에서는 오프비트의 엿박을 사용해 마치 J Dilla의 환영이 느껴지기도 하며 개인적인 베스트 트랙 "Idols"에서는 블루지한 6/8박자 리듬 가운데 중간 중간 1-3에 강세를 준 알앤비 스타일의 비트로 과감한 변박을 시도해서 꽤 전위적인 가운데서도 바운스감을 느껴지게 합니다. 또 "Music In Me (Come Alive)"에 가서는 전형적인 포온더플로어 하우스 비트로 이 앨범이 BBE에서 나왔다는 걸 다시금 리마인드시켜주기도 하네요. (이 곡에선 Ronny Jordan이 전혀 존재감 없는 기타 연주를 들려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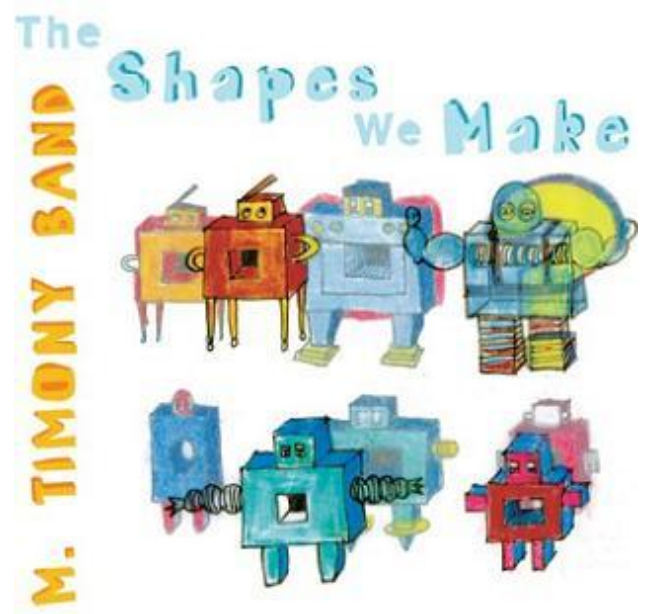
하지만 이 앨범이 멋진 이유는 이렇듯 다양한 비트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앞서 언급했듯 다양한 '악기'를 사용해 짙은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특히 Moog를 이용한 레트로 성향의 소리들은 여타 힙합 앨범들에선 접사리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며, 60-70년대 소울 음악에서 들려지던 특유의 '빠웅 빠웅' 거리는, 왠지 향수가 느껴지게 하는 신디사이저음들도 앨범 전체적인 분위기를 상당히 빈티지게 만들고 있죠. 또 어반/퓨전 밴드 Soulive의 Eric Krasno와 Neal Evans가 참여하여 각각 기타와 하몬드 올겐을 연주해 DJ Spinna feat. Soulive라기 보단 Soulive feat. DJ Spinna에 가까운 "All Up In It"이나 하우스 밴드 Tortured Soul이 참여한 "Rock (Unplugged)"에서의 리얼 연주가 중심이 된 업템포 황사운드는 도저히 듣는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게 만듭니다. 그 사이사이 감초처럼 뿌려지는 DJ Spinna의 스크래칭 세션은 최고의 '덤'이구요. 그런가하면 "Fly Or Burn" 같은 트랙에서는 느릿느릿

블루지한 비트에 사이키델릭 기타를 가미해서 시사성 강한 poetry slamming을 보조하고 있구요, 마지막 트랙 "The Originator"에서는 아프리카 리듬을 차용해 "드럼은 아프리카에서 발명했다. 드럼이 없으면 힙합도 재즈도 블루스도 컨트리 뮤직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마치 Nas & Damian Marley의 "Distant Relatives" 앨범의 메시지를 연상케하는 나레이션도 등장합니다.

이렇듯 이 앨범은 단순한 '힙합 프로듀싱' 앨범이라기 보단, '흑인음악'이라는 범주 안에서 DJ Spinna 본인이 혼자서, 혹은 여러 게스트들을 통해,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토록 '다양한 사운드'가 관점에 따라선 일관성이나 균질성 없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들이 '난잡'하게 나열됐다는 느낌보다는 특정한 흐름을 가지고 비트를 통해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니다. 무엇보다 듣는 순간 감이 팍 오는 킬링 트랙들이 중간 중간 포진돼 있기 때문에 듣기에 전혀 지루함이 없다는 게 최대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앨범은.. "PeteStrumentals" 같은 균질한 작품은 아니지만, "Welcome 2 Detroit" 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하이브리드 뮤직을, "Lost Change"에서 처럼 세션 연주를 곁들여서, "The Magnificent"에서와 유사한 곡 배치를 해놓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9806925>

01. Sharpshooter
02. Killed By The Telephone
03. Pause/Off
04. Summer's Fawn
05. Each Day
06. Curious Minds
07. Pink Clouds
08. Window
09. Rockman
10. New Song



모토는, 짧게! 오늘 가지고 나온 앨범은 Matador를 탈퇴하고 솔로 커리어를 시작했던 그녀가 솔로로서는 네번째로, Mary Timony Band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앨범입니다. 사실 이름 뒤에 Band를 붙이긴 했지만 솔로로서의 그녀가 들려주던 음악들과 큰 차별성을 둘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솔로 4집"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이죠. (이 앨범 이후 현재까지 그녀는 '프론트우먼'으로서 보다는 Soft Power와 Wild Flag라는 두 개의 프로젝트 활동을 하면서 '기타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녀의 음악 스타일은 크게 두 가지 악기로 설명이 됩니다. 바로 기타와 키보드라는 건데요. 실제로도 그녀는 공연 시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 파트와 키보드를 연주하는 파트로 나누어서 공연을 했었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요소를 확장시켜보면 Helium 시절부터 최근까지 그녀가 들려준 음악 스타일도 '기타'와 '키보드'라는 두 악기와 연관성을 가지고 크게 둘로 나뉜다는 겁니다. 먼저 "기타"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인디록입니다. 바로 Autoclave와 Helium의 1집 시절 들려줬던, 신경질적인 기타의 불협화음과 사이키델릭한 사운드가 하나의 큰 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키보드"로 대표되는, 보다 polyphonic하고 프로그레시브한 느낌의 드론 사운드들이 그것인데 마치 중세 음악이나 북유럽 민요를 듣는 듯한 묘한 느낌의 음악들은 분명 '마리 티모니'라는 뮤지션의 개성을 극명하게 하는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elium 2집 시절과 솔로 1-2집 시절의 음악들이 주로 이 후자와 관련이 깊은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두 개의 사운드축을 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던 그녀의 음악은 솔로 2집 이후로 방향 전환을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Matador를 떠나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Matador라는 레이블 역시 상업성이 무척 강하다고

하죠. 자신의 음악들이 '팔리지' 않는다고 하며 그녀를 추방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레이블에서 발표한 그녀의 솔로 3집부터 그녀는 기타에 보다 집중하고 싶어 슬슬 키보드를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그녀의 '기타'에 집중하는 음악들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전 자신이 애용하던 키보드를 eBay 경매에 올려 팔아버리심에 이릅니다.) 그렇게 발표했던 3집은 완벽하도록 스트레이트한 인디록 앨범이었고 각종 인디 매체로부터 극찬을 받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고개 까딱까딱거리며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 소개하는 솔로 4집이자 'Mary Timony Band'로서의 앨범 "The Shapes We Make"를 발표합니다.

"절충"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앨범을 듣는 순간요. 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2집 "The Golden Dove"의 그 묘하게 사랑스러웠던 음악들을 좋아했다면 3집 "Ex Hex"에서의 스트레이트함과 raw함에 당혹감을 느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녀만의 개성이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었죠) 이 앨범에서는 티모니 역시 이를 의식했는지 묘하게 이 두 요소의 합일점을 보여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역시 guitar-based indie rock 포맷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이 사이에 자신의 중요한 개성이자 주특기였던 '프로그레시브함'을 살짝살짝 비쳐준다는 거죠. 오프닝곡이자 "타이틀곡"이었던 "Sharpshooter"는 심플한 느낌의 기타팝으로 몰개성적이기도 하고 사실 앨범 내 제일 재미없는 트랙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여기서 끝. 2번 트랙 "Killed By The Telephone"과 이어지는 "Pause/Off"(개인적으로 베스트 트랙!)는 듣자마자 "그래! 이게 마리 티모니거덩!!!!!" 바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스트레이트한 인디록과 그녀 아니면 낼 수 없는 독특한 사운드 이펙트, 그리고 거의 나레이션에 가까운 보컬이 합일점을 이룬 멋진 곡들이죠. 아 정말.. 제가 만약 비트를 만든다면 "Pause/Off"에서 그녀가 들려준 그 매력적인 나레이션 스타일을 휘쳐링해달라고 그녀 다리를 붙잡고 사정사정할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밀고 당기는 식의 스트레이트한 기타 워크로 그루브감을 자아내는 "Summer's Fawn"이 이어지고 나면 다음 곡 "Each Day"에서는 다시금 멜랑콜리한 북구유럽풍의 멜로디로 청자를 이끍니다. 개인적으로 Helium 시절부터 그녀 특유의 저음의 멍때리는 듯한 주술적 목소리톤을 좋아했어서 전 앨범 "Ex Hex"에서의 목소리에 힘을 잔뜩 줘서 불렀던 톤이 다소 좀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다시금 그 멍때리는 보컬로 돌아와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가사 역시 직설적으로 변화를 꾀했던 전작과 달리 다시금 알 수 없는 그녀 특유의 각종 '동물 메타포'를 구사하는 면모를 보여 참 좋았습니다. 즉 이렇듯 자신이 추구하는 기타 포맷의 밴드 음악을 계속 하면서도 그녀를 가장 잘 특징지어주던 '마리 티모니 사운드'를 다시 소환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녀의 오랜 팬들은 분명 환영할 만한 앨범이었다는 거죠.

이 앨범 이후로 현재까지 아직은 그녀의 앨범 소식은 없습니다. 전 남친이었던 드러머 Devin Ocampo와 3집-4집을 발매하고 아마도 깨진 듯 하구요, 새 남친 Jonah Takag와 함께 Soft Power라는 밴드를 결성해 공연도 하고 앨범 준비중이라는 소식만 있었는데? 돌연 갑자기 Sleater-Kinney의 멤버들과 함께 Wild Flag라는 여성 4인조 밴드를 다시 결성해 지금 앨범 준비 중이라고 해서 저처럼 그녀의 앨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는 팬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Takag와 깨진 듯 싶죠? 근데 깨지길 잘했어요. 그 남친 진짜 더럽게 생겼던데. 마리 티모니가 아까웠습죠. 네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8481353>

소울이 뭐니까. 뭐 저도 문화학자가 아니라서 명확하게 정의내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소울을 우리말로 표현해본다면 '정 +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윈디 씨티의 김반장씨는 인터뷰에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소울"이라고 했는데 저도 그 의미에 공감합니다. 보이진 않지만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정' 그게 '소울' 아닐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70년대 소울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꼭 절정부에서 목을 쥐어 짜며 데쓰메탈도 아닌데 거의 그로울링에 가까운 샤우팅 창법을 들려준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진심'이라는 거죠. 내 진심을 제발 좀 알아달라.. 갑갑한 마음에 가슴을 후려치며 뱀다 내지르는 그 감수성.. 그게 소울 아닐까요. 영화 "드림걸즈"에서 중반부에 제이미 폭스가 제니퍼 허드슨을 떠나자 텅빈 스테이지에서 거의 졸도할 정도로 숨넘어갈 듯이 목을 쥐어짜며 노래를 부르는 제니퍼 허드슨의 그 모습. 전 그게 '소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뭐니까. 흑자는 노래 가사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맨날 사랑 타령만 한다"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엔 힙합 가사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면 힙합이 아니라는 웃지 못할 논쟁이 있었던 적도 있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강한 감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은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리어도 이념도 종교도 심지어는 돈도 말이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 뿌리칠 수 없는 사랑에 중독돼서 괴로워본 적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술에 취해 빙빙 도는 방 안에서 뒹굴어보고 어둡고 빨간 술집의 사이키 조명 아래서 빨개지도록 눈을 비벼본 적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 공중 전화를 부어잡고 바닥에 주저 앉아 밤새도록 울어본 적 있습니다. 그 숙취를 이기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변기통을 부여잡아본 적 있습니다. 머리는 깨지도록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속은 계속 울렁거리고 하늘은 노랑고 신물이 계속 올라와 기도를 자극해서 계속 쿨쿨거리고 코도 찡찡거리고.. 모두 사랑 때문인 적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잠시나마 그 드라마 속으로 당신을 초대하는 티켓을 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Barry White입니다.

1. Girl It's True, Yes I'll Always Love You
2. Honey Please, Can't Ya See
3. You're My Baby
4. Hard To Believe That I Found You
5. Never Never Gonna Give Ya Up



오늘 들고 나온 앨범은 Barry White의 두번째 앨범 "Stone Gon"입니다. 대부분의 음악팬들은 각자 자신만의 '웨이버릿 소울 아티스트'가 있죠.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아티스트.. 혹자는 Al Green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Luther Vandross라고도 하고 혹자는 Stevie Wonder, 또 Marvin Gaye, Ray Charles 등등.. 하지만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소울 아티스트는 바로 Barry White입니다. 아쉽게도 이 분 역시 지금은 작고하셨죠. "배리 화이트! 배리 화이트도 원래 갱단 출신이었어요!" 제가 배리 화이트라는 가수에 대해 알게 된 건 바로 영화 "식스틴 블럭"의 종반부에서 Mos Def이 브루스 윌리스에게 외치던 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의 음악을 찾아 듣게 됐죠. 이분은 소울 음악 역사 속에서도 상당히 아이러니한 분이셨는데요, 체구로 치자면 그 어떤 역대 뮤지션들과 비교해도 최고의 '풍채'를 자랑하셨으면서도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는 언제나 '오야봉'의 이미지를 풍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적인 건 그렇게 강력한 포스를 풍기는 외모와는 반대로 언제나 감미롭고 로맨틱한 '사랑 노래'만을 고집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말이지, 이 분이 들려줬던 사랑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유치하다거나 경박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절대 안들어요.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조직의 최고 보스가 한 여인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 여인에게 모든 걸 다 베풀어줄 정도로 로맨틱합니다. 그 모습이 어떨까요? 적어도 유치하다는 생각은 안들죠? 반대로 대부분 그 보스를 두고 '멋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바로 그런 이미지가 Barry White의 사랑 노래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그만의 '간지'라고나 할까요?

또 이분의 음악적 커리어가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는 '소울/알앤비' 중에서도 매우 멜로우하고 감미로운 스타일을 추구하셨음에도 하우스/댄스 뮤직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우스 음악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이름이 Donna Summer와 바로 이분 배리 화이트인데요, 아니나 다를까 Donna Summer와 함께 2004년 개최된 "The Dance Music Hall of Fame" 첫회 현액자가 됩니다. 이 분은 원래 가수가 아니라 'producer/arranger'로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Love Unlimited라는 '걸그룹'도 제작하고 막 그러하다가 본격적으로 가수로 데뷔하셨는데 그 경력 답게 대부분의 앨범들의 모든 곡을 작사 작곡 편곡하고 프로듀싱까지 도맡아 하셨죠. '소울계의 길 에반스라고나?'

자 이제 앨범을 플레이해봅시다. 잔잔한 피아노 소리, 서정적인 현악음, 그리고 간간히 울리는 섹스. 그 위에 잔잔한 독백. "It's all in your eyes.." 소파에 누운 여인의 머리 밑에 비스듬히 기대어 누운 남자가 조용히 독백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6박자의 블루지한 드럼이 가세하면서 동시에 현악 연주 톤이 바뀌며 분위기는 고조됩니다. 독백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로 이어지고 후반부 절정에 달했을 때 결국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화이트의 보컬이 터지네요. 이를 반주하는 현악음 심포니는 같이 절정에 치달습니다. 그리고 길게 이어지는 오케스트라 연주의 싸이키델리아.. 바로 첫곡 "Girl It's True, Yes I'll Always Love You"입니다. 이분의 음악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독백 나레이션'인데요, 독백과 노래의 구분이 모호하며 독백 자체가 때로는 노래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또 상당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독백 중에 오케스트라 반주의 변화를 줘서 그 자체로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거죠. 또 독백에서 자연스럽게 노래로 이어지며 이때 역시 또 한번 변주되는 식으로, 곡 하나에 기승전결이 느껴진다는 건데 이 모든 요소들을 적시적소에 어레인지시키는 그만의 감각은 정말 천재적입니다. '실력'이라기보단 '감각'이죠 이런 건..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이어지는 "Honey Please, Can't Ya See"는 가볍고 활기찬 느낌의 미드 템포 오케스트라로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초원을 걷는 기분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이를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을 통해 난 구원을 얻었고 나에게 준 선물이고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 끝이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었지만 니가 나에게 왔다..며 즐거워 합니다. 다음 곡 "You're My Baby"는 앨범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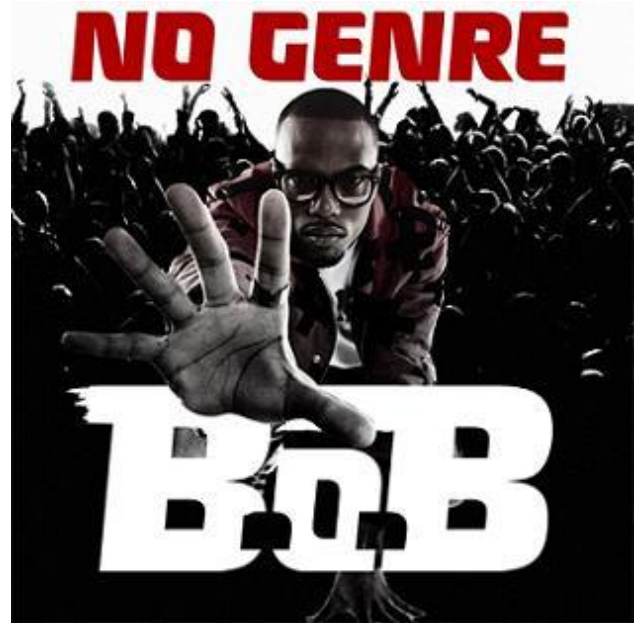
가장 사이키델릭한 곡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술에 진탕 취해 방에 누워 핑핑 도는 천장을 바라보는 분위기.. 헤어질 위기에 있는 남자가 "You're my baby"라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 현악 반주는 이 남자의 노래를 놓치지 않고 그 멜로디를 따라오면서 그 다음 드라마틱하게 따라붙는 기타 멜로디가 듣는 이의 가슴을 막 부여잡고 싶게 만들죠. 이어지는 "Hard To Believe That I Found You"는 요새 흔히 말하는 슬로우잼 스타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릿느릿한 비트와 키보드음,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독백 중에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연주가 굉장히 드라마틱한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이윽고 이어지는 노래. 그리고 또 반전되는 연주. 마치 주고 받듯이..

자 그러다보면 어느덧 앨범의 마지막곡이자 그의 최대의 히트곡 중에 하나인 "Never Never Gonna Give Ya Up"이 나옵니다. 여러분, Nirvana의 "Smells Like Teen Spirit"의 인트로가 충격적이었대요? Beck "Loser"의 인트로가 인상적이었대요? 그렇지만 이 곡의 인트로 역시 여타 인트로가 인상적이라고 하는 곡들에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그 동안 들어본 수많은 곡들 중 가장 인상적인 인트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빠른 드럼 터치 "툭툭 툭툭 툭툭 툭툭", 점차 고조되며 신경을 자극하는 현악음 "쭈이이이이이~", 한숨 소리 "수으으으으음!" 그렇게 머리 꼭대기 끝까지 텐션이 극에 달했을 때 일순간 "아!~~" 신음 소리 터지면서 동시에 쿵! 두들기는 드럼과 베이스.. 그리고 이어지는 신경질적으로 세계 두들기는 킥-스네어 브레이크비트, 거기에 얹여 돌아가는 베이스 그루브.. 참았다가 발산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표현하는 느낌이랄까요. 또 강력한 스네어 드럼 소리에 어우러져 "절대 절대 포기하지 않을거야! 절대 멈추지 않겠어!"라고 힘줘서 발음하는 그의 목소리는 정말 저처럼 나약한 간꽂치같은 청자에게 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 앨범은 비록 다섯 곡밖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단순한 앨범은 아닌 것 같아요. 앨범을 굉장히 통합적으로 느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 따로 독백 따로 가사 따로 연주 따로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네 요소가 서로 긴장과 균형을 이루면서 마치 주고 받듯이 적절한 변박과 변주를 통해 굉장히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도 그랬지만) 반드시 반복 청취를 권유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현악 오케스트레이션'을 들으면 마치 오래된 영화의 로맨틱한 라스트씬이 연상되자나요. 바로 그 로맨틱하면서 뭔가 애절한 분위기가 '소울'이라는 가장 인간적인 장르와 결합하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the most romantic and dramatic tune'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소울 진액'이 너무 진해서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사이키델릭을 만들어내는 Barry White는 진정한 천재 음악가이자 '소울왕(king of soul)'이 아닐까요. 이 차가운 계절에 잘 어울리는 그의 음악을 한번 느껴보시는 건 어떠실지..

* Originally posted on: <http://hiphople.com/23476>

01. Beast Mode
02. So So
03. How U Do That
04. Feet Don't Fail Me Now (featuring T.I.)
05. Higher (featuring Playboy Tre, Cyhi Da Prynce, & Bun B)
06. Shoot Up The Station
07. Not Lost (featuring T.I.)
08. Cold As Ice
09. The Watchers
10. Batman Flow (featuring Donnis)
11. American Dreamin
12. Grand Hustle Kings (featuring Young Dro & T.I.)
13. Dr. Aden
14. Attraction
15. Game Time
16. I'm Beamin (Remix by All City Chess Club)



하일성씨가 아무리 요리 프로그램 MC를 잘본다고 해도 야구 해설을 하고 있어야 그답지 않습니까. B.o.B의 미치도록 신선했고 상큼했고 이쁘고 훌륭했던 데뷔 앨범 "B.o.B Presents: The Adventures Of Bobby Ray"는 사실은 대 '그랜드 허슬'이라는 '힙합' 레이블의 성격과는 아주 살짜쿵 벗어난, 모던락-얼터너티브 팝/록과의 하이브리드성 성격이 강한 앨범이었죠. 예, B.o.B가 아무리 상큼하고 달콤한 팝송들을 들려주는데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한번 제대로 된 '힙합'을 또 보여줘야 그답지 않겠어요? 며칠 전에 나온 이 믹스테이프 "No Genre"는 그런 의미에서 앨범 타이틀과는 다소 역설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에 발표한 데뷔 믹스테이프인 "The Future" 이후로 지금까지 그가 내놓은 결과물들 통틀어 이번 믹스테이프는 가장 '힙합'이라는 정수에 근접한 느낌이 거든요. B.o.B는 여기서 이룹니다. "내 근본을 보여주께!" (제목이 참 역설이죠. 여담이지만 90년대 인디록 그룹 Helium도 "No Guitars"라는 기타 소리 가득한 EP를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비슷한 전례인가요)

말씀 드린대로 첫곡부터 초강력한 사우스 힙합의 정기를 내뿜으며 시작합니다. Kanye의 "Monster"에 대한 오마주, 내지는 화답곡임이 분명한 "Beast Mode"는 프로듀서 Infinity의 순도 100% 신디사이저음을 바탕으로 B.o.B가 특유의 밀고 땡기는 플로우로 잡아 족칠 것 같이 상당히 초강력하게 랩을 내뿜습니다. "Nothin On You"에서의 그 부드러움은 잊으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야수가 된 B.o.B가 당신의 귀를 마구 물어뜯습니다. 저는 근데 솔직히 워낙 90년대 동부 힙합을 사랑하다보니 사우스 비트-808-스냅 댄스는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사우스 비트는 그루브가 없다고도 했지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분이 계셨다면 이 앨범의 세번째 곡 "How U Do That"을 꼭 들어보세요. 사우스 비트도 듣는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전 이 비트 때문에 진짜 죽겠습니다. 못들어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B.o.B의 음악이 여타 랩퍼들의 그것과 차별성을 띄는 동시에 듣기 좋은 이유는 (물론 힙합에만 국한하지 않고 팝/록적인 어프로치를 많이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는 그의 탁월한 '멜로디 메이킹' 감각이 아닐까 생각해요. 데뷔 앨범에서의 "Don't Let Me Fall"의 그 감미로운 멜로디 기억하시죠? 그 느낌들, 우리가 B.o.B의 음악을 사랑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는 이 믹스테이프 수록곡 "Feet Don't Fail Me Now"나 "Not Lost", "Grand Hustle Kings"와 같은 다수의 트랙들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사우스 그루브에 B.o.B의 전매특허 감미로운 멜로디가 결합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 믹스테이프 역시 '이빠 죽겠는' 트랙들로 가득 차게 돼버렸어요.

강력한 사우스 비트에 짹짹 구겨넣은 타이트한 라임과 밀고 당기는 플로우를 듣다보면 다소 팝적인 성향이었던 데뷔 앨범에서의 그에 대한 '엠씨'로서의 이미지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데 확실히 이번 믹스테이프는 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리뷰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죠. 하지만? B.o.B가 누군िका. 바비 레이 스타일의 록큰롤, 한번 들려줘야죠. Mike Caren과 B.o.B가 공동 프로듀스한 두 곡을 주목합시다. "Cold As Ice"와 "American Dreamin"은 그의 데뷔 앨범을 즐겨들었던 팬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힙합? 글썄요, Nevermind. 그저 sit back relax하시고 고개 까딱거리시며 즐기십시오. 귀에 짹.짹. 달라붙는 '팝송'들이십니다.

저는 "Dr. Aden"이라는 곡을 듣고 "오 쏘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B.o.B의 록에 대한 사랑은 저도 잘 알고 있었지만 Jim Jarmusch-John Lurie-Screamin' Jay Hawkins-Tom Waits 취향의 아방가르드-익스페리멘탈록까지 손을 대실 줄은 몰랐는데 여기서는 Jack Splash라는 프로듀서 (Cee Lo Green의 이번 앨범에도 참여하신 듯)의 손을 빌어 꽤 전위적인 록사운드에 Dr. Aden이라는 여의사가 미정부의 바이러스 생화학전 음모이론에 연루되는 묘한 스토리텔링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박입니다. 이 믹스테이프. 언젠가 그가 1집 발매 전에 어떤 믹스테이프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믹스테이프들도 앨범 처럼 만들어야 된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정규 앨범 못지않은 완성도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제 뭐 뭘만큼 만들어서 는 믹스테이프으로도 인정 안해주는 분위기 될 것 같으니 말이지. *** 하지만 *** 우리같은 리스너들의 입장에서야 *** 더할 나위 없이 *** 행복할 뿐입니다. ***

고마워요 비오비? 또 한번?

* Originally posted on: <http://hiphopple.com/20445>

Oscar Peterson [Perfect Peterson: The Best Of The Pablo And Telarc Recordings] (2007, Concord)

2007년 12월 말 추웠던 어느 저녁, 어느 때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제 블로그에 Oscar Peterson의 곡을 하나 포스팅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포스팅에 달렸던 청천벽력같은 댓글 하나는 바로 그의 타계를 알리는 내용이었죠. 2007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스카 피터슨이라는 뮤지션을 너무 늦게 알게 됐고 이제 막 그의 음악의 '위대함'에 탄복하던 시기여서 그의 공연을 언제 볼 수 있을까, 우리나라엔 안오실까.. 뭐 이렇게 철없는 십대팬같은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의 사망 소식은 무척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 이제 오는 12월 23일이면 그의 3주기가 되네요. 재즈 역사에서 소위 말하는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뮤지션이라고 말하기에 주저함이 없을 오스카 피터슨의 앨범 한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Disc 1 (Pablo)

01. Tenderly
02. How High The Moon
03. Nuages
04. Blues Etude
05. Caravan
06.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
07. Summertime
08. If I Were A Bell
09. (Back Home Again In) Indiana
10. I'm Confessin' (That I Love You)
11. Nigerian Marketplace
12. On The Trail



Disc 2 (Telarc)

01. Honeysuckle Rose
02. Kelly's Blues
03. Wheatland
04. In A Mellow Tone
05. Tin Tin Deo
06. Nighttime

- 07. Reunion Blues
- 08. Satin Doll
- 09. Ja-Da
- 10. Morning In Newfoundland

예 먼저 이 앨범은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 컴필레이션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절대로 그저그런 베스트 모음집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앨범은 그가 Pablo와 Telarc 두 레이블에서 활동할 당시의 베스트 레코딩들을 선별한 것인데 그렇다면 그 시기가 피터슨의 바이오그래피에서 어떤 시기인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스카 피터슨은 '트리오' 연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보통 '피아노-베이스-드럼'으로 구성되는 흔한 포맷과 달리 그의 트리오에는 '피아노-베이스-기타'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유명했죠. (물론 그 역시 전형적인 트리오 형태로 연주한 적도 있긴 합니다.) 이 소위 말하는 'Oscar Peterson Trio'는 두 번의 전성기를 가졌었는데 그 첫번째는 바로 1950년대, Oscar Peterson-Ray Brown-Herb Ellis로 구성된 전설의 트리오로서 Verve 레코드에 소속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도 "오스카 피터슨!" 하면 바로 떠오르는 앨범들인 "We Get Requests"나 "Night Train" 같은 앨범, 그리고 Louis Armstrong과 Lester Young과의 콜라보 앨범들을 발표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황금기는 바로 1970년대! Oscar Peterson-Niels Henning Ørsted Pedersen-Joe Pass로 구성된 트리오로서 바로 이 시기가 Pablo 레이블에서 활동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그가 마지막으로 몸담았던 레이블이 바로 Telarc입니다. 즉, 결과적으로 오늘 소개하는 이 앨범은 트리오의 두번째 중흥기인 1970년대부터 타계하기 전까지 그가 발표한 작품들 중 가장 brilliant했던 곡들을 모아 놓은 컴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앨범이 더욱 소중하게 보이는 이유는 앨범의 부클렛에 그 시기 동안 Pablo와 Telarc에서 발표된 그의 '대표작(!)'들을 앨범 커버와 함께 나열을 하고 어느 앨범에서 어느 곡을 선택했는지와 각각의 앨범의 레코딩 연도나 장소, 연주자들 정보, 앨범의 카탈로그 넘버까지 상당히 바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음악 평론가 James Isaacs가 쓴 장문의 라이너 노트 역시 무척 유익하다는 점 등입니다. 또 무엇보다 흔히 베스트 앨범이라고 하면 '리더'로서의 곡들 위주로 선곡하기 마련인데 여기서는 Dizzy Gillespie나 Stephane Grappelli, Count Basie 등과 같은 다른 거장들과의 '콜라보작'에서도 좋은 곡들을 골랐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세심하게 선곡했음을 알 수 있죠. 또 이 앨범이 타이틀처럼 'Perfect Peterson'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초창기 레전더리 트리오와 함께 했던 시기의 대표곡 "Tenderly" (그의 거의 최초의 '히트곡'으로 불리우는 곡입니다.)와 "How High The Moon"을 빼놓지 않고 수록했다는 겁니다. 또 2000년작으로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 앨범이자 마지막 혼을 발휘한 조국 캐나다를 위한 조곡집 "Trail Of Dreams: A Canadian Suite"에서도 잊지 않고 한 곡을 선곡했죠. 자, "Tenderly"부터 "Trail Of Dreams"까지. 그야말로 "perfect"한 오스카 피터슨 모음집 아닐까요?

자 그럼 오스카 피터슨의 음악 스타일이란? 한마디로 'overwhelming!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오랜 기간 동안 (혼 주자 없이) 피아노 트리오 혹은 콰텟의 리더로 활동을 해오신지라 그야말로 '유려하고 화려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죠. 쉽게 말해 같이 연주하는 뮤지션들을 피아노로 '발라'버린다고나 할까요? 그는 음악적 스승이었던 Art Tatum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드러머를 기용하지 않고도 그의 곡들은 무척이나 활기차고 스윙감이 넘칩니다. 꽤 놀랍죠. 물론 베이스가 리듬 섹션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더욱더 큰 역할을 하는 건 그의 '왼손'입니다. 오른손으로 정말 화려하기 그지없는 솔로를 하면서도 그의 왼손은 동시에 약동적인 리듬을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Bud Powell과 비교하는 관점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상쾌하고 약동하는 느낌의 스윙곡들을 많이 들려줬다면 70-80년대를 거치면서 더욱더 컨템포러리해지고 심지어는 헝키해지기까지 합니다. "Nigerian Marketplace" 들어보세요. 그냥 'funk'죠.

그럼 수록곡들을 briefly 살펴봅시다. 앨범의 오프닝인 "Tenderly"와 "How High The Moon"은 말씀 드렸듯이 초창기 연주로 아직은 그닥 화려하진 않지만 특유의 생동감 넘치고 활기찬 피아노 연주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Stephane Grappelli와 함

게 한 "Skol" 앨범에서 선곡을 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드는데 그라펠리의 오랜 동료였던 집시 스윙 기타의 전설 장고 라인하르트의 곡인 "Nuages"에서는 그라펠리의 인상적인 바이올린 솔로와 피터슨의 레이드백한 연주가 멜랑콜리한 무드감을 조성합니다. 이어지는 "Blues Etude"는 후반기 트리오가 가장 물이 올랐던 시기에 발표한 1973년 걸작 "The Trio" 수록곡으로 Joe Pass와 피터슨의 광풍과 같은 살인적인 '속주 스윙'을 만끽할 수 있으며 Dizzy Gillespie와의 협연작 "Oscar Peterson & Dizzy Gillespie"에서 선곡한 "Caravan"에서는 그동안 피터슨이 왜 혼주자를 기용안했는지를 여실히 실감나게 하는 길레스피의 뮤트트럼펫 속주가 피터슨을 압도합니다. 피터슨은 이에 질새라 역시 광풍 피아노로 화답하네요. 그러면 길레스피는 뮤트기를 떼버리고 거기다대고 빠라바라바라 기냥 질러버립니다. (명곡!) Joe Pass의 은은한 기타 연주가 인상적인 블루지한 스윙 넘버 "I'm Getting Sentimental Over You"가 지나 "If I Were A Bell"에서는 Dizzy Gillespie, Clark Terry와 어우러져 한바탕 스윙 잼세션을 마치고 나면 본 앨범에만 수록된 미발표곡이자 좀처럼 듣기 힘든 피터슨의 '솔로' 피아노곡 "(Back Home Again) In Indiana"가 나오는데 정말 완벽하게 따로 노는 왼손 콤팩트와 오른손 솔로의 기가 막힌 속주에 혀를 내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의 영웅 Count Basie와의 협연 "I'm Confessin'"이 나오며 이 둘의 조합이 언제나 그랬듯 피터슨의 통통 튀는 솔로와 베이시의 찰랑거리는 솔로를 주고 받으며 기품있는 블루스 연주를 들려줍니다. 그리고는 Niels Pedersen의 인상적인 베이스 인트로 "Nigerian Marketplace"가 뒤를 잇습니다. 정말이지 명곡들의 끝없는 릴레이에 청자는 숨통이 막힐 정도지요. 그리고 숨쉬라고 다시 경쾌한 "On The Trail"로 신나게 끝냅니다.

자, 두번째 cd는 이제 Telarc으로 갑시다. 피터슨의 후기-말기 연주들이 담겨있네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전설의 1기 트리오 멤버들인 Ray Brown과 Herb Ellis와의 재결합입니다. 피터슨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였던 이 1기 트리오 멤버 그대로 1990년 뉴욕 Blue Note에서 협연한 어깨가 저절로 들썩이는 "Honeysuckle Rose", "Reunion Blues", "Kelly's Blues"의 농익을 대로 익은 대가들의 블루스-스윙 연주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이제 연륜이 깊이 든 피터슨 후기의 '감성적'인 연주들 역시 체크해봐야 할 것인데, 국내에서 흔히 그의 대표곡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You Look Good To Me"에서의, 서정적인 인트로에서 스윙으로 바뀌고 다시 서정적으로 마무리하는, 전형적인 피터슨식의 발라드곡들을 여기 수록된 "Wheatland", "Nighttime"과 같은 넘버들에서 다시금 만끽할 수 있습니다. ("Nighttime"은 정말 강추!) 또 이 시기 피터슨은 보다 확장된 스펙트럼을 들려주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흑인 음악'적인 그루브를 도입했다는 건데요, 소울 재즈 트럼펫터 Roy Hargrove와 협연한 "Tin Tin Deo"를 들어보세요. 정말 소울풀하고 흥기하네요. 1993년에 피터슨은 심각한 뇌졸중을 앓고 왼손 마비가 오게 됩니다. 이후로 몇년간 거의 왼손을 쓰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1995년 캐나다 라이브 실황인 "In A Mellow Tone"을 들어보시면 화려한 오른손 테크닉이 왼손의 부재를 보상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죠. 특이한 점은 피터슨이 오른손으로 솔로 연주를 할때 기타와 혼 주자들이 피터슨의 왼손 콤팩트를 대신 해준다는 점입니다. 왠지 가슴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네요. 자, "Ja-Da"라는 곡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곡에서 드럼을 연주한 분이 누구게요? 바로 Karriem Riggins입니다. 일반 재즈 청자들은 가우뚱하실 분도 계시지만 벌써부터 언더그라운드 힙합팬들의 탄성이 들리네요. 예, 바로 생전 J Dilla의 절친이면서 재즈 드러머인 동시에 힙합 프로듀서이기도 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왼손 마비를 거의 회복한 듯한 피터슨의 변함없는 통통 튀는 연주와 (흑자는 그랬다죠. "한손의 피터슨이 웬만한 두손 피아니스트들보다 낫다"고.) Riggins의 생기 발랄한 드럼 연주에 바이브의 히어로 Milt Jackson의 비브라폰 솔로가 빛을 발하며 살짝 컨템포러리적인 느낌도 연출합니다. (이 시기는 후반기 Oscar Peterson-Ray Brown-Milt Jackson의 The Very Tall Band 프로젝트 활동 시기죠.) 자.. 그리고 앨범의 대미를 장식하는 "Morning In Newfoundland". 이 곡은 그의 공식적인 '마지막' 스튜디오 앨범이면서 동시에 조국인 캐나다를 향한 조곡으로 필름 스코어 작곡가 Michel Legrand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앨범인 "Trail Of Dreams"에서 선곡한 곡인데요, 아름다운 스트링 선율에 왠지 쓸쓸하고 스산한 느낌을 주는 그의 피아노 멜로디가 울프 바케니우스의 기타와 주고 받으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는 무척 아름다운 곡입니다. 앨범의 마지막으로 더할 나위 없는 선곡이죠. 앨범은 그가 타계하기 전에 발매된 것인데도 왠지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곡입니다. 곡의 마지막 그의 피아노 연주가 끝나는 순간, 맑은 하늘에 The End라는 글씨가 보이는 것 같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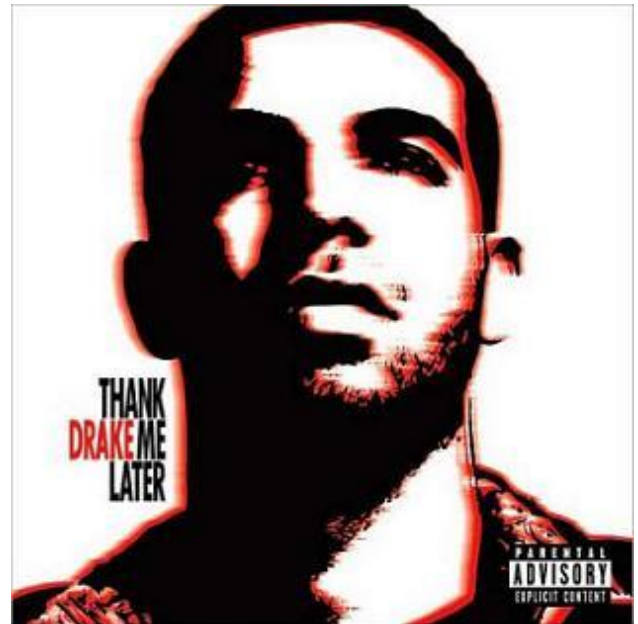
연주를 마치고 땀범벅이 된 얼굴을 닦으며 호쾌하게 웃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그림습니다. 7살부터 피아노 연주를 시작해 한 평생

을 오로지 '피아노'에만 혼을 쏟으신 진정한 거장, 고 오스카 피터슨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REST IN PEACE. OSCAR PETERSON (1925-2007).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8345131>

01. Fireworks (featuring Alicia Keys)
02. Karaoke
03. The Resistance
04. Over
05. Show Me A Good Time
06. Up All Night (featuring Nicki Minaj)
07. Fancy (featuring T.I. & Swizz Beatz)
08. Shut It Down (featuring The-Dream)
09. Unforgettable (featuring Young Jeezy)
10. Light Up (featuring Jay-Z)
11. Miss Me (featuring Lil Wayne)
12. Cece's Interlude
13. Find Your Love
14. Thank Me Now



이 앨범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표정은 이랬습니다. '...' ... 뭔가 어떤 중앙의 그 느낌. 뭔가 애매~~~~~한, 아주 애매~~~~~한 그런 느낌 말입니다. 개그맨 최효종씨의 대사를 빌자면 지하철에 앉아 있는데 앞에 선 어떤 분이 아줌마인지 할머니인지 애매~~~~~한, 얼굴은 할머니데 머리는 까만, 그래서 양보를 해야될지 말아야될지 그 애매~~~~~한 그 느낌. 그게 바로 Drake의 정식 데뷔 앨범에 대한 리스너들의 '첫인상'이었습니다. 뭔가 '실망스럽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역시 기대한 대로 군!'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내 힙합 커뮤니티들을 돌아다녀도 이 앨범에 대한 리뷰는 전무하더라고요. 저도 첨에 나오자마자 이 앨범을 사서 들었는데 지금까지 그 애매~~~~~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작성하고 펜을 들었습니다.

흔히 Drake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실력이 없다', '위지와 칸에 목소리를 적당히 배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도대체 드레이크의 매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잘라 대답하기도 좀 그런.. 뭐 저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사실 그의 초창기 믹스테이프들인 "Room For Improvement"나 "Comeback Season" 보다는 "So Far Gone" 이후의 음악들과 싱글들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적당히 트렌드를 잘 만난 행운아'처럼 보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초기 믹스테이프에 실린 음악들은 사실 좀 다릅니다. 캐나다 컬리지-언더그라운드의 flava가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J Dilla, 9th Wonder의 곡에 랩을 하기도 하고 Slum

Village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하지만 드레이크의 공식 데뷔작인 이 앨범을 한번, 찬찬히, 너무 몰아서 말고, 일 주일에 한두번 정도씩 한 4-6주간만 들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드레이크'라는 뮤지션의 음악이 어떤가를 한번 곰곰히 음미를 해보면 어느 순간 눈이 확 뜨이면서 "오호라!" 이런 느낌이 올 겁니다. 바로 드레이크 음악의 '진정성'이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절대 들려줄 수 없는 앨범을 만들테다."

전 50% 정도는 확신합니다. '트렌드에 올라탄 이미테이터'라는 악평을 분명히 그 역시 인식했을 터. 데뷔 앨범을 통해 '자, 드레이크 스타일은 이런 거야'라고 당당하게 show & prove할 수 있는 음악을 기획했을 것이라는 걸요. 이 앨범에서 유일하게 튀는, 그야말로 진정한 '싱글'인 "Over" 같은 킬링 트랙으로 대다수를 채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반응은 훨씬 더 좋았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앨범은 진정 '드레이크식의 언더그라운드'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성을 고려했다기 보단 자신의 '아티스트적 개성'에 초점을 더 두었다는 의미에서 말이죠. 이 앨범 전에 그의 이름을 널리 알린 싱글로 "Successful", "Best I Ever Had", 그리고 "Forever"가 있었죠. 뒤에 두 곡들은 한두번 들으면 느낌이 확 오는 킬링 트랙들이지만 "Successful" 같은 경우는 상당히 특이한 곡입니다. 묘한 공허감이 전체를 아우르는 느낌. 바로 Noah "40" Shebib의 프로듀싱 스타일로 대표되는 곡이죠. 여기서 이 앨범에 대한 요점이 잡힙니다. 바로 이 앨범은 Boi 1-Da 스타일의 앨범이 아니라 40 스타일의 앨범이라는 것이죠.

앨범 자켓을 잠시 바라봅시다. 드레이크 표정에서부터 하얀 여백이 '공허함'을 주죠. 하지만 또 어떨까요? 묘하게 '전자적'이죠. 전 이 자켓이 이 앨범의 성격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바로 '전자적 공허함'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닝 트랙 "Fireworks"부터 "Karaoke", "The Resistance"까지 앨범은 '자, 한번 달려볼까'라고 기대한 청자들을 초반부서부터 약간 맥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Over" 인트로의 현악음이 울리는 순간 "자아 가자!" 이렇게 외치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텅빈, 왠지 쓸쓸하고 공허한 사운드는 드레이크의 '스웨거' 가사들과 어우러져 묘한 파라독스를 형성합니다. 쓸쓸하고 공허한 사운드와 스웨거 넘치는 가사의 결합? 거기서 나오는 화학반응은 뭘까요? 그 역설이 자아내는 이미지는 결국 '나는 이렇게 잘났고 성공했지만, 한편으로 공허해, 부질 없는 것 같애. 난 술잔을 들고 그저 불꽃놀이만을 바라볼 뿐이야. 저 밑에는 사람들의 복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뭐 바로 이런 심상 아닐까요? 이 감수성은 여느 엠씨들의 앨범에서 느낄 수 없었던, 'Drake만의, Drake식의 스웨거'라고 저는 감히 표현해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수성은 점차 고조되다가 앨범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Shut It Down"과 "Unforgettable"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이 두 곡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들어보세요. 눈물 납니다.

적잖이 욕을 먹기도 한 "Find Your Love"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곡을 '대중성만 고려한 몰개성 팝송'이라고 평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중성을 고려 않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했기 때문에 탄생한 곡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는 뛰어난 보컬리스트는 아닙니다. 보컬톤도 왠지 Craig David 이미테이션 하는 듯한 느낌도 들죠. 그치만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듯 그는 알앤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곡을 싫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Drake 입장에서 보자면 '가장 대중적인 팝송'이 아니라 '가장 실험적인 곡'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곡이 끝나면 갑자기 "큐꼬땡미나~"를 외치며 앨범은 끝이 나네요. (팀보의 프로듀싱은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앨범이 너무 Drake 위주의 아티스트적 개성에만 몰두한 앨범은 아닙니다. 킬링 트랙 "Over"서부터 Nicki Minaj와의 콜라보 "Up All Night"이나 Lil Wayne과의 콜라보 "Miss Me"에서 우린 여전히 '영머니식'의 그루브에 몸을 맡길 수 있으며 내친 김에 덤으로 Swizz Beatz 스타일의 개성을 잘 살린 "Fancy"도 무척 흥겹습니다.

물론 저도 "Best I Ever Had"는 너무 좋아서 가사를 외워 막 따라부르기도 하고 "Forever"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So Far Gone Mixtape"이 얼마나 '맛있는' 앨범이었던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절대 가볍게 만들지 않은, Drake 스스로 자신

만의 작가주의적 아이덴티티를 살리려 노력한 흔적이 정말 많이 많이 느껴지는 이 앨범 한 장을 통해 Drake라는 뮤지션을 다시 돌아보게 됐고 그를 이제는 아무런 거리낌없이 '헤이버릿 아티스트 목록'에 올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 그에게 지금 바로 "Thank You Now!"라고 외칠 것 같습니다. 어, 그러고보니 제가 저 말을 외친 게 지금이니까, 이 앨범이 발매되고 근 반년만에 외치게 됐으니 이 앨범의 타이틀이 적중한 셈이네요.

* Originally posted on: <http://hiphople.com/reviews/13141>

Disc 1

01. String Of the Strings Of Life
02. Another Kaos Beyond Kaos
03. Freestyle
04. A Rest/Beyond Kaos
05. The Dance
06. Spaced Out
07. Daymares, It Is What It Is
08. Some More Spaced Out
09. Beyond The Dance – The Cult Mix
10. Feel Surreal Ends The Feel Surreal
11. R-Theme
12. Emanon Begins
13. Sinister
14. The End



Disc 2

01. To Be Or Not To Be
02. Icon (Montage Mix)
03. Phantom
04. Kaotic Harmony
05. Phantom Lurks
06. Salsa Life
07. Nude Photo
08. The Beginning
09. A Relic Long Ago
10. Drama
11. Emanon Ends
12. Winter On The Blvd
13. Strings Of Life

14. Dreams Of Dreamers

15. Wiggin - Juan's Mix

오늘은 테크노 애길 좀 해봅시다. 미국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은근히 음악팬들 사이에선 유명한 도시인데요, 힙합씬에선 당연히 고 J Dilla와 Slum Village의 고향인 동시에 Eminem의 출신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재즈씬에선 Milt Jackson이나 Tommy Flanagan 등의 명인들을 배출해낸 도시입니다. 하지만 디트로이트라는 지역을 음악적으로 가장 유명하게 만든 건 아예 장르명에 지역 이름을 붙여버린 "디트로이트 테크노"라는 장르인데요, 이 장르는 동시대의 "시카고 하우스"와 더불어 현재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 있도록 만든 양대 기둥과 같은 음악입니다. (재즈의 시작이 뉴올리언스이고 댄스 뮤직의 시작이 시카고와 디트로이트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미국이 유럽한테 음악을 얼마나 잘 빼앗기는지 알 수 있죠. 물론 댄스 뮤직의 배경에는 시카고와 디트로이트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유럽, 특히 독일이 있었긴 하지만 말입니다.)

하우스가 70년대말 디스코로부터 자연스럽게 진화한 장르라면 테크노는 시카고 하우스의 영향을 받아 '연구'해낸 결과에 가깝습니다. 시카고 하우스의 태동에 Ron Hardy-Frankie Knuckles-Larry Levan이 있었다면, 디트로이트 테크노의 태동에는 Belleville 고등학교 동창들인 Juan Atkins-Derrick May-Kevin Saunderson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들 셋은 Kraftwerk와 funk/soul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고, 시카고 하우스의 방법론을 빌어 그것들을 화학반응시키려는 연구를 시행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생긴 장르가 바로 '디트로이트 테크노',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노'라는 음악 장르의 시작이었습니다. ('테크노'라는 단어는 Juan Atkins가 엘빈 토플러의 저서에서 인용해 최초로 음악에 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죠.) 사실 초창기 시카고 하우스와 디트로이트 테크노는 모두 같은 장비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두 장르 사이에 clear-cut한 구분도 명확치 않았구요. 클럽의 DJ들은 이 두 스타일 모두를 적절하게 믹스시켜 플레이했다고 하죠. 비트의 질감면에선 이 두 스타일 모두 현재의 댄스 뮤직들과는 달리 그다지 강하지 않고, 타닥 타닥 거리는 느낌으로 대체로 좀 가볍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트 위에 보다 인간적이고 소울풀한 보컬 샘플들을 즐겨 사용한 하우스에 비해 신디사이저의 전자음과 시퀀싱된 기계음, 로봇틱한 음성 등 보다 비인간적이고 산업적이고 미래적인 스타일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테크노는 하우스와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80년대 미국 언더그라운드 댄스 뮤직씬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자, Derrick May는 주지했다시피 디트로이트 테크노의 선구자 3인방 중 한명입니다. Juan Atkins가 이들 셋중 가장 리더격이며 가장 선구자적인 면모를 보였고, Kevin Saunderson은 하우스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보다 대중적인 노선을 추구했다면, Derrick May는 그야말로 디트로이트 테크노의 정기(正氣)를 마음껏 뿜어낸, 디트로이트 테크노를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마치 Atkins가 유비, Saunderson이 장비라면 May는 관우라고나 할까요? 혹자는 그를 두고 "테크노계의 마일스 데이비스"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걸쳐서 그가 Mayday 및 Rythim Is Rythim이라는 alias로 발표한 일련의 주옥같은 싱글들은 모두 현재까지 디트로이트 테크노의 클래식 싱글들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이 두장짜리 씨디는, 그가 cd 형태로 발표한 유일한 '앨범'인데요, 위에서 말한 80년대 중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걸쳐서 그가 발표한 주옥같은 29개의 싱글들을 집대성 해놓은 컴필레이션입니다. 따라서 이 앨범은 단순한 '댄스 뮤직 컴필레이션'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수록곡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Strings Of Life"라는 곡입니다. Derrick May 최고의 히트 싱글이자 마치 Marshall Jefferson의 "Move Your Body"가 초기 시카고 하우스의 anthem으로 불리우는 것과 같이, 이 곡 역시 디트로이트 테크노의 anthem이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마치 아무나 붙잡고 Herbie Hancock의 "Rock It"을 들려주면 "어 어디서 들어본 멜로디군"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처럼 이 곡의 인트로 역시 들어보시면 CF 등에서 쓰였을 법한, '어디서 들어본 듯한' 멜로디라고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건반음만을 사용해서 리듬감 내지는 그루브감을 만들어낸 감각은 가히 천재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윽고 터져나오는 질주하는 듯한 비트와 장엄한 현악 샘플의 조합은 들을 때마다 감탄을 자아냅니다. 또 그의 이름을 최초로 널리 알린, 87년에 발표한 그의 최초의 히트 싱글인 "Nude Photo" 역시 앨범내 베스트 트랙 중 하나로서 여성의 웃음소리 샘플이 점차 고조되는 듯한 신스음과 어우러져 곡제목처럼 섹시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한편 주로 우퍼를 울리는 둔탁한 베이스음과 업템포 정박을 사용하는 Juan Atkins의 스타일과는 달리 그는 자잘한 폴리리듬을 이용해 미드템포 그루브감을 만드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To Be Or Not To Be", "Icon (Montage Mix)", "Beyond The Dance" 등의 트랙들에서 이런 면모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The Dance"나 "Daymares, It Is What It Is"와 같은 곡들을 들어보면 어떻게 전자음이 주가 돼서 리듬을 만들고 비트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할 수 있는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또 그는 마치 재즈에서 improvising을 하듯이 신디사이저 전자음을 이용해 솔로 연주를 하는 듯한 면모들도 보여주는데 강력한 업템포 그루브로 시작해서 전자음을 사용해 멜로디를 전개하는 "R-Theme"이나 가볍게 터치되는 비트만 걸어놓고 전자음으로 솔로잉을 하는 듯한 "Kaotic Harmony", 그리고 '데릭 메이식의 발라드'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신스 전자음으로 은은한 연주를 하는 것 같은 "Winter On The Blvd" 등의 트랙들이 그렇습니다. 또 살사 스타일을 차용해서 플로어용의 업템포 그루브를 선사하는 "Freestyle"이나 "Salsa Life" 등의 트랙들도 놓쳐서는 안될 트랙들이겠습니다.

이렇듯 주옥같은 작품들을 쏟아냈던 그이지만, 여전히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Juan Atkins나 Kevin Saunderson에 비해 90년대 중반 이후로는 거의 독자적인 프로덕션을 발표하지는 않고 주로 리믹스 작업과 대부분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DJ로서의 활동만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나라도 한번 다녀가셨음) 'DJ만 많고 뮤지션은 없는' 작금의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씬에서, 선배로서 좀더 활발한 싱글/앨범 작업을 좀더 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The Spirit of the Machine! 오늘은 테크노에 대해 잠시 애길 해봤습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7390203>

흐음.. 오늘도 응급실이 어째 한산하네.. 심심한데 음악이나 들어야겠다. 요새 뭐가 좋더라.. 그래 이거!

'In the night I hear 'em talk, The coldest story ever told, Somewhere far...'

우당탕탕!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삐요... 빨리요! 사람 죽어요!!

Code blue, Code blue, Dr. West, please come to the emergency room. Dr. West, Please come to the emergency room. 30대 남자로 추정되며 신원 확인 불가. mental deep drousy, BP 70/40, PR 130, Body temperature normal, SpO2 95%, self-breathing. BST 140. 머리 및 어깨 왼쪽 다리에 둔상. 복부에 multiple stab wounds 확인됨. intubation 준비해주시고 피 빨리 cross-matching 나갔나? 빨리 가서 push 좀 해! 마취과 연락하고. GS랑 NS 연락됐나? OP lab은? Brain CT만 빨리 확인하고 수술방 arrange해 시간 없어!

회복실: 어젯밤.. 전 할렘 125번가를 걷고 있었어요. T-Pain의 "Bartender"를 들으면서 말이죠. 근데 갑자기 남자 세 명이 저를 애워쌌어요. 흑인 둘하고 백인 하나.. 자신들은 90년대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왔다고 말하더니 난데 없이 흑인 한 놈이 SP-1200을 가지고 제 머리와 어깨와 왼쪽 다리를 막 두들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또 다른 흑인 한 놈은 턴테이블과 LP판을 가지고 제 배에다가 막 긁어댔죠. 그리고 마지막 백인놈은 사정없이 제 귀에다 대고 무슨 말을 지껄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나요..

단서 확보: 사건 현장에 "Nineteen Ninety Now"라 이름 적인 CD 발견됨. 용의자 추적 시작.

수사 일지: 용의자 프로필 확인됨. Buckwild. 뉴욕 브롱스 출신. 힙합 프로듀서. D.I.T.C.의 멤버. 90년대 중후반을 걸쳐 수많은 힙합 클래식을 프로듀스함. 대표작. O.C. "Time's Up", Big L. "Put It On". 묵직한 베이스와 스네어 드럼을 동시에 찍어버리는 방법으로 수차례 둔상을 가한 혐의 있음. Mista Sinista. 뉴욕 출신. 턴테이블리스트. The X-Ecutioners의 멤버. 90년대 턴테이블리즘의 상징적인 그룹. 한 차례 한국 방문. 현란한 스크래칭 테크닉으로 상대방의 복부에 수차례 자상을 가한 혐의 있음. Celph Titled. 플로리다 탐파 출신. 엠씨 겸 프로듀서. 절친 Apathy와 함께 Demigodz 및 Army Of The Pharaohs 멤버. 하드코어 배틀 엠씨. 상대방을 조롱하는 펀치라인과 복합적인 라이밍으로 상대방에게 수차례 언어 폭력을 가한 혐의 있음. 자료 해석 요청해 CD 내용 확인 바람.

01. The Deal Maker
02. Out To Lunch (featuring Treach of Naughty By Nature)
03. Eraserheads (featuring Vinne Paz of Jedi Mind Tricks)
04. Fuckmaster Sex
05. Swashbuckling (featuring Apathy, Ryu & Esoteric)
06. I Cound Write A Rhyme



07. Hardcore Data
08. Mad Ammo (featuring F.T. & R.A. The Rugged Man)
09. Tingin'
10. There Will Be Blood (featuring Sadat X, Grand Puba, A.G., O.C. & Diamond D)
11. Miss Those Days
12. Step Correctly
13. Wack Juice
14. Styles Ain't Raw (featuring Apathy & Chino XL)
15. Where I Are
16. Time Travels On (featuring Majik Most & Dutchmassive)



자료 해석 일지 (by tunikut): (귀찮은 듯이) 움냐.. 뭐.. 해석까지야.. 쩌. concept 앨범이라고 부르긴 힘들 것 같지만 상당히 conceptual한 내용을 담은 앨범 같습니다.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는 가사면에서나 게스트 진용에서나, 90년대에 대한 향수거든요. 이 앨범은 엠씨로서의 Celph Titled가 발표한 공식적인 '1집'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새 왜 그런 거 많지요? Skyzoo & Illmind, KRS-One & Tru Master, David Banner & 9th Wonder. 뭐 마치 짝짓기라도 하듯이 '나 누구누구랑 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 동안 4장 짜리 컴필레이션 씨디와 프로젝트 및 그룹 활동만 해오던 Celph Titled가 공식적으로 씬에 데뷔하는 이 앨범에선 정말이지 '대어' 정도가 아니라 'god'과 짝을 이뤘어요. 바로 Buckwild. 뭐 사실 이쪽 바닥에선 이 형님 모르면 간첩이죠. 이 형님 스타일에 대해선 제가 예전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그 자료는 조오기 밑에 보시면 있구요. Nah Mean?

일단 CD를 플레이어에 넣고 플레이 하는 순간! 90년대에 (특히 동부쪽) 힙합을 듣고 즐겼던 사람들이라면 아마 벽와일드의 첫 스네어음을 듣는 순간! 이미 돌아버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긴장감 넘치는 베이스.. 둥-둥-둥-둥. 곧바로 Celph Titled의 독백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빠방방~ 혼 섹션이 울리면서! "쿵.쿵.딱!" 베이스와 드럼을 확 찍어버리네요. 이어 당당하게 자신의 컴백을 선언하는 Celph Titled 특유의 호탕하면서 마초적인 라이밍 1절이 끝나면 이젠 Mista Sinista의 스크래칭이 이어집니다. 아 뭐 말 다했죠. 이건 말이예요, 그저 '골든 에라의 재현' 정도 차원에서 끝나는 앨범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요점은 그 '퀄리티'라는 거죠. 보여줄 거면 '제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그닥 회자되고 있지는 않지만 앨범 전체에서 시종일관 엠씨들의 아카펠라를 이용해 스크래칭을 들려주는 Mista Sinista의 참여는 무척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요즘에도 '90년대식'의 비트를 쓰는 앨범들은 많지만 프리모 스타일의 스크래칭이 첨가된 '90년대 작법'이 완벽하게 살아 숨쉬는 앨범들은 흔치 않다는 얘깁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앨범은 말이죠, 90년대 중반에 이 형태 그대로 발매됐더라도 클래식 앨범으로 회자될 만한 퀄리티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90년대 당시에 앨범들이 그 '당시'에는 앨범의 가치를 못느낀 경우가 많아요. 사실 "All Eyez On Me"도 당시엔 저희들은 '에이 저거 팝적이자나.. 너무 커머셜해..' 그랬어요. Meth & Red의 "Black Out"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내용은 그저 평범..' 이랬거든요. 오히려 그 당시 진짜 '짱'은 Mobb Deep의 "The Infamous"나 Onyx의 "Bacdafucup", Kool G Rap의 "4,5,6"이었죠. 들으면서 바로 샀으니까요. 제 말의 요점은, 이 "Nineteen Ninety Now"라는 앨범은 바로 이 후자쪽, 들으면서 바로 싸는 앨범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약간만 더 구체화해봅시다. 앨범의 일등공신은 두말할 것 없이 Buckwild입니다. 94년-96년의 기간 동안 그는 과연 무엇이였을까요? 아니 지난번 "Rare Studio Masters"에서 공개한 것도 모자라서 그가 당시에 작업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비트를 골랐다는 앨범의 배경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이런 비트들을 공개 안하고 있었나.. 그런 의구심이 정말 들어요. 분명 Celph도 Buckwild에게

한 마디 했을 겁니다. 아니 형 이런 괴물들을 공개 안하고 어쩔 셈이었냐고. 장담하건대, 벽와일드의 '베이스 운용'은 당대 최고입니다. "Swashbuckling"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같은 비트 속에서 4명의 엠씨들이 바뀔 때마다 베이스가 바뀝니다. 특히 Ryu 파트에선 세상에. 난데없이 Bebop 베이스가 나오는데 정말 두손두발 다 들었습니다. 앨범의 초반부는 그야말로 Buckwild 특유의 뒤통수 퍽 퍽 맞는 듯한 묵직하고 헤비한 비트에 Celph Titled, Apathy, Vinne Paz, 그리고 Esoteric 등 '하드코어'라면 일가견이 있는 엠씨들의 컴플렉스한 라이밍과 펀치라인, 그리고 틈새틈새를 조져놓는 Mista Sinista의 스크래칭이 뒤범벅된 일대 향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스트로 참여한 R.A. The Rugged Man의 미친 플로우가 일품인 첫 싱글 "Mad Ammo"를 지나 "There Will Be Blood"에 이르면 이 앨범의 모토에 맞게 90년대 힙합의 정수 Brand Nubian (Sadat X, Grand Puba)과 D.I.T.C. (A.G., O.C., Diamond D) 형님들을 소환해, James Brown의 목소리와 Go-Go를 버무린 Buckwild의 비트와 함께 앨범은 최고조를 향해 치달으며 제목부터 느낌이 팍 오는, 이 앨범에서 가장 감성적인 트랙 "Miss Those Days"에서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백만달러라도 내겠어!"라는 Celph Titled의 가사에서 느껴지는 그 절실함과 "Seems like yesterday.. Miss those days"의 반복되는 여성 보컬 후렴구가 어우러져 청자의 마음을 몽클하게 만듭니다. 이어지는 "Step Correctly"는 laid-back한 느낌의 키보드 음에 Celph Titled 특유의 야비한 톤과 하드코어적인 가사가 연발란스하게 진행되는 곡으로 개인적으로 베스트 트랙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후반부에 깔린 곡들을 무시하진 마시다. 만일 당신이 '가장 전형적인' 벽와일드 스타일의 비트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후반부에 포진된 "Wack Juice"나 "Styles Ain't Raw"를 놓치면 안될 것입니다.

끝으로 Celph Titled에 대해 잠시만 언급을 좀 할게요. 물론 그의 플로우는 약간 단순합니다. 듣다보면 톤이 다 비슷비슷하지요. 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의 목소리가.. 같은 남자인 제가 정말 제일 갖고 싶고 부러워하는 굵고 묵직한 톤 (그러니까 록으로 치면 필립 안젤모톤)입니다. 진짜 신이 주신 '남자다운'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그건 그렇고 비록 Celph Titled가 추구하는 스타일이 '하드코어 배틀 엠씨'라고는 하지만 제 생각에 이 앨범이 '하드코어 힙합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그의 가사입니다. 물론 이 친구가 마음 먹고 제대로 한판 떠보자고 하면, 특히 "Out To Lunch" 같은 곡에서처럼 가사 전체가 완전 복합 라임에 미친 펀치라인들이 난무합니다만, 의외로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면모도 보여서 "I Could Write A Rhyme"에서는 어릴적부터 시작해 힙합을 시작하게 되, Equilibrium과 Demigodz의 결성, Vinne Paz로부터 AOTP 가입하란 얘기 들었을 때의 그 짜릿한 순간 등등을 진솔하게 얘기합니다. 또 앨범의 끝곡 "Time Travels On"은 다소 오그라들 정도로 의외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 사랑하고 엄마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라"라는 '교화'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네요. 그러다보니 Celph Titled가 여태껏 발표했던 결과물들이 '하드코어 힙합'에 집중했다는 느낌이라면 본 앨범은 Buckwild라는 '싸부'의 도움을 받아 '골든 에라'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 그 자신의 '데뷔 앨범'을 의도했다는 느낌입니다.

'아니, 자료 해석하랬더니 이 새끼 지 감상이나 늘어놔 왜. 찝라버릴까 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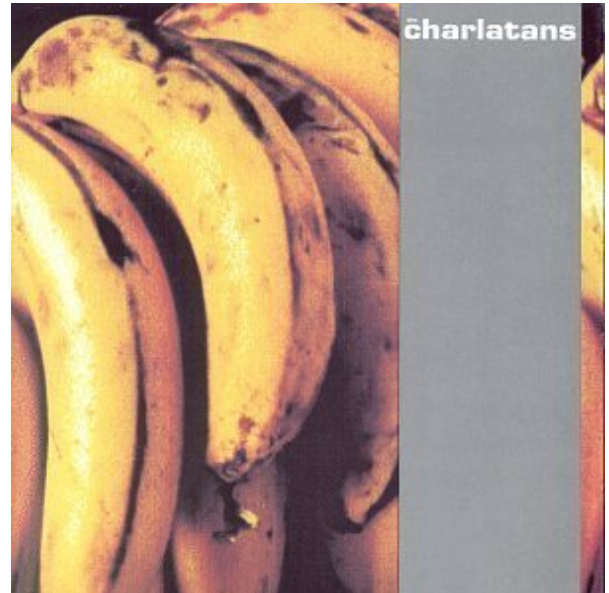
용의자 수사 하루 전: 반장님, 반장님! 큰일 났어요! 조금 전에 사건 당일 현장이 포착된 CC TV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근데.. 근데 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여기, 피해자가 음악을 들으면서 자기 몸에서 자해를 하고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턱테이블하고.. SP-1200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계속 랩 같은 걸 중얼 거리고 있네요.. 근데 눈이.. 풀려있고 표정은 굉장히 행복해보이는데..

"음, 이 친구도 90년대부터 힙합을 들었나 보구만.."

끝.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hiphople.com/reviews/9951>

01. I Don't Want To See The Sights
02. Ignition
03. Page One
04. Tremelo Song
05. The End Of Everything
06. Subtitle
07. Can't Even Be Bothered
08. Weirdo
09. Chewing Gum Weekend
10. (No One) Not Even The Rain



고등학교 때 잠깐 진짜로 밴드를 만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밴드 구성을 상의하면서 제가 키보드를 제안하자 밴드 리더였던 그 친구 녀석은 "임마, 키보드는 기타로 커버가 안될 때나 쓰는 거야"라는, 살라탄스 형님들 아셨으면 다구리 당할 뻔한 발언을 하면서 저의 제안을 단박에 거절했더랬죠. 결국 제가 빠져서 밴드 결성은 무산됐습니다.

90년대 중반 한참 국내에도 '얼터너티브록' 물결이 일던 시절 당시에는 유튜브가 없어서 뮤비도 꼭 어디 가서 보거나 구해서 보거나 했었는데 PC 통신을 통해서 어느 알 수 없는, '얼터너티브록'이 가득 들어있다는 공vhs 테이프를 하나 구해서 보게 됐는데요, 뭐 내용은 그 당시로선 꽤 알았습니다. Fun Loving Criminals, The Wannadies 이런 분들 클립들이 있었는데, 제가 보다가 "헉!" 했던 밴드가 있었어요. 어떤 TV 라이브쇼 footage였는데.. 솔직히 당시만 해도 졸라 너바나에 다들 열광하던 시기여서 막 거칠게 기타치고 목소리도 막 뽀사리내면서 뿡뿡 지르고 웃도 후줄근하게 입고 그런 게 멋있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마이크를 쥐고 있는 보컬리스트의 손목 관절은 적어도 굴곡(flexion) 돼 있어야 간지나고 맛있는 거였죠. 근데 제가 보고 "헉!" 했던 그 밴드의 음악은 상당히 간질간질하게 찰랑찰랑거리면서 보컬리스트는 머리도 암전하게 바글바글 파마해가지고 카메라를 보면서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몸도 흐느적흐느적 거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손목 관절이 신전(extention)된 상태로 흔들흔들거리면서 마이크를 쥐고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충격이었습니다. 전 그걸 보고 '어머, 재 정말 병신같애' 이러면서 참 웃기는 밴드도 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밴드는, 기타로 커버가 안됐기 때문에 키보드를 전면에 내세운 그런 밴드도 아니었고, 절대 '병신같은' 밴드도 아니었습

니다. 우리의 편견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깨닫게 해준 바로 그 밴드는 오늘 얘기하는 이름도 찬란한 "더 살라탄스"입니다!

(당시 국내에서 '모던록' 좀 듣는 사람들 앞에서 너바나-펄잼-STP 좋아한다고 말하면 "어머 너 모얌?" 이런 식이었어요. 심지어 전 그 분들 앞에서 Veruca Salt 좋아한다 그랬다가 욕.. 당시 국내에서도 역시 너바나-펄잼은 '메인스트림'이었죠. 그 당시 모던록 열혈 키드들의 가장 주된 관심사는 The Smiths-Mozz로 대표되는 영국 밴드들과 Matador로 대표되는 미국의 인디씬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일본썬, 그리고 약간의 일렉트로닉. 물론 전 음감회 때 Gang Starr를 틀었지만요 히.)

맨체스터, 아니, 영국식으로, "만체스터 사운드"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가끔 "마드체스터"라고 불리우도 합니다만.. 뭐 사실 이렇게 '무슨무슨 뭐'로 categorize하는 건 critic스런 느낌이 너무 들어서 좀 거부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음악을 이해하고 듣는 데는 가끔 도움이 됩니다. "우린 그냥 록큰롤을 할 뿐이라고!" 뭐 당사자 밴드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암튼, 맨체스터 사운드는 말그래도 영국의 맨체스터 지역에서 발생한 록음악의 한 스타일인데요, 전통적으로 Happy Mondays와 Stone Roses라는 양대 산맥을 이루는 밴드의 음악을 그렇게 부릅니다. 이 음악은 제가 저기 위에 두번째 단락에서 '병신같애'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런 스타일이예요. 찰랑거리는 키보드음을 주축으로 댄서블한 드럼과 싸이키델릭한 기타-베이스, 그리고 영국식 발음-악센트 짝 넣은 멜로딕한 보컬.. 록이지만 댄스 뮤직같고, 팝이지만 록같고.. 뭐 그런 느낌이라까요? 그런고로 록을 듣는 사람들이나 댄스 뮤직을 주로 듣는 사람들이나 공통 분모로 찾아 듣는 음악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댄스보단 록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미국식 하드록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들기도 하는 스타일이죠. 아무튼 오늘 얘기하는 The Charlatans도 이러한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는 대표적인 밴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드체스터-얼터너티브-브릿팝의 조류를 거쳐 현재까지도 왕성한 활동과 앨범 발표를 하고 있죠. 얼마전에도 신보가 나왔어요. 이상한 것은 매우 듣기 좋은 사운드를 내고 있음에도 '국민 밴드' 대접을 받는 영국에서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들고 나온 이 앨범은 이들의 두번째 앨범이자 현재까지 최고작으로 평가받는 앨범인데요.. 음, 역시 세상은 만만하지 않고 냉혹합니다. 겉으로 그렇게 살랑거리고 심지어는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던 (근데 그 때나 그랬지 지금 다시 보면 Tim Burgess의 스테이지 매너는 꽤 카리스마틱합니다.) 이들의 음악 안에 담긴 그 지독한 냉소와 sarcasm, 그리고 염세는 당시 살라탄스 추종자들의 태도를 매우 씨니컬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죠. 양기 가득한 태도, 행복한 발광, 알코올 중독, 더러운 그림들. 이들은 "이것들을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I Don't Want To See The Sights")고 하며 "너의 그 부끄럽고 추한 모습 좀 봐"("Weirdo")라고 합니다. "자기 소개가 끝나기 전에 누군가가 유감스럽게 느낀다"("Weirdo")니요.. ㅠ 이거 진짜 숨도 못쉬겠습니다. 이거 뭐 그분들 앞에서 술이나 한잔 마시겠어요? 이런 식이라면 이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자태는 '힙합식의 스웨거'겠군요. ㅋㅋ 바로 이런 정서. 살라탄스와 이언 브라운 등으로 대표되던 영국 특유의 씨니컬한 거만함 (하지만 겉으로는 춤추고 흥겨움).. 이들 식의 스웨거랄까요? 재밌죠. 뭐 이런 Tim Burgess의 가사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자기 자신과 타인 사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기묘한 현상과 느낌들을 무척 난해한 구절로 풀어내는데요, 예를 들어 "바닥에 팔다리 쪽 뺀고 누워도 행복하긴 힘들어"("Ignition")라던가 "지금은 너의 것이 된 그 곳으로 돌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Tremelo Song"), "우리들 중 한명은 너가 어느 길로 갈 수 있는지 알아야만 돼"("Can't Even Be Bothered") 같이 쉬운 단어를 난해하게 연결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사운드는 매우 달콤합니다. 그렇다고 '미국식'의, 캘리포니아의 밝은 햇살이 느껴지는 캔디팝식으로 달콤하게 아니구요. 흐리고 비오는 '영국식'입니다. 적당한 수준의 헤비하지 않은 싸이키델릭 기타에 (존 베이커가 마크 콜린스로 바뀌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음), 대체적으로 '찰랑'거리지만 "The End Of Everything"에서와 같이 다소 스트레이트한 록넘버에서는 '출렁'거리기도 하는 키보드, 그리고 가볍지만 댄서블하게 두들기는 드럼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기타만으로는 다소 텅비고 딱딱한 느낌이 든다면 사운드 전체를 찰랑거리고 출렁거리는 키보드 멜로디가 포근하게 에워싸고 있다는 느낌이라는 거죠. 팔빙수에 우유를 부은 느낌이라까요. 특히 다이내믹한 건반음으로 문을 여는 "Tremelo Song"이나 강력한 하몬드 울겐의 "쫁쫁쫁좌왕~"거리는 인트로가 인

상적인 이들의 최고 히트곡 "Weirdo" 같은 킬링 트랙들은 거부하는 사람이 드물죠. 혹자는 이 두 곡 말고는 건질 곡이 없다고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전형적인 맨체스터 찰랑그루브가 느껴지는 "I Don't Want To See The Sights"도 매우 좋아하구요, 살짝살짝 마음을 데워주는 키보드와 보컬 멜로디가 좋은 "Chewing Gum Weekend"나 차분한 느낌의 "Can't Even Be Bothered"도 꽤 좋은 트랙입니다. 또 "Subtitle" 같은 space rock필 나눈 슈게이징도 체크해볼 만한 트랙이구요.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끝을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몰라서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그러고 있는데요, 살라탄스의 오늘 얘기한 이 앨범이 이들의 초창기 맨체스터 사운드를 잘 나타내주면서 이들만의 개성이 듬뿍 담긴 앨범이라는 내용을 포인트로 해서 멋들어지게 끝맺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096846992>

Buckwild [Diggin' In The Crates – Rare Studio Masters: 1993–1997] (2007, Ground Floor)

Disc One

01. Channel Live featuring KRS-One – Mad Izm (Original Remix) 1995
02. Nas featuring AZ – Life's A Bitch (Remix #1) 1995
03. Artifacts featuring Busta Rhymes – C'mon Wit Da Git Down (Remix) 1994
04. Lord Finesse – Hip 2 Da Game (Remix) 1995
05. Brand Nubian – Wird Is Bond (Remix) 1994
06. Beastie Boys featuring Q-Tip – Get It Together (Remix) 1994
07. Jemini The Gifted One – Scars & Pain 1995
08. Ak Skills – Nights Of Fear 1996
09. Big L – MVP (Remix #1) 1995 (unreleased)
10. Funkdoobiest – Rock On (Remix) 1994
11. Ill Biskits – A Better Day 1995 (unreleased)
12. Grand Puba featuring Sadat X – I Like It (Remix) 1995
13. Reservoir Dogs – Back To Berth 1996
14. Kool Keith – Yo Black (Remix) 1995
15. F.A.T.A.L. Fountain – All About Wars 1997
16. O.C. – Burn Me Slow 1997
17. Little Indian featuring The Foreigner – One Little Indian (Remix) 1995
18. Chubb Rock – What A Year 1997 (unreleased)
19. Mike Zoot – Live & Stink 1996



Disc Two

01. Organized Konfusion – Bring It On (Remix) 1996
02. Show & AG – You Know Now (Remix) 1995
03. Bushwackas – Caught Up In The Game 1995
04. Guru featuring Bahamadia – Respect The Architect (Remix) 1995

05. Tha Alkaholiks – Daaam! (Remix) 1994
06. Street Smartz – Problemz 1996
07. Brand Nubian – Rockin' It 1997
08. Big L – MVP (Remix #2) 1995 (unreleased)
09. Black Sheep – North South East West (Remix) 1995 (unreleased)
10. Jemini The Gifted One – Story Of My Life 1995
11. Diamnd D featuring Sadat X & Lord Finesse – You Can't Front 1993
12. Nas featuring AZ – Life's A Bitch (Remix #2) 1995
13. Sadat X featuring Grand Puba & Lord Jamar – The Lump Lump (Nubian Remix) 1996
14. Special Ed – Lyrics (Remix) 1995
15. Channel Live – Mad Izm ('95 Remix) 1995
16. Lace Da Booms featuring Kwaze Modoe & Royal Flush – Cut That Weak Shit (Remix) 1996
17. O.C. – Love Child 1997 (unreleased)
18. Rakim – Guess Who's Back (Remix) 1997
19. Reservoir Dogs – The Difference 1996
20. Mystidious Misfitss – I Be (Remix) 1995

흑자는 말합니다.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그리고 '백와일드'라는 이름. 이 두 가지만으로 얘기는 다 끝난 거라고. 예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걸로 얘기는 끝입니다.

(라고 끝내버리면 "4분 33초" 만큼이나 전위적인 리뷰가 되버리겠죠?)

하지만 사실 더 이상의 수식어나 설명은 오히려 더욱 부산스럽고 촌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촌스럽게' 또 몇자 꼬적여봅시다. '백와일드'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힙합씬에서 진정한 '컬트적'인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은 편이

지만, 힙합 좀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종종 전설적인 인물로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의 음악을 들어보지는 않았더라도 오다가다 주워듣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의 음악을 여러번 들어봤거나 한번 빠져들어버리면 그를 '최고의 웨이버릿 프로듀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 적지 않으며 본토 힙합씬의 '초상'이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고 J Dilla의 "god of drums"에 빗대어) "god of hip hop"이라는 칭호도 하더군요. 그렇다면 Premo, Pete Rock, J Dilla와 견주었을 때 전혀 꿀리지 않는 실력과 독창적인 스타일을 가졌음에도 왜 그들만큼의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요 (실제로 각종 설문에서 '최고의 베스트 프로듀서 100' 뭐 이런 거 꼽으면 Buckwild는 그 명성에 비해 항상 하위권에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작업량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같은 D.I.T.C. 소속의 O.C.나 Big L의 데뷔 앨범에는 그가 메인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 두 앨범을 제외하고 '솔로 앨범'은 커녕 그가 '앨범 단위'로 프로듀스한 것들은 없다는 것이고 여타 엠씨들의 앨범에서도 상당히 '감질나게' 1-2곡 정도로만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D.I.T.C.의 유일한 셀프 타이틀 크루 앨범에서도 그는 달랑 한국만 프로듀싱했죠.) 근데 재미있는 건 저말고도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지만 그가 '감질나게 1-2곡' 프로듀싱한 곡들은 항상 그 앨범에서 가장 베스트 트랙들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지금 이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O.C.의 "Time's Up"이나 Big L의 "Put It On"을 사랑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는 사람은 미치지만 대다수의 힙합팬들에게는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예요.

그럼 도대체 그가 들려주는 사운드가 어떻길래 그런 걸까요? (아, 물론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벽와일드 스타일'이라는 건 90년대 중반 전후를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 역시 보다 다양한 스타일을 들려주죠.) 음.. 일단 가장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 '90년대 중반 동부 raw 간지의 극치'라고 표현해볼게요. 90년대 동부 raw? 그럼 Premo도 있고 Pete Rock도 있는데? 그리고 J Dilla와는 또 어떻게 다르지? 예예, 종종 비교되는 이들 세 프로듀서들과의 비교를 통해 좀더 그의 음악 스타일에 가까이 다가가봅시다. 우선 J Dilla는 상당히 정교하고 새침한 느낌이 들 정도로 여성적이지요. 조용조용히 내실을 다지는 듯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반면 DJ Premier는 아주 거센 파도 처럼 짹짹 나가는 스타일, 길거리에서 총쏘고 싸우고 질주하는 느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Pete Rock은? 그 누구보다도 '재즈'적인 샘플들을 많이 써서 꽤 이지적이고 차분하며 다소 현학적이기까지 하죠. 저녁에 퇴근해서 밤거리를 내려다보며 커피 한잔 마시는 인텔리적인 느낌이라까요? 자, 그럼 Buckwild는 어떤 스타일이나면요, 바로 '뉴욕의 뒷골목'입니다. 어두운 오피스 책상에 검은 모자를 눌러 쓰고 45도 각도로 노력하며 앉아 있는 조폭 간지라고 보면 됩니다. '양아치'가 아니라 '건달 aka 조폭'이에요. 그는 J Dilla 처럼 '비트의 운용'에는 큰 관심이 없어보이고 Pete Rock 처럼 '재즈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Premo 스타일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스네어의 질감이나 샘플의 운용 면에서 Premo에 비해 보다 '절제적'인 느낌이 더 들죠.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보자면, 벽와일드 비트에 있어 생명과 같은 요소는 바로 '베이스'입니다. 힙합 비트에서 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다들 잘 아시겠죠. 하지만 이 베이스가 하는 역할도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데요, J Dilla의 베이스가 먹먹하고 몽롱한 느낌을 이끌어낸다면 Diamond D의 베이스는 비트를 좀더 부드럽게 '유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Pete Rock의 베이스는 때때로 드럼을 능가하는 박자감을 살리는데 일조하죠. 그렇다면 Buckwild의 베이스는? 예, 바로 '비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의 비트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무겁다'는 느낌이 들죠. 권투 선수한테 잼을 퍽퍽 맞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의 비트만을 계속 듣다보면 머리가 어질어질 합니다. 바로 그 '무거움'을 만드는 것이 스네어와 베이스를 동시에 꽂아버리기 때문인데요, 이 요소들은 벽와일드 비트의 가장 큰 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샘플 면에서는 키보드나 피아노의 불협화음이나 비브라폰음을 주로 써서 (horn음을 주로 쓰는 Pete Rock과는 이점에서 또 다르죠) 상당히 어둡고 오컬트스러운 '불길한' 분위기를 자주 연출합니다. (O.C.의 "Time's Up" 보세요. 얼마나 불길합니까.)

이거 뭐 앨범 리뷰하랬더니 죄다 벽와일드 인물 자체에 대한 얘기로 거의 다 채워버렸네요. 얼른 리뷰합시다! 사실 위에 주저리주저리 쓴 내용들은 오늘 들고 나온 이 앨범이 얼마나 가치있는 앨범인지를 나타내주기 위한 거였죠. 앞서 언급했듯이 그의 비트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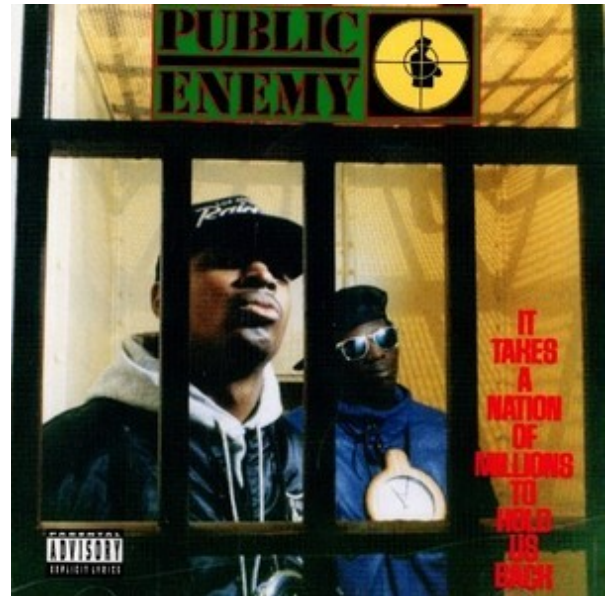
그 동안 우리는 상당히 감질나게 밖에 들을 수 있었고, 그가 '앨범 단위'로 들려줬던 음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본 앨범은 2005년에 그가 정말 유일하게 'Buckwild'라는 그의 이름을 걸고 발표한 두 장 짜리 씨디입니다. 여기 수록된 39곡의 곡들은, 그의 가장 전성기였던, 1993년부터 1997년 사이에 미발표곡들을 포함해 그가 프로듀스했거나 리믹스한 곡들을 직접 select해서 묶어놓은 겁니다. 그 내용물은 단순한 '힙합 컴필레이션' 이상의 아우라와 가치를 지니고 있죠. 일단 더 이상 감질나지 않게 두 장 짜리 씨디 뽀뽀히 진득하니 그의 비트들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행복하구요, 어느 하나 '구린' 곡 없이 39곡 전곡이 정말 거짓말 아니고 다 '쩍'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D.I.T.C. 아티스트들의 곡들이 상당 부분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D.I.T.C. 팬들에겐 이보다 큰 선물은 없겠다는 생각이구요, D.I.T.C.와는 뿔레야 뿔 수 없는 Grand Puba, Sadat X, 그리고 Lord Jamar의 목소리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한편 본 앨범의 또 다른 재미는 90년대 말 Rawkus가 대두되기 이전,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뉴욕 언더그라운드씬에 어떤 뮤지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소 지금은 생소한 이름들인 Channel Live, Jemini The Gifted One, Reservoir Dogs, F.A.T.A.L. Fountain, Mystidious Misfits, Special Ed, Lace Da Booms, Little Indian 등이 그렇습니다. 또 O.C.의 "Love Child"나 Chubb Rock의 "What A Year" 같은 가치있는 미발표곡들이 있다는 점도 흥미롭구요, 무엇보다 Ill Biskits의 "A Better Day" 같이, 힘들 때 들으면 진짜 심금을 울리게 만드는 가사가 담긴 멋진 곡들도 있습니다. 한편 Lord Finesse의 영원한 클래식 "Hip 2 Da Game"이나 Nas의 "Life's A Bitch" 같이 유명한 곡들을 어떻게 그만의 스타일로 리믹스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Life's A Bitch는 원곡의 아우라가 너무 커서 리믹스는 꽤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ㅋ)

휴우.. 글이 길어졌군요. 제가 벽와일드를 너무 좋아하다보니 글이 길어진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이 앨범.. 지금은 좀 구하기 어려워졌어요. 몇달 전만 해도 몇몇 국내 혹은 국외 온라인몰에서 보이긴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다 품절이더라구요. 하지만 Buckwild의 팬이라면 당연하고, D.I.T.C.의 팬들이나 90년대 중반 동부 힙합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들어봐야 할 명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광고하나 하자면, 얼마전 드디어 Celph Titled & Buckwild의 "Nineteen Ninety Now" 앨범이 발매가 됐죠. AOTP의 Celph Titled가, 벽와일드가 90년대 중반에 만들어냈으나 한번도 발표하지 않은 비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아 그 중에 맘에 드는 비트들을 골라서 만든 앨범입니다. 게다가 반가운 이름들인 A.G., Diamond D, O.C., Sadat X, Grand Puba가 같이 한 단체곡도 있네요. 얼른 주문합시다!

* 오리지널리 포스티드 온: <http://hiphopple.com/2188>

Public Enemy [It Takes A Nation Of Millions To Hold Us Back] (1988, Def Jam)

01. Countdown To Armageddon
02. Bring The Noise
03. Don't Believe The Hype
04. Cold Lampin' With Flavor
05. Terminator X To The Edge Of Panic
06. Mind Terrorist
07. Louder Than A Bomb
08. Caught, Can We Get A Witness?
09. Show 'Em Whatcha Got
10. She Watch Channel Zero?!
11. Night Of The Living Baseheads
12. Black Steel In The Hour Of Chaos
13. Security Of The First World
14. Rebel Without A Pause
15. Prophets Of Rage
16. Party For Your Right To Fight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을 좋아할 것이다. 그래 우리 다들 좋아했다. 왜냐면 영화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주의를 확 집중시키는, 무언가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며 한 곳으로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힙합을 좋아하는 당신이 이런 느낌을 단 한장의 힙합 앨범에서 찾고자 한다면, 주저없이 Public Enemy의 [It Takes A Nation Of Millions To Hold Us Back]을 추천한다. 그럼 시작해볼까?

세상은 너무 몽글몽글해졌다. 요즘 세상이 말이다. 옛날을 느껴본 old man으로서 낯두리를 해본다면 말이다. 그만큼 세상이 살기 편해져서 일까. 그만큼 모든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어서일까. 하지만 지금의 이 세상은 과거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나던 모든 부조리들이 '합리화'라는 메카닉을 거쳐 정제화되고 조직화되어 은닉된 세상이다. 속으로 꿈틀거리는 부조리한 생각들을 겉으로 표출하지 '않는' 세상일 뿐이다. 그게 다르다. 정말 분노가 없는가. 정말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가. 정말 타인들이 당신에게 관심이 많고 모든 세상은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슬프게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은 불평등하다.

그래, 일어나자.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왜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나. 어째서 우리는 차별을 받아야 하고 어째서 불합리한 대접을 받아야 하고 어째서 높은 나랏님께서 엘리베이터를 타시기 위해 이쪽으로 오시는 동안 아기를 업고 추운 날씨에 엘리베이터 탑승을 저지당해야 하냐 말이다.

자, 이제 다들 조금 준비가 됐나? 됐다면 이제 Public Enemy의 [It Takes A Nation Of Millions To Hold Us Back]을 들어보자.

나는 이 앨범에 담긴 선동적 메세지, 흑인 인권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앨범에 대한 다른 리뷰들이나 이들에 대한 다른 기사들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아마도 자세히 다뤘고 또 다루리라 본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이미 저 위에서 여러분들을 내가 약간 선동했기 때문에 당신의 수축기 혈압이 5 mmHg 이상 상승했다면 그 자체로 이 앨범에 담긴 메세지는 일단 공감을 한 거다. 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앨범의 '위대함'을 말하고 싶다.

일단 쉽게 말해 이 앨범은 '미쳤다.' 이들 역시 전작 [Yo! Bum Rush The Show]에 비해 '빠른 템포'의 곡들 위주로 앨범을 기획했다고 하듯이 이 앨범을 듣고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기가 불가능하다. 이 앨범만큼 청자의 교감 신경을 강렬하게 자극하는 힙합 앨범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앨범을 장악하고 있는 사운드는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다. 부디 이 앨범을 헤드폰을 착용하고 볼륨을 높인 다음 들어보길 바란다. 아니, 그럴 시간이 없다면 일단 <Rebel Without A Pause>와 <Night Of The Living Baseheads> 이 두 곡만이라도 꼭 그렇게 들어보길 권한다. 앨범 전체 프로덕션을 맡은 프로덕션 팀 The Bomb Squad의, 요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샘플 운용을 통해 환각적이고 귀를 자극하는, (혹자는 누가 옆에서 계속 유리창을 송곳으로 긁거나 계속 컵에 맴도는 모기 소리에 비유하기도 한다) noisy한 사운드이펙트들은 무척 괴롭지만 업템포의 흥기한 비트들과 맞물려 거부할 수 없는 바운스를 선사한다. 한편 디제이 Terminator X의 손은 또 어떤가. 이에 질세라 안그래도 사람 뿡가게 만드는, 싸이키델릭하게 반복해서 돌아가는 효과음이 너무 괴로운데 그것도 모자라 그 사이사이 사정 안봐주고 잔인하게 턴테이블 난도질을 한다. 자, 이제 상상이 가나? 이 앨범의 사운드가 얼마나 씨끄럽고 괴로운지를. (아, 물론 이건 즐거운 괴로움이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Flavor Flav은 듣는 이를 조롱하듯 야비한 톤으로 바람을 잡고 여기에 대마왕 Chuck D가 과격하고 선동적인 랩을 통해 청자의 귀를 푹푹 치듯이 난타를 가한다. 실제로 그들은 소음을 가져오자(<Bring The Noise>)고 하며 폭탄보다 시끄럽다(<Louder Than A Bomb>)고 말하고 있다. 자, 이 모든 요소들이 약속이나 한듯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앨범 한장에 컴팩트하게 집중해 버린다.

이들의 샘플 운용은 초창기 힙합, 아니 힙합의 원류를 그대로 보여준다. 힙합이라는 '음악'이 디제이 컬처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제 다들 잘 아는 사실이다. 온갖 고전 vinyl들의 소리들을 섞어 그 이런저런 복합된 소리들이 모여져 하나의 사운드를 형성한다는 팩트, 그것 말이다. 이 앨범을 들어보면 James Brown, The Bar-Kays, Queen, Run-DMC, Kurtis Blow, Kool & The Gang 등등 수많은 목소리들이 들린다. 그것들이 일정하게 배열돼 그 자체로 또 바운스를 만든다. 초창기 힙합 음악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식의 소리를 냈는지에 대해 궁금하다면 그 또한 이 앨범이 좋은 레퍼런스가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Chuck D의 가사에 대해 잠시 얘기를 해보자. 보통 그의 '메세지'에 너무 집중이 되다보니 근본적인 그의 'lyricism'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앨범에서 그는 단순과격식의 선동만을 하지는 않는다. 때로는 기발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때로는 요즘 들어도 절대 촌스럽지 않은 펀치라인들을 통해 메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절대 '어렵게' 가사를 쓰지 않는다는 것 또한 마음에 든다. 현학적인 표현이나 뜻을 알 수 없는 메타포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지만 그게 '뭐 이렇게 단순무식지랄이야'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청자의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게 만드는, 즉 공감할 수 있도록 가사를 쓴다는 거다. <Black Steel In The Hour Of Chaos>에서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과정을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하게 생생하게 재현한 스토리텔링을 보라.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가운데 총을 뽑아들 수밖에 없는 주인공의 심리를 청자로 하여금 무려 '감정이입'으로 은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전달한다는 거다. 이건 단순한 가사쓰기 능력이 아니다. 또 "They say that I sample, but they should sample this my bit bull 그들은 내가 샘플을 한대, 하지만 내 독한 성격이나 샘플해가라 그래" (<Caught, Can We Get A Witness?>)이나 "If you don't think I'm a brother then check the chromosomes 만약 내가 형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염색체를 확인해봐" (<Prophets Of Rage>) 같은 재기발랄한 펀치라인들 역시 간과해선 안될 요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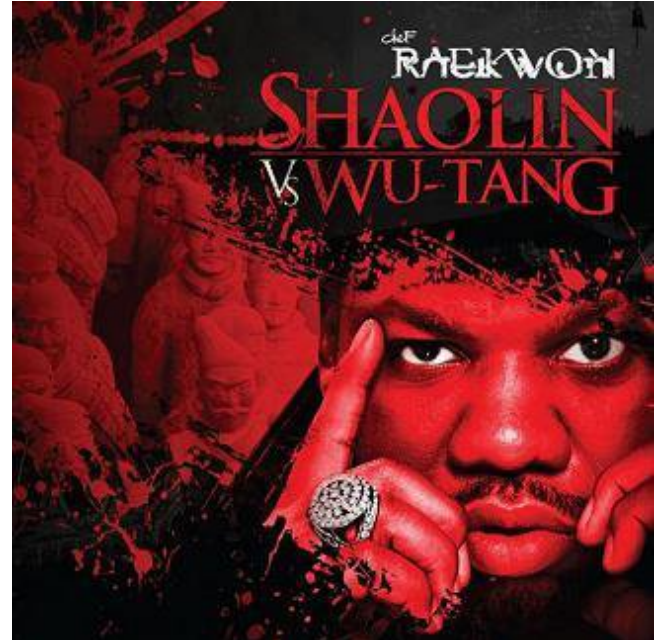
이렇듯 이 시각에서 봐도, 저 시각에서 봐도 이 앨범은 '완벽'하다. 혹자는 이 앨범을 통해 이들의 선동적이고 정치적인 메세지에 공감할 것이고, 혹자는 압도적인 비트와 사운드에 가볍게 몸을 맡길 것이다. 물론 둘다를 동시에 느낀다면 이 앨범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청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뭐 어떻게든 좋다. 시대가 바뀌고 강산이 바뀌어도, 이 앨범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깐.

"우릴 저지하려면 인구 수만명의 나라가 필요할 것이다."

* 가사해석에 도움을 주신 DanceD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www.hiphople.com/77156>

01. Shaolin Vs. Wu-Tang
02. Every Soldier In The Hood (featuring Method Man)
03. Silver Rings (featuring Ghostface Killah)
04. Chop Chop Ninja (featuring Inspectah Deck & Estelle)
05. Butter Knives
06. Snake Pond
07. Crane Style (featuring Busta Rhymes)
08. Rock 'N Roll (featuring Ghostface Killah, Jim Jones & Kobe)
09. Rich & Black (featuring Nas)
10. From The Hills (featuring Method Man & Raheem DeVaughn)
11. Last Trip To Scotland (featuring Lloyd Banks)
12. Ferry Boat Killaz
13. Dart School
14. Molasses (featuring Rick Ross & Ghostface Killah)
15. The Scroll
16. Masters Of Our Fate (featuring Black Thought)
17. Wu Chant (Outro)



Rating: ★★★★★

나는 Ghostface Killah의 [Fishscale]보다 [More Fish]를 더 좋아한다. (아. 이거 Raekwon 리뷰야!) 어? 아, 그렇구나. 그럼 다시.

이 앨범은 Raekwon의 5번째 스튜디오 앨범이다. 위에서도 보드시피 난 이 앨범에 만점을 줬다. 한마디로 아쉬운 게 없단 얘기다. 그리고 나는 이 앨범을,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전작 [Only Built 4 Cuban Linx... Pt. II (이하 OB4CL2)] 보다 더 좋게 들었다. 왜 그럴까? 왜...? Homogeneity라는 단어가 있다. '균질성'이라는 뜻. '클래식' 혹은 '명반'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난 이 '균질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곡들이 모여있어도 그게 너무 잡동사니식이거나 뭔가 통일감이 없으면 '섭섭'하다. 그러니까 하나의 concept를 놓고 (그게 메세지든 사운드든) 청자의 귀를 확 집중시키는 어떤 마력! 난 그걸 매우 사랑한다. 나는 tuniku이다. 허튼 소리 하지 않는다! 저기 위에 내가 Ghostface Killah의 [More Fish]를 더욱 좋아한다고 쓴 것도 나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 말한 거다. 완성도가 매우 높고 곡들의 퀄리티도 준수하지만 다양한 프로듀서들을 통해 다양한 사운드를 선물 세트식으로 넣었던 [Fishscale]이나 [OB4CL2]는 나에게는 다소 '쉽섵'했다.

이 앨범은 자켓에서도 벌써 느껴지듯이 Raekwon이 '작정'하고 만든 우탱 사운드다. 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컨셉' 앨범이라고 보는 것도 정신 건강에 좋을 듯 싶다. 내가 이 앨범을 한번 딱 돌리고 곧바로 든 생각은 '우와 이거 [Enter The Wu-Tang]보다 더 Wu-Tang스러운데'였다. 그러니까 Raekwon 입장에서 "야, 자꾸 니네 우탱우탱 타령하는데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 바로 이 태도로 만든 거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다. 밑줄 긋기 바란다. 이 앨범은 Raekwon이 '즐거듯이' 만든 앨범이다. 바로 여기에서! [OB4CL2]와의 차이가 또 나타난다. [OB4CL2]는 그의 음악적 커리어를 되살리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스트레스가 빚어낸 결과물이었다. 듣다보면 그런 게 느껴진다 막. 근데 이 앨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입지를 올린 Raekwon이 이 앨범을 만들면서는 아주 여유롭게 즐겨버렸다. 어떻게 야냐구? 듣다보면 느껴진다 막. 바로 이 점이 내가 이 앨범을 [OB4CL2]보다 높게 평가하는 두번째 이유다. (첫번째 이유는 뭐라고?)

여기서 나의 'AA 이론'이 또 나온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화든) 어떤 아티스트의, 그로 하여금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도록 만든 원동력이 된 개성을 A라고 정의하자. 그 아티스트가 차기 작품에서 만약에 B를 들고 나오면 대부분의 팬들은 실망을 한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리고 똑같은 A를 들고 나오면 반반으로 나뉜다. "역시!" 혹은 "식상해!" 둘 중 하나다. 그런데 만약에 그 아티스트가 A를 극대화시킨 AA를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긴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AA를 매우 환영한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앨범이 바로 Raekwon의 AA다. 나는 이 앨범에서 진짜 '대놓고' 표방하는 우탱 사운드를 '과거 영광 우려먹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과거의 느낌을 작가주의적 감수성을 통해 예술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린 결과물이라 생각한다. 그게 내가 이 앨범에 만점을 주게 된 두번째 이유다. (첫번째는 뭐였따구?)

이 앨범이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 것에는 역사적 배경도 물론 있다. 때를 거슬러 올라가 2007년에 발표된 Wu-Tang Clan의 다섯 번째 작품 [8 Diagrams]는 우탱스러움이 많이 거세된 사운드를 들려줬었고 RZA의 이런 앨범 기획에 Raekwon과 Ghostface Killah 등의 여타 멤버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의 의견을 통해 다음 Wu-Tang Clan의 앨범 타이틀은 [Shaolin Vs. Wu-Tang]으로 하자고 잠정적으로 결정하고 절대적인 우탱 사운드를 다시금 들려주기로 예정했었다고 한다. 근데 이 프로젝트가 시간이 흘러 흘러.. 어째저째해서 Wu-Tang Clan의 새 앨범이 아닌 Raekwon의 솔로 앨범으로 탈바꿈하게 됐다는 것.

이제 앨범을 들어보자. "칙! 찡! 퍽! 탁! 푹! 딱!" 그렇다. 그렇게 시작한다. 그리고 이 "칙찡퍽탁푹딱"은 앨범 전체에 걸쳐 등장한다. 이게 싫은가? 나는 좋다. 타이틀곡인 <Shaolin Vs. Wu-Tang>과 <Butter Knives>에선 곡이 진행되는 내내 등장하고 심지어 <Chop Chop Ninja>는 이것을 비트로 승화시켜버렸다. (아이디어 진짜 신선하다) 여하튼 오프닝곡 <Shaolin Vs. Wu-Tang>은 전작의 오프닝 킬링 트랙 <House Of Flying Daggers>에서 우리를 모두 처죽였던 "밀어붙이는" 사운드를 Scram Jones가 훌륭히 이어받았고 Raekwon 역시 그에 상응하듯 밀어붙이는 듯한 묵직한 플로우의 랩을 선보인다. 앨범이 전형적인 우탱 사운드를 표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Enter The Wu-Tang]에서처럼 업템포로 퍽퍽 수서대는 스타일이라기보단, 최근의 'bpm 느리게 하기' 트렌드에 맞춰 마치 전작의 <Surgical Gloves> 같은 곡에서 느껴지는, 비장하면서 조여드는 느낌의 raw하면서 세련된 비트들이 많다.

첫 네 곡에서 열심히 퍽퍽거리며 청자의 귀를 달아올려 놓고 나면 이어지는 <Snake Pond>와 <Crane Style>은 마치 싸움을 마친 장군님이 저택의 연못가에 앉아 청주를 마시며 연못 안에서 노니는 봉어들을 바라보는 듯한 이미지를 자아내는 laidback한 느낌의 동양적 샘플을 차용한 곡들이다. 바로 이런 점이 이 앨범이 '예술적'이라는 증거다. '우탱' 사운드를 사운드뿐만이 아닌, 어떤 '서사적 기법'으로까지 승화시켰다는 점 말이다. 특히 아프리카 리듬에 동양 피리 샘플을 하이브리드 시킨 <Crane Style>은 다시금 Scram Jones의 아이디어에 탄복하게 만든다. Scram Jones의 능력을 더 체크해보고 싶다면 <Last Trip To Scotland>에서의 비밥 재즈

의 기법을 차용한 베이스 플레이도 주목하자.

〈Rock 'N Roll〉이라는 곡에 대해 얘기하지 않을 수 없겠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Ghostface killah의 이번 신보에 수록됐던 〈In Tha Park〉는 미친 곡이었다. Raekwon이 Ghost에게 "야, 너만 미친 거 만드냐? 나도 할 수 있어."라고 하고 만든 곡이 바로 이 곡 〈Rock 'N Roll〉이다. 90년대에 한참 주가를 올렸던 록밴드들에 대한 존경을 담은 이 곡에서의 DJ Khaled의, 끝까지 단물을 흡입해서 쪽쪽 빨아들이는 듯한 성인 남성 취향의 묘한 효과음을 차용해 꽤 더티한 느낌을 줬는데 '우탕 사운드가 현재의 트렌드와 만나 어떤 진화를 할까'에 대한 답안을 제시하는 멋진 곡이라 할 수 있겠다. 단연 베스트 트랙이다. (근데 자꾸 들으면 좀 질리는 감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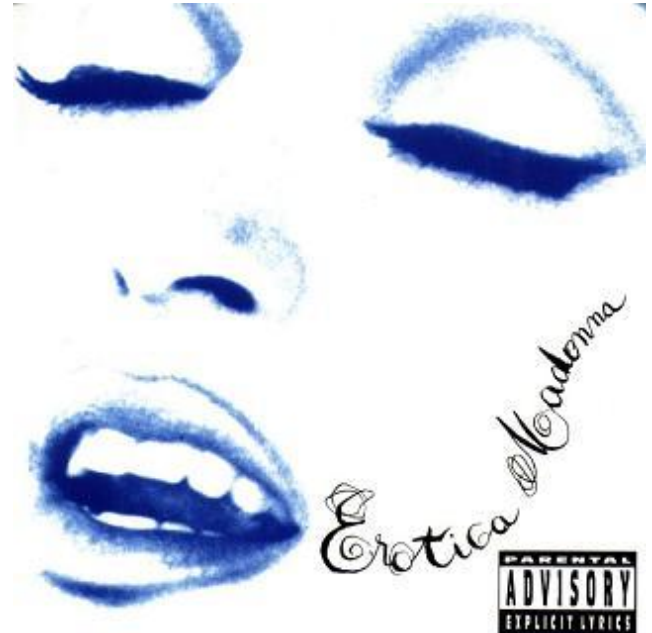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던 곡은 〈From The Hills〉였는데 그 이유는 프로듀서가 Kenny Dope여서다. Kenny Dope이 누군가. 힙합씬에서는 그의 이름이 덜 친근하지만 하우스씬으로 가면, 힙합으로 치자면 Pete Rock 정도로 친근한 이름이며 그 정도의 레전드급 위치다. Louie Vega와 함께 하우스 듀오 Masters At Work를 이끌고 있는 'king of house'인 그의 비트가 래퀼의 목소리와 어떻게 어울리나 무척 궁금했는데 아무래도 'Wu스러움'에 너무 부담을 가졌던지 이도저도 아닌 평이한 비트가 탄생해버렸다. 한편 1집의 〈Verbal Intercourse〉이후로 다시 한번 Nas와 주고 받는 멋진 lyrical play를 펼친 〈Rich & Black〉은 Nas의 목소리만으로도 너무 너무 반가운 트랙이지만 Sean C의 비트 역시 'Wu스러움'에 대한 부담 탓인지 다소 평이해져버린 단점이 있다. (하지만 Nas의 타이트한 랩으로 구제받는다.)

이제 그만 하자. 얘기가 너무 길어졌다. 정리하자. Raekwon의 커리어에서 [OB4CL2]의 역할은 무척 컸다. 거의 들보잡 수준으로 까지 전략할 뻔했던 그를 '주류' 혹은 '대세'까지는 아니어도, 작금의 힙합씬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로 끌어올려준, Kanye와 Justin으로 하여금 그를 소환하도록 만들게 된, 효자 앨범임에는 틀림없다. (아마도 나중에 그의 이력상에서도 본 앨범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입지를 굳히게 된 그가 가장 멋지게, 가장 자신있게 보여줄 수 있는 앨범을 당당하게 들고 나온 앨범이 바로 이 [Shaolin Vs. Wu-Tang]이라는 앨범이다.

끝으로, 한가지 우려는, 이제 Raekwon이 들려줄 수 있는 '우탕 사운드'는 여기까지다. 그는 여기서 어떤 '정점'을 찍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도, Raekwon 본인도 아마도 다시 치열한 고민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음.. 하지만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잘 해낼 거다. 현명하니까.

* Originally posted on: <http://www.hiphople.com/68353>

01. Erotica
02. Fever
03. Bye Bye Baby
04. Deeper And Deeper
05. Where Life Begins
06. Bad Girl
07. Waiting
08. Thief Of Hearts
09. Words
10. Rain
11. Why's It So Hard
12. In This Life
13. Did You Do It?
14. Secret Garden



변태. 웬 깡마른 남자가 반나체로 허를 널름거리면서 엉덩이를 흔든다고 생각해보라. 당신 앞에서. (저런 변태.) 그 그루브를 느껴 보라. (뭐?) 변태적 그루브를. (What?) 그게 90년대 초반에 미국 댄스뮤직씬의 대세였다. 내가 보기엔 말이다. 왜냐면 이 당시의 댄스뮤직,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당시의 메인스트림 댄스뮤직의 음악적 기반은 막 태동하기 시작한 '하우스'였는데 이 하우스 음악이라는 게 원래 상당히 '바빌론적 평등, homogeneity'에 그 사상적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 코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싫든 좋든 말이다. 그러다보니 이 초창기의 하우스와 맞물린 메인스트림 댄스 뮤직의 비트들은 죄다 너무 '흐느적'거렸다. 그 이유는 스네어를 길게 잡아 끄는 효과를 쫓기 때문. 그러다보니 이 음악을 지금에 와서 들어보면 죄다 '깡마른 남자가 반나체로 허를 널름거리면서 엉덩이를 흔드는' 느낌을 주게 된 거다. 이걸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앨범을 추천한다면? C+C Music Factory의 "Gonna Make You Sweat"과 난 주저없이 Madonna의 다섯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Erotica"를 꼽겠다. (존재말 안쓰니 이렇게 편한 걸 왜 내가 여태..)

지금까지 마돈나는 직접 밝혔 듯이 '같은 걸' 한번도 하지 않았다. 앨범마다 스타일을 바꿨다는 얘기. 물론 기본 베이스는 '댄스 팝'이다. 때론 록적이기도 했고 때론 알앤비스러웠다. 때론 테크노스러기도 했고 때론 힙합스러웠다. 자, 당신은 수많은 댄스뮤직 (혹자는 '일렉트로니카'라고도 부른다)의 하위 장르들 중에서 어떤 스타일을 가장 좋아하는가? 하우스? 나도 그렇다. 이 앨범 "Erotica"는 그녀의 적지않은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유일하게 대놓고 '하우스'를 표방한 음반이다. 물론 당연하게도 개인적으로는 그

녀의 앨범들 중 최고로 좋아하는 앨범이기도 하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 앨범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돈나'하면 떠오르는 어떤 정형화된 이미지를 자리매김해준 앨범이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 마돈나의 커리어는 이 앨범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당시 이 앨범이 가져다준 임팩트나 센세이션은 대단했다. 그녀가 집필한 책 "Sex"의 발간과 맞물려 발매된 이 앨범은 그렇게 'Sex'라는 키워드로, 그리고 오로지 그 빌어먹을 'Sex'라는 키워드로만 세인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이 앨범이 가진 '음악적 가치'는 상당부분 재평가 받질 못했다. Shep Pettibone이 아직까지 온전하게 댄스뮤직/하우스씬에서 그 이름을 떨치고 있지 못한 이유가 그런 걸까?

Shep Pettibone? 아 말 잘 꺼냈다. 물론 이 앨범은 마돈나가 직접 써내려간 노골적인 가사들과 이미지들로 대부분을 채우고 있다. 유난히 특유의 퇴폐적인 저음의 나레이션들이 많은 것도 한몫을 한다. 내가 이 앨범을 마돈나의 앨범들 중 가장 좋아한다고 하면 혹시 나를 변태로 볼지 모르겠다. 뭐 그렇게 봐도 좋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앨범이 품고 있는 '사운드'다. 오랜 파트너였던 Patrick Leonard 대신에 그녀가 이 앨범을 위해 작업한 파트너는 바로 Shep Pettibone이라는 인물이었고 그는 이 앨범에서 가공할만한 하우스 내공을 내뽐으며 앨범을 충분히 퇴폐적이고 변태적이고 호느적거리고 더럽게 만드는데 성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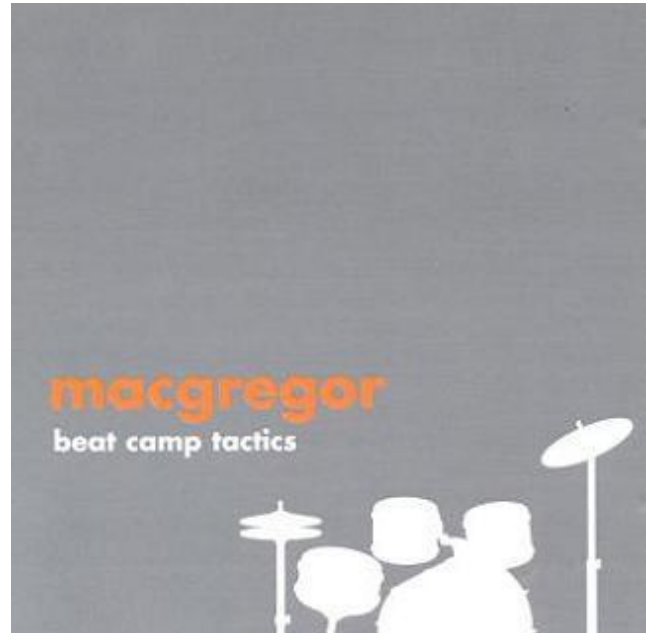
앨범을 플레이해보자. 지지직거리는 LP음을 시작으로 당신의 귓방망이를 후려치는, 느끼하고 퇴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한 브레이크비트가 등장한다. 바로 앨범의 타이틀곡인 "Erotica". 퇴폐의 끝을 보여주는 마돈나의 저음 나레이션과 랩인지 노랜지 애매한 보컬을 번갈아가며 꽤나 독특한 변태 그루브를 창출한다. 곧바로 "Fever", "Bye Bye Baby"로 이어지는 하우스 콤보를 지나고 나면 정말이지 역사상 최고의 하우스 트랙들 중 하나로 기록될 명곡 "Deeper And Deeper"가 등장하는데 이 곡에서의, 정말 '타이트함'이라는 낱말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는 Shep Pettibone의 명품 비트는 웬만한 하우스 트랙들에게 굴욕을 맛보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에 뒤질세라 "Waiting"과 "Words"로 계속 이어지는 '호느적 비트'들은 청자의 몸을 가만두지 않고 당장에라도 옷통 벗고 허를 널름거리며 엉덩이를 흔들고싶게 만든다. 옆에선 마돈나가 담배를 꼬나물고 뭐라뭐라 계속 읊조리고 있다. 헉헉..

자, 그리고 이 숨가쁜 변태 그루브 코스를 잘 견디고 나면, 수고했다는 듯이, "Rain"이 나온다. "Rain".. "I'll Remember"와 더불어 내가 생각하는 마돈나 최고의 발라드이며 마돈나가 여지껏 발표한 곡들 중 베스트 5 안에 꼽을 정도의 명곡이다. 나는 마돈나의 '저음'을 매우 사랑한다. 그런 그녀만의 독특한 저음 보컬의 매력이 잔뜩 담긴 곡으로 여지껏 숨가쁘게 몸을 흔든 당신이 정말로 옷통 벗고 뛰쳐나가려는 순간, 이 곡을 통해 당신의 심장을 calm down시키면서 노래 제목처럼 땀으로 흠뻑 젖은 당신의 옷통을 빗소리와 함께 wash away 해주는 앨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다.

어쩌면 난 이 시기의 마돈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다. 불론드 숏커트를 한 마돈나. 범접하기 어려운 퇴폐적 포스를 풍기던,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Rain"과 "I'll Remember"라는, 마돈나의 발라드곡들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저 두 곡을 들려주기도 했던, 바로 이 시기의 마돈나 말이다. 어떤 느낌이랄까. 정말 난잡하고 더럽지만 지위도 있고 품위도 있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 카리스마랄까? 그러면서도 가끔씩 심금을 울리는 발라드를 들려주기도 하는 그런 여성?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 쉬운 그런 여성? 그런 마돈나. 다시 보고 싶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103526616>

01. Battle Hog
02. Stealth Training
03. Chica
04. Light Dimmer
05. Kung Fu
06. Radio Interlude
07. Tank On Empty (Time To Push)
08. Time Killin
09. P Duck Answering Service
10. Puddle Duck
11. Herbal Synapse
12. Boogalunatics (Warmin Up)
13. Lost And Found
14. Cyph
15. Outro



막그레거라는 밴드는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라고 믿습시다만 저 역시도 뭐 이들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터넷을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이 분들 이름은.. 특히 라이브 힙합이나 재즈 힙합 등을 즐겨 찾아들이시는 리스너분들께는 익숙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밴드 Hocus Pocus와 더불어 이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밴드죠. 이들은 미국 워싱턴 DC 출신으로 멤버 구성은 보컬(랩), 기타, 베이스, 드럼의 전형적인 밴드 구성에 트럼펫, 테너 색소폰, 알토 색소폰 주자가 더해진 6인조 진용입니다. 딱 악기 편성만 봐도 느낌이 딱 오실 분들도 계실 듯하네요. 아 참, 전부 '백인'입니다.

씨엔블루의 정용화씨가 기타치면서 랩하는 거 보고 진짜 같잖다고 생각했는데 이들 역시 프론트맨이라고 할 수 있는 Wax가 라이브에서 보면 기타를 들고 랩을 합니다. 근데 기타를 한 손으로 치워 옆구리에 딱 끼고 마이크를 붙잡고 상당히 열정적으로 랩을 하시는데 은근히 락밴드-하드코어 간지가 나는 게 절대 같잖지 않고 괜찮아요. 잡소리 그만하고 이들의 사운드에 대해 잠시 쉴을 풀어봅시다. 오늘 들고 나온 이 앨범은 이들의 데뷔 앨범인데요, 이 앨범 하나로 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앨범에 수록된 곡들 하나하나의 퀄리티는 매우 '초강력'하답니다. 보통 우리가 '라이브 힙합 밴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루츠'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스타일의 '라이브 힙합 밴드'들은 '재즈 + 힙합'의 공식으로 "흔히들" 설명됩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하는 막그레거라는 밴드는 혼 색션을 두고 있긴 하지만 재즈적 접근이라기보다는 '힙크 + 힙합'이라고 공식화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크란 60-70년대 빈티지벨을 낸다는 게 아니고 "쭈징! 푹! 쭈징!" 튕겨주는 황키한 기타 워크가 리듬감을 주고 거기에 트럼펫-알토-테너로 이어지는 horn 삼합 멜로디가 뒤엉키면서 미치도록 댄서블한 연주를 들려준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컬 Wax의 랩이 곁들여집니다. 그러면서 여타 "라이브 힙합 밴드"들과의 차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혹시 311이라는 밴드 아세요? 아니, 모르신다면 Rage Against The Machine은 다들 아시겠죠. 이 311과 RATM의 음악은 모두 강력한 기타 그루브와 랩이 곁들여진 음악이죠. 이들의 음악이 인기를 얻었던 건 바로 그 특유의 '그루비한 하드코어함'이었는데요, 오늘 이 Macgregor라는 밴드의 음악은 쉽게 말해서 311이나 RATM 스타일의 '강렬한 하이톤의 랩'에다가 하드코어한 록연주 대신에 황크 연주를 곁들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신나요? 아니, 랩도 하이톤으로 막 짹짹 싸대지, 근데 거기다가 막 미칠 듯이 기타랑 혼이 버무려져서 댄서블한 황크 연주가 곁들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니다. 강렬한 랩을 들으면서 괜히 얼굴 찡그리고 손 이리저리 뻗으면서 "다 죽었어 일루와!" 막 이러면서 황키한 연주에 몸은 막 춤을 추고 있는 뭐 그런 언발란스한 느낌이랄까요? 오프닝 곡 "Battle Hog"부터 감이 딱 와서 오와 죽인다 그러지 마세요. 여기서 너무 흥분하면 "Light Dimmer"와 "Tank On Empty (Time To Push)"를 못견뎡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 줄줄 아세요? 없어요 그런거. 슬로우 다운? 없어요. 그래봤자 미드템포 작살 그루브입니다. 이 앨범, 정말 군더더기 하나 없는 알차고 짹한 그런 앨범이라니까요.

자 이 앨범 이후에 발표한 2집부터는 스타일이 확 바뀝니다. 아마도 여기서 1집에 열광했던 상당수의 청자들이 멀어지게 된 건 아닐까 의구심도 드는데요. (뭐 그랬는지 어쨌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인터넷 뒤져도 자료가 안나오니깐요.) 2집에서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흑인'적 느낌 싹 빼고 다소 평범해보이는 '얼터너티브 팝/록' 스타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앨범은 2집까지만 나오고 앨범 소식도 없고 자료도 없습니다. 해체된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대체 자료가 있어야지요.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103471601>

01. Purified Thoughts (featuring GZA & Killah Priest)
02. Superstar (featuring Busta Rhymes)
03. Black Tequila (featuring Cappadonna & Trife)
04. Drama (featuring Joell Ortiz & The Game)
05. 2getha Baby
06. Starkology
07. In Tha Park (featuring Black Thought)
08. How You Like Me Baby
09. Handcuffin' Them Hoes (featuring Jim Jones)
10. Street Bullies (featuring Sheek Louch, Wiggs & Sun God)
11. Ghetto (featuring Raekwon, Cappadonna & U-God)
12. Troublemakers (featuring Raekwon, Method Man & Redman)



"어? Chris Penn이 랩을 하네?" 엔터 더 우탱을 듣고났을 때 나를 가장 흥분케 한건 RZA의 비트도, ODB의 여흥구도 아니었고 크림도 아니고 에미티에초티매엔도 아니었다. 하이톤의 짹짹대는 랩을 하는 사람이 제일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이유는 영화 "저수지의 개들"에 나오는 나이스 가이 에디역을 맡은 크리스 펜이라는 배우의 목소리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크리스 펜은 손 펜의 동생으로서 약물 과용으로 사망했다. 조폭 간지 제대로 나던 배우였음) 그렇게 고스트페이스 킬라는 나에게 다가왔고 즉시 구입한 "Ironman"과 역시 나오자마자 구입한 "Supreme Clientele"을 듣고 오르가즘을 맛봤다. (여담이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톤을 굉장히 귀엽다고 생각한다.)

고스트페이스 킬라는 마초맨이다. 누가 의심하겠나? 길거리에서 약팔고 총싸움하면서 여자 많이 좋아한다. 딱 그 캐릭터. 근데 말이다. 고스트페이스 킬라를 좋아하는 팬들이 그에게 여전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그렇게 정형화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자들이 절대 식상하지 않게 느끼도록 한다는 거다. 어떻게? 내놓는 앨범마다 자신의 고유의, 그가 아니면 보일 수 없는 특유의 '곤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프로듀서들을 그때그때 기용했다 바꿨다 하며 앨범의 색깔을 살짝살짝 다르게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사운드면에서나 이미지면에서나 100% 퓨어 언더그라운드와 완전 메인스트림 불링블링이 동시에 가능한, MF DOOM과 Sean C. & LV 라인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엠씨는 흔치 않다.

예를 드는 차원에서 잠깐 복습해 볼까? "Ironman"과 "Supreme Clientele"은 RZA가 주도한 우탱 사운드였다. 하지만 "The Pretty Toney Album"을 거치며 우탱 사운드를 벗어나 메인스트림과 언더그라운드가 공존하는 다양성을 보여줬고 Fish 시리즈에 와서 완전한 언더그라운드의 면모를 비쳤다. (물론 "Back Like That"이라는 훌륭한 팝송도 포함하면서 말이다.) 또 "Ghostdini: Wizard Of Poetry In Emerald City"에선 뚜렷한 R&B 컨셉을 선보이며 그가 계속해서 탈바꿈을 하며 새로움에 목말라있는 '아티스트'라는 걸 증명해 보여온 거다.

이제 그의 통산 아홉번째 스튜디오 앨범인 "Apollo Kids"를 들어보자. 항상 그의 앨범이 그랬듯이 이번에도 역시 처음 세곡에서 조지면서 들어간다. 다만, 이전의 그가 '야 다 덤비면 다 죽인다'식으로 문을 열었다면 이번엔 개념 엠씨들인 GZA와 Killah Priest를 초빙해 자조적이고 철학적인 메시지를 담은 "Purified Thoughts"로 시작한다. '오.. 고펀킬 성숙했네' 이런 느낌을 가질 것이라 본다. 이번 앨범의 전체적인 색깔? 내지는 컨셉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빈티지 소울뿔'을 제대로 내고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그동안 고스트페이스 킬라의 앨범들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색깔을 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아, 물론 '소울 샘플'에 대한 그의 애정은 이전작들에서도 자주 비춰졌지만 이렇게 앨범 통째로 '빈티지 소울 국물'을 제대로 우려낸 작품은 없었다는 말이다.

그 국물을 우려낸 메인 셰프는 캐나다 출신의 Frank Dukes라는 프로듀서다. 이번 앨범을 듣다보면 아주 노골적으로 옛소울 보컬 샘플을 통째로 따와서 떡하니 코러스에 위치시킨 다음 엠씨들의 랩과 주고받기 식으로 짜여진 곡들이 아주 많다. ("Purified Thoughts", "Superstar", "2getha Baby", "In Tha Park", "Ghetto") 이 다섯 곡 중 두 곡을 만든 사람이 Frank Dukes인데 그 스타일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비트감 있는 Madlib' 이라고 할까? "아니 그 동안 소울 샘플 얹은 곡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호들갑이야?" 그럴지 모른다. 아, 하지만 다르다. 마치 '빈티지 종결자' Madlib의 방법론처럼, 올드 레코드에서 그대로 따온 것같은, 그 매끄럽지 못한 질감의 드럼과 소울 샘플이 노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Frank Dukes는 그 방법론을 살리면서 맛깔나는 드럼 비트를 덧입혀 청자의 귀를 엔조이하게 만든다. ("Black Tequila"가 내가 지금 말한 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다.)

앨범의 베스트 트랙은 단연 "In Tha Park"다. 최고다. 어떻게 이런 곡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역시 Frank Dukes의 곡으로 올드한 느낌의 소울 보컬에 사이키델릭한 기타 샘플, 거기에 상승감 있는 드럼을 입혀 상당히 하드코어하면서도 동시에 소울풀한 멋진 곡이 나왔다. 노다웃 Black Thought와 배틀식으로 한 벌스식 나눠가진 형태인데 80년대 힙합 태동기의 추억을 담은 가사 또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풍긴다. 또한 업템포의 웅기한 드럼에 역시 노골적인 소울 보컬을 코러스로 잡은 "Superstar"도 상당히 좋고, 이에 이어지는 "Black Tequila"도 뷰티풀하다. Scram Jones의 raw하면서 minimal한 느낌의 독특한 비트가 매력적인 "Starkology"는 '랩 퍼도 발성 연습을 해야 하나?'라는 논제에 대한 토론을 유발할 법한, 초창기 시절과 비교해 전혀 녹슬지 않은 고스트페이스 킬라의 랩이 장난 없는 멋진 곡으로 아니 도대체 "Poisonous Darts"를 부르는 고펀킬하고 "Starkology"를 부르는 고펀킬하고 목소리톤이 뭐가 달라! 하는 감탄을 자아낸다.

한편 Sean C. & LV의 살짝 laidback한 비트에 Joell Ortiz와 The Game이 참여해 삶의 개같은 단상에 대해 말해주는 "Drama"는 빈티지 샘플과 파워 드럼으로 조지는 곡들 사이에서 완급 조절을 해주는 좋은 곡이다. Pete Rock이 프로듀스한 "How You Like Me Baby"는 처음 들을 땐 '피트 락 지난번 OB4CL2에서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의 반응을 이끌어낼 법한 경박해보이는 스네어 소리에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반복해서 들으니 드럼을 압도하는 육중한 베이스가 은근 맘에 들어 이 역시 'Pete Rock 변태 과도기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하지만 스타일 바꾼 고펀킬의 랩은 병맛이다. 앨범의 끝에 자리 잡은 "Troublemakers"는 약간 보너스 트랙적인 느낌이 강한데 Jake One이 프로듀스한 곡으로 Raekwon, Method Man, Redman이 참여해 '전형적인 우탱 사운드'를 선보인다. 앨범 전체의 색깔과는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는 곡으로 내 생각엔 "Wu Massacre" 앨범에 원래 실릴 예정이었던 곡은 아닌가 싶기도.

요약 정리. 이번 앨범은 외국 매체에선 '우탱 사운드로의 귀환'이라고 광고를 하는데 내 생각엔 그건 절대 아니올시다. 지난 앨범에서처럼 Tone Starks 형이 또 한번 '빈티지 소울'이라는 특정 화두를 놓고 앨범의 색깔을 잡은 유니크한 앨범이다. 러닝 타임이 약간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뚜렷한 컨셉과 색깔을 담고 있고 몸을 가만있지 못하게 하는 킬링 트랙들이 다수 포진돼 있으며 여전히 녹슬지 않은 그의 랩이 활개를 치는, "Another Fuckin Beautiful Ghostface Killah Shit"이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www.hiphople.com/53943>

Disc 1 – Ruff Draft & bonus tracks

01. Intro
02. Let's Take It Back
03. Reckless Driving
04. Nothing Like This
05. The \$
06. Interlude
07. Make'em NV
08. Interlude
09. Crushin' (Yeeeeeah!)
10. Shouts
11. Intro (Alt)
12. Wild
13. Take Notice (featuring Guilty Simpson)
14. Shouts (Alt)



Disc 2 – Ruff Draft Instrumentals

01. Let's Take It Back – Instrumental
02. Reckless Driving – Instrumental
03. Nothing Like This – Instrumental
04. The \$ – Instrumental
05. Make'em NV – Instrumental
06. Crushin' – Instrumental
07. Intro (Alt) – Instrumental
08. Wild – Instrumental
09. Take Notice – Instrumental
10. Shouts (Alt) – Instrumental

사이렌 소리 뽀이이이이이~잉~ Yo! Turn it up! (공감?)

예 그래요. 맞아요. 다시 Dilla 시즌이죠. 오늘은 2월 10일. J Dilla의 5주기입니다. 작년에는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Donuts" 앨범 리뷰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무거운 마음보다는 그냥 가볍게 또 한 장의 Dilla 앨범을 들어보면서 잠시나마 고인에 대한 애기를 또 해볼까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젊어서 세상을 떠난 어떤 다른 아티스트들이 많으려겠습니까만은 J Dilla는 확실히 더더욱 우리에게 들려줄 음악이 많은 분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아까운 죽음이었고 힙합씬 전체를 통틀어 너무나도 큰 손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유난히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의 능력과 잠재력에 비해 너무도 적은 결과물만을 남긴채 떠났다는 것 말입니다.

사실 J Dilla를 좋아한다고 말하기는 두렵습니다. 왜냐면 비트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많은 이들이 Dilla의 팬이라 말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이유를 꼭 집어 얘기하는 경우는 흔히 못봤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Dilla의 음악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 말로서 설명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뭐 여러가지 측면이 있을 거예요. 비트를 다룰 줄 아는 뮤지션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그의 음악과, 저같은 일반 청자로서 느끼는 그의 음악 등등 말이죠. 하도 궁금해서 제 동갑내기 친구인 Kanye West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Dilla 음악이 어떤 면에서 뛰어난지 말이죠. Kanye 왈, "저런 샘플에 저런 비트가 쉬울 것 같애? 아무리 해도 저렇게 안돼! 아니 못해 저렇게! 너 근데 지난번부터 왜 자꾸 이상하게 음악을 분석하려고 들어 근데? 끊어 바빠!" 쯤. 예 뭐.. 그렇다 네요. 역시 꼭 집어서 얘기는 안해주는.. 괜히 물어봤다가 혼만 났습니다.

작년에 "Donuts"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면서도 언급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십' 내지는 '뮤지션십'이라고 생각해요. 음악을 만들면서 대하는 어떤 진지함, 내지는 장인정신이랄까요? 그의 손길이 닿은 비트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가 흔한 정박을 사용하는 비트메이커가 아니고 상당히 변칙적인 플레이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제된 안정감' 같은 게 느껴집니다.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인 사람이 미인이라는데 마찬가지로 그의 비트를 들으면 어떤 완벽한 대칭성 같은 게 느껴진다고요? 대충대충 물 길어서 발효시킨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몇날 며칠 정수시킨 물에 장인의 손길이 닿은 정갈한 재료를 사용해 만든 막걸리같은 느낌? 그러니까 얼마나 세련됐냐면 드림이 있어야될 자리에 여백을 뒀서 그 자체로 더욱더 강력한 바운스를 일으키는 거죠. 생전에 "때로는 부는 것보다 불지 않는 게 낫다"는 명언을 남긴 Miles Davis의 사상을 그대로 힙합으로 재현했다고 할 수 있겠죠. (여담이지만 Miles의 이 논리는 물론 당연히 Thelonious Monk에게서 얻은 것입니다만)뭐 저는 Dilla의 비트를 들을 때마다 이런 느낌을 갖고는 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세련되고 무척이나 소울풀하면서 때론 실험적이고 적당한 정도의 바운스와 대중성을 겸비한 비트. 그것. 말이죠.

"Ruff Draft"는 잘 아시다시피 2002년에 vinyl EP 형태로 발매된 음반입니다. 원래 MCA사를 통해 다른 프로듀서들의 비트를 받아 Dilla 자신은 순수하게 랩만 한 앨범 "Pay Jay"의 발매가 미뤄지면서 그가 열받아서 자체적으로 인디 레이블을 통해 제작한 앨범이죠. 당시 절판되었다가 2007년에 Stones Throw의 사장 뭉콩버터늑대씨가 몇곡의 보너스 트랙과 instrumental cd를 덧붙여 2cd 형태로 재발매했습니다. 저는 물론 Dilla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 "Donuts"를 가장 좋아합니다만 그 다음으로 아끼는 앨범이 바로 이 "Ruff Draft"예요. 왜냐면 이 앨범은 "Donuts"와 더불어 가장 그의 '혼'이 깊게 묻어난 느낌, 그러니까 어떤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하지 않은채 순수하게 Dilla 자신의 손때만 묻어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또 하나, 이 앨범은 그의 디스코그래피에서 유일하게 별다른 게스트 없이 전곡 프로듀싱에 직접 랩을 한 진정한 의미의 "힙합 솔로 앨범"이라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할께. 이건 my real niggas만을 위한 거야. 진짜 live shi이이지. muhfucking cassette에서 바로 뽑아온 그런 음악들이야!"

앨범의 인트로에서 진중하고 확고하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다소 격앙되어 있습니다. 저 한마디가 이 앨범의 성격을 규정

하고 있죠. 예, 이 앨범은 또한 그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거친' 앨범입니다. 그 거칠다는 것이 '하드코어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마치 요새 흔히 말하는 '믹스테이프' 내지는 '스트릿 앨범'과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정말 그가 하고 싶은 대로, 스튜디오 안에서 찍어낸 '라이브 음악' 같다는 겁니다. raw하다는 거죠. 앨범 제목처럼 rough한 느낌. 이 앨범의 수록곡들을 듣고 있으면 어떤 풍경이 연상되나면, 마치 그 왜 양손으로 키보드를 두들기면서 마이크대에 얼굴만 갖다대고 노래부르는 가수 있죠, 그런 풍경. 즉 모자를 눌러쓰고 양손으로 MPC를 연주하면서 마이크에 얼굴만 대고 랩을 하는 Dilla의 모습. 그런 게 연상된다는 거죠. 예, 이걸 '연주'입니다.

Dilla의 진중한 나레이션이 끝나면 시타르음인지 나일론 기타인지 뭔지 묘한 이국적인 스트링이 울리면서 언제 비트가 나올지 청자의 신경을 무척이나 건드립니다. 아.. 이제 그만.. 제발.. 이런 느낌이 들 때 갑자기 폭탄 심지가 타들어가는 듯한, 귀끝에 불을 붙이는 듯한 날카로운 스네어음이 쏘독거리며 귀를 희롱하는 "Let's Take It Back"이 시작되죠. 이윽고 "Reckless Driving"부터 제가 말씀드린 그 MPC 연주, 루프를 걸어놓고 열심히, 마치 재즈 베이스주자의 손놀림처럼 바쁘게 몽환적인 사운드 이펙트를 두들기는 그의 손길에 곁들여져 타이탄한 랩으로 청자를 이끌니다. (J Dilla 랩 되게 잘하죠. 살짝 엇박을 타는 밀고 당기는 식의 플로우를 느껴보세요.) 이런 raw한 live 스타일의 분위기는 "The \$"에서의 노이즈한 효과음을 통해 더더욱 고조되며 초강력 엇박 헤비스네어에 비브라폰음이 등장하는 "Make'em NV"과 필시 그가 직접 드럼 연주를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괴이한 트랙 "Wild"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다가 아니죠. "Nothing Like This"는 힙합이라기보단 experimental한 인디록을 듣는 듯한 느낌을 주는 드럼과 Thurston Moore가 연상되는 noisy한 기타에 에코 이펙트를 먹인 Dilla의 보컬이 곁들여진 멋진 곡입니다. 자, 그러구요, Dilla는 드럼이 없이 비트를 찍습니다. 엉? 드럼 없이 어떻게 비트가 되냐구요? "Crushin' (Yeeeeeah!)"를 들어보시면 아세요. 신음소리, 기타, 베이스 이 샘플들만 가지고 화학반응을 시켜서 아주 관능적인 그루브를 만들어 냈습니다. 들어보세요. '드럼 없는 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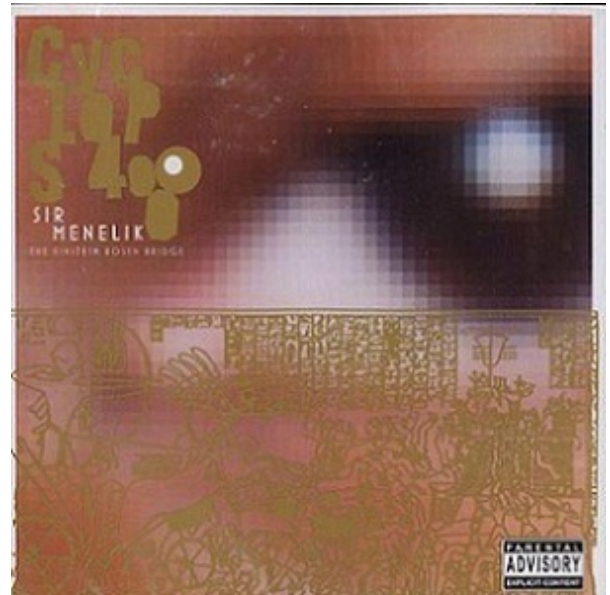
재차 말씀드리지만 "Ruff Draft"라는 앨범을 저의 '솔로 커리어'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앨범이라고 생각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Welcome 2 Detroit"는 디트로이트 지인들과 함께한 실험작이자 소품집같은 성격이 있었죠. "Donuts"는 유작이면서 그의 독특한 '프로젝트 앨범'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The Shining"은 사후작품이면서 게스트들이 주로 랩을 한 전형적인 프로듀서 앨범이었죠. 자, 이 "Ruff Draft"가 발매되던 시기의 Dilla는 Common의 "Electric Circus" 앨범을 프로듀스하고 Madlib과 Jaylib 프로젝트를 이끌던, 그의 이력상 가장 creative한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자체적으로 제작한 언더그라운드 앨범. 그것도 혼자서 전곡 프로듀싱에 랩까지 한, 진정한 의미의 '솔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편 천국에서는 올해 J Dilla의 열번째 앨범 발매를 앞두고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옆에 Proof가 보이네요.

R.I.P. James Dewitt Yancey (1974-2006)

* Originally posted on: <http://www.hiphople.com/47538>

01. Bionic Oldsmobile (featuring Kool Keith & Black Silver The Navigator)
02. Crown Of The 12 Stars
03. Cyclops 4000
04. Terminator Of Criticism
05. Gametime
06. Let's Build For A Sec....
07. Macroscopic Prod
08. Next Phase (featuring Kool Keith & DLS)
09. Nightwork
10. Physical Jewels
11. Physical Jewels (Rmx)
12. Physical Jewels (Thugg Rmx)
13. So Intelligent (Rmx) (featuring Kool Keith)
14. So Intelligent (featuring Kool Keith)
15. Space Cadillac (featuring Kool Keith)
16. Terrorworks



90년대 말에 미국 언더그라운드 힙합이 국내 힙합팬들에게 가장 큰 화두로 떠올랐어요. 그 이유는 Rawkus하고 Bay Area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Rawkus에서 나왔던 Soundbombing이나 Lyricist Lounge 같은 컴필레이션을 통해 국내에서도 힙합좀 듣는다 하는 놈들은 Mos Def이나 Pharoahe Monch 듣고는 맘흔리고 웃통까겠다고 난리난다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바로 이 분위기에서 당시 누구 못지 않게 주목을 받은 엠씨 두 명이 있었는데 이 두 엠씨들은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때'만' 주목을 잠깐 받았고 아시다시피 Rawkus에서 앨범을 못내주고 뿔뿔히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웃긴 게요, 전 남들이 다 Mos Def, Talib Kweli, Reflection Eternal 좋다고 난리칠 때 혼자서만 이 두 엠씨들이 짱이라고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그 두 엠씨들이 누구냐구요? 바로 Shabaam Sahdeeq aka S-Dub과 오늘 얘기하는 Sir Menelik aka Cyclops 4000입니다.

Shabaam Sahdeeq은 이후에 발표한 데뷔 앨범이 꽤나 실망적이어서 다시 재기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지(or 걸리고있지)만 Sir Menelik aka Cyclops 4000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아요. 이 분은 꽤 이력이 깊거든요. 이 분이 누굽니까. 전설적인 엠씨(지만 줄라 깨작깨작거리는) Kool Keith와 환상의 복식조를 이루며 Dr. Octagon 프로젝트의 흥을 이루었으며 DJ Spooky 앨범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보여왔던 분입니다. 근데 아주 이상하리만치 Sir Menelik-Kool Keith-Godfather Don으로 이어지는 뉴욕 언더그라운드의 한 축은 국내에서 유난히도 인지도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D.I.T.C.와 Wu-tang과 동시에 작업이 가능한 분들은 이분들밖에 없을 텐데도 말이죠. 옛날에 모커뮤니티 게시판에 "Sir Menelik 신보 나오네요!" 했다가 무플은 당연하고 조회수 0에서 1로

바뀌기까지 2시간 걸리더군요. 암튼 Sir Menelik은 그런 분이구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Scaramanga라는 예명으로 정규작과 믹스 테잎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들고 나온 앨범은 Rawkus에서 내주기로 했다가 사장됐다가 뒤늦게 발표한, Sir Menelik이라는 이름을 걸고 나온 그의 유일한 솔로 앨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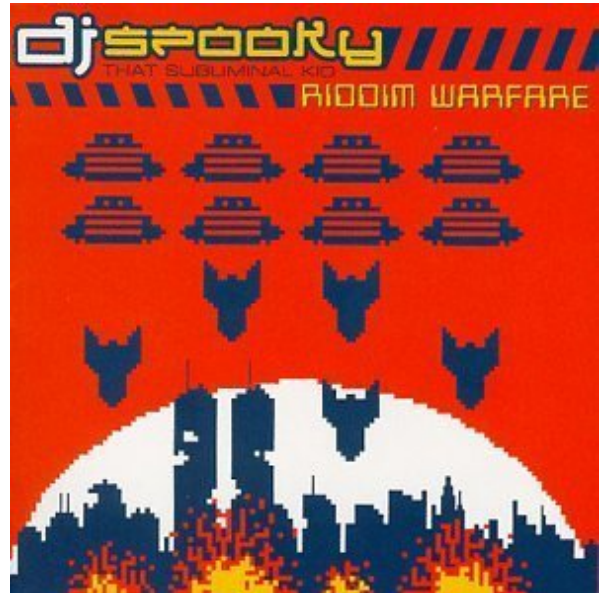
잠깐 그의 랩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목소리톤 자체는 마치 Raekwon과 AZ를 합쳐놓은 듯 꽤 매력적이고 듣기 좋습니다. 하지만 스타일은 절대 친근하지 않죠. 국내 엠씨 Pento가 아마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될 정도로 따발총 스타일로 다음절 라임을 사정없이 박아대며 알 수 없는 물리학-공학-의학 용어들을 나열하는 식입니다. 어떨때 보면 이 분 랩하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Ei-Producto가 순해보일 정도니까요. 물론 90년대 초중반에 발표했던 싱글들이나 Rawkus 컴필 참여 당시, 혹은 Scaramanga 앨범 때는 그나마 유순한 플로우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정작 Sir Menelik으로서의 본 앨범에서 그가 들려주는 랩은 이게 랩인지 그냥 나레이션인지 poetry slamming인지 그냥 말하는 건지 구분이 안되게 변칙적입니다.

그런 변칙적인 그의 랩들을 받쳐주는 프로덕션은 사실 이 앨범의 성격을 가장 크게 나타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꼭 짚어서 표현해보자면 "힙합의 익스페리멘탈리즘이 대중과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익스페리멘탈이면 익스페리멘탈이지 왜 대중이냐고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적인 사운드지만 곳곳에 순한 비트들이 엮여져서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는 게 한가지 이유구요, 전위적인 비트 내에서도 바운스와 그루브가 느껴진다는 게 또 다른 이유예요. 이 앨범에서 가장 '순한' 프로듀싱을 들려주는 이들은 DJ Spinna와 Ei-P인데요, 응? 잠깐잠깐 Ei-P가 순하다고요? 예, 적어도 이 앨범의 다른 프로듀서들 - Pimping Rex, Crown Of Brahma, Kasz, 그리고 Sir Menelik 자신 - 에 비하면 말입니다. Pimping Rex가 프로듀싱한 첫 세곡들은 온갖 기묘하게 뒤틀린 베이스 샘플과 느린 비트, 그리고 distorted, twisted 보컬이 난무하는 아방가르드라고 할 수 있으며 Crown Of Brahma라는 분이 프로듀싱한 "Terminator Of Criticism"이 얼마나 멋진 곡이냐하면 드럼앤베이스 비트를 세지 않게 걸어놓고 스네어 위치에 초강력한 베이스를 덧붙여서 드럼앤베이스와 힙합의 그루브감을 동시에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스타일은 Squarepusher와 DJ Premier가 콜라보를 해도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사건입니다. 이 앨범에서 가장 인상깊고 재미있는 비트를 들려주는 이는 Kasz라는 분인데요, 이 분이 프로듀싱한 "Macroscopic Prod"(앨범내 베스트 트랙!)와 "Physical Jewels (Rmx)"는 모두 기묘한 기타 샘플을 살짝 통통 튼는 개죽음의 스네어 바운스와 결합시켜 힙합곡인데도 고개를 까딱거리다못해 헤드뱅잉 수준까지 유발합니다. 이렇듯 워낙 초강력한 트랙들이 장악하고 있다보니 Ei-P가 프로듀싱한 "Gametime", "Nightwork"나 DJ Spinna가 프로듀싱한 "Let's Build For A Sec....", "Terrorworks" 같은 트랙들은 다소 평이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한편 앨범의 후반부에는 90년대 중후반에 그가 발표했던 대표적인 3대 싱글들 - Physical Jewels-So Intelligent-Space Cadillac - 과 그 리믹스들을 실어놓았는데요, Kool Keith의 깨작거리는 목소리가 좀 거슬려서 그렇지 (그래도 Dr. Octagon은 좋게 들음) 뭐 팬의 입장에서 반갑습니다. 한 가지 이해안되는 것은 Sir Menelik이 직접 프로듀스한 곡들은 완전 텅빈 허공에 오로지 스네어'만' 갖다 붙여서 이게 무슨 '손뼉' 치며 랩하는 건지 뭔지 분위기를 만든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뭐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간략하게 앨범에 대해 얘길 해봤네요. 최근 Godfather Don의 황금기 시절 앨범이 리이슈됐는데 거기에도 Sir Menelik의 휘쳐링이 있어서 보고 되게 반가웠어요. 여전히 활발하게 앨범 발표를 하고 있는 Kool Keith와는 달리, 오늘 얘기한 이 앨범 이후로는 좀처럼 앨범이나 싱글 발표는 커녕 휘쳐링조차 소식이 없어서 팬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혹시 은퇴해버린 건 아닌지 좀 걱정스럽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새 음악을 가지고 다시금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www.hiphople.com/44458>

01. Pandemonium
02. Synchronic Disjecta
03. Object Unknown
04. It's Nice Not To Lose Your Mind
05. Dialectical Transformation I (A Parallax View)
06. Post-Human Sophistry
07. Quilombo Ex Optico
08. Rekonstruction
09. Scientifik
10. A Conversation
11. Peace In Zaire
12. Dialectical Transformation II (Du Nouveau Monde)
13. Degree Zero
14. Roman Planetaire
15. Bass Digitalis
16. Polyphony Of One
17. Riddim Warfare
18. The Nerd
19. Dialectical Transformation III (Soylent Green)
20. Theme Of The Drunken Sailor
21. Twilight Fugue



덱(Dub)에 많은 부분을 빚지고 있습니다. 비단 DJ Spooky 뿐 아니라 오늘날 '흔드는 음악'을 하는 상당수의 뮤지션들도 그럴 거구요. Illbient, Ill + Ambient를 합성해서 만든 용어인데 그 의미는 ill한 ambient라는 겁니다. ambient에서 느껴지는 이미지처럼 뭔가 웅~하면서 감성적이면서 동시에 차가운 전자음, 그런데 거기 ill (ya'll know illmatic by nas.)이라는 의미가 붙어 뭔가 약간 '힙합 간지'가 붙는다는 뭐 대충 그런 의미로 넘어갑시다. 어쨌든 뭐 이렇든 저렇든 Dub이 많은 영향을 준 음악이라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DJ Spooky의 공식 두번째 스튜디오 앨범입니다. Akira로 대표되는 일본 아방-미래-컬트 애니메 분위기 아시죠. 텅빈 공항에 모노톤의 기계적인 여자 안내 목소리만 울리는 빈 공간에 갑자기 쥘이이이의 그러면서 굉음이 울리고 폭발이 일어나고 세상이 멸망하고.. 그런 분위기. 영국의 앰비언트 테크노 듀오 FSOL이 앨범 "Dead Cities"에서 울궂먹은 그 분위기. Spooky도 그 분위기 참 좋

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에 힙합 비트를 섞어보니 우리는 이를 Spooky 스타일의 illbien라고 불렀습니다. 데뷔작 "Songs Of A Dead Dreamer"가 illbien를 정의한, 다소 미니멀한 접근을 한 작품이라면 이 앨범에서는 완전한 '맥시멀리즘'을 보여주네요.

엠비언트 테크노를 비롯한 IDM 계열 및 드럼 앤 베이스, 언더그라운드 힙합, 일렉트로-재즈, 인디-노이즈락 등등을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앨범은 정말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앨범입니다. "내가 그거 다 보여주께" 이 앨범에서 Spooky는 자신있게 말하고 있죠. "너 진짜 자꾸 그럴꺼야! 빨리 일어나 밥먹어!"라고 엉덩이를 짹 때리며 재촉하는 듯한 신경질적인 초강력 하드-드럼 앤 베이스 "Polyphony Of One"을 들어보세요. 얼른 일어나 밥먹고 싶어집니다. "Post-Human Sophistry"의 드럼앤베이스도 뭐 이에 뒤지지는 않습니다만. 이에 질새라 "Riddim Warfare"에서는 아예 드럼앤베이스 비트에다 '힙합' 엠씨 Kool Keith를 소환해다가 랩을 시켜버리네요. 이 사정 안봐주는 비트에 랩하느라 고생했을 Kool Keith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한편 Spooky는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가지고 여러 creative한 아티스트들과 콜라보하는 걸 즐기죠. (윌리엄 파커나 매튜 쉽 같은 후리아방재즈 계열부터 무려 Slayer의 드러머 Dave Lombardo까지.) 제 생각에 이 앨범은 Spooky의 수많은 디스코그래피들 중 가장 '힙합'적인 냄새를 많이 풍기는 앨범입니다. 앨범의 상당수의 트랙들에서 뉴욕 언더그라운드 엠씨들이 랩을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탱 클랜을 좋아하신다구요? 그렇다면 동양적인 현악 (such as 거문고)과 피리 소리를 대대적으로 차용한 다운템포 트랙 "Degree Zero"에서의 Killah Priest의 목소리가 반갑겠네요. 당신이 뉴욕 언더힙합 좀 들으셨다구요? 그럼 "Rekonstruction"에서의 Prince Po와 Pharoahe Monch의 랩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아~만! 이 앨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엠씨들은 바로 Kool Keith와 Sir Menelik입니다. 이 두 분이 뭐하는 분들이나구요? 뉴욕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요새 제일 못나가는 분들입니다. (한 때는 최고였지요.) 우리에게겐 Dr. Octagon 프로젝트와 Rawkus 컴필레이션 등으로 알려진 분들이죠. 개인적으로 Sir Menelik은 가장 좋아하는 힙합 뮤지션 베스트5에 들 정도인 사람이라서 제가 이 앨범을 더 아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암튼 이 앨범에서 이 콤비의 활약상은 대단합니다. "Scientifik"에서는 신경질적으로 두들기는 Spooky의 다소 panic하고 obsessive한 비트에 Sir Menelik의 특유의! 정말 특유의 '그냥 말하는 것 같은' 속사포랩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앨범 내 가장 대중적인 트랙이자 싱글 컷트되기도 했던 "Object Unknown"을 과연 거부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몸을 방방 뜨게 만드는 횡간한 업템포 브레이크비트에 Kool Keith와 Sir Menelik이 올드스쿨 스타일의 말놀음랩을 주고 받는데 제 생각엔 이런 곡이 진짜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힙합입니다. (곡이 너무 대중적이라 Spooky, 변절하다. 뭐 이런 평은 없었나 두렵습니다.)

한편 Spooky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프로덕션만으로 성에 안찼는지 세션들을 기용합니다. "Quilombo Ex Optico"라는 곡을 주목합니다. 월드뮤직? (예 이 표현 맘에 안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달리 뭐 어떻게..)을 연상시키는, 드럼과 퍼커션이 한대 어우러진 폴리리듬에 앨범 전체의 테마에 부합하는 '세계 멸망 사운드'가 어우러집니다. 게다가 중간중간 기타줄에 유리로 박박 긁는 듯한 전위적인 사운드도 가미해서 곡 자체가 아예 즉흥 후리로 가버리죠. 또 "A Conversation"에서는 DJ Ambassador Jr.를 소환, 턴테이블과 믹서를 가지고 둘이서 improvising을 하네요. 참 기가 막히게 씨끄럽고 noisy합니다. 전 무슨 기계 뿌쉬지는 줄 알았어요. "Roman Planetaire"라는 곡에서는 드디어 당신이 듣고 싶었던 재즈가 나옵니다. 앗싸, 베이스와 드럼이 그럴싸한 스윙 리듬을 만드는데 마치 David Lynch 영화 주인공들이 여기에 맞춰서 스윙 댄스라도 춰야 할 것 같은데요. 어두컴컴한 방에서 습기찬 빨간 커튼을 치고 말이죠.

앨범이 종반부에 다다르면 또 하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바로 바로 Thurston Moore입니다. "Dialectical Transformation III (Soylent Green)"에서는 이 위대한 익스페리멘탈 기타리스트가 노이즈 잔뜩 먹인 fuzzy한 기타로 Spooky의 dirty한 비트 위를 도배하며 청자를 다시금 강간하네요. 여기까지가 '마지막 지랄'입니다. 그러고나면 이제 슬슬 앨범 문단을 준비를 하면서 "Theme Of The Drunken Sailor"에서는 곡명에서도 느껴지듯이 한가로운 바다를 향해하는 듯한 차분하고 친근한 덩 리듬에 일렉트로 재즈 트럼펫 Ben Neill의 아른한 뮤트 트럼펫 연주가 곁들여지고 마지막곡 "Twilight Fugue"에서 일본의 전위 아티스트 Mariko Mori의

몽환적인 보컬이 Spooky의 Ambience와 어울리며 앨범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뭐야 이게! 무슨 잡탕밥이냐! 그래서 이건 어떤 앨범인데!" 그러실지도 모르겠네요. 아아, 잠시만요. 곡들에 담긴 여러개의 element들을 좀 풀어서 말하다보니 앨범이 막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뒤죽박죽인 것 같이 보였는데요. 아네요. 그런 여러 개의 요소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적절한 위치에 잘 배치시켰다는 것 뿐이지 앨범 전체를 지배하는 건 당연히 Spooky가 주도하는 그의 '세계 멸망 프로덕션'입니다. 그렇다고 비관적이고 암울한 사운드가 아니고.. 아 거참, 들어보시면 아실텐데 말로 쓸려니까. 그러니까, 그 왜 아.. 거 참. 그러니까 당신이 어린 아이인데 텅빈 공항 활주로에 서있어요. 근데 멀리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다가 팡하고 폭발해요. 그리고 옆 건물이 일제히 폭발하면서 세계는 어둠으로 바뀌죠. 그런 세기말적이고 황량한 분위기를 Spooky가 주도하고 여기에 게스트들의 힘을 빌어 양념을 쳐 버무린 작품이 오늘 소개한 "Riddim Warfare"라는 앨범이었습니다.

* Originally posted on: <http://blog.naver.com/blogmiller/110101295845>

01. Children's Work
02. Poor Atlas
03. The Crow
04. Dixon's Girl
05. Mineshaft II
06. The Chaconne
07. Matches To Paper Dolls
08. Go Home
09. Seamstress
10. Dutch
11. The Bullpen
12. Momento Mori
13. Crew
14. Alibi
15. Into The Spin



형, 요새 너무 다 비슷비슷한 힙합만 들어서 지겨운데 뭐 좀 신선한 힙합 없어요? 어 난 너가 그런 질문을 할 줄 알았어. 그래서 며칠전 이 앨범을 들으면서 너한테 이 앨범 애길 해줄려고 했지. 웃. 그래요? 어떤 앨범이죠? 응, Dessa라는 여자 가수의 "A Badly Broken Code"라는 제목의 앨범이야. 이 앨범은 그녀의 공식 데뷔 앨범이기도 해. 자, 이제 질문하지말고 내 얘기 들어봐 알았지? 적어도 동물라면을 샀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7마리의 동물들이 개의 다시마로 변해버렸다는 이야기 보다는 너의 흥미를 좀더 끌 거 라고 확신해. 이 Dessa라는 여자 가수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Doomtree라는 언더힙합 크루에 대해 알아야 할거야. 둠트리느 크 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디 레이블이기도 한데, 미국 미네아폴리스를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강력한 DIY 정신을 바탕으로 결성되었다고 해. 이 크루의 멤버들을 잠깐 소개해볼까?

P.O.S. (MC, producer)
 Sims (MC)
 Dessa (MC, writer)
 Paper Tiger (producer, DJ)
 Cecil Otter (MC, producer)
 Lazerbeak (producer)



그리고 현재는 탈퇴했지만 MK Larada라는 producing DJ도 있었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앨범 작업도 열심히 하는데 Doomtree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스튜디오 앨범, EP, 믹스테이프도 있지만 멤버들 개개인 마다 두장 이상씩 EP나 스튜디오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어. 다 모으려면 돈좀 깨지겠지? 자 그럼 이제 술술 수사망을 좁혀가볼께. Doomtree 애길 하려는 게 아니니깐. 얼마전에 내가 아는 어떤 블로거가 Doomtree면 "Drumsticks"라는 곡 발표한 사람들 아니냐고 알려주더라. 그래서 난 얼른 유튜브에서 그 곡 뮤직비디오를 봤어. 멤버들이 시원하게 자전거를 타는 뮤비였지. 근데 이들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라이브 footage 같은 걸 봐도 청중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받는 멤버가 하나있어. 유튜브엔 "I love that girl"식의 댓글들이 많이 달렸지. 늘씬한 몸매에 제법 호감 어린 얼굴을 한, 왠지 '언더힙합'의 이미지와는 조금 벗어난 듯한 홍일점 멤버. 바로 오늘 얘기하는 Dessa야.

"예! 저는 그룹내 비주얼을 담당하는 데싸예요!" 물론 맞는 얘기야.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크루 내에서 훨씬 더 큰데, 일단은 마치 전성기 시절의 Alanis Morissette를 연상시키는 외모부터 확 튀는 느낌이 있지만 심지어는 음악 스타일도 '힙합 엠씨'라기 보단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할 듯한 스타일이지. 아아, 물론 그녀는 엠씨이기도 해. 그리고 랩도 아주 잘해. 하지만 그 감수성 이랄까.. 가사나 스테이지 매너 등에서 느껴지는 모습들은 무척 유니크하지. 이런 모습들은 비교적 '언더 힙합 애티튜드'에 충실한 듯한 크루내 다른 남성 멤버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요소인 것 같아. Mike Mictlan처럼 완전 하드코어 스타일의 랩퍼도 이 크루 내에 있

다는 걸 보면 참 재미있는 집단이지 않아? 아무튼 그런 그녀의 독특한 이미지와 존재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잘 특징지어주는 건 바로 '가사'야. 실제로 그녀는 음악 뿐 아니라 작가로도 활동을 하는데 "Spiral Bound"라는 제목의 시와 에세이를 담은 책을 출간하기도 했지. 너 혹시 시 좋아하니? (아뇨) 시를 읽어보면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 (예) 나도 그래. 근데 그런 시라도 여러번을 마음에 느끼면서 읽어보면 대충 그 시인이 무슨 소리를 하려는 줄은 알게 되지. 그녀의 가사도 마찬가지야. 아주 단순한,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과 이별 같은 소재를 얘기하면서도 은근한 메타포를 통해서 굉장히 세련되게 구사하지. 절대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그리고 메타포만으로 꽉 채우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상황들을 단편적인 풍경이나 대화의 일부분 만을 톡톡 던지듯이 나열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걸 우리가 살면서 느낀 경험이나 힘들었던 기억 등을 대입시켜 가사를 음미해보면 뭔가 확 복받치기도 해. 결국 이렇게 수정해보자. "예! 저는 그룹내 리릭을 담당하는 데싸예요!"



그녀의 음악 스타일이 '싱어송라이터' 이미지라고 했어. 하지만 엄연히 그녀는 '언더그라운드 엠씨'야. 단지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지. 그녀는 요새 많은 엠씨들이 그렇듯이 랩도 하지만 노래도 굉장히 소울풀하게 잘해. 이 앨범에는 "The Chaconne"나 "Go Home" 같이 노래만 하는 곡도 있는데 그렇다보니 곡 분위기는 마치 Portishead 같은 느낌 있지 왜.. 영향을 받았을 거야 분명. 넌 가장 좋아하는 엠씨가 누구야? (에미넴이요) 왜? (랩 존나 잘하잖아요.) 그럼 에미넴이 어떻게 랩할 때가 제일 멋있어? (아.. 그.. 막 왜 비트를 살짝 무시하듯이 리듬을 깔아뭉개면서 달리듯이 막 꾸겨넣듯이 랩할 때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 앨범 수록곡 "Mineshaft II"나 "Seamstress"를 들어봐. 이 Dessa라는 분 랩 솜씨가 예사가 아니란 걸 느낄 거다. 좀 전에 이 분이 노래도 한다고 했는데 이 분 랩 스타일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게 랩을 하면서 아주 살짝 살짝 발성을 길게 늘리면서 비브라토를 섞는다는 건데 난 여태까지 이렇게 랩하는 엠씨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흥내내기도 되게 힘들 것 같애. 아주 특별하지. 하지만 그녀의 랩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그 살짝 신경질적인 '톤'이야. 그 웬지 내면에 감춘 불만과 독기를 시적인 가사로 절제하면서 수동적으로, 마치 이를 악물고 내뿜는 듯한 그 랩톤이 정말 윗따야.

사운드 애길 잠깐 해볼까? 프로듀싱은 당연히게도 Doomtree 소속의 프로듀서들이 도맡았는데 사운드 역시 아주 신선해. 뭐랄까.. '미적'인 느낌이 많이 든다고 할까? 그러니까 시적인 가사들을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한다는 느낌 말이야. 어쿠스틱한

기타음이나 현악 반주음 등을 샘플로 써서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내주는데 이게 힙합 비트와 겹들여져서 살짝 다운템포/트립합적인 느낌도 많이 들어. 시종일관 귀를 자극하는 기타음에 후반부 바이올린 연주까지 등장하는 "Mineshaft II"나 웬지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느낌의 건반음이 출렁거리는 "The Chaconne"는 이 앨범의 색깔을 대표하는 곡들이라 할 수 있지. 게다가 "Matches To Paper Dolls"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올린음이 신경을 건드리는데 마치 바로크 시대의 극장에 초대된 느낌까지 드니 말다했지. 예전에 Mono라는 트립합 밴드의 "Life In Mono"라는 곡이 대히트를 친 적이 있었거든? 그 곡이 왜 그렇게 인기를 끌었냐면 마치 슬픈 유럽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시키는 아련한 느낌 때문이었는데 그 심상이 너무 좋았다면 이 앨범에 실린 "Alibi"라는 곡도 분명 좋아할 거라 믿어. 그런가하면 지금은 탈퇴한 멤버인 MK Larada가 프로듀스한 "Dixon's Girl"은 "타이틀곡"인데 마치 뉴올리언즈 재즈가 울리는 금주법 시대의 한 클럽에 초대된 느낌을 받을 거야. 그리고 "Seamstress"는 절박한 느낌의 재즈 드럼 터치가 돋보이는 곡이지. (형, 이런 것도 좋은데.. 그래도 힙합이잖아요. 뭐 화끈한 힙합곡은 없어요?) 그럴 줄 알고 내가 소개를 안한 곡이 하나 있지. 바로 Lazerbeak이 프로듀스한 "The Crow"를 들어봐. Raekwon의 "House Of Flying Daggers"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너의 귀를 확실하게 조져줄테니 말야.

자 뭐 이렇게 대충 앨범 하나를 소개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됐니? 뭐 궁금한 거 있음 물어봐. (형, 근데 이 Doomtree라는 크루가 미국에서 인지도가 얼마나 높아요?) 어, 좋은 질문이야. 돔트리가 어느 정도냐면 말이야, 이번에 Eminem하고 Jay-Z도 그들의 공연에서 Doomtree 핸드싸인을 하면서 이 크루를 홍보해 줬다고 해. 여기 인증샷 봐봐. 어때, 대단하지?



* Originally posted on: <http://hiphople.com/reviews/38702>

01. News Report
 02. Innercity Crisis (featuring Young Chris & Freeway)
 03. Put Your Weave (Sweatin Out Weaves) (featuring Wale)
 04. Dianna (featuring Wale & Colin Munroe)
 05. I Love It
 06. 100Men (featuring Bun B & Peeps)
 07. Wassaname
 08. Let It Loose Go Go Remix (featuring Lloyd)
 09. Party Party Party
 10. Pockets In My Headphones
 11. "For Those That Didn't Know Who's Song This Is, Now U Know"
- (Sexy Lady) (Bonus Track)



고고뮤직(Go-Go music)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게 잘 알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용어인데요 우리한테는 70년대 청년들의 밤 문화를 지배하던 '클럽 뮤직'으로 대부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고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고고70"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나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고고 음악이라는 건 60년대 뉴욕의 Whiskey A Go-Go라는 클럽 이름에서 따왔다고 하는, 당시의 청년문화를 지배하던 록큰롤-클럽음악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 같습니다. CCR이나 Tom Jones 등의 흥겨운 록큰롤 음악들.. 지금 듣자면 흔히 '구닥다리'라는 오명을 쓸 수도 있을 법한 음악들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장르'로서의 고고뮤직은 이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역시 기원은 60년대인데요 미국 워싱턴 DC를 근거로 발전한, 아니 단순히 본거지라고 하기보단 "워싱턴 DC의 지역색이 만들어낸 음악"이라고 할 정도로 국지화가 된 음악으로 흑인음악(!)의 한 서브 장르라고 하네요. Chuck Brown이라는 분이 이 장르의 효시자로 불리워지고 있죠.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등의 매체에서 검색해보면 워싱턴 DC의 다운타운에 삼삼오오 모여 흥겹게 퍼커션과 드럼통을 두들기는 무리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워싱턴 DC에서만 볼 수 있다는 현지의 '고고 문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 음악은 우리처럼 힙합을 위주로 듣는 청자들에게 낯설기만 했죠. 하지만 최근에 우리같은 힙합 청자들에게 이 고고 뮤직을 소개하고 퍼뜨리고자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다들 잘 아시는 Wale입니다. 워싱턴 DC 출신이죠. Wale는 데뷔 앨범 발매

전에 믹스테이프 수록곡들인 "Dig Dug"이나 "Breakdown" 등에서 노골적으로 고고비트를 수용했고 데뷔작 수록곡인 "Pretty Girls"에서도 마찬가지로 고고의 요소가 느껴지는 음악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Wale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한 The Roots의 싱글 "Rising Up"도 대대적으로 고고비트를 차용한 곡이죠.

저도 Wale를 통해서 고고뮤직을 알게 됐지만 이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면 (funk의 하위장르라고는 하나) 우리가 흔히 듣는 funk/soul 계열의 음악보다는 그 박자면에서 확실히 '힙합'과 통하는 부분이 많은 장르임에는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 자체가 랩하기 딱 좋은 브레이크비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고비트를 특징화하는 것은 '폴리리듬'이라는 겁니다. 마치 아프리카인 뮤직처럼, 스틱을 들고 "투구두타가다 투구두타가다" 드럼통을 두들기는 듯한 바로 그 리듬. 이게 고고뮤직의 가장 큰 특성이죠. 한번 들어보면 잊혀지지 않는 비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이 길었는데 오늘 소개하는 앨범은 지난 12월 21일, 발매된지 얼마안된, UCB라는 밴드의 공식 데뷔 믹스테이프입니다. UCB가 누구냐구요? 예, 바로 워싱턴 DC 출신의 고고밴드인데 Wale의 stage-tour band로 더 잘 알려져 있죠. 밴드구성은 정확히 나와있는 자료가 없지만 아마도 자체적으로 랩퍼를 두고 있는 듯 하며 드러머, 퍼커셔니스트, 기타, 그리고 혼주자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Wale의 팬인지라 이 믹스테이프 발매 소식을 듣고 큰 관심을 가진 앨범인데요, 굉장히 멋진 음악이 담겨져 있음에도 다소 묻힌 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해봅니다. 일단 다소 낯설기도 하고 잊혀져간 장르이기도 한 '고고뮤직'을 전면적으로 들고 씬에 데뷔한 밴드라는 점에서도 상당히 유니크하면서 예상대로 네 곡에서 랩을 한 Wale의 참여와 Young Chris, Freeway, Bun B, Lloyd 등과 같은 스타급 엠씨들의 지원 사격을 통해 꽤 맛깔스런 퀄리티를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앨범의 특징은 전통적인 고고 비트를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서도 현재의 트렌드를 적당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고고의 아버지인 Chuck Brown의 음악과 같이 트레이디셔널한 소울 보컬보다는 대신에 엠씨들의 랩과 어반풍의 여성 보컬을 곁들여 현재의 흑인음악 리스너들의 구미에 맞도록 퓨전된 형태의 음악을 들려준다는 겁니다. 앨범의 문을 여는 "Innecity Crisis"부터 (Wale의 믹스테이프 "Back To The Feature"에 수록되기도 했던) "Sweatin Out Weaves"로 이어지는 앨범의 초반부가 힙합팬들의 환영을 받은 만한 트랙들이라면 "Dianna"(개인적 베스트 트랙인데 도입부 여성 보컬 멜로디가 임정희의 "Music Is My Life" 후렴부 보컬 멜로디와 똑같네요)와 George Michael의 영원한 명곡 "Careless Whisper"의 섹스 소리와 코러스 부분을 기막히게 샘플링한 "100Men", 그리고 록적인 기타음이 가미된 "I Love It"이나 트렌디한 전자음을 수용한 "Wassaname" 등의 트랙들은 고고비트의 폴리리듬과 어울려 게스트 여성 보컬들이 달콤한 노래를 들려주기 때문에 알앤비팬들의 마음을 녹일 만한 것들입니다. Wale의 데뷔 앨범 수록곡 (Neptunes 원곡 프로듀싱의) "Let It Loose"를 고고 스타일로 재해석한 "Let It Loose Go Go Remix"에서는 원곡의 Pharrell 대신 Lloyd가 특유의 여성스런 감미로운 보컬과 랩을 들려줍니다. 물론 Wale의 랩도 함께요. (전 이 곡에서의 이런 베이스라인 너무 좋습니다.) 한편 이런 '게스트빨' 말고 UCB라는 밴드의 제대로된 음악을 느껴보고 싶다면 앨범의 마지막 세 곡을 추천합니다. 그야말로 신나는 고고비트의 잼향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죠.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악 '고고뮤직'이 궁금하시다거나 Wale의 팬이시라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흑인음악을 사랑하는 청자들이라면 분명히 이 믹스테이프도 좋아할 거라는 확신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얼른 다운받으러 가시죠. ^^

* Originally posted on: <http://hiphopple.com/reviews/31235>

this is what tunikut wrote for you guys!

블로그 Tunikut's Cultural Paradise <http://blog.daum.net/tunikut>

저자 tunikut

발행일 2011.12.10 19:05:59

 블로그